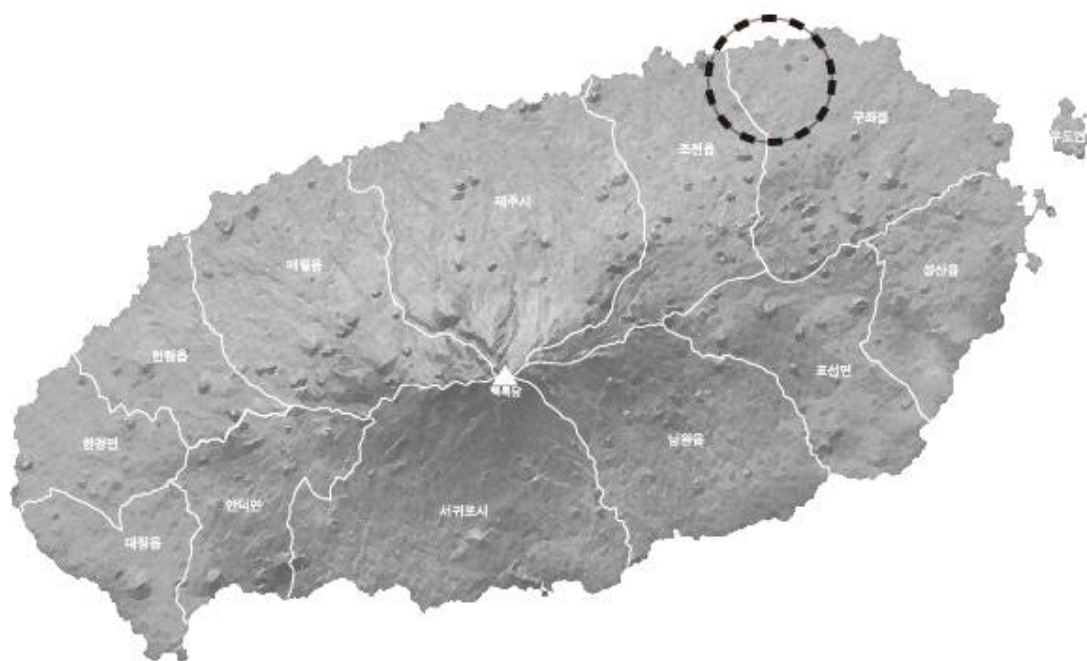


79-6500000-000299-01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보향  
조사지점 구좌읍 한동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5

## 목 차

###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9

### 제2장 구좌읍 한동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	10
2.2. 조사 기간 .....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0
2.4. 전사 .....	12
2.5. 장비 .....	12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3	2. 제보자 일생 .....	20
3. 밭일 .....	31	4. 들일 .....	96
5. 바다일 .....	112	6. 의생활 .....	124
7. 식생활 .....	140	8. 주생활 .....	182
9. 신앙 .....	208	10. 세시풍속 .....	211
11. 놀이 .....	229	12. 통과례 .....	248
13. 민간요법 .....	260		

#### 제2절 어휘

1. 인체 .....	280	2. 육아 .....	286
3. 친족 .....	293	4. 의복 .....	297
5. 음식 .....	302	6. 가옥 .....	311
7. 생업 .....	316	8. 수와 단위 .....	329
9. 민속 .....	332	10. 신앙 .....	334
11. 자연 .....	335	12. 동물 .....	343
13. 식물 .....	353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억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구좌읍 한동리 조사 내용

### 2.1. 제보자

오문봉(남, 1932년생)

오태봉(여, 1926년생)

허정순(여, 1931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오문봉	00:24:25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오문봉	00:39:58	○
3. 밭일	구술 3-1. 보리 농사	오문봉	00:31:55	○
	구술 3-2. 조 농사	오문봉	00:24:41	○
	구술 3-3. 콩, 밭벼	오문봉	00:25:21	○
	구술 3-4. 고구마, 기타	오문봉	00:22:05	○
	구술 3-5. 기타 농사	오문봉	00:12:34	○
	구술 3-6. 농사 도구	오문봉	00:19:11	○
4. 들일	구술 4. 들일	오문봉	00:38:11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오문봉	00:25:11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허정순	00:30:30	○
	구술 6. 의생활	오태봉	00:22:42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오태봉	00:06:12	○
	구술 7. 식생활 2	오태봉	00:29:06	○
	구술 7. 식생활 3	오문봉	00:57:31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1	오문봉	00:21:54	○
	구술 8. 주생활 2	오문봉	00:20:41	○
	구술 8. 주생활 3	오문봉	00:09:34	○
9. 신앙	구술 9. 신앙	오문봉	00:47:42	○
10. 세시풍속	10. 세시풍속			
11. 놀이	구술 11. 놀이	오문봉	00:39:43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출생, 결혼)	허정순	00:24:15	○
	구술 12. 통과례 1	오문봉	00:32:12	×
	구술 12. 통과례 2	오문봉	00:48:38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오문봉	00:34:53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오문봉	00:11:10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1	오문봉	01:08:40	○
2. 육아	어휘 2. 육아	오문봉	01:05:18	○
3. 친족	어휘 3. 친족	오문봉	00:37:11	○
4. 의복	어휘 4. 의복	오문봉	00:46:45	○
5. 음식	어휘 5. 음식	오문봉	00:57:03	○
6. 가옥	어휘 6. 가옥	오문봉	01:16:19	○
7. 생업	어휘 7. 생업 1	오문봉	01:00:10	○
	어휘 7. 생업 2	오문봉	00:55:03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오문봉	00:20:51	○
9. 민속	어휘 9. 민속	오문봉	00:21:50	○
10. 신앙	어휘 10. 신앙 11. 자연	오문봉	00:54:41	○
11. 자연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오문봉	00:23:11	○
	어휘 12. 동물 2	오문봉	00:24:40	○

	어휘 12. 바다동물	허정순	00:31:13	○
13. 식물	어휘 13. 식물 1	허정순	00:39:21	○
	어휘 13. 식물 2	오문봉	00:17:36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1 오문봉, #2 오태봉, #3 허정순, #4 기타, #5 기타, @1 김보향, @2 김순자)

#### 1. 조사마을

101001 @2 한동리 설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십시오.

101001 #1 한동에 설촌은 지금부터 한 칠백년 전에, 이디 조씨가 이제 와서 이제 뭐인가 설촌을 했다고, 그 조씨가 제일 먼저 살았다고 허주 조씨가. 계가지고서 그 조씨를 조씨 밭덜이 뭐인가 조개뭐이니 조씨가 그렇게 해고, 또한 알동네는 좌씨, 좌씨가 것도 한 육백 년 거의 텃지 좌씨가 와가지고서 좌계장을 머인가 좌계장은 뭐인가 허른 좌씨가 경영하는 목장. 목장을 좌계장을 설치해 가지고서 저 국가에 뭐 진상도 하고, 물, 먹이를 해당 그렇게 해가지고 조씨하고 좌씨가 제일 뭐인가 제일 먼저 제주도에 왔고 그 다음엔 광김이 왔어. 광산김씨가. 광산김씨가 와가지고서 여기를 안 살아가지고 저 뭐인다 저 웃드루에 저 꼴왓이엔 헌 디 그디서 살다가 이 부락에 와서 지금 제일 광김이 아주 역사가, 조씨, 좌씨 그 다음 광김이. 설촌에 이던 광김이 많아.

101002 @2 그러면 지금 성씨들은 어느?

101002 #1 지금 성씨는 여기 여러 성이 살주. 이거 뭐인가 뭐 이씨도 살고 뭐이 김씨, 광산김씨, 김해김씨, 또 다시 우리 오, 구니오씨, 또 뭐 고씨도 있고 제주부씨도 있고 많아. 송씨도 있고 많주 여하튼.

101002 @2 예, 제일 많은 성씨는 뭐이과?

101002 #1 김씨주, 김해김씨 광산김씨 합치민 김씨가 제일 많주게.

101002 @2 예, 알았수다.

101002 #1 그 다음 고씨, 그 다음 오씨.

101003 @2 아 마을 어른들은 어떤 일을 주로 행 산 거라마씨?

101003 #1 이 우리 한동은, 한동은 원래는 토질이 상당히 박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비료도 엇기 때문에 곡식이 안됐어. 일로부터 행원으로부터 저디는 질왓이라고 해서 질왓이라는 건 건 무신 말인가 허른 땅이 거 출흑밧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됐어 옛날로부터. 계난 한동으로부터는 땅이 뜬 땅, 뜬 땅이라. 뭐이라 화산에 토, 화토. 거 막 불치 닳은 흑이기 때문에 잘 뭐인가 안됐기 때문에 옛날은 여기서 상당히 생활이, 한동은 행원, 월정보단 막 곤란했지. 경해서 질 처음에는 그 따비란게 있어, 따비.

101003 @2 따비, 예.

101003 #1 따비란 건 저 보지 안 해실거라. 사람이 사람으로 이거 거 따비 있고

거 뭐인가 쉼고지 두 개 메와가지고 사람으로 거 둘이가 혼 줄로 헤가지고서 거 테왁밭 잇잖허여.

101003 @2 예, 예.

101003 #1 테왁밭, 새왓, 옛날에 새, 새를 해서 이제 집을 지어, 초가집 헛기 때문에 그런 새를 새왓, 출왓을 그것을 이겨야 돼. 그 쉼로 못 가니까 그때는 쉼로 못 가니까 그 따비로 그 생밧을 그 뭐인가 이겨가지고서 경해서 그것을 쉼 밧이라, 쉼 밧 갈아근에 조허고 그 그루에 므물허고 그렇게 허면서 생활을 허다가 이제 이 핑지는 소로 쟁기로 이제 밧 갈지이.

101003 @2 예.

101003 #1 게난 그 쉼 밧이엔 현 건 테왁밭, 그 뭐인가 새왓 같은 건 그건 따비로 갈았고, 따비로 갈았고 또 이 핑지는 게 소로 갈아서 농서를 지어서. 옛날엔 무슨 농서를 주로 헛는고 허든 뭐인가 조, 보리, 또 콩, 메밀, 산두 주로 이거를, 이거를 주로 헛주게. 이거를 주로 허다가 지금 뭐인가 요새엔 이제 경운기가 나고 사람이 헛쫘 편리해졌지. 편리해졌지니까 이제는 이 우리는 과거에는 상당히 식량에 쫘달려서 막 배불리 밥을 못 먹엇거든. 오일육 혁명 후에 오일육혁명 후에 말야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헌 후에 제주도를 이렇게 순찰해 보니까 말야 조, 보리 갈아근엔 의식이 해결이 안 돼거든. 게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야 이디 뭐인가 이 제주도에 아주 적합한 작물이 뭐 잇냐 헤가지고 말야 그것을 참모덜안티 거시기 현 거지. 그러니까 캐나다에 아니 호주, 호주 근방 어디 남양, 딱슨 디에는 유채가 있어요. 그걸 헤다가 여기에 보급을 막 시켰어요. 그걸 보급 시키니까 유채 그때 서말 풀면은 보리, 아 저 나룩쫘를 너말을 받았어요. 그렇게 헤가지고서 이제 급속도로 농촌이 이제 성장을 쉼 적에 그때 새믄을 사업이 그냥 막 정부에서 말야 막 일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름도, 나도 이제 새믄을 지도자로 십 년동안 헌다고. 게난 새믄을 지도자 술선수범이 나사가지고 우리 농로도 포장해 주십시오. 또 다시 이제 이 뭐인가 초가집도 계량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비해서 말야 부락마다 가령 그 뭐인가 세멘트 같은 것을 만약 한동에 백 포, 다 이 구좌에 백 포씩 다 준단 말야. 백 포씩 쥐 가지고 가장 성적이 좋은 데는 더 주고 이렇게 경쟁을 시킨 거야. 새믄을 경쟁을. 그래서 아주 이제 근대화로 넉넉히, 먹을 것이 넉넉해지니까 유채, 유채 때문에 제주도를 살아간 거라. 그리고 남군에 간 보니까 이제는 남군에 간 보니까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이 와가지고 남군에 간 보니까 남군에 영 가다 보든 효돈이라는 게 있어, 저 하효에, 하효에 간 불적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이 미짱냥이 있었어. 산물냥이라고.

101003 @2 산물예.

101003 #1 거 알아지지? 산물이엔 현 거.

101003 @2 예, 예.

101003 #1 거 이제 감귤이 아니고 옛날 거.

101003 @2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영 보니까 저거 뭐이나 허니까 아 저것

이 감귤입니다. 허니까 이씨조선 때 진상을 해난 겁니다. 허니까 아 그럼 이거, 이거 감귤을 해야지 이런 농서를 지영 댔겠느냐. 정의는 우리 한동더레보다 더 못해가지고서 조, 보리가 잘 안 돼. 거기는 주로 무엇을 했는고 허면은 피보리를 했어. 피보리. 피보리엔 헌 거 저 아주 껍데기가 두꺼운 거. 그 피보리를 허고 또 여름 곡식을 고구마를 심었어. 고구마를 심그는 그런 디디 간 보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 감귤이엔 허거든. 옛날 진상했었던. 그러면 이걸로 허면은 좋지 안겠느냐 해가지고, 걸로 규슈지방으로 이 제주도가 그 어떻게 돼냐, 어떻게 돼냐 물으니까 규슈지방하고 제주도가 기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미짱, 미짱은 일본말덜, 그 규슈지방에 그 미짱이 잘 돼는데 그걸 뤼인가 수입해다가 농가에 나눠주라고 말야. 그래서 나눠 주고 해가지고 나눠주고, 또 이 김종필이가 그디 간에 조두순씨가 해안을 영 돌안게 해안부락에, 해안가에 영 보니까 거 뭐 한 몇 만 평 내분 땅이 있거든 말이야. 경허니까 왜 이거 농설 내불었냐 허니까 농서가 안 돼서 이거 내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종필이도 참 머리가 있는 사름이라. 경허니까 이걸 살 수 없느냐 허니까 아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혼 이백 원씩 해가지고서 몇 만 평을 샀단 말이야, 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젠 우리 이젠 제주도 남군만 아니라 북군도 막 이젠 보급했지. 그 감귤 뤼인가 국가에서 수입해다가, 건 공짜로 줬어 여긴. 경해서 이젠 게서 그걸 헐 때에 우리 일반 사름 농가를 받을 적에는 이년생 주고 했는데, 김종필은 삼년생, 사년생을 해가지고는 이제는 그 못 쓰는 밭에 개간해가지고 거길 심었던 말이야. 그 서귀포 사름 책임자 두영. 게니까 이제는 그 스년생이니까 이젠 두해 시민 육년생부터 올기 시작헌단 말이야. 그던 막 올기 시작허니까 남군은 말야 야 이런 말이야 점, 뤼인가 점 불모지도 돼는데 말이야 아이고 우린 안 텔 거 뭐 있냐. 기온이 북군보단 좋고 허니까 그래서 남군이 정말 그 감귤 붐이 일어나서, 소위 대학나무가 돼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행 저 길이 있잖허이?

101003 @2 예.

101003 #1 저 길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허자마자 저 적도 우이를 낫다 말야. 삼십오메다, 그때, 그때는 뤼인가 차가 당기는데 차가 영 \*\*\*\* 허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 말이야. <중략>

101004 @2 게민 이 주변에 오름도 있고 내, 바위, 굴 이런 유명헌 것도 이신가 마씨?

101004 #1 우리는 한동은 저 둔지봉, 둔지봉이 바로 한동, 한라산과 둔지봉의 정기를 받아서 우리 한동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참 나가 아까도 얘기 했주만은 그렇게 해서 조, 보리 뭘 허다가 지금은 경제작물로 지금은 조, 보리 안 해, 이젠 메밀도 허지 안 허고, 산두도 허지 안 허고, 주로 뭘 허는고 허니 이제는 당근, 경제작물 당근, 콩, 뤼인가 뤼인가 감자, 감자 그런 걸 주로 이제 이젠 허주. 옛날 건 다 없애버리고.

101004 @2 예. 알았수다. 아까 둔지봉은 이 동네선 뤼렌 불렀수과?

101004 #1 건 둔지오름이엔 헛지. 둔지오름.

101004 @2 둔지오름예. 둔지 오름 있고, 오름은 그 둔지 오름 하나우파?

101004 #1 으, 둔지 오름 하나뿐.

101004 @2 내도 잇수과? 이렇게 흐르는 내?

101004 #1 아, 흐르는 내는 엇고.

101004 @2 내창 이런 거 엇수과?

101004 #1 내창 엇어.

101004 @2 바위, 큰 돌 같은 거.

101004 #1 큰 돌 같은 거 이제 다 없어졌는데, 저디 올라가든 왕돌거리라고 있어, 왕돌, 큰 돌 있는 거리라고 해서 왕돌거리란 게 잇엇주. 저 야이네 집으로 약간 올라가면은 한 50메타만 가면은 큰 왕돌이 서 낫는디 걸 왕돌거리, 왕돌거리.

101004 @2 예, 왕돌거리예.

101004 #1 경허고 여기도 또 범이 동산이라고 해서 요기도 큰 돌이 서 낫는데 이 도로 거세기 허면서말야 해부니까 그건 없어져 버리고 이젠.

101004 @2 예, 알앗수다. 굴도 잇수과?

101004 #1 굴은 엇고, 쪼그마 현 굴은 하나 있는데 소년이굴이라는게 그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그때는 왼쪽거치, 산보라고 헛지. 산보가면 이렇게 도람쥐 잡고 해낫는데, 자그마현 굴 하나 이신디 지금은 그거 많이 내려 앓아붙어실 거라.

101004 @2 그 굴 이름이 뭐마씨?

101004 #1 소년이굴이라고.

101004 @ 소년이굴.

101004 #4 나 이제 그 굴 찾아가도 못 허कु다. 그 굴은 야파노니까 키에 아이덜 영 굽은베끼 일어서지 못허여. 굴이 야파노니까. 지금 찾아가도 못허크라.

101004 #1 또 한동이에는 이, 한동에는 또 이제 뭐인가 옛날에 망루가 잇주게.

101004 @2 망루.

101004 #1 으, 배거튼 거 웨놈들이 많이 들어와서, 웨적덜이 많이 침범허니까 이 망루를 바닷가에는 설치허고 요기도 저 높은 동산에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그거 만약 이상헌 것이 나타나면 헛불을 거기 썬단 말야. 헛불 전달, 전달, 전달해서 그런 망루가 있는데, 지금도 여긴 없어졌는데 바닷가엔 그냥, 그냥 있어.

101004 @2 그 망루를 뭐렌 불럿수과?

101004 #1 망동산, 망동산 해가지고 거기 기자 그 지경을 망동산이라고 허주. 그 돌 쌓여진 거 그냥 있어.

101004 @2 그 망동산을 이 동네에서는 연디 동산 이런 말은 안 해낫수과?

101004 #1 게메 그게 연뒤통산이주, 그게 연뒤통산. 거기 불 피와서 연기, 연기. 연뒤통산.

101005 @2 연뒤통산이엔 곶아나서예. 예, 알앗수다. 이 마을에는 다른 마을처럼 무슨 기관덜이 이신가마씨? 무슨 우체국이여, 농협이여?



101005 #1 아니 그건 옛고, 옛날엔 구좌에는, 우리 한동에는 옛날 일제시대에 막 전에 전에 이디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서 났는데.

101005 @2 아, 원래?

101005 #1 원래 처음에 이 구좌 처음에, 구좌 생길 적에 처음에, 처음에 저 알 동네 저기 스조합이라고 허주 밑에 동네 거기 읍사무소가 있어 났는데, 옛날 사름덜은 말야 관허고 칙간은 멀어야 존다고 해서이.

101005 @2 예.

101005 #1 그래서 그거 밀어부난 것도 어디 갓나 허든 췌대 갓다가 췌대 갓다가 스삼사건에 폭동 완 불 질러부니까 이젠 세화리 갓주게. 원래 한동에 잇다가.

101005 @2 아.

101005 #4 계난 구좌가 한동이 중앙이주, 중앙이라. 동북으로부터 종달까지가 구좌가 중앙 부락이라. 계난 계난 구좌가 중앙이니까 옛날 면사무소랑 생긴 거라 처음에, 췌허니까 옛날 이딴사름덜은 하르방덜은 양반 생활만 헛거든 말야.

101006 @2 옛날 여기에 접덜?

101006 #1 접덜 많아났주. 접이란 거는 뭐 물멧접 접이라고 해서 그 뭐인가 그 밧데 가서 막 돌도 일르고 또 이제 산담 거튼 것도 옛, 그 옛날은 손수, 요샌 기술 자덜이 허주만은 옛날은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물멧접이 다 있었어. 그니까 접이 뭐 여러군데 잇었지. 그 하여튼 그 접 인원은 하여튼 열 다섯명으로 스무 명 그렇게 헤가지고 허는데 여러군데 접 잇어가지고 그래서 그 접일, 접일 헤가지고서 산담허고 이런거 돈을 벌거 아니야 그러면 연말이 돼면은 소를 그때 잡아근에 나뉘게 속허고 헛주 췌 접덜은 많았주.

101006 @2 계든 접 이름은 어떤?

101006 #1 화단제도 있고. 화단제는 뭐인고 허면은 사람이 죽으면 화단을 씌왕 가는 그런, 화단제, 그런 제도 있고 아까 얘기헌 노동제, 그 뭐인가 산담 거튼 거, 이런 질거튼 거 담 보수허는 그런, 그런 걸 물메제 뭐 이렇게, 이렇게 헤가지고서.

101006 @2 삼춘 아까 물메접?

101006 #1 으, 물메접. 거 물레란 건 뭐냐 허면 그 돌로 때리는 큰 것이 물메주게. 돌 벌르는 거.

101006 @2 아, 돌 벌르는 물메.

101006 #1 으, 물메제.

101006 @2 그걸 물메렌 허는구나예?

101006 #1 으, 그걸 물메렌 헌다.

101006 @2 그 큰 거예?

101006 #1 으, 큰 거. 망치뎡은 큰 거. 그래서 물메제. 그건, 그건 주로 돌ㄴ튼 거 허는 걸 물메제라고 헤.

101006 @2 예, 물메접이고. 이 아까 화단접도 있고.

101006 #1 으.

101006 @2 뭐 동네에.

101006 #1 뭐 또 뭐인가 바당에 풍조가 바람을, 바람 세면은 셋날 불어나면은, 바당에 막 풍조가 막 허게 올라오주게. 계난 옛날은 비료가 엇기 때문에 그 듬복을 헤다가 밀워서 거세기 헛거든. 그 듬복제가 제가, 제가 잇어. 소임이 있고, 그 으뜸이 있고 헤가지고. 그 소임이, 소임이 그디서 뭐인가 듬복을 올리면은 그 소임이 전부 다 전달헤가지고 동원헤가지고서 그 접에서 듬복행 공동으로 해서 다 나누와. 물론 다음엔 다 나누와 각자가.

101007 @2 거는 또 나중에 여쭙보쿠다예. 그리고 이 마을은 풍속같은 게 이신가마썸, 고유한 풍습?

101007 #1 풍속 있주게 당, 이 당이 잇어노니까, 뭐인가 그 당에 그 정초가 돼면은 정월 열 사흘날 그 대, 대제일이라고 해서 머 제주시에 있는 사람덜토 막 오고 그랭지. 지금은 경 안 허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의탁할 것이 없잖아. 경허난 그것이 관습적으로 우리 저, 한동에 당 있기 때문에 당에 와 가지고 뭐 제물행 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식구 뭐인가 다 이름 써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당에 와서 거 신방이 다 거 다 헤주고 그렇게, 그런 풍속이. 켜에 지금도, 지금도 정초는, 정초는 그 가 지금도.

101007 @2 아, 지금도 가고예.

101007 #1 그전에 전부다 떨어진 가에 없이 전부 다 참여헤 낫는데 이제는 종교 믿는 사람덜은 안 가고 경 안 헌 사람덜은 가고.

101007 @2 그러면 그 당 이름은 무슨 당이우과?

101007 #1 건 그냥 뭐인가, 당 이름이.

101007 #4 당이름 엇다.

101007 #1 당이름이, 당이엔만 허주.

101007 @2 당, 본향당?

101007 #1 한동 본향당.

101007 @2 한동 본향다예?

101007 #1 게서 그 머세, 당머세, 그 당올레 그렇게 헤낫지. 당머세, 당올레, 가는 디는 당올레 그 길을.

101007 @2 예, 예. 삼춘예, 당올레는 당 가는 길을 불를 때 아니과, 아까 당머센?

101007 #1 당머센 그 주위에 그, 그 주위에 지경 이름을 당머세렌 허주.

101007 @2 아, 당머세는.

101007 #1 당이 있는 디 당머세.

101007 @2 게른 그 당 있는데 큰 돌 잇수과?

101007 #1 거 돌 잇주.

101007 #4 거 돌 있고 나무도.

101007 #1 나무도 이제도 막 올창헤.

101007 @2 아, 나중에 그 돌을 한 번 사진 한 번 찍어야큰게예. 그 머세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과?

101007 #1 머세란 것은 밧, 밧이 아 그 섣덕으로 뵈 것을 머세라고 그래. 막 돌이 켜여진 걸 머세.

101007 @2 그래서 아까 제가 돌 이시넌 물어본게.

101007 #1 어, 어.

101007 @2 그러면 그렇게 돌 켜여진 것을 머세렌도 허고 섣덕이렌도 허여마씨 아까?

101007 #1 게난 그 머세는 사람이 갈아 먹을 수도 있지만, 돌 서드력은 건 못 갈아먹는 거지게.

101007 @2 서드력은 못 갈아, 그냥 돌덩이로 이신 거라예.

101007 #1 으. 머세는 그 이제 가름팓이 아니라 막 나쁜 밧을 머세렌 헤. 막 돌 서꺼진 밧.

101007 @2 아, 돌 서꺼진 밧예.

101007 #1 으, 그런 것을 머세.

101007 @2 그러면은 여기 당은 하는 거마씨?

101007 #1 당은 아니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저 그 뭐인가 저 뭐인가 피부병을 거세기 허는 이 수테기 땅이라고 헤, 수테기.

101007 #4 거 엇어지지 안 헤신가마씨?

101007 #1 수테기 땅이엔 헨 디 엇어난디 거기는 피부병을 주로 거세기 허는.

101007 @2 예, 피부병을 관장허고.

101007 #1 그리고 또 우리 바당에는 당이 엇긴 엇는데, 용왕 맞이를 막 가요, 해녀들이 저 뭐인가 지금도, 지금도 정초 뵈면은 용왕맞이 거 하나의 풍속으로 이제 꺼지 유지뵈고 잇주.

101007 @2 예.

101007 #1 행원거튼 디는 바다에 당이 있는디 우리 한동거튼 디는 당이 없어도 용왕맞이로 가는 거주.

101008 @2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마을 특산물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이신고예?

101008 #1 특산물은 당근, 또 다시 감자, 콩, 무우 그거, 주로 그거.

101009 @2 이 마을 자랑거리는?

101009 #1 어?

101009 @2 자랑헐 만 헨 거 좀 자랑헤 봅서.

101009 #1 자랑은, 자랑거리는 이제는, 이제는 이 농촌사름덜도 열심히 사니까 니 우리 늙은 사름덜은 일을 못 허주만은 전부 다 이제 트럭덜을 다 가져가지고서 여기는 삼, 스천만 원씩 올려요. 삼, 스천만 원씩 올리니까 상당히 생활이 아주 이제 풍족해졌지 이젠. 공무원 불렵지 안 헤 이젠. 공무원 불렵지 안 허여.

## 2. 제보자 일생

102001 @1 원래가 부모님이 다 한동이지과?

102001 #1 으, 조상이 다 제주도.

102001 @1 게니까 한동?

102001 #1 으, 한동.

102003 @1 어무니도 한동?

102003 #1 어무니는 정의, 우리 어무니는 정의.

102003 @1 아, 정의. 정의에서 온 거예. 정의 어디마씨?

102003 #1 표선리.

102001 @1 표선리에서. 표선리에서 온 거예. 삼춘이 태어남 자라온 애기덜 헤 줍서. 어떻 자라왔수과?

102001 @1 나가 어떻 태어난 살았는고 허민 두 번째 아덜로, 우리 삼형젠디이 나가 두 번째 아덜로 자라나가지고 우리 자라날 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 자랐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이 우린 그래도 먹엇주만은 우리 부모네덜은 말이야 죽식덜 위해서 제때 밥을 못 먹어 봤주.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살았저.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를, 이제는 초등학교는 그때는 국민학교랐저. 국민학꼴, 우리 한동은 우리 구좌에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어디어디 섰는고 허민, 저 하도가 제일 우에 생기고이 그 다음에 월정, 그 다음에 김녕. 그 다음에, 그 네번째가 세화리 초등학교 생기고, 생겼는데 그때는 우리 한동 사름은 주로 월정초등학교, 중앙월정 중앙초등학교 한동사름은. 느네 아버지네 다 마찬가지. 쟁헨 다니면서 어렵게 정말 초등학교를 졸업 마텃지. 그래서 이 참에 또 다시 뭐인가 그 또 다시 터지지 안헤시냐, 그러난 우린 학교에 다닐 적에는 그 일본놈덜이 그 뭐인가 차잇잖아이 일본 부인덜이 먹는 차를 헤오라고 헤나서 차를 헤다가 학생덜이 강제로 막 헤오렌 헨, 자굴이란 게 잇저.

102001 @1 자구리?

102001 #1 자굴, 자굴 그걸 해당 물류멍 우린 막 바치멍 헛주 바치멍. 게난 그것을 수집헤가지곤 일본 대동아 전쟁때, 2차 대전이난 그때 보낸 거주. 또 우리는 2차대전이 일어나난, 우리 학교에서이 그때 우리가 육혹년 팬디이 근로봉사이, 만날 지게 정다니멍 노역만 헛저.

102001 @1 어떤일 헛수과 노역일?

102001 #1 학교에 강 막 운동장 메꾸고 경해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허지 안헤시냐이, 경허난 이젠 한동에도 여유 있는 사름은, 재산 있는 사름은 저 김녕 중학교가 생겼저. 지금 고등학교보다 더 헨 학교랐저. 그디 당기고 그디 못 당기는 사름은 그냥 놀앗주게. 그냥 놀앗는디.

102001 @1 놀앗수과 일헛주.

102001 #1 그냥 집에서만 일허고 허는디 그때 이제 우리 한동에서 김녕중학교

에 간 사름이 우리 동창에는 이디 저 뭐인가 세홍이 아방네이, 세홍이 아방허고 셋 동네 누구네, 하여튼 멧 사름베끼 거기 저 웃동네 오면은 구봉이네, 덕중이네 그런 사름은 가고이 우리는 못 갖저. 그때 재산이 엇어노난. 경허는 찰나에 행원에 일본 놈덜이 사용허단 창고가 하나 잇어 부두에. 거기에 고등공민학교가 생겨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거기 다녔주게. 고등공민학교 웃동네 거의 다 다녔저 김녕중학교 다니는 외에는. 거기 다니다가 욱이오 나부난 학교에 다니단 학도병으로 그냥 나간.

102001 @1 음. 그 고등공민학교가 생긴 게 언제라수과?

102001 #1 그것이 처음에 사십칠 년쯤일 거라.

102001 @1 그럼 사삼 일어나기 전이다예.

102001 #1 으, 사삼 일어나기 쪼금 전에.

102001 @1 쪼금 전에예 고등공민학교 생겼, 행원에.

102001 #1 행원에. 켜 것이 우리 잣다오던 계속웨언 이디 창민이네도 다녀나신디 우린 졸업도 못 마트고 이젠 없어져뻬저 그게.

102001 @1 욱이오 난 후에도 한참 잇어나수과? 사삼사건 나명 엇어져분 거 아니고?

102001 #1 욱이오 후에도 거기 셔 나저 계속. 계속 시단 중간에 없어졌주. 그 사삼사건 후에도 계속 잇어 나주.

102001 @1 아.

102001 #1 거기 태석이가 교감 선생, 아니 저, 저 교련 선생 해났저. 김태석이느네 켜당.

102001 @1 예, 고등공민학교. 게고 형제분이 세 명마씨?

102001 #1 으. 형,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 가가지고 저 천진, 천진 그 뭐인가 해군 징용덜 배타다가 몰르고, 또 우리 동생은 군인에 가가지고 전사허고, 난 이제 두 켜디 독제뻬저.

102001 @1 아이고, 아이고. 게른 거의 젊었을 때부터 혼자 지냈던 거다예.

102001 #1 으.

102004 @1 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 허멍 놀아났수과?

102004 #1 그때는 뭐 놀이 헐 거 엇어가지고 요새 축구 있지 안허냐이?

102004 @1 예.

102004 #1 축구틀이 형겜으로 막 몰아가지고 공을 멘들앙이 그걸 이제 축구허고 그걸로 해서 놀이행 놀고이 또 다시 자치기란 것이 잇저. 요만이 헐 낭 해가지고 탁 처근에 멀리가면은 거세기.

102004 @1 예, 예.

102004 #1 거 자치기 허멍 놀고, 또 다시 즈전게 굴리는 거 있지 안허냐이.

102004 @1 예, 예 굴렁췌.

102004 #1 그거 휘경줄, 휘경줄 해가지고서 그걸 뜯어다가 그걸 둥글허게 멘들 아가지고 그 굴렁췌 굴리고 그것이 다 전부라. 그걸 놀이라고 해.

102004 @1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노는 게 그런 거였잖아예?  
 102004 #1 으, 다 그런 거.  
 102005 @1 공부할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일본사람?  
 102005 #1 교장은 일본 사람이고, 교장은 일본 사람이고 선생덜은 다 우리 한국 사람.  
 102005 @1 아, 한국 사람. 아, 그럼 여기 제주도 사람들.  
 102005 #1 으, 우리 한동 사람도 혼 사람 서 낫저. 승만이 족은아방이라고.  
 102005 @1 계민 반은 몇 개나 뒤통수과?  
 102005 #1 반은 우리 혈 때는 뭐 일 개 반에 보통 일 개 반에 보통 오십팔 명 육십 명 경 뒤통저. 일학년 육학년까지 쪽허게.  
 102005 @1 계난 쪽허게는 잇어난예.  
 102005 #1 으, 으. 쪽허게는 잇어나고 오십팔 명에서 육십 명.  
 102005 @1 계민 월정국민학교는 거기 다 모였수과? 한동에서도 가고 행원.  
 102005 #1 행원에, 행원, 월정, 덕천서도 오고 덕천에서도 왔주. 덕천.  
 102005 @1 아 덕천에서도 오고.  
 102005 #1 송당서도 일부 오고.  
 102005 @1 계민 학교 가민 수업은 몇 시간이나 헛수과?  
 102005 #1 수업은 보통 그때는 아침에, 아침에 네 시간. 아침에 네 시간, 오후에 세 시간. 보통 일곱시간 내지 으섯시간 걸렸주.  
 102005 @1 계민 뺨또 쌍 가낫수과?  
 102005 #1 뺨또 쌍 다녔주.  
 102005 @1 하하하, 뺨또 쌍.  
 102005 #1 그때는 뺨또가 엇어가지고이, 아레미뺨또가 엇어가지고이.  
 102005 @1 예, 어떻헤수과?  
 102005 #1 남, 나무로 만든 그 뒤통가 뺨끼거튼 칠 맥영 영 허민이 뺨또 쌍 강영 올민 뺨끼내가 나고 경 헤나세.  
 102005 @1 아.  
 102005 #1 돈 있는 사람은 그자 사근에, 뺨또 사근에 가고.  
 102005 @1 뺨또에 뭐 쌍 가낫수과?  
 102005 #1 그때는 그자 지시 같은 거베끼 엇엇주. 마농지시나 뒤통나. 레기나 뒤통나 종류가 잇어서.  
 102005 @1 밥은?  
 102005 #1 보리밥이주.  
 102005 @1 보리밥예.  
 102005 #1 좁쌀허고 보리쌀 서텅.  
 102005 @1 좁쌀이랑 보리쌀 서끈 거를 반반 서경텐 행 다른 말로 뒤통 굴읍니까?

102005 #1 거 반지기엔 허는데 보리썰허고 좁쌀 서튼 걸 반지기엔 안 허고 곤썰허고 보리썰 서경 콩 신 걸 반지기엔 허주.

102005 @1 곤썰이 잇어야.

102005 #1 곤썰이 들어가야 반지기엔 허주.

102005 @1 일제 때 여기에 공출도 막 해나고 했수과?

102005 #1 어, 공출도 해놔져. 그 가을 들면이, 여름, 여름엔 우리가 보리를 헤들일 거 아니가이. 겐 보리 헤 들이민 가령 나가 가령 다섯 마다리 나가 수확헤시민, 다섯 마다리 수확헤시민 그걸 조사행 가근에 네 마다린 그냥 저디 강제로 바치렌 허주게. 혼 마다리론 생활헐 수 업지 안허냐이. 경헌 때문에 어려와서 막 그걸 뛰인가 흥끔 여유있는 사름은 곱짐도 막 했저만은 그 토지가 곳인 사름덜은 그 제 수확이 안 나오거든 다섯 가마니 저디서 했저만은 다섯 가마니 안 나오거든 그레 상당히 고통덜 먹었저.

102005 @1 게민?

102005 #1 그래서 제대로 수확을 아니 바치면은 할당뎌 수량을 아니 바찌면은 일본놈덜이 읍사무소 직원덜이랑 와가지고서이 이 끌령앗앙 이디 구쟁기, 그 저 구쟁기 땀 걸 이디 세멘에 영 바쳐근에 벌 사고 그렇게 해놔져.

102005 @1 아, 구쟁기 뚜쟁?

102005 #1 구쟁기 거.

102005 @1 뽕쭈뽕쭈 거?

102005 #1 뽕쭈뽕쭈 거. 그걸 무릅에 아래 영 놔가지고 그렇게덜 헐어. 그렇게 허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 우리는 안 했지만은 우리 부모네덜.

102005 @1 게민 공출하게 댜면 하면 만약 여기 보리 다섯 가마니가 난다 허는 건 보리 수확헐 때 영 보리 읍니까, 시찰을?

102005 #1 보레 텅기기도 텅기긴 허저만은 경 안 행 탁상으로 많이 허주게. 게니까 그 수량이 안 나와. 좋은 밧 가진 사름은 수량이 나오는다. 게니까 좋은 밧을 기준으로 헐기 때문에 나쁜 밧 가진 사름은 못 따라가주게.

102005 @1 보리가 얼마만큼 열매 맺엉 많이 나올 거다 적게 나올 거다 본 게 아니고, 느네는 몇 평이난 얼마 내라.

102005 #1 날 것이다 헤연. 게난 표준으로 밧 군데 왕 보주. 한둥이면 밧 군데 좋은 밧디 왕 본다 말야. 쟁헐 그걸 표준으로 헐기 때문에 곳은 밧 가진 사름덜은 못 내는 거지.

102005 @1 그럼, 공출헤난 것은 보리만 공출 해놔수과?

102005 #1 아니, 보리만 헐 것이 아니라 보리를 주로 많이 헐주. 보리허고 이제 또 이 조도 허긴 헐주게.

102005 @1 조도 허고, 바다에서 잡는 건?

102005 #1 바다에 것은, 바당에 것은 그때는 공출헐 것이 뉘 엇어노난 바당에 나오는 게 엇주. 메역도 그때 안 나오니까 그걸 공출허지 안 허고. 하여튼 그 보리

호고 조 그걸 막 공출했지.

102005 @1 게고 아까 학교 다닐 때 일본군덜 먹을 거 뭐 그?

102005 #1 으, 그것ㄴ라 일본말론 \*\*젠소라고 해가지고 자굴을 해가지고서 몰와서, 그늘에서 몰와 우리가 학교에 거시기 했고 또 겐노쇼꼬(げんのしょうこ, 이질풀)라는 거 잊져. 겐노쇼꼬라는 건 우리말로 거 무신, 길가에 나는 풀인디 빨강빨강 허게 현 거. 그것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바쳐 낫져 학교에.

102005 @1 건 차로 마실거로?

102005 #1 건 뭐인진 모르켜. 겐노쇼꼬엔, 일본말로 겐노쇼꼬, 겐노쇼꼬 했주.

102005 @1 게민 이런 거 가져와라 했구나예?

102005 #1 으, 그땐 그런 풀이이 신장로 고랑창에 이 포장 안 헐 땐 많이 나났져.

102006 @1 아, 예. 그 사삼관련 얘기 좀 해 줘서.

102006 #1 사삼, 사삼은이 사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고 허민이, 일천구백사십오년에 해방이 났거든이. 해방이 났니까, 해방이 났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덜이 망명가덜이, 혁명가덜이 뭐 만주, 만주도 가고, 중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갖는데, 이 파가 주로 공산주의 사상덜을 가졌져. 게난 우리 한동도 그 당시 스삼사건에 주동헌 사름이 전부 다 제주사름덜토 그 주동자덜은 주로 일본 대학, 뭐 소련 대학 그 때 나온 사름덜이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농업학교가 농고가 그때는 제주대학이 없어부난 큰 것이랴저. 거기 졸업헌 학생이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거라.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느냐, 우리 일본사람에게 항상 탄압을 받아났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막스란 사람이 이것을 공산주의 사상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으덜 시간만 노동허면은 빈부 귀천없이 똑ㄴ치 산다 그렛거든. 그레노니까 전부다 사상이 좋다해서 호응웬 거라. 그러해서 해방이 딱 났자마자 공산주의. <중략>

102006 @1 삼춘이 영혜영 경찰을 시작한 건 언제과?

102006 #1 그건 육이오, 육이오 잣다와가지고서 제대헌 완 보니 내가 여기에 오십삼년, 오십년도에 육이오가 일어났거든, 오십삼년에 제대헌 완 보니깐이 폭도가 그냥 여기에 계속 있단 말이야 스삼사건에. 경해서 할 수 엇이 이제는, 내가 오라보니까 공훼당 저디, 거 공훼당이엔 했져. 거기에 경찰관이 으섯 사름이 파견뵈여 있어. 게난 난 상해군인이라고, 군인 잣다운 상해군인이난 저기서 나오렌도 허지 안허고, 목 지키렌 나오렌도 허지 안 했지만은 집이서 잘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집인 정문 내와불언. 게난 이디 오란 거세기 허다가 동무덜 아부지도 목숨이 다 나가지 어무닌 안 나갔는디 우리집 할망네도 다 뒷동산에 그디 막수비가 셔 낫져 거기 나가고 게난 헐 수 있어.

102006 @1 군대는 몇 년도에 간 것과?

102006 #1 오십년 팔월 삼십일날.

102006 @1 그럼 사십팔년도에 사삼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 한동에는 어떻헌



일들이 있어났수과?

102006 #1 한동 이디는 어떻게신고 허면, 밤에는 그놈덜이 왕 막 휘젓고, 밤에는 그놈덜이 왕 막 휘젓고 막 이렇게 헐 거 아니. 상당히 거세기 허주. 그러니까 이디 우리 이실 때 성을 다 쌓져. 성을 돌을 노프게 성을 싸가지고 이 동네 질, 건 남문이엔 헌다이 그 남문.

102006 @1 어느 쪽이 남문이과?

102006 #1 우리 집이, 그 저 우리가 길가에 있지 안허여. 태균이네 집 가기 전이 그디 성 서 나저. 걸 남문이엔 헐 글로 문만, 글로 성을 쌓지. 경 다 성 쌓아가지고, 우리가 성 쌓아가지고 군대 갖는데 삼년 싯단 완 봐도 거세기. 게난 스삼사건은 무슨 말이고 허니 스월삼일날.

102006 #1 예, 예.

102006 @1 스월삼일날 그 산에 있는 그 좌익분자덜이 지서와 그 뭐인가 구좌면 지서가 김녕허고 세화 있어는디 지서허고 또 이 이장집을 불 질러분 날이 그날게. 그것이 스월삼일날 지서 습격허고 이장 집이 불 태운 날이 스월삼일날 스삼사건이 주.

102006 @1 여기 한동은 어느 집이 불타고, 이장집?

102006 #1 한동은 이장집만 불타저. 저 방추굴 이장이 셔났는데, 그 이장집만 불 나고. 한동은이 산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엇어. 하나도 엇어부니깐이 한동은 사람이 많이 안 죽엇는디 이 행원거튼 디는 뭐 부락 사름 뭐 혼 삼분의 이 이상이 죽어 불엇덴 헤.

102006 @1 그 우리 하르부지네 돌아가실 때가 멧 사람이 그치 잡혀가근에 돌아가셨잖아예?

102006 #1 으. 느네 하르부지, 한동은 느네 하르부지도이 그 평대 국민학교 선생이랏저. 느네 하르방이 이디 저 동문이 가시아방허고 그디 선생이랏는데, 선생이랏는데 그 느네 하르방이나 이디 송태네 아방네나 한동에 주모자는 누게 이신고 허면 이찬이 형이라고 잇엇저. 이찬이 형. 이찬이 형덜이 느네 잘 모를거여.

102006 @1 예, 예.

102006 #1 그 다음 두 번째가 임성은이라고 성은이 아방, 그디가 농업학교 나오난 그디가 주모자랏저. 그 사람도 주모자라도 스삼사건 그때 육지로 피해부니깐이 그 동생만 죽고 각신 살아시네. 그 아덜도 살고. 갱해나신디 느네 하르방도 한동에 유식층에 속해났거든 게니까 누가 밀고헛는고 허니 알동네 그 뭐인가 김도균이라고 허는 사람이 있어났저 김도균이. 그 당시에 김충희 도지사 바로 조칸테 바로 싯동네 살면사 말야 이 사람이 밀고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밀고해부난 느네 하르부지 허고 송태옥이 아버지허고 또 혼 사름 저 조태경이 서이가 혼디서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힘으로 모지레니까 군인이 왓주게. 12연대가 와가지고서 저기 월정리에서 그 주둔헛는데 월정리에서 그냥 느네 하르부지도. 게난 그때 돌아갈 때에 이 태석이 아방이 교장선생이랏저. 게난 미리 알아시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경 해부니깐이. 경해서 느네 아버지네가 그냥 송택이 아부지하고 서이가 경 돌아가지 안 하시냐, 아시날 잡아강 뒷날. 경허난 그때 이젠 부순화라고 잊저 부상남이 형. 상남이 형이 거기도 뭐인가 조천 살았주. 그디도 주동자랴는데 어떻게 해서 생포당헌 거라. 생포당허니깐이 거디서 이젠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첩보원으로 쓴 거라. 그때에 그 문옥이 아방, 느네 웨하르방허고 그 저 거기가 상당히 가근허다 켜당이여. 계난 상남이 형이 느네 그 웨하르방안티말야 큰일 낫수다. 이제 이거 정보가 영 들어왔는데 앞으로 12명 명단이 들어왔는데 지서로 가든 죽읍니다. 이쪽으로 왕자수협서. 자수 안 허민 당장 죽읍니다. 계난 이제 느네 할아버님이 이제 겁날 거 아니라게. 이제 잡아간다 뒤흔다 뒤편에서 막 거세기 해볼고, 열 두 사람이 갖저. 웃 동네 네 사름허고.

102006 @1 그 명단에 잇어난 사름?

102006 #1 으. 명단에 이신 사름. 경허난 살았지 경 안 허민 저디 가시민 거 다 죽여볼거지. 경해서 상남이 형 때문에 그 열두 사람은 살아났저.

102006 @1 아, 명단에 잇어난 사름예?

102006 #1 으, 명단에 잇어난 사름.

102006 @1 그럼 여기 와근에 직접 막 칼 찔리고, 다른 마을덜처럼, 막 칼 찔리고 그런 사람은 엇어났다예?

102006 #1 그것도 셔 낫저. 이디 질 처음에 와가지고이 폭도덜이 습격해 가지고서 이디 그 뭐인고 이디 한동 사름이 \*\*엔 헌 사름이 아주 신첸 건장허다. 켜 그 사름이 왕왕왕 스삼사건 낭 막 왕왕왕해가니까 이건 뭐인고 헨 영 나완, 나왔는데 아 그냥 폭도가 습격해볼언. 켜 심어가단 요 감낭굴이엔 헌 디 강 그디 쫓영간이 막 이디 그차볼고 이디 그차볼고 쟁해가지고 그 사름만 그냥 찔러 죽어저. 그 사름은 우리집 뒤에 \*\*이라고 셔 낫저. \*\* 아방이 또 총 맞은 거라 일로 영헨 총 맞안, 살기는 살았는데도, 이제 살긴 살았는데도 거동을 못허다가 칠, 팔 개월 잇당 죽고, 글후제이 이제 김정직이 아방이라고 바로 요디, 요디 팔월 추석날게, 저녁 때 오란 그냥 대창으로 막 죽여볼언. 그거 두 사람만, 폭도안티 두 사름만 해 받주. 그 외에는 해 본 사름이 엇주.

102006 @1 식량 같은 거 뺏기거나?

102006 #1 그건 많이 뺏겨주. 소도 많이 뺏기고.

102006 @1 아, 왕 가져가볼고.

102006 #1 으, 쉼덜 짐 시껌에 다 가져가볼고.

102006 @1 계난 스삼사건에 밤이덜 막 무서워해나고.

102006 #1 게메 그때는 성 쌓기 전이 집이 못 자났저. 전부 다 그 스월삼일날, 스월삼일에 일어나니까 이 스월덜이 막 추울 때여 추울 때 밤에는. 계난이 우리도 이제 밧디 강 곱곡이 이제 어수룩헌 디만 다 곱앗주. 집엔 안 잤저. 성 쌓 후이는 집이, 집에 잤지만은 남자덜은 다 성광에 가야 돼여.

102006 @1 보초도 서고 헛수과?

102006 #1 보초 셋지. 보초.

102006 @1 보초 선마씨. 으.

102006 #1 성 싸가지고서 초소막에 다 만들었저. 초소막을 혼 백오십 메타에 하나씩 해가지고. 밤에는, 이제 저녁 먹영 보초 서민 아침 네 시 꺼지 그렇게 셋어.

102006 @1 아, 그럼 성 쌓기 전이는 밤에는 집이서 못 자고.

102006 #1 으, 못 자고 다 숨었주.

102006 @1 그 올라 강 곱앗당 내려오고 허는 생활을 얼마나 헛수과?

102006 #1 그것이 한 일년 걸렸주.

102006 @1 아이고 경 길게마씨.

102006 #1 으, 거의 일 년 걸렸주.

102006 @1 겐 왓다갓당 허멍.

102006 #1 게난 스월, 그것이 스십팔년 스월, 스월삼일 일어나지 안헤시냐. 경허난 그거 성 쌀 때도 일년 걸려시난이.

102007 @1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쭙보기로 허고예, 결혼 어땡헛수과, 중매결혼이랴수과?

102007 #1 그 당시엔 다 중매 결혼이랴주.

102007 @1 중매 결혼이 어떤 형태마씨? 어쨌든 다 동네난.

102007 #1 동네 사름이긴 동네 사름이난 동네 사름끼리덜 어떻게 해서. 나도이 군대에서 부상당행 제주병원에 왔저. 육지 병원에는 부상자가 막 몰려노니까 제주병원에 오니깐이 그때 우리 할망허고 뭐인가 결혼 뭐인가 혼 걸로 똥다고 해가지고서. 나도 상당히 그걸 걱정헛저. 왜냐면 우리집이 그 처갓집인 부제고 우리집인 가난헛기 때문에 우리집이 사름이 굉장허 저 뭐인가 성격이 바로 남자 성격 닮아났저. 게난 아이고 난 이거 흠치 드세영 이 사름허고 결혼허지 아닐거로만 근데 어떻게 해서 춤 결혼헛.

102007 @1 아, 부제침이 뜯이난 기가 죽어가지고?

102007 #1 으, 나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헛저.

102007 @1 중매 서는 사름을 뭐렌 해마씨?

102007 #1 중진애비.

102007 @1 중진애비예.

102007 #1 으.

102007 @1 중진애비가 왕, 아 이 집이 뜯 어땡허과 헛 말을 거는 거 아니예?

102007 #1 으.

102008 @1 경헛 사주도 봅니까?

102008 #1 그땐 사주도 봤주만은, 뭐 대충덜 봤주.

102009 @1 예. 혼수품은 뭐 해났수과 그때?

102009 #1 혼수품이라는 건 그때는이 새각시가이 이불 혼 채, 것도 부모네안티 이불 혼 채, 또 꿩 하나 그거 허고 뭐 요강. 그거 왜에는 헛 거 었다.

102009 @1 이불 혼 채랑 퀘 하나예?  
 102009 #1 으.  
 102009 @1 결혼반지 같은 건 그때?  
 102009 #1 그런 거 었다.  
 112017 @1 잔치 했수과?  
 112017 #1 잔치 허긴 헛저. 잔치도 집이서 식도 안 허고 그자 허여.  
 112017 @1 잔치 허는 건 어떻 해나신디 곶아줍서.  
 112017 #1 잔치허는 건이, 사모관대 잇저 옛날에, 그 사모관대 씨근에 물 탕, 신량은 물 타근에 그 신부네 집이 가면은 그 집 마당에 그 노래밀 궂다.  
 112017 @1 노래미?  
 112017 #1 으, 노래미 진진현 거, 노래미라고 해가지고 새로 예긴 거. 건 깨끗허게 허는 식으로 거 곶아근에 그거 해근에 가근에 신랑 그디 강 처갓집이 강 신랑상 받고 행 경 해영.  
 112017 @1 겐 메칠이나 잔치헛수과 그때?  
 112017 #1 그때는 보통 삼일헌다 삼일.  
 112017 @1 예.  
 112017 #1 아시날, 이바지날 해가지고 나흘 뵈거지 나흘. 게난 이바짓날 해가지고 내일이 잔치면은 오늘, 삼일 전에 도야질 잡아야 돼지. 잡으면은 뒷날은 이바짓날이라고 해가지고 뒷날은 이제 도새길 다 솟아근에 썰어근에 또 그 도야질 처갓집이 보내고. 경해근에 게니까 처음에 도야지 솟는 날, 이바지날, 결혼식날 해가지고 또 뒷날은 사돈 잔치행 해낫저. 경 스희동안 경 해낫저 옛날은.  
 112017 @1 게민 도야지 잡는 날은 도야지만 잡아?  
 112017 #1 응, 도야지 잡주.  
 112017 @1 그 다음에?  
 112017 #1 뒷날은 이바짓날이렌 해가지고 그땐 일가속이 다 모여가지고 그 도새기 고길 다 혼 반씩 다 테우고 밥 행 맥이곡.  
 112017 @1 게민 그때는 친척들만 모영 밥 행 먹는 거마씨?  
 112017 #1 아니, 동네에서도 거의 온다.  
 112017 @1 아, 이바지날도 오고?  
 112017 #1 으, 이바지날도 동네, 가까운 동네. 우리 가울목이민 이 왕두거리 우이 거의 다 온다. 잿북거리 우이도.  
 112017 @1 게민 잔치날은?  
 112017 #1 잔치날도 다 모여들고 동네 사름덜은.  
 112017 @1 아 다 모여들고. 또 사돈 잔치를 다음날 해마씨?  
 112017 #1 으, 다음날. 다음날은 일가 사름덜만 모인다.  
 112017 @1 아, 일가 사름덜만예. 그냥 밥만 먹는 정도로?  
 112017 #1 으.

112017 @1 그럼 음식들은 삼촌 결혼할 땐 어떤 음식덜 헛수과?

112017 #1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 반지기 밥이지, 주로. 반지기 밥 해가지고, 그 곤썰 놓고 거시기 서꺼가져근에, 경허고 그 도야지 고긴 으레 들어가는 거고. 도야지 고기도 그때 어려와, 어려와 부난이 갈리름이 갈리름 어른만 주고 아인 안 쫓겨. 갈리엔 헌 건 도새기 고기 점 세 개 쟁반에 놔근에 그기 갈리 하나, 하나 툅허게 언젓주게. 게난 아이는 갈리 빼부는 거라.

112017 @1 도야지 고기 있고 반지기 밥에 국은?

112017 #1 국은 그때이 몹이라는 거 잊저.

112017 @1 몹?

112017 #1 도야지 고기 삶아, 삶아난 돛국물에 끌런에.

112017 @1 반찬은 뭐 헛수과? 짐치헛고?

112017 #1 그때는 짐치란게 엇어저.

112017 @1 아, 짐치 엇엇고.

112017 #1 그때는 짐치란게 엇고.

112017 @1 도야지 고기에 뭐 먹을 거 또 뭐 잇어?

112017 #1 게난 도야지 고기. 그거베끼 엇엇지.

112017 @1 떡도 엇고?

112017 #1 아, 채소거튼 건 잇엇저. 저 뭐인가.

112017 @1 녹물 무친 거?

112017 #1 아, 녹물 썬 말고 거 콩, 콩지름 그런 거.

112017 @1 아, 콩지름. 콩지름에, 반찬행 결혼식 행, 아, 결혼식 잔치허는, 결혼식은 헌 거 झा아예, 어쨌든예?

102010 #1 아, 결혼식이란게 그 사모관대 썬 갖다오는 게 결혼식이주게.

102010 @1 영 마주성 절허고 그런 거 엇고?

102010 #1 그런 거 엇고.

102010 @1 사모관대 썬 갖다 오민 그게 결혼식인 거라?

102010 #1 으, 으.

102010 @1 경허믄 그때 사진도 못 찍엇 झा아예?

102010 #1 사진사가 엇주. 사진사가 엇어.

102011 @1 사진도 못 찍엇던 거고. 겐 신흔살림은 어디 출렛수과?

102011 #1 신흔살림은 그자 집이서, 집에서 허다가 우리집이 사름은 그 십이월 달에 결혼헛는디이 그 십이월달 헛는디, 그 스월달 돼니까 그 육지, 그때는 해녀들이 육지 물질 간다.

102011 @1 아.

102011 #1 겐 육지, 육지 가부니까 육지 가부난 난 이젠, 가부난 그 팔월돼사 들어 올 거주. 삼월달에 강 팔월달에. 게난 난 그 어간에 경찰관 시험 돼가지고서 경찰 어디를 발령 받았는고 허민 성산폴 발령 받으난에 우리집 사름이 완 성산포

나 사는 디.

102011 @1 아, 좇으레 왔구나. 그 사이에 거기로 가부난?

102011 #1 으, 으. 겐.

102007 @1 결혼은 멧 살에 헛수과?

102007 #1 난 스물두 살에 우리집 사름은 스물네 살에. 나보단 두나 우주.

102007 @1 아. 스물두 살에 허민 늣은 거 아니랏수과?

102007 #1 그때는 늣은 거였주. 그 당시에는 여저덜이 대부분 나가 많다. 손우 이라야 살림을 잘 산다 헤가지고서.

102007 @1 아, 예. 삼월달에 물질 갖다 왕, 그 바깥디 강 물질 허는 거는 무슨 물질?

102007 #1 건 웨방물질이라고 허고 육지물질이엔도 현다.

102007 @1 육지물질, 웨방물질예. 결혼헛도 경 웨방 물질을 막 하영 갖수과?

102007 #1 어, 갖주게. 그땐 돈이 어려우니까 그거 안 갈 수가 엇지게.

102007 @1 웨방 물질은 어느 지경예?

102007 #1 그때는 우리 집사름도 저 어디고 저 대진이엔 현 디 갖주. 저 삼팔선 바로 경계에.

102007 @1 으. 멧 사람이 구미헛?

102007 #1 거, 그 모집을 온다. 경허민 우리 한동에서도 혼 칠, 팔명, 행원, 월 정 허민 혼 이십 명 거의 뒤흔 거.

102007 @1 아, 경 하영 가랏수과?

102007 #1 경 하영 가는 거주. 겐 그디 가민 바다는 또 선주엔 현 사람이 잇어 그 모집현 사람이. 그디서 선주가 모집헛 가근에 거기 강 바다를 임대 받주. 임대 받아근에 이결 갖다가 그 선주가 바치민 그 선주가 멧 할은 떼고 또 그 남은 것은 또 해녀 찍세고.

102007 @1 아, 경허명.

102007 #1 경해도 이디서 노동허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게 착취를 당해도 선주 안티 거.

102007 @1 게민 그 선주는 한동 사람은 아니고?

102007 #1 한동 사름 아니.

102007 @1 게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

102007 #1 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주.

102007 @1 거의 이 구좌 지역에서 데려간 거구나?

102007 #1 으. 구좌에서.

102007 @1 하도가 해녀들이 좀 많아나지 안 헛수과?

102007 #1 게, 하도는 하도 구미가 또 따로 잇고 한동은 한동 구미가 잇주.

102007 @1 아.

102007 #1 많이 막 육지에 가나신예.

102007 @1 아. 다 마을마다 구미가 다 잇어난 거?  
 102007 #1 으, 으.  
 102007 @1 우리 어무니도 갓다 왔다는 애길 들어신디.  
 102007 #1 게, 느네 어무니도 갓다 와실 거여.  
 102012 @1 예, 갓다 왔다는 애길 들어난마씨. 아이덜은 어떻 웹수과? 자제분  
 은?  
 102012 #1 자제분은 오남이녀여.  
 102012 @1 맨 우에가?  
 102012 #1 맨 우에가 아들. 그 다음 딸 글로부터 아들.  
 102012 @1 아들.  
 102012 #1 아들 쪽 허다가 막둥이 또 딸.  
 102012 @1 아이구게 막둥이 딸 귀여워시쿠다. 아. 켜 다들, 다들 다?  
 102012 #1 으, 다들 괜찮이 다 살암저. 다 집들 다행 다 살암저.  
 102012 @1 게민 이디 한동 사는 누구는 엇고?  
 102012 #1 다 시에, 시에 뭐인가 육남매, 아 저 오남매 살고 대구 하나 죽은 거  
 서울, 셋아덜은 또 대구 살고.  
 102012 @1 게민 여기 밧덜은 어떻웹수과? 농사 안 짓고?  
 102012 #1 농사 다 세 줘불엇저.  
 102014 @1 아, 세 줘 가지고. 그럼 결혼덜은 다 허고마씨?  
 102014 #1 으, 결혼덜 다 허고 이제 아기덜도 다 설럿저 이제.  
 102015 @1 메뉴리들은, 메뉴리들은 다 제춧사람이과?  
 102015 #1 메뉴리, 메뉴리는 세 사람은 육지 사람이고 두 사람만 제춧사람. 큰  
 메뉴리허고 작은, 다섯째 메뉴리만 제춧사람.  
 102015 @1 게민, 육지 사람은 아들덜 우에 올라가낫수과?  
 102015 #1 아니, 올라가지 안 헛는데도 다 어떻게.  
 102015 @1 사위는마씨? 육지 사람.  
 102015 #1 하난 제춧사람, 하난 육짓사람. 큰사위 제춧사람, 죽은 사원 육짓사  
 람.  
 102015 @1 아 기구나.

### 3. 밧일

103001 @2 예전에 여기는 밧일덜 하영 헛잖아예. 옛날 헛덴 밧일덜 제주도 말  
 로 돌아주민 댜예.  
 103001 #1 으, 으.  
 103001 @2 전체적으로 밧 농사는 어떤 것덜 해서마씨 예전에?

103001 #1 예전에는 조, 보리, 또 콩은 약간 메주 그거, 그거하고 저 산두, 산두는 옥도라고 하지이.

103001 @2 예.

103001 #1 그거 허민 메밀, 메밀이 많이 했지.

103001 @2 메밀은 이 동네 말로 뭐렌 골앗수과?

103001 #1 믱물게.

103001 @2 믱물예. 예, 알앗수다.

103001 #1 믱물이고 이 옥도는 산두엔 허고 조, 조나 보리는 거 마잖가지.

### 보리농사

103002 @2 예. 이제는 보리 농사부터 허주예.

103002 #1 보리 농서 안 허여.

103002 @2 아 여기는 보리는. 여기는 게문 보리 농서는 안 현 거라예?

103002 #1 어. 거 보리 농서 허면은 다른 거 뭐 당근이나 현 것만큼 소득이 안 돼니까.

103002 @2 아니. 옛날, 옛날?

103002 #1 옛날엔 헤낫주.

103002 @2 옛날 보리 농서헌 거를 들어 보는 거예?

103002 #1 아.

103002 @2 여기는 농사렌 험니까, 농서렌 험니까, 용시렌 험니까?

103002 #1 용시야, 용시.

103002 @2 옛날 용시엔 헛지예?

103002 #1 으. 용시.

103002 @2 보리 용시 한 번 지어봬주. 게문?

103002 #1 게문 보리 용시.

103002 @2 보리 용시 갓젠 허면은 준비허는 게 뭐뭐 잇어낫수과 옛날?

103003 #1 보리 갓젠 허면은 우선 걸름이 잇어야 헤여, 걸름이. 걸름은 뭇을 사 용헛는가 허면은 아까 듬북은 아간의 그걸 허는 것이고 통새 걸름 잇지 안 허여이.

103003 @2 예.

103003 #1 그 도야지 길루는디 통새허고 소 걸름이 잇어. 소는 집집마다 소를 길렀거든.

103003 @2 예, 잠깐만에, 소엔 험니까, 췌엔 험니까?

103003 #1 췌엔 허주.

103003 @2 게난 앞으로 췌로 골아줍서예.

103003 @1 옛날 말로 골아줍서.

103003 #1 췌걸름. 췌걸름허고 그 저 통시 도새기 걸름 그걸로 헤가지고 췌로 다 시켜 강, 이제는 뭐 경운기도 잇고 마차도 잇어낫주만은 옛날 마차도 엇일 적에



는 전부 쉼로 실러 날랏주게.

103003 @2 예.

103003 #1 쉼로 실러 날랑.

103003 @2 쉼로 실러서예. 게문 그, 그 걸름 준비허는 과정은, 걸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마씨?

103003 #1 걸름은 소가 겨울에 저 뭐인가 겨울에 스개월 막에 메거든이, 경허든 소가 나가불민 봄 뭐인가 뭐인가 한식 돼면은, 그 췌명, 췌명 돼면은 뭐, 뭐 풀이 어느 정도 둔거든. 경허면은 췌명 넘으면은 소를 산으로 그냥 방목해불어 게면은 그 스개월 동안 쌓여진 걸 갖다가 그것을 내여가지고서, 그걸 내영 ㄱ만히 내불민 안 돼. 내여근에 뒤집어 영해야만이 그것이 트주게 해영케 막 짐이 팡팡나게. 건 터야 걸름이 되는 거라. 겐 그걸 트면은 거 파삭 몰르지 막 몰라불면은 옛날은 그 뭐인가 맥이란 게 있어 맥.

103003 @2 예.

103003 #1 맥에 거 시꺼서 소에 시꺼서 다 날라갓주.

103003 @2 그 삼춘 아까 걸름힐 때 낸덴 헛잖아예.

103003 #1 으.

103003 @2 걸름 낼 때는 무신 걸로 해서마씨?

103003 #1 거 췌스령으로 해서 췌스령. 그때도 췌스령이 잇엇어.

103003 @2 으, 겐 췌스령으로 내면?

103003 #1 췌스령으로 그 뭐인가 췌 걸름 낼 때는 췌스령으로 낼 수가 엇어. 그 뭐인가.

103003 #4 골체로.

103003 #1 아니, 골체말고 그 뭐인가 옛날 뭐엔 해낫저.

103003 #4 산태. 산태, 췌스령.

103003 #1 아, 산태, 산태. 그 산태 해가지고서, 산태 해가지고서 그 이제 산태는 이렇게 나무를 영영 해가지고서 요 가운데, 가운데 뭘 줄로 영 저 무신거 끈으로 힐 거 같으면 이레 영 퍼 놓을 거 아냐이.

103003 @2 예.

103003 #1 골체로 허민 대여섯 골체 들어가지이.

103003 @2 으.

103003 #1 경허민 둘이 들렁 내치곡 내치곡. 거 소걸름, 소 많이 허는 딴 소걸름이 엄청나게 만허여.

103003 #4 엄청나게 많지.

103003 @2 그 췌걸름예, 췌걸름힐 때 산태를 이렇게 허면 이 옆에 뭐 아까 무슨 걸 끈으로 해서마씨, 무슨 끈으로 헛수과?

103003 #1 가운데 그 저 뭐인가 상, 상, 상자기 모양으로 남으로 예젓주게 남으로.

103003 @2 남으로 예껴갓고?

103003 #4 가메기, 가마니로.

103003 #1 옛날에 가마니가 없으니까이.

103003 @2 예.

103003 #1 영 예견, 남으로 예견 허다가 말제는 가마니 나오난 가마니로 헛주, 것ㄴ라 산태렌 해.

103003 @2 산태예. 그 산태는 하계 뉘면 그 이렇게 생긴 거 아니우과, 어쨌든 예, 이런 우리이. 이 낭은 저기 뭘로 멘들엇수과?

103003 #1 건 아무 남이나 아무 남이라도. 것도 하여튼 남, 낭 허젠 허믄 상당히 거 것도 힘들어. 거 낭도 하여튼 남도 거 선흘곳이엔 헌디 선흘곳 가면은 가시 낭이라는 남들이 잇주게 질긴 낭.

103003 @2 예, 예 질긴 낭.

103003 #4 \*\*낭으로 멘들앗주게. 가시낭으로 멘든 게 아니고.

103003 #1 게메 그 가시낭으로도, 하여튼 좋은 낭으로 택헛 멘들앗주. 쟁헤야 오래 가주 경 안허민 오래 안 강 꺼꺼져불주.

103003 @2 예, 맞수다.

103003 #1 게난 그 걸름 허젠 허면 산태도 필요허고.

103003 @2 쉼스렁 필요허고.

103003 #1 쉼스렁도 필요허고예.

103003 #4 골체도 필요허지.

103003 @2 그 다음에 골체.

103003 #1 골첸 건 도야지 걸름 넬 땐 골체로 거.

103003 @2 예, 예. 그 골체는 뉘로?

103003 #1 대로, 대로.

103003 #4 대나무.

103003 #1 대로.

103003 #4 그 율이 거는이 뉘냐 허면은 상동나무로 율이 거는 허고 가운데 거는 대나무, 대나무 쪼개여서 깎아서이.

103003 @2 여기에는 게민 골체 멘드는 어른덜이 잇어낫수과?

103003 #1 어. 많이 잇어낫저. 자급자족 헤가지고, 또 이제 산에 가가지고 멀위 줄, 명줄이엔 헌 게 잇어. 명줄 헤다가 그거 허면은 그 뉘인가 대로 헌 것 보단 멧배 오래 가주.

103003 #4 예를 들어 대로 헌 거 이 년 쓰면 건 오 년 써, 명줄로 멘든 건.

103003 @2 그러면 삼춘 잠깐만예. 대나무로 멘든 골체는 무슨 골체마씨?

103003 #1 아, 다 골첸 다.

103003 @2 그냥.

103003 #1 명줄 골체 따로 잇고 대나무 골체 또 잇고.

103003 @2 계난 대나무 골채 험니까 대골채 험니까?  
 103003 #1 대골채.  
 103003 #4 골채는 다 골채지 뭐.  
 103003 #1 대골채엔 허주.  
 103003 @2 예, 예.  
 103003 #1 대골채엔 안 험 기자 골채, 골채 해서.  
 103004 @2 예. 알았수다. 그 다음에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허영 갈아마씨? 언제 가는 것과 보리는?  
 103004 #1 보리는 뭐인가 시월달에 갈주, 시월달에. 시월달에 갈아가지고 그 뭐인가 그 망종 때엔, 망종 넘으면 보리 무조건 비어야 돼.  
 103004 @2 예.  
 103004 #1 망종 넘으면은 보리가 삭아져 불영 비질 못허여.  
 103004 @2 예.  
 103004 #1 망종 전에 건 다 비어야 돼.  
 103005 @2 계문 그 보리 갈젠 허문 그 걸름에 보리씨를 서경 헛저 이런 말도 잇언게 만든 여기도 헛수과?  
 103005 #1 아, 여기도 경 헛주. 저 걸름 돛걸름에 막 마당에 내 놔가지고서이 그 돛걸름을 쉼로 불리면서 그 보리씨를 막 이렇게 거시기 허여. 경헛가지고서 그 들에 시꺼당 낱 이걸 저 뭐인가 줍아낱이 줍아와서 이렇게 갈면은 힘들어. 계난 수족이 만헌 사람은 그렇게 허고 갠 안 헌 사람은 기자.  
 103005 @2 그 다음에 이제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뿌린 거라마씨?  
 103005 #1 손으로 그냥 뿌리주, 손으로.  
 103005 @2 손으로 그냥 뿌려예. 계문 걸름 헌 거는 줍아낱 이렇게 뿌리고.  
 103005 #1 어.  
 103005 @2 그렇지 않으면.  
 103005 #1 손으로 다 뿌렸주 손으로.  
 103006 @2 손으로 다 뿌려예. 보리 종류는 어떤 게 잇어나시고예?  
 103006 #1 보리 종류는 우리 한동은 아까 얘기헛지만은, 행원, 월정은 일로 서러래 그 뭐인가 진흑땅이난에 보리가 잘 돼는데 우리는 보리가 안, 안 돼니깐에 여기는 겉, 여기는 피, 뭐인가 그 솔보리, 그 앓은베기 보리가 아니고 솔보리란 헛자 그 보리가 그 앓은베기만이 못 헛주. 계난 솔보리가 거 뭐인가 그 줄보리라고 그렇게. 행원 거는 동글동글허고 그 뭐인가 질왔디 것은.  
 103006 @2 예.  
 103006 #1 거 읊고, 우리 한동은 읊지 안 허고 소름소름헛가지고.  
 103006 @2 아, 보리가 안 읊은 거라예.  
 103006 #4 월정이나 행원은 앓은베기 보리라고.  
 103006 @2 여기서 앓은베기 보리를 헌 거라예?

103006 #1 아니, 우리 한동은 줄보리고.

103006 @2 아, 여기는 줄보리고.

103006 #1 저기 저래는 앓은베기 보리. 우리 한동은 앓은베기 보리가 안 돼여. 땅이 뜬 땅이라부니까. 화산토토로. 한라산에 재 불려온 땅이라부니까.

103006 @2 예, 맞수다. 게민 여긴 겔보리에는 안 갈아낫수과?

103006 #1 겔보리도 갈아낫주. 겔보리는 또 이제 우리 가름팻보단 못 현 밧디 겔보리를 갈았주. 겔 팡보리라고 그랫어. 겔보리ㄴ라 팡보리.

103006 @2 아, 겔보리, 팡보리에?

103006 #1 겔보리가 팡보리.

103006 #4 게난 맥주맥이렌 현 것도 많이 갈았어.

103006 @2 예, 건 나중예.

103006 #1 맥주맥은.

103006 #4 게난 제주도 말로 허민 옛날 거는 주녕이 보리라고 헛지. 토백이 말로는.

103006 @2 예, 예.

103006 #4 주녕이 보리라고 헛어.

103006 @2 예, 예 잠깐예, 그림 정리를 한 번 해 볼게예. 주녕이보리가 어떤 보리마씨?

103006 #1 주녕이 보리가 그것이 해방 후에 장려해가지고서 그게 좀 수확이 많이 낫주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뭐인가 그 두 줄반쪽허게 올라강 맺는 거. 게니까 주녕이, 주녕이 밧뜯거치 해부난 주녕이 보리. 게난 거 여기선 주녕이 보리렌 헛고 우리 표준에는 맥주맥이라고.

103006 @2 예, 알았수다. 게민 주녕이 보리가 이제 맥주맥이고예. 줄보리하고 맥주맥은 어떻허과?

103006 #1 줄보리는 기자 우리 토종 거고.

103006 @2 토종 거고예?

103006 #1 토종 거고, 팡, 그 뭐인가.

103006 @2 팡보리?

103006 #1 팡보리도 거 토종 거고.

103006 @2 예. 아까 팡보리가 다른 말로 허면은?

103006 #4 피보리.

103006 @2 피보리.

103006 #1 피보리 어.

103006 @2 아, 팡보리가 피보리에?

103006 #1 어.

103006 @2 피보리예. 게민 보리 종류가 솔보리 잇고.

103006 #1 피보리.

103006 @2 피보리 잇고.

103006 #1 맥주맥 그거 허고 세 개.

103006 @2 아까. 주냉이 보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다예.

103006 #1 으, 세 개.

103007 @2 예, 알았수다. 옛날 여기도 게든 뜯 땅이라부난 보리밭 블라시크라예.

103007 #1 아, 보리밭, 보리밭도 막 블랏주게.

103007 @2 그 얘기 좀, 어떤 식으로 블랏는지 곱아줍서.

103007 #1 게난 보리밭, 보리밭을 사람이 저 블르고 또 다시 저 그 일제 시대부터 막 블르라고 막 장려를 헛주 그 보리밭을. 막 관에서.

103007 @2 예.

103007 #1 땅이 막, 이제는 땅이, 날이 그 뭐인가 옛날만이 춥지 안 허니까 땅이 안 곳는데 옛날은 땅이 막 곳아불민 봄이 나민 이만큼 땅이 막 부각부각해낫주게. 경허건에 식구 많은 사름은 블르고 경 안 현 사름은 기자 블리지 안해도 기자. 블린게 훨씩 수확이 더 나주.

103007 @2 보리 블릴 때 무신 아이덜 연 띄우거나 이리진 안 헛수과?

103007 #1 아니 그건 보리밭에서 연 띄운 것이 아니라 옛날 조크루에서 막 연 덜 띄워낫주덜.

103007 @2 조크루에서 아 걸랑 나중에 물어보쿠다.

103007 #1 연 많이 띄웠저 옛날은.

103007 @2 연 많이 띄완예, 삼춘도 연 하영 띄우고.

103007 #1 아이고 우리 하영 띄우고 우리 아덜네부터는 안 해낫지만은 우리대까지는 굉장히 연 많이 띄워서.

103008 @2 아, 기구나. 게민 보리밭 검질도 삼춘 메레 텅겨볶디가?

103008 #1 보리밭 검질 메여야지 어떻.

103008 @2 어떻 맵니까?

103008 #1 것도 두 불 메야 웨여. 두 불.

103008 @2 두 불?

103008 #1 아, 보리밭은 대충 혼 불만 매긴 매는 디 조거튼 거, 산디 같은 건 두 불, 세 불 메야 웨여. 그래 멜 때에는 동네끼리 뭐인가 수눌어서.

103008 @2 예.

103008 #1 오늘은 이 사람네 밭디 가근에 허고 내일은 저 사람네 집이 가고. 경해야 능를을 올리지 경 안허민 능률이 안 올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놀날이 엇엇지 제주도 사름덜은.

103009 @2 겐 그때 보리밭디는 어떤 검질덜 나신고예?

103009 #1 아, 보리밭디 봄에 나는 검질 뭐 대우리도 잇고 뭐도 잇고 그렇고 그런 거 잇주게.

103009 @2 아, 예.

103009 #1 대우리엔 헌 거 아이 메면 안 돼, 대우리가.

103009 @2 검질 이름덜은 우리 여자 삼춘덜이 잘 알 거라예?

103009 #1 여자 삼춘이 잘 알 거여. 계난 진풀이니 뭐이니 그런 거, 그런 거.

103009 @2 거 튼 나지는대로 곱아봅서게.

103009 #1 게 진풀거튼 거.

103009 #4 사스레기, 진풀.

103009 #1 득풀이여 진풀 뭐 그런 거.

103009 @2 사스레기, 득풀, 진풀 요즘도 이런 거 보입니까?

103009 #1 그 으름에 제환지가 그 해바라기, 제환지 때문에 굉장히. 봄엔 그거 안 나니까 저 보리밭엔.

103009 @2 아까 그 해바라기는 뭐파?

103009 #1 그 해바라기라는 풀이 잇주게 그거, 그 그 별명이 그 우리가 여기 해바라는 거 해바라기라고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아닌게 아니라 빨리도 지피들어가고 또 콩밭디, 조팏디, 산디왔디 아주 거 제환지허고 그렇게 많이 낮어.

103009 @2 아, 해바라기하고예.

103009 #1 으.

103009 @2 해바라기 꼭 피는 거우과?

103009 #1 것도 꽃 피주, 빨강헌 거.

103009 @2 아.

103009 #1 아 꽃은 안 피는데 열매가 빨간 거.

103009 @2 아, 열매가. 해바라기. 요즘도 보이는가마씨?

103009 #1 아, 요즘도 많이 잇주.

103009 @2 아.

103009 #1 지금도.

103009 @2 알앗수다. 나중에 봐봐야 허कु다예. 저 검질 메젠 허면은 뭐로 멧수과?

103009 #1 곱쟁이로 메주게.

103009 @2 곱쟁이로. 곱쟁이도 종류가 으라 개 이신가마씨?

103009 #1 아니, 여러 개 엇어.

103009 @2 아, 그냥 곱쟁이.

103009 #1 옛날 곱쟁이는 요새 육지서 들어온 곱쟁이론 못 메. 영 거세기 해부난. 그 땅 극지도 못허고 파이라 그건. 건 논밭디만 메는 것이지. 계난 우리 제주도서 만든 곱쟁이라 돼여.

103009 @2 여기서는 곱쟁이는 주로 어디서?

103009 #1 여기도 곱쟁이 허는 디가 셔낫주. 그 하르방이 이제 돌아, 돌아갓주

만은 여기 골쟁이를 불미항이 여기 잇엇주게.

103009 @2 불미항이 잇엇어서예. 게민 그 골쟁이도 베린텐 험니까?

103009 #1 어 골쟁이도 베리주. 베리고 두들고.

103009 #4 쉘스령도 멘들고.

103009 @2 여기도 불미항이 잇엉 쉘스령도 다 멘들앗던 거라예?

103009 #1 어. 거 부락마다 다 잇어주 불미항.

103009 @2 아, 그러면 이 동네 농사 짓는 농기구덜은 다 그디서?

103009 #1 어, 어. 주로, 주로 다 여기 자급자족했저.

103010 @2 예. 그 보리 수확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옛날 헛수과?

103010 #1 보리를 이제 거 뭐인가 보리를 빌 거 아니라, 비어다가 이제는 집에 다 시꺼울 거 아니라. 쉘로 다 시꺼와가지고 놀영 낫다가, 놀영 낫당 집에서 이제 낱 존 낱 홀터야 돼.

103010 @2 예.

103011 #1 그걸 그 저 이렇게 클이 잇주게 이렇게 헤가지고.

103011 @2 예, 클.

103011 #1 그걸 홀타근예가, 홀타근예가 다 홀타근예가 그걸 두드렛주.

103011 #4 그 도께, 도께 알아져 도께.

103011 @2 예.

103011 #1 도께로 테작을 헛주.

103011 @2 그럼, 보리, 보리클이우과?

103011 #1 으.

103011 @2 보리클로 홀튼 다음에 또 도께로?

103011 #1 으, 도께로 그걸.

103011 #4 마당에 낱, 그걸 마당에 낱 두든 거라.

103011 @2 예.

103011 #1 경허민 그때도 수 놀영 해야 돼여. 사름이 너이, 혼 서너이가 이서야 양쪽이 둘이, 둘이 상 이렇게 해야. 그 수놀영 해야.

103011 @2 그 도께 이신 집은 엇이카마씨?

103011 #1 도께 이신 집은.

103011 #4 게메 저디 실 지 몰라.

103010 @2 혼 번 좇아 봄서예. 게민 보리를 비잖아예. 보리는 뭇로 비어마씨?

103010 #1 호미로게.

103010 @2 그 호미허고 바당에 호미허고 호뭍 트나지 안 험니까?

103010 #1 아, 바당에 호미허고 틀려.

103010 @2 그 호미를 불르는 이름이 잇어신가마씨 예전에?

103010 #1 아니 기자 호미엔 허주, 호미.

103010 @2 호미예.

103010 #1 호미, 굴쟁이.

103010 @2 예, 호미, 굴쟁이에.

103010 #4 해변 쓰는 호미허고 이디 호미허고 거 틀리주게.

103010 @2 예, 알앗수다. 거 나중에 다시 혼 번 물으쿠다. 보리 비면 그 다음에 무꺼야 헐 거 아니과?

103010 #1 무끄주.

103010 @2 무끄젠 허민 뭐가 필요헙니까?

103010 #1 게난 그 그 보리로 그자 무끄는 거라 보리로.

103010 @2 아.

103010 #1 거 보리가 이거 영 보리를 ㄴ칭헌 걸로 헤가지고 영 헤가지고 여기 소독아니라 소독을 벙허게 데와가지고 꼬구려가지고서 영 꼬구려가지고 그걸로 보리쩍을 무끄는 거라.

103010 @2 아, 그러면은 보리 소독 있는 쪽으로 데울 거 아니과예?

103010 #1 으, 으.

103010 @2 그 무끄는 거를 여기에서는 뭐렌 다른 말 안헙니까?

103010 #1 다른 말 뭐.

103010 @2 께니 뭐니 이런 말 안 헙니까?

103010 #1 그 께는 딱로 허는 걸 께렌 허주.

103010 @2 보리는 따로 제께 이런 말은 안 써마씨?

103010 #1 거 제께로 허기 때문에 그 다른 뭐인가 께가 필요엇주.

103010 @2 그냥 제께렌 말은 이 동네서 헛수과?

103010 #1 어.

103010 @2 게민 보리는 보리 제께예?

103010 #1 으, 제께로 무끄는 거.

103010 @2 예, 예.

103010 #4 가당 오당 군께헨 무끄는 사름도 잇긴 잇는디 보통 보리로 헿 무끄 주게.

103010 @2 군께는 게민 뭇로 만들어마씨?

103010 #1 새로, 새. 새 비여다가 새 비여다가 조 무꿀 때나 콩 무꿀 때나 이 뭇물 무꿀 때나 이건 새께로 헤야 댜.

103010 @2 새께로?

103010 #1 으 새께로 안 허민 안 댜여.

103010 @2 산두쩍으로는 안 헛수과?

103010 #1 산두는 산두쩍으로 무끄고.

103010 @2 아, 산두는 산두쩍으로 무끄고.

103010 #1 산뒤쩍으로, 산뒤쩍으론 쫄랑 안 댜 콩거튼 거 무끄젠 허믄.

103010 @2 아 여기는 뭇이 크구나예?



103010 #1 으 못이 크난. 게난 혼, 쉼 혼 바리에 세 못씩 게난 이만씩, 이만씩 허주게 그걸 혼짝에 세 개씩 세 개씩 으숫 못헨 그것이 혼 바리라.

103010 @2 아, 콩은.

103010 #1 콩이나 믯물이나.

103023 @2 조나?

103023 #1 거 조는 조는 그냥 밭에서 많이 톤앗주게.

103023 @2 아.

103023 #1 갖고 오질 안 해가지고 밭에서. 밭에서 가근에가, 거 톤다는 거 제 주도 사름덜 알 거 아니가?

103010 @2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놀기도 보리남 해근에 보리 비여근에 놀기도 허잖아예?

103010 #1 어. 보리 비영 놀주게. 비 맞으민 안 돼니까.

103010 @2 어떤 식으로?

103010 #1 그냥 동글랑허게 허주. 동글랑허게.

103010 @2 동글랑허게예.

103010 #1 동글랑허게.

103010 @2 놀영, 비 맞지 못허게예.

103010 #1 비 맞지 못허게. 경해가지고서 그 우에는 보리로 이렇게 거시리주 보리가 거꾸로 영허민 비가 영.

103010 @2 예.

103010 #1 그걸 영 층층층층 해가지고서 그 비 안 들게 경해가지고서.

103010 @2 게민 보리를 거꾸로 영 허는 것을 거시린텐 험니까 여기서.

103010 #1 어, 어 거시린텐 허주.

103012 @2 예. 거시린텐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썰 옛날 장만헐 때는 어떻게 헛수과?

103012 #1 보리썰 장만허젠 허면은 그것에 물ㄴ레엔 헨 것이 있어, 물ㄴ레, 물ㄴ레.

103012 @2 물ㄴ레.

103012 #1 물ㄴ레엔 헨 것이 큰 돌 영헤근에. 사람으로 영헤영. 그디 가서 물 놓면서이.

103012 @2 예.

103012 #1 물 허트면서 그걸 영 허면은 그디 꺾데기가 뺏겨질 거 아냐이.

103012 @2 예.

103012 #1 그거 뺏겨지면은 집이 왕 명석에 널어.

103012 @2 예.

103012 #1 명석에 널어가지고서 또 다시 이제는 이젠 돌ㄴ레 잇잖여이.

103012 @2 예.

103012 #1 돌궤레에 그걸 벌러야 돼여. 벌러야 그걸 경혜근에 밥을 행 먹주.

103012 @2 그 돌궤레 허젠 허면 필요헌 도구들은 뭐가 이신고마씨?

103012 #1 그 돌궤레는 다 짜져, 짜져 잇기 때문에 영 둥글임만 허민. 멧돌이, 큰 멧돌이 가운디 빙빙 돌아가멍 그걸 허는 거난에 게난 그 뭐인가 그 흘 때는 사름이, 사름이 필요허주게 혼 서너이 들어야 그걸 흐니깐이. 게니까 수눌영 대개 허고 중간에는 돌 있는 사람은 돌 메영.

103012 #4 돌도 메웁고 소도 메웁고 갈아. 옛날엔 잔치허젠 허민 보리밥을 헛거든 쌀이 엇어 놓니까. 잔치허젠 허민 돌이나 밧 가는 소 메왕 그 방앗돌을 돌렸어.

103012 @2 예.

103012 #4 많이 허는 건이 사람이 힘이 들고이, 보통 네이가 끌어 가거든이 네이 힘으로 안 돼니까 많이 가는 건이 소, 돌 메왕 돌렸지.

103012 @2 예 맞수다. 그렇게 허고 보리가 이제 돼면은 이제 물리기도 해야 헐거 아니과예?

103012 #1 게메, 게메. 나가 곧지 안 허냐게 그, 그 뭐인가 돌궤레에서 물, 물주멍 그걸 해야 그거 꺾테기가. 게니까 그걸 헤다가 돌궤레에 탁탁 굴아근에 허면은 집이서 마당에서 멍석에 널영 물류왕 물려야 그거 돌궤레에 벌러지주 모르지 안 허민 안 벌러지주.

103012 @2 그 옛날에 물리젠 허면 물린 거예, 또 거기에 궤시락덜도 이실 거고.

103012 #1 아니 궤시락은 엇어.

103012 @2 아, 거기는 궤시락 엇입니까?

103012 #1 엇어.

103012 @2 겐 불리진 안 헤마씨?

103012 #1 아 거 불리기도 허긴 허주. 가끔 궤시락, 꺾테기가 이시카부덴 불림도 허고 굴아놔도 체로 영 처근예가 그 곳아진 건 다 아, 아래 골르고 궤스락이고 뭇고 다 처지주게 체로 치면.

103012 @2 불림질 허제 허면 뭇뭇 필요헵니까?

103012 #1 건 속박허고게 멍석이지게.

103012 @2 속박허고 멍석만 이시민 돼마씨?

103012 #1 어.

103012 #4 얼멩이 이서 큰 체. 그 얼멩이 쳐야주게.

103012 @2 예.

103012 #1 그 얼멩이 치는 건 보리 테작힐 때는 얼멩이로 치는 것이고 테작힐 땐 얼멩이로. 보리 테작이나 뭇 무시거 조 테작이나 뭇 얼멩이로 그 곡메길 쳐내는 것이고 곡메기.

103012 @2 예, 곡메기예.

103012 #1 기자 보리 골앙 무시거 헐 때는 얼멩이가 필요없는 거주. 대체, 대체

허고 거세기.

103012 @2 보리, 보리들 같은 경우에 운반할 때는 뭐에 낵 운반해서마씨?

103012 #1 ㄱ린대구덕이라는 것이 있어.

103012 @2 예.

103012 #1 ㄱ린대구덕이란 것은 대로, 대로 거 만든 건데 대, 그 대구덕이 좀  
혈면은 혈어 가면은 혈어 가면 옷 같은 거 그거 쪼가리해가지고 부치근에 경허민  
그거 막 오래쓰주게.

103012 @2 예.

103012 #1 그것ㄱ라 ㄱ는, 그것ㄱ라.

103012 #4 ㄱ른구덕, ㄱ른구덕.

103012 #1 ㄱ른구덕.

103012 #4 ㄱ른구덕이엔 허지.

103012 @2 ㄱ른구덕예.

103012 #1 으.

103012 @2 예, 게난 ㄱ른구덕 잇고, 아까 속박해근에.

103012 #1 으, 속박, 체 거튼 거 잇어야 돼지. 대체, 거름체 그런 거.

103012 @2 체 종류, 맨 큰 게 얼맹이.

103012 #1 얼맹이 그 다음 대체, 그 다음에 뭐인가 그 거름체.

103012 @2 예.

103012 #1 그 다음에 ㄱ는체. 또 그 다음엔 맨 그 ㄱ레치는 또 막 곶아 ㄱ는체  
엔 허주.

103012 @2 ㄱ는체. 예. 총체렌 말은 안 씹니까 여기는?

103012 #1 건 총으로 만든 거주, 물총으로 다 몬든 거.

103012 @2 물총으로, ㄱ른 체가?

103012 #1 어. 대체는, 대체만 대로 만들고 뭐인가 ㄱ는체는 물총으로, 물총으  
로.

103012 @2 게민 대체만 대로 만들고 거름체부턴 전부 물총으로.

103012 #4 아니 얼맹이도 대로.

103012 #1 얼맹이도.

103012 @2 얼맹이도 대로예.

103012 #4 대체허고 얼맹인 대로 그 다음엔 다 물총.

103012 @2 예 알앗수다. 잠깐만에 이거는 체고, 우리 명석으로 치젠 허민 명석  
도 모양 네모난 것도 잇고.

103012 #1 ㄱ렛방석을 주로 그런 거 찻주 ㄱ렛방석. 그 저 돌ㄱ레에 보릴 ㄱ나  
무신 ㄱ물을 거피나 또 보리 그 거시길 혈 적에도 거시기 그 뭐인가 도릿방석이라  
고 뽕 동글랑 현 방석에 거기서 거 치고 뭐허고 허주.

103012 @2 예.

103012 #1 ㄹ렛방석이라 ㄹ렛방석.  
 103012 @2 ㄹ렛방석예.  
 103012 #1 어.  
 103012 @2 삼춘 아까 ㄹ렛방석을 도릿방석엔 헌 말을?  
 103012 #1 아, ㄹ렛방석, ㄹ렛방석.  
 103013 @2 ㄹ렛방석. ㄹ레, 돌ㄹ레 낱 허니까 ㄹ렛방석이엔 헌 거 닳아예. 그 다음에 보리쫄을 그추룩헌 장만을 헌 거라예. 보리쫄로는 뭘 행 먹어신고예?  
 103013 #1 밥을 주로 밥, 밥 행 먹었주게.  
 103013 @2 무신 밥마씨?  
 103013 #1 아, 보리밥게.  
 103013 @2 보리밥 해 먹고. 보리는, 쌀을 만들엉 보리 행 먹고 그 다음에 보리 보강은 뭘 만들었수과?  
 103013 #1 그 보리 보강은 옛날, 옛날은이 오월 장마가 허면은 혼 들동안 장마 져주게.  
 103013 @2 옛날에예.  
 103013 #1 옛날에. 경허면은 여저덜이 거 뭇인가 혼 거 엇으니까 거시기 게역 해근에 혼, 혼 땃대쫄 것도 뭇인가 보끄면은 그거 굴젠허면은 정말 남편도 ㄹ치 영 굴아줘야 돼고 경 안 허면은 거시기 허여. 경해영 게역, 게역을 행 먹었주.  
 103013 @2 그 다음에 보리 보끌 때는 뭇로 행 보까난마씨?  
 103013 #1 기자 그 옛날에는 무췌숫이 잇엇어, 무췌숫, 그것에서 보까서 술에 술에서.  
 103013 @2 그 무췌숫을 여기에서는 뭇렌 불러나신고마씨?  
 103013 #1 거 무췌숫이엔 경 헛주 옛날에.  
 103013 @2 무췌숫. 무신 가메숫 이런 말을 안 허고마씨?  
 103013 #1 그 가마숫, 가메숫은 큰 거, 큰 거 가메숫이엔 해가지고서 건 두말 떼기 이상 쥔 걸 가메숫이렌 허고 보통 이제 그 무췌숫은 경 큰 게 엇주게.  
 103013 @2 예.  
 103013 #1 가메숫은 건 뭇인가 췌숫이엔 해가지고서 그건 기자 췌로 만든 거라 부난 그냥 타불엉 보끄질 못헤.  
 103013 @2 아.  
 103013 #1 무췌숫에만이 보끄는 거.  
 103013 @2 예, 예.  
 103013 #1 그리고 또이 이 췌ㄹ루같은 거 무신 거 보끌 때도 무췌숫 그 뭇인가 두쟁이 있어. 두쟁이 가리청 놔가지고서 그 빙도 지지고 뭇허고 그 그렇게 주로 그. 숫두쟁이 가리청 놔가지고서.  
 103013 @2 숫두쟁이 가리청예?  
 103013 #1 으.

103013 @2 게민 그 무췌췌에예.

103013 #1 그 다음에 빙도 지지고 그디서 모든 거 다. 께도 소소한 거 보깡 먹곡.

103013 @2 예, 예.

103013 #1 지짐도 지정 먹곡 다 그렇게.

103014 @2 예. 삼춘 경허고 이제 보리도 곶아나면 이 쫄 말앙예 체덜 이실 거 아니예 거는?

103014 #1 건 도야지 쫄주 주로.

103014 @2 예.

103014 #1 거 건 보미 체라고 해서 존존헌 영 거 무시거 꺾테기 닳은 거 막 몬 아진 거 그것이 체로 치민 막 곶랏주게. 그건 잘 먹질 못 허여. 쟁허난 건 도야지 주로 쫄주게. 도야지 체에 서깅.

103014 @2 겐 보리도 보미체엔 험니까, 산뒤말고도?

103014 #1 아니, 산디에는 보미체엔 허주, 산디. 산디에는, 그 보미란 건 뭐인고 허니 산디에는 처음 우이가 좀 벌경허여이. 그것이 다 거 까까진 건 노랑허주게 그 그거 노랑헌 건 보미. 그래서 거 보미엔 허주, 거 산뒤 곤 거 보미엔 허고.

103014 @2 보리는 그냥 보리체예. 보리체도 하얀 가루가 생겨예. 그건 무신 거 렌 험니까?

103014 #1 게난 그건 딱로 험 수가 엇어. 그거 체니 무시거니 꺾테기니 거세기 신 걸 먹질 못허여.

103014 @2 보리 탈곡을 허고 나면 보리 대렌 험니까, 보리 낭이렌 험니까?

103014 #1 보리찌이엔 허주, 보리찌.

103014 @2 보리찌 용도는 뭐우과?

103014 #1 보리찌은 주로 거 걸름에 사용허주, 웨야지 통췌에 그걸 주로. 게난 췌걸름에는 조침이 들어가고 보리침은 통췌에만 들어가주.

103027 @2 아, 그 조침이 췌걸름에는 조침이 들어가마씨?

103027 #1 어, 조침허고 그 믰물침이영 들어가고.

103027 @2 아 기구나. 그 다음에 보리 탈곡헤나면 아까 그 소독?

103014 #1 으, ㄴ스락.

103014 @2 ㄴ스락.

103014 #1 ㄴ스락은 그건 뭐인가 그, 그 곶묵떼엿주, 그 ㄴ스락. 곶묵을 떼여서.

103014 @2 예 곶묵을 떼연예.

103014 #1 곶묵 떼고 또 이젠 그 식량이 모지렌딘 못이란 거 쫄어다가 그 ㄴ스락으로 뭇은 구웁 먹엇주.

103014 @2 음.

103014 #1 혼 삼사일동안 그디 그 항, 항 속에 뭇 놔가지고 그 주위에 고스락 놔가지고 그냥 불 부청 내불민 혼 메칠동안 그거 사그라들 때까지 그거 ㄴ아지주.

103014 @2 계난 삼춘도 그거 못을 먹었구나예.

103014 #1 우리도 그거 먹어놔주. 우리 자식 때엔 안 먹었주만은 우리 세대엔 거 먹었어. 우리 부모넨 그렇게 못 건디게. 공출을 했기 때문에.

103014 @2 예.

103014 #1 일본놈덜이 우리가 그 뭐인가 예를 들어 나가 보리 열 말을 수확했다 할 거 같으면 으둑 말은 그냥 공출 해부난 두 말로 생활할 수 었지. 그러니까 초근으로 그거잖아.

103014 @2 예.

103014 #1 초근 풀뿌리, 낭뿌리 먹었다 그말이주, 초근.

103014 @2 예, 맞수다. 그러니까 그 못 헤가지고는 못만 놔근에 먹었수과?

103014 #1 그 바다에 가근에가 그 뭐인가 그 패엔 현 게 잇어 그 검은 패란 게 잇어. 그걸 놔야 그 독헌 걸 조금 사그라정 경해도 독허긴 독허여.

103014 @2 아 그런 식으로 헨 구웁 먹엇고예. 계난 그 ㅁ시락을 못 구울 때도 쓰고.

103014 #1 쓰고. 주로 이젠 그 온돌 굴묵.

103014 @2 굴묵 떼는 디예.

103014 #1 굴묵 떼는 디.

103015 @2 아까 혹시 보리용시 허명 아이고 나 이젠 절대 잊어볼지 못허켜 허는 거 이수과?

103015 #1 보리 농서는 말야 제때에 비지 못허민 놓 빌영 비지 못허민 보리가 꺼꺼져볼주게. 꺼꺼져볼민 진짜 그거 못 비는 거 사람 성가셔근에가.

103015 @2 아.

103015 #1 꼭지가 다 영 부러정 영 해볼민. 계난 옛날에 보리 곧고 삼거렷덴 허주게. 계난 보리 곧고 상거렷 때는 말이야 그 뭐인가 사돈 봐도 밋구녕으로 절헌다고 경허는 거주. 바로 빵 절헬 새가 었다 말이야 그렇게 급허다. 보리 곱고 상거렷다고. 보리가 곱아버리면은 진짜 거.

103015 @2 잠깐만에 보리 곱고.

103015 #1 보리 곱고 상거렷다 허는 말이주.

103015 @2 상거, 상거렷다 라는 말은 무신 말이과?

103015 #1 아주 뭐 일거리가 너무 하부니까 뭐 거세기 여유가 었다 허는 말이주.

103015 @2 아 보리 곱고 상거렷다.

103015 #1 상거렷다 허는 말이 무신 말인가 여기 옛날에 삼을 심어 낫거든 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거세기 허면 그것도 막 츠레로 해야 돼니까 그런.

103015 @2 이것도 이렇게 가지런히 다.

103015 #1 그니까 보리 곱고 상 거렷으니깐이 뭐 머리가 어지럽다 그런 뜻이주.

106018 @2 이 한동에 삼을 심엇수과?

106018 #1 삼을 주로 심어놔주 옛날에.  
 106018 @2 아 삼도 심었어.  
 106018 #1 삼도 심어가지고서 그 삼을 뺏겨가지고서 그 주로 쉼배도 하고.  
 106018 @2 예.  
 106018 #1 그 저 뭐인가 저 물, 물 건지는 그런 것도 하고 경헛주. 집집마다는 아니 헛주만은 삼을 많이, 많이 허민 그 뭐인가 옛날에는 찢세기 삼을 때도 삼 헤 가지고서 늘 꼬고 그렇게.  
 106018 @2 아, 이 동네는 삼을.  
 106018 #1 삼도 해놔주.  
 106018 @2 예.  
 106018 #1 겐디 이제는 것ㄴ라 뭐인가 마약이엔 허주만은 그 당시엔.  
 106018 @2 음. 대마예.  
 106018 #1 대마.  
 106018 @2 예전에. 맞수다.

#### 조농사

103016 @2 이제부터는 조 용시해보쿠다예.  
 103016 #1 으.  
 103016 @2 조 용시해젠 허면은 뭐, 뭐가 필요해마씨?  
 103016 #1 거 우선 거 뭐인가 밋을 갈아야 돼주게이.  
 103016 @2 예.  
 103016 #1 조크루를 이젠 갈아야 텔 거 아니라이. 거 그 뭐인가 겨울 기냥 놀렸 으니까.  
 103016 @2 예.  
 103018 #1 그런 디도 하고 보릿그루도 갈아야 돼주게. 우선 갈아가지고서, 갈아 가지고서 이제 조농서는 언제 허는고 허느니 이제 그, 그 아이고 그 그걸 잊어불어 가지고.  
 103018 @2 예. 망종 끝나고.  
 103018 #1 망종 끝나근에가.  
 103018 @2 유월절?  
 103018 #1 이거 망종 끝나근에 요거 하지, 요거 하지.  
 103018 @2 하지.  
 103018 #1 요거 하지에부터 요거, 요거 시작을 허주게.  
 103018 @2 예, 예.  
 103018 #1 하지에부터 하지에부터 이거, 이거, 저 곳인 밋을, 곳인 밋을 여기서 는 사전이엔 허주.  
 103018 @2 사전.

103018 #1 사전은 하지에부때 시작하고 이 조 가름팻은 그 뭐인가 유월절 하여튼 스오일 전에, 스오일 전에 그렇게 허주게.

103018 @2 예, 그때부터 가는 거라예, 게민 그 조 블르젠 허믄 준비허는 건 뭐마씨?

103020 #1 준비허는 데는 물을, 물, 그 뭐인가 물 임자안티 가근에 그 날짜를 맞춰야 돼여. 언제 불러줍서 헨 그걸 맞춰야 돼고 게믄 그 이제 그 뭐인가 마주, 임제안테, 마주 임제안테 담배를 사 가야 돼고, 또 다시 특별히 또 밥을 그뎨 곤밥을 허고 고기, 그 고기 구워야 돼여. 고기 구면은 그 마주 임제가 것을 다 코솔허주다.

103020 @2 아.

103020 #1 그래서 말도 밧 불리는 데 아무 지장 엇게 해달라고 그렇게 헤가지고서, 꼭 그렇게. 그렇게 허고 또 일반 사름도 밧 불리젠 허면은 놉을 빌어야 돼 사름을.

103020 @2 예.

103020 #1 서너일 빌면 그때는 똑 그 뭐인가 거세기 저 뭐인가 콩으로 꼭 밥을 헤. 빨경헌 콩 잇잖헤이.

103020 @2 예, 예.

103020 #1 그걸 허고 거 보리쌀 낱, 저 보리쌀이영 곤쌀이영 서꺼가지고서 거 밥 불리는 밥이라고 헤가지고서 빨경게 그 밥을 헤야 돼.

103020 #4 특별허주 그 밧 불리는 밥이렌 헤가지고.

103020 @2 아까 그 고기 구웠덴 허지 안헛수과?

103020 #1 어.

103020 @2 무슨 꿰기를 구웠수과?

103020 #1 갯긋고기, 갯긋고기.

103020 @2 갯긋고기.

103020 #1 주로 우력을, 다른 고기보단도 우력이 젤 썰엿주게.

103020 #4 보통 우력, 밧 불릴 때 꼭 그걸 꺾어. 우력을.

103020 @2 그렇게 코실 허는데 그 코시는 무신 코시 헛수과?

103020 #1 그것은 우리가 허는 것이 아니라 마주가 허는 거주.

103020 @2 예, 물 임제.

103020 #1 테우리, 물 임제가.

103020 @2 예.

103020 #1 물 임제가. 게난 그 그 뭐인가 물 담당허는 신, 신안테 허는 거주.

103020 @2 예, 맞수다. 그렇게 해서 저 물 임제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 조 불리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헛수과?

103020 #1 조 불리는 순서는 그, 시간을 또 정허주 그 마주 임제가 아침이 허라, 거시기 허라, 그날 영 거시기 허는 사름을 영 봐가지고서 그 질 잇는데를 우선



해주주게. 질 엇는 딘, 옛날은 질 없는 디 막 안 밧도 잇주게.

103020 @2 예.

103020 #1 계난 그런 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 있는 밧디 우선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그 질 엇는 밧 허고 그렇게. 막 경쟁을 헛주. 마주덜토 많이 불러야 거세  
기 허니까.

103017 @2 그러면은 조, 조 불릴 때도 걸름은 헤신가마씨?

103017 #1 아니 조 밧딘 걸름 안 헤여.

103017 @2 조 밧딘 걸름 안 허고예.

103017 #1 보리헐 때만 걸름 허고.

103017 @2 예. 그러면 그 조 갈젠 허면 순서를 어떤 식으로 헵니까? 맨 처음  
예.

103018 #1 순서는 거 자기, 자기 밧이 좋으면은.

103018 @2 예.

103018 #1 좋은 밧, 토양이 일토, 이토, 삼토가 잇주.

103018 @2 예.

103018 #1 계난 일토쫘 웬 것은 그 유월절 삼일전에, 이일전에, 또 하루 넘으  
허는 디도 잇고. 그 이제 이런 신장로 거튼 딘 물 앓지 안허여이.

103018 @2 예.

103018 #1 물앓은 그 유월절을 넘으 헛주. 왜냐하면 유월절 전기에 물이 많이  
와 버리면은 거 희쫘헐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나가, 나 밧이 혼 이등, 삼  
등 뒤편은 혼 스오일 전에, 유월전 스오일 전에 이렇게.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해가  
지고.

103018 @2 땅 토양에.

103018 #1 으 토양에 가는 시기를 맞추는 거.

103020 @2 그러면 즈 불리젠 허면은 씨를 먼저 불리는 것과, 밧을 먼저 가는  
것과?

103020 #1 아니 그 밧을 우선 갈아 놔가지고서 물 혼 불 불러.

103020 @2 예.

103020 #1 물 혼 불 불러난 다음에 씨 뿌려근에가 펜펜헤야 그 저 뒤편이 저  
물 혼 불 불리면 펜펜헐 거 아니라. 경허면 씨 뿌려근에 또 다시 가불름으로 두 불  
불리주게.

103020 @2 아 두 번째 허는 거를 가불름이렌 헵니까?

103020 #1 어 가불름이라.

103019 @2 씨 처음에 밧 가는 것은 뭐렌 헵니까?

103019 #1 밧 가는 것은 그 건, 건 무시거 그건 그냥 밧 가는 거.

103019 @1 밧 갈고 조, 돌로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예. 씨 뿌리는  
사람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이서 마씨?

103019 #1 아 동네에서 잘 빠는 사름 불령, 불령 허주게.

103019 @1 경헨 그 씨는, 줍씨는 뒤에 낳 험니까?

103019 #1 씨 멜 망탱이가 있어, 멜 망탱이 영 메영 텡기는 걸 멜망탱이라 허주. 영 조금만 허영 씨 빠는 거. 거 멜 망탱이라 그래.

103019 @1 멜 망탱이에, 줍씨만.

103019 #1 영 메영 허는 거. 보리씨도 마찬가지로 다 멜 망탱이에.

103019 @1 예, 알았수다. 멜 망탱이에 씨 뿌려근에 믱쉬는 그때 멧 마리 정도 해근에 밧 불리젠 허민.

103019 #1 하여튼 스물 댓 쉼 디도 잇고, 서른 쉼 디도 잇고, 혼 열 댓 쉼 디도 잇고 경허주. 그건 믱쉬 하영 허는 사름 죽영 허는 사름 그렇게 있으니까?

103020 @2 게니까 그 믱쉬헿 불린 때 어떤식으로 헿 불립니까?

103020 #1 게난 그 물 임제가 앞이 사가지고 ‘월월’ 허면서 헤가면 쭉허게 물이 따라오주게. 게서 그 앞이 선 사름의 손놀림에 그 물이 다 그 스주헌 물이 앞이 서주게 앞이. 또 이 물 테우리 자기 주인은 물은 영리헌 동물이니까 잘 안다 말이야. ‘월월’ 소리나가민 이것이 밧 불리는 걸 몰도 알아가지고서 뽕뽕뽕뽕 그 사람이 멧령에 따라랑 소리에 따라랑 몰도 움직이주게. 갱 뒤에 사름은 중간에 떨어지는 것만 영영.

103020 @2 그거는 이제 몰로 불리는 거잖아예. 몰로 불리지 않고 몰로 못허는 밧들은 직접도 불라야 헿 거 아니과?

103020 #1 으, 삼, 삼태기라고 헤가지고서 걸 그것을 동글랑헌, 동글랑헌 뒤인가 나무에, 나무에 혼 밧썸 쉼 나무에 그 구녕을 뜰라가지고서 그 물 밧툽거치 그 문 딱 거세기. 경해서 그걸, 그걸 영 사람이 영 지여근에 남테를 그 물 대신 남테를 그렇게 헿지.

103020 #4 남태라고 해서 그것을.

103020 @2 남태는 사람이 정 허는 거예.

103020 #4 것도 이제 물, 물 현 마차 잇잖아, 마차 메와근에 꺾고 그 남테를.

103020 #1 물 이신 사람은 경허고 것도 엇이민 사름으로 다 꺾엇지.

103020 #4 것도 못허민 나무로 멘들앙 꼬실기라고 낭가지 만들앙 사름으로 꺾엇어. 게민 종자가 잘 안 나. 종자가 잘 안 나.

103020 #1 꼬실기란 것은 잘 불리지 안 허민 종자가 잘 안 살앙 나당도 다 쓰러져불주.

103020 #4 예를 들어서 몰로 불른 건이 구십프로 난다 허민이 꺾은 건이 삼십프로도 안 나. 게난 잘 안 뒤여. 게난 또이 나무로이 꺾어도이 밧이 힘이 엇어서 자빠져버 종자가.

103020 @2 그러면 삼춘 조가 이제 남태로 꼬슬퀴?

103020 #1 남, 남 꼬슬귀는 잘 안 허고 남태주게.

103020 @2 아 남태예.

103021 #1 몰 아니민 남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파종해가지고서 혼 돌 뒤편은  
검질 메기 시작해야 돼여.

103021 @2 예, 예.

103021 #1 소까야 뒤편 그것을.

103021 @2 맨 처음에는예.

103021 #1 초불, 초불 거 초불 멘다고 초불을 종자를 다 소까야 뒤편 거 아니라  
이.

103021 @2 예.

103021 #1 소깡 두 불 땔 때 또 알쟁이들을 다 소끄고 검질도 메고. 거 세 불까  
지 메야 돼여.

103021 @2 세 불까지. 아까 알쟁이마씨?

103021 #1 알쟁이. 거 크민 쳐 진 거 잇진 안 허여게. 그런 거 다 뽑아베야. 경  
안 허민 그것이 장애가 돼주.

103022 #4 또 조에 조 닳은 거 고라지가 있어. 고라지 것도 메베야고.

103022 @2 고라지예.

103022 #1 고라지허고 그 조가 쳐지는 거. 그 뭐인가 그 사람거튼민 장애자 그  
런 건 다 뽑아 불어야지.

103022 @2 그거를 아까 알쟁이렌 헛수과?

103022 #1 알쟁이를 잘 소까줘야.

103022 @2 알쟁이 잘 소꾸라 이렇게 곁는구나예 말을?

103022 #1 으, 으.

103022 @2 아니 웨냐허면 알쟁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근에, 오늘 한동 잘 왓수  
다.

103022 #1 거 쳐진 걸 그거.

103022 @2 예, 예.

103022 #1 그건 기형아, 사람거튼민 기형아로 크지 못헤영 어디 우이 고고리가  
거 우이 거시기 망가져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 게염지가 그걸 거시기 헤불민,  
그런 건 뽑아불지 안 허면은 지장이 잇주게.

103022 @2 게난 조껍질은 주로 조 소끄는 거군아예.

103022 #1 으 조 소끄고 두 불 검질부터는 그 검질을 메야 뒤편.

103022 @2 어떤 검질 납니까? 여름 농사니까.

103022 #1 여름 농사니까 주로 제환지허고 아까 그 해바라기.

103022 @2 예.

103022 #1 그런 거 많이, 솔개풀이라는 것도, 아니 저 솔개풀이 아니고 것ㄴ라  
뒤편 곁느니? 것도 이름이.

103022 #4 뒤편과?

103022 #1 거 헤영게 막 나는 풀 있지 안 허냐게, 으름에.

103022 #4 저 거세기 논밭풀 말이우과?  
 103022 #1 논밭풀 말고게.  
 103034 #4 거 콩밭디 나는 거 뭐?  
 103034 #1 으, 으.  
 103034 #4 거 콩밭디 나는 거 해바라기주 무시것과?  
 103034 #1 해바라기말고게.  
 103034 #4 벌경 거.  
 103034 #1 아니 헤여헌 거 잇잖여게. 파란 거게 막 와삭헨 허는 거.  
 103034 @2 거 튼내 볍서예, 나중에 또 검질 이름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103034 #1 그러 으름에 마 질땀 막 많이 나주.  
 103034 #4 거 콩이영 낭 막 크는 거 아니과게.  
 103034 #1 건 콩거치 막 크진 안 허여. 막 아래만 하얗게 헤영.  
 103034 @2 하얀 꽃 피는 거예, 별꽃 피는 거예.  
 103034 #1 어. 그것은 지장은 엇긴 엇는데 그건 우터레 올라가지 안 허니까. 해바라기허고 제환진 막 우터레 올라가는 거.  
 103034 @2 아, 예.  
 103034 #4 제환지는 막 콩이영 ㄴ치 올라가 제환지풀은. 해바라기도 올라가지만은. 저 득베설.  
 103034 #1 맞아 득베설.  
 103034 #4 득베설은 씨가, 이 빨리로부터 씨가이 그 득 장득의 고장 닳아서 득베설이엔 허여. 그것이 씨가 무지허게 만허주게.  
 103034 @2 쏘개풀은 뭐과?  
 103034 #1 게난 솔개풀이 아니고 득베설을 쏘개풀이엔 헨 거라.  
 103034 @2 쏘개풀은 어떤 거?  
 103034 #1 쏘개풀은 것도 약재로도 사용허는 건디 그건 밋디 얼마 나지 안 허여.  
 103034 @2 아 예. 그건 안 나고예.  
 103023 @2 삼춘 경허고 조 경헤여근에 검질메고 허면은 수확을 헤야 될 거 아니과? 어뎡헤마씨?  
 103023 #1 어 수확은, 수확은 시월에 허는 거주게 거 수확은.  
 103023 #4 시월 돼여가민 구월말에, 보통 구월말에 허곡게.  
 103023 #1 으, 구월 중순에부터 조는 허기 시작허주. 양력 구월 중순에.  
 103023 @2 그러면 구월 중순에 조 수확허는디 호미로 다 비여신가마씨?  
 103023 #1 으, 호미로 다 비여야지.  
 103023 #4 호미로 비영.  
 103023 #1 호미로 비여근에 밋디 늘주.

103023 #4 계난, 계난 혼 이틀 이삼일 물류와. 밋디 그냥, 그 조는 무끄지 안 허 영이 그자 누는 거라 그자. 그 안아 놔근에 그냥 눌엇당 계민 누는 사람 눌엇다근 에 다른 거 다 헤 놓고 이젠 밋디서 고고리, 안아 놓멍 멍석 깔앙 안아 놓멍이 호 미로이 고고리 다 찢라 호미로.

103023 @2 예.

103024 #1 그건 조, 조 툷넨 허주.

103024 #4 조 툷는 거라고 헤.

103024 @2 예, 알았수다. 삼촌이 이제 그말을 곱아 쥐 봅서. 조 툷는 거 어떤 식으로?

103024 #1 조 툷는 것은 호미, 거 조 툷는 거 이렇게 저 거 뭐인가 이것이 조코 고리 아니라 계민 이레 영 막 이렇게 영 빨리빨리 영영 이만이 영 심으면은, 이만 이 영 심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 호미로 영 딱 그차근에 맥에 놓고 맥에 놓고 경허 는 거주. 맥이 ㄱ득우면 남저는 정가근에 또 다른 맥 앓앙 가곡.

103024 @2 예, 경 툷는 거는 집이 정 가야 돼는 거라예. 경행 이제 정 가면 어 떤식으로 이제?

103024 #1 조를 다 툷아, 툷아오면은 다 툷아오면 이제 그걸 뭐인가 테작을 헤 야 돼지. 테작을 헤야 돼는디 계난 그 소 잇는 사람은 수족이 많은 사름은 소로 또 불리고.

103024 #4 소로 마당에 낵 불리고.

103024 #1 마당에, 마당에. 거 널어놔근에 소로 허젠 허면은 소 오줌도 싸고 똥 도 쌀 거 아니라게.

103024 @2 예, 예.

103024 #1 겐, 사람이 필요헤야 돼, 사람이 필요헤근에가 서너이 식구가 많으면 은 경도 허고. 경 안허면은 도계로, 마당에서 뚜드려야 헤. 그걸 다 두드려근에가 또 다시 이제 그 또 우이 뭐인가 우이 혼 불 뚜드리리면은 그 우이 그 곰메길 혼 도리에 모도와.

103024 @2 예.

103024 #1 곰메길 혼 도리에 모도와가지고서 이제는 진국은 이쪽으로 헨 땡겨 놓고 따시 이젠 이 곰메길 그 진국 이 땡겨 분 그 우이 낵 또 테작허고. 그렇게 헤 가지고서 다 뚜드리면은 이제는 불려야 돼주.

103024 @2 예.

103024 #4 계만 불리지 전에 대체로 치는 거 아니과? 그 봉땡이.

103024 #1 아 계땡.

103024 #4 조풍땡이 그 조풍땡이 올매 그 조 담아저난 올땡 조풍땡이라고 허주.

103024 @2 예.

103024 #4 그걸이 그걸 할망덜이 그걸 브름에 불리는디 브름이 세민 안 돼주 거는. 계난 브름에도 불리기도 불리는디 보통 다 대체로 췌어 거는 다. 계난 그 조

풍뎡이 뭐냐 허면이 그거는 돼야지 사료로 들어가는 디 계난 조풍뎡이.

103024 #1 쉘 많이 주주.

103024 #4 계난 돼야지 건 술지지 안 허여. 조풍뎡이 많이 주난. 전부 돼야지 집집마다 돼야지 다 시니까.

103024 @2 예.

103025 #4 그 보리 마나 조 마나 헤면은 조도 이제 멧돌에 강 곶아왔기 때문에 그 조 큰 채는 돼야지 주민 잘 먹지. 건 고급이지.

103025 @2 예.

103025 #4 거 말째 조 꺾데기 벳긴 거. 것도 다 멧돌에 강 곶았거든.

103024 @2 그 조풍뎡이 먹으면 안 술지고, 그 조풍뎡이 말고 조 헤난 거는 뭐 렌 험니까?

103024 #1 거 강메기엔 허주 강메기

103024 @2 조강메기는.

103024 #1 조강메기는 건 소가 잘 먹어. 거 뭐인가 그 큰 맥에 담양 낫다가 소 앞이 놓민 소가 그렇게 잘 먹어.

103024 @2 그렇게 하고 옛날에 그 덩드렁마께도 이용했지예?

103024 #1 그거 주로 덩드렁마께 집집마다 서서. 왜냐면은 심 삼을 때도 덩드렁마께로 두드려야 돼고 베혈 때도 덩드렁마께 산디짬 두드려야 돼고.

103024 @2 그 저 뭐는 그 조혈 때는 안 험마씨?

103024 #1 조혈 때는.

103025 @2 그거 하영 뭐 혈 때는 안험구나예. 그 다음에 이제 좁쌀은 아까처럼 이제 몰ㄴ레?

103025 #1 으. 몰ㄴ레도 가고 이제 정미소 나난 주로 정미소 갓주.

103025 #4 정미소 남 시작허난 정미소주.

103025 #1 정미소 나기 전에는 몰ㄴ레에 허긴 헛는데, 몰ㄴ레에 허민 많이 못아 겨불고 허주게.

103025 @2 예, 계민 집이서 돌ㄴ레에 낱 영 거퍼시켜예. 그거 말고 그 좁쌀로는 주로 뭐 헛수과?

103026 #1 주로 밥을 헤 먹주. 주로 밥을 허는 디 거 모인 좁쌀은 막 살락허주게. 살락허여도 조팝은 먹으면 그렇게 시장기가 안 나.

103026 @2 음.

103026 #1 보리밥은 먹으면 혼 시간 후에는 밥 생각이 나는데 조팝은 먹으면 그렇게 실허여서 시장기가 안 나. 그렇게 조팝은 헤낫주게.

103026 @2 그렇게 좁쌀로는 조팝허고 또?

103026 #1 조팝도 고 그 무시거, 조팝도 허고.

103026 @2 떡은 안 헛수과?

103026 #1 그 친떡도 헤영 먹엇주. 그 ㄴ를 거시기 헤가지고 조친떡이라고 헤가

지고.

103026 @2 아, 조친떡라 해서 먹고예, 예. 친떡도 해서 먹고.

103026 #1 친떡도 허고.

103026 @2 옛날 술도 허지 안 헛수과?

103026 #1 아 조론 술을 안 헛지.

103026 @2 오메기.

103026 #4 아니 찹쌀 조가 잇었어. 찹쌀 조가.

103026 #1 조로 해서 그 뭐인가 주로 여기선 그 뭐인가, 그.

103026 @2 술예.

103026 #1 술을.

103026 @2 예, 오메기술.

103026 #1 으, 오메기술. 게서 저 청주주, 청주로 그렇게 행.

103026 @2 예, 예.

103026 #1 많이 먹었주.

103026 @2 예. 감주 같은 것도 다 그런 거로 허는 거 아니라예.

103013 #1 감주는 저 거시기, 골 감주라고 보리, 피보리.

103013 @2 아.

103013 #1 피보리 놓아근에가 그 저 나는 거 그걸 골아근에 그걸 해야 감주가 되는 거.

103013 @2 음.

103013 #1 피보리가 들어가지 안 허민 안 되는 거.

103013 @2 아.

103013 #1 맥주허는 디도 똑 피보리가 들어가는 거.

103013 @2 예, 피보리가. 게난 그 피보리가 요즘 말허민 맥주.

103013 #1 맥주맥이 아니라.

103013 @2 아닌 거.

103013 #1 피보리란 건 술보리보다 아주 그거 뭐인가 밋이, 밋이, 밋이 궂인 디 가는 거주. 왜냐 팡보리라 해가지고 팡보리라 해가지고 꺾테기도 두껍고 겐테 그것은 물 놓면은 골 그것이 최고지.

103013 @2 예.

103013 #1 그거 들어가야 모든 감주도 돼고 그 뭐인가 모든 것이 다 발효가 다 돼여. 풀 허는 데도 그것이 들어가야 돼여.

103028 @2 예, 예. 그 다음에 조 종류는 어떤 게 이신고예?

103028 #1 흐린조허고 모인조 거 두 개베끼 엇어.

103028 @2 흐린조허고 모인조. 그래도 흐린조도 으라가지 개발시리여 뭐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

103028 #1 게메 흐린조도 우리 한동 근방에는 뭐 이 행원 근방에는 그 뭐인가

노린모인조도 셔 낫는디 우리 한동에는 그 검은 호린조베끼 엇어낫저.

103028 @2 그럼 모인조허고 호린조 두 가지예.

103028 #4 두 가지, 두 가지.

103028 @2 예.

103028 #4 몰라 제주도는 거 전부 두 가지라. 지금거트면 참쌀이나 마찬가지로 호린조가.

103027 @2 예. 그 다음에 조침으로는 뭐 험니까?

103027 #1 초침으로는 소 먹이지. 소 먹이고 먹다 남은 것은 그 끌아쫓주게. 소 뒤에 끌아주민 걸름.

103027 @2 그 소 먹다 남는 나머지에, 먹당 남은 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안 험니까? 뭇헛 수과?

103027 #1 그, 그건 데치엔 허주, 데, 데치, 쉼 먹단.

103027 @2 데치예, 쉼데치.

103027 #1 으. 쉼데치엔 헛 그건 주로 소 똥 눅는데 거 끌아쫓주.

103027 @2 쉼데치예 그말을 들엇던 거 같아서예.

103027 #1 소데치. 먹당 남은 거.

103027 @2 삼춘 아까 이제 조침은 밧디서 다 툇앗잖우과?

103027 #1 으.

103027 @2 그 조침을 집에 가정 오젠 허면 일 하영 헤알 거 아니과?

103027 #1 게메 그 조침을 여저는 툇고 남저는 그 조침을 무끄고 그러해서 툇 아 놓는 거 뻬더레 남저는 담아 놓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그날 당일 무끄주게. 무꺼근예가 그냥 거기 늘어놧당, 늘어놧당 조 다 허민 시꺼오고 거 시꺼오고 경 헛주 게.

103027 @2 그 예전에야 뭐 다 새로 질메 메왕 시꺼 온 거 아니라마씨.

103027 #1 어. 다 새로, 새로.

103027 @2 겐 뻬 개썸 시꺼와마씨?

103027 #1 아이 그건 거 조침을 그거 세 돌, 혼 썸에 그 뻬인가 세 칸을 시끄는 건디, 혼 도름, 두 도름, 세 도름해서 그 앞에 앞에 조가 또 새헌 게 네 뻬썸, 다섯 뻬썸 헛 시끄주게. 게민 다섯 뻬, 네 뻬, 다섯 뻬허민 열세 뻬, 주로 열다섯 개 혼썸 에 열다섯 뻬허민 서른 뻬, 서른 뻬 헤가지고서 혼 바리헛 시꺼오주게.

103027 @2 서른 뻬이 이제 혼 바리에? 삼춘 아까 혼 도름, 두 도름 헛덴 헛디 혼 도름은 뻬우과?

103027 #1 거는 거.

103027 @2 질메?

103027 #1 거 질메예이 거 세 군데를 영 뻬조름에 메는 거.

103027 @2 음.

103027 #1 그거 영 세 곤데 다섯 개썸 다섯 개썸 열다섯 개 뻬 거 아니라이.



103027 @2 예.

103027 #1 그렇게 이쪽엔 경, 그렇게 세 도름으로 경 시끄는 거고 걸름 시끌 땀 그냥 그 착부지라 해가지고서 그냥 착 걸어가지고 영 혼 밋디로만 영 부찌는디 이거 거시긴 세 도름으로 허주.

103027 @2 아, 예 게난 이렇게 땀 거를 세 개 한다고 해서 세 도름 이렇게 헉 거라.

103027 #1 으.

103027 @2 아까 게든 거름 헉 때는 이렇게 헉 거를 착 부찼덴 헉니까?

103027 #1 어. 착 부찌는 거, 그건 그, 그건 그 공쟁이 걸어근에 헉덴 헉 거주. 그건 그 쉼스렁, 아니 저 쉼얏배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 땀 거 아니라.

103027 @2 예, 예.

103027 #1 영 걸어근에가 영 보기만 영.

103028 @2 게난 착부지를 두 개헉 걸어서, 걸영 허는 거로구나예. 착부지에 허고. 이 조 불릴 때에 아까처럼 보리헉 때도 그스락 때문에 고생헷주만은 조 헉 때 제일 힘들거나 잊어볼지 못 헉.

103015 #1 아니 조 헉 때 힘들지 아니혀. 조 헉 땀 힘들지 안 헉데, 이 보리는 그 그스락이 이디 허면은 막 몸이 그릅고이 밤에 잠을 못 자. 그때는 뭐이 모옥탕도 엇을 때 이 엇을 때라 놓니까 은물에 헤도 막 그릅주게. 아 이거 보리는 성가신 거 이거.

103015 @2 아 보리는 성가신 거예. 예 알앗수다.

103028 #1 조는 아주 양반이주 이거.

103028 @2 검질 때는 것만 잘 허민 땀쿠다예.

103028 #1 으 검질 때는 거. 조는 세 불을 메야 땀여 검질을.

103028 @2 예.

## 콩농사

103029 @2 콩농사 허젠 허면은 뭘 준비해야 땀 거과?

103029 #1 우선 종자를 준비해야 땀주 종자. 종자를 준비해야 땀고 밋 어디 갈 거 정해야 헉 거 아니라이.

103029 @2 예.

103030 #1 콩, 콩은 주로 이제, 이제는 그전에는 주로 혼 유월절 오륙일 이전에 헷는데 이제는 뭘 유월절이 필요엇어. 유월 시, 이십일만 땀면은 콩 막 파종허기 시작해. 이제 콩덜은.

103030 @2 이제 콩덜은. 옛날은마씨?

103030 #1 옛날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 절 스오일 전이 해낫주게. 유월 절 넘영도 허고 해낫는디 이제 콩은 일찍 허는게 좋아.

103031 @2 콩밭도 거름 해신가마씨?

103031 #1 아니, 거름 안 허여. 비론 허주, 비료.

103031 @2 요즘 허는 거 말앙 옛날, 옛날.

103031 #1 옛날은 비료 안 헤나고. 옛날은 경 안 해도 콩 잘 돼낫주. 비료 안 해도.

103032 @2 콩씨는 어떤 식으로 빼는 거과?

103032 #1 것도 영 손으로 빼여.

103032 @2 손으로 빼예. 콩밭도 검질 하영 메여낫지예.

103032 #1 콩밭도, 콩밭도 혼 불, 혼 불은 잘 메야 돼. 안 메영 내부는 사름도 잇긴 잇는데 경허면은 콩이 잘 안 돼주게. 그 막 풀에 조들려근예가.

103033 @2 음. 콩밭에는 어떤 걸름들이 нама씨?

103033 #1 걸름.

103033 @2 아니 검질들.

103033 #1 아, 검질들. 아까 헛 거 뭐 많이 난다. 제환지가 주로, 제환지가 많이 나주. 제환지, 해바래기 아까 그 뭐인가 득베슬 같은 거 그런 거.

103033 @2 예, 득베슬 같은 거.

103033 #1 제환지가 주로 많이 나주.

103033 @2 제환지예. 제환지도 종류가 으라개우과?

103033 #1 아니, 으라개 아니.

103033 @2 제환지는 그냥 제환지밖에 없고예. 그 콩은 수확허젠 허면은 어떤 식으로 헛니까?

103035 #1 경허난 요새는 그 뭐인가 예초기로 다 그거 콩허는 거 비는데 그전 이는 다 이 골쟁이로 다 꺼과헛주.

103035 @2 아, 그거는 호미로 안 헤영 골쟁이로 헛수과?

103035 #1 옛날에는 골쟁이로 허다가 이제는 하영 허게 돼니까 계난 호미로 이제 그렇게 꺼겨주. 중간에 호미로. 옛날 처음에 헛 적에 골쟁이로 다 꺼겨낫는데.

103035 @2 아, 골쟁이로예.

103035 #1 경 헤낫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허게 돼니까 이제는 호미로 꺼끄고, 이제는 짧은 사름덜이 예초기 집집마다 다 잇저 다 잇어 놓니까 상당히 저 예초기론 비기가 쉬웁나.

103035 @2 기구나예. 계민 콩 꺼겨오면 그거 들랑 어떻게 헛니까.

103035 #1 콩 꺼겨, 콩 꺼겨 오면은 것도 그 이제는 뭐인가 그 전에는 소소허게 헛 적에는 집이서 오랑 도께로 다 태작을 허는 디 지금은 그 뭐인가 밋디서 태작기로 기자, 트랙타에 태작기가 메와 잇주. 혼 이틀만 몰류민 밋디서 타 태작헤여.

103035 @2 옛날은 집이 오랑 허면은?

103035 #1 으. 도께로. 그때는 소소허게 헛 때. 그때는 장콩만 헛다고 거 돈, 돈으로 경제 작물로 안 허연.

103035 @2 예.

103035 #1 장콩 해가지고 메주에 장 듬양 먹젠 약간 헛는디 이제는 정부에서 수매해 가니까 대리점으로 막 해가지고 콩이 한동에도 콩 막 많이 허주.

103035 @2 예전에 그 장콩헛덴 허면 종류도 장콩이렌 헛수과, 뒤편 헛수과?

103035 #1 옛날 장콩은 이제 거 씨 저불엇주 옛날 그 옛날 재래 장콩은.

103035 @2 예.

103035 #1 그것이 맛이 좋고 경 해낫주.

103035 @2 이제 씨 저불어예.

103035 #1 으. 씨 저불어.

103036 @2 그 콩으로는 주로 뭘 행 먹어신고예.

103036 #1 콩은 주로 저 뒤편가 그 주름 놔 가지고서 주름 놔가지고서 송키도 행 먹고.

103036 @2 예.

103036 #1 제서 때에는 꼭 그걸 뒤편가 거세기.

103036 @2 콩주름예.

103036 #1 게고 또 뒤편가 콩은 곱아가지고서 콩죽이 그렇게 맛이 있어.

103036 @2 으음.

103036 #1 콩죽, 밥 맛 심심헛 때는 밥 맛 엇고 밥 맛, 입맛이 엇은 때는 또 이제 그 콩죽을 썬 먹고 또 이제 비 온 때 이런 때는 콩죽을 쭈면 그렇게 맛이 좋아 콩죽이.

103036 @2 콩죽을 어떤 식으로 썬신고예?

103036 #1 콩을 그 뒤편가 맷돌에, 맷돌에 막 ㄴ를 곱아.

103036 @2 예.

103036 #1 경해가지고서 그 뒤편가 그 보리썰이나 그 뒤편가 좁쌀이나 풀어질 정도 뒤편은 콩 ㄴ루를 그레 영 놔근에 쭈면은 부끄지도 안 허고. 경 안허면 마딱 부껴불주, 콩죽은 흐썰허민 콩죽 부끄듯이.

103036 @2 예, 예 콩죽 부끄듯이.

103036 #1 콩죽 부끄듯이. 잘못, 불을 켜게 허면은 문딱 부껴불어. 게난 상당히 정성 들여야 해. 부끄지 안 허게.

103036 @2 콩 둥비덜도 헛실거고예.

103036 #1 옛날엔 둥비를 많이 동네마다 헛덜, 헛덜 먹엇주. 겐디 요새는 옛날 사름덜 엇어부난 경 안 해근에 이렇게 이제 마트에 강 혼 못 사다근에. 주로 옛날 엔 다. 팔월 추석이 뒤편 이제 설 뒤편 허민 이제 동네에서 다 둥비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맛이 좋앙 먹엇주.

103036 @2 그 둥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해근에.

103036 #1 둥비 헛 때는 콩을 막 곱 거 아니냐이, 콩을 곱아근에 그 곱아가지고서 그 아까 그 콩을 막 딸려. 딸려가지고서, 딸려가지고서 막 딸려지면은 그 물을 뒤편가 이제 그 뒤편가 그 무신거 베 헤영, 베영 찰리영 그레 놓으면은 그 비지는

그 우에, 우에.

103036 @2 남아있어예.

103036 #1 우에 남아있고, 아래 아래 그 물만 떨어지거든 그 물만, 물만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절기 시작하여이.

103036 @2 예.

103036 #1 그것이 얼리기 시작하거든 그디 돔베나 놔가지고 그디 지들루주게. 그러면은 그거 절어가면서 물은 이레 이레 밑으로 빠지고 그레 빠지고 그 듕탕허게 그 뭐인가 두부 모가 얼린 것 거치 땅땅허주게.

103036 @2 음. 그걸 절린덴 험니까?

103036 #1 음.

103036 @2 절려예. 그 다음에 콩ㄱ를 갖고도 이것저것 하영예.

103036 #1 콩ㄱ룬 콩죽 썬 먹엄베긴 다른 건 뭐 허는 거 엇고.

103036 @1 콩국.

103036 #1 뭐 콩국은.

103036 @2 삼춘은 콩국을 별로 안 좋아험구나.

103036 #1 으.

103036 @1, 2 하하하.

103036 #1 게난 콩국덜 많이덜 행 먹주, 헤다근에 이제 그 뭐인가 어디 저 떡집이 가근에 ㄱ루 헤다근에.

103036 @2 예. 삼춘은 콩국을 별로 안 좋아험구나.

103036 #1 으 우린 콩죽을 좋아허지 콩국은.

103036 @1, 2 하하하.

103036 #1 해주지 안 해부난 한 번씩이라도 해 줘랏주만은 이제 뭐.

103037 @2 예. 맞수다. 콩도 이제 콩 태작해나면 그 나머지는 이제, 콩찍이렌 험니까 뭐렌 험니까?

103037 #1 콩찹, 콩찹.

103037 @2 그 콩찹으로는 뭐해마씨?

103037 #1 콩찹으로는 옛날은 그냥 밧디 다 걸름을 행 그냥 그건 시꺼오지 안 헤영 밧디 내베랏는데.

103037 @2 예.

103037 #1 요새는 그 콩찹은 그 소가 많이 잘 먹주게. 게난 요새는 밧디로 오라근에 목장허는 사름이 오랑 밧디서 오랑, 기계로 오랑 거 포장을 해여.

103037 @2 예.

103037 #1 하양헌.

103037 @2 예.

103037 #1 뽕 동글랑허게 헤영 경헨 다 그거, 다 거 사가주.

103037 @2 옛날에는 그 콩찹.

103037 #1 콩쩍 거 집이 시꺼다가 소를 줏주. 소가 잘 먹어. 게난 콩쩍은 소 먹고 쟈쟈헌 깍지잇잖아 깍지 난 건 기자 밧디 허꺼내불민 걸름 돼게끔 그런 식으로.

103037 @2 걸름 돼게끔예. 그러면 콩도 종류가 으라가지랏수와 옛날에?

103037 #1 중간에는 뭐인가 중간엔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도 콩이 혼 세 가지 돼낫주. 굵은 콩은 잇고 작은 콩도 잇고 알이 굵은 콩도 작은 것도 잇고 나무가 조생, 만생 그렇게 잇고. 경허다가 이제는 전부 다 이젠, 이제는이 거시기 콩으로, 뭐인가 주름, 저 콩나물콩으로.

103037 @2 예. 콩나물콩예.

103037 #1 콩나물콩으로. 알이 거 쟈쟈헌 거 그걸 허고 잇주.

103037 @2 옛날에는 그냥 장콩.

103037 #1 그거 이제 풍산콩이라 허는가 것 잘 모르겠네.

103037 @2 아, 풍산콩예. 그 콩농사 허멍 잊어불지 못 허거나 이런 것도 이신가마씨?

103038 #1 콩농사허고 잊어부리는 거, 잊어부리는 거 그런 건 엇는다.

103038 @2 예. 옛날에 왜 콩도 따로 콩밧디 하나해갓고 전부 가는 것도 잇주만은 듬성듬성헤근에 조팍디 콩을 갈거나 이러지는 안 헛수과?

103030 #1 그러진 안 허고 옛날은 콩을 어떤 식으로 갈아낫는고 허니 그 웨골로 니베떼기로 영 갈아. 초불로 그자 니베떼기로 영 갈아가지고서 그 병뎡이를 탁탁 얹어지주. 게난 얹어진 디를 여기 영 생길 거 아니라. 걸 곱베로 마무리 헛어, 곱베로.

103030 @2 곱베로예.

103030 #1 옛날 경운기 나기 전에. 곱베로 이렇게 헤가지고선 그 콩밧디 허는 건 곱베. 거 마무리 허는 거.

103030 @2 마무리 허는 거 곱베고.

103030 #1 게난 이렇게 겨난 병뎡이가 이렇게 더퍼진, 더퍼, 잘 더퍼지게 이것이 가르쳐 질 때도 잇주게.

103030 @2 예, 예.

103030 #1 가르쳐 진 거 가만이 내불민 이거 풀이 그냥 살아. 게난 이 곱베로 이걸 풀 갓다가 이렇게 틈잇는 디로 툭툭 두드리멍 부치면은 검질을 거 안 메주. 그렇게 헤낫주. 거 이제는 검질 메야웨, 이제는. 경운기로 간 건.

103030 @2 경운기로 간 거는. 게난 옛날은 콩 갈 때는.

103030 #1 곱베.

103030 @2 곱베로 헤서.

103030 #1 니베떼기로, 반으로 혼 불에 그냥 갈아 혼 불에.

103030 @2 아, 니베떼기로 헨예. 삼춘 그러면 우리가 밧을 갈 때 혼 베떼기 있고 두 베떼기 있고 이렇게 허잖아예.

103030 #1 어, 어.

103030 @2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 줘 봅서.

103030 #1 계난 보통 두, 보통은 그 웨베떼기가 잇고이.

103030 @2 예. 한 번 그냥 간 거예.

103030 #1 으. 혼 번 가난 따시 영 오민 이것이 혼 판, 우리말로 혼 판이가, 혼 판이가.

103030 @2 혼 판이에.

103030 #1 거 니베떼기라는 것은 뭐인가 이거 네 번을, 일로 두 번 어프고 양쪽으로 영 어프고 기자 영 가는 건 일로 영, 일로 허민 일로 영 조근조근조근 영 갈는 건데 니베떼기는 일로 이거 두 번 일로 어프고 따시 이 일로 오랑 이레 영 어프고 양쪽으로 영 가는 거.

103030 @2 계난 콩 갈 때는 니베떼기 헨 갈았수과?

103030 #1 옛날엔 그렇게 헤낫지.

103030 @2 아, 옛날엔.

103030 #1 이제는 그렇지 안 허여.

103030 @2 그냥 보리 같고 이럴 때는 다 혼 베떼기로만 가는 거 아니라예.

103030 #1 으.

103030 @2 게른 옛날에 그 감자 씨 묻젠 허면은 그때도 니베떼기 헨 겨우과?

103030 #1 감저씨 같은 거 헐 적에는 감저 씨 종자를 놀 때 그건.

103030 @2 니베떼기보다 더 해야 허켜예.

103030 #1 그건 니베떼기 아니라 웨골로, 웨골헤가지고 고랑에 그 감저 놔근에 가 그 종자 낱 그 줄이 크면은 거세기 헛주. 거 고랑에 툽툽 영 놔근에.

103019 @2 아 그냥 웨골로. 경허고 삼춘 콩은 영 헛주만은 아까 못 물어본 거 조 농사헛 때 씨들은 어떤 식으로 보관을 헛수과 옛날에.

103019 #1 좁씨는 옛날에 뭐인가 고고리로 그냥 돌아메는 집도 잇긴 잇는데, 거기 그냥 씨를 헤가지고 좁씨 같은 것은 등절팽 같은 거 그런 것이 잇어났어 옛날은.

103019 @2 예.

103019 #1 그런 팽에 보관헤낫주.

103019 @2 아.

103019 #1 벤질튀지 안 허고 쥐 안 먹고.

103019 @2 아.

103019 #1 잘 들류와근에.

103019 @2 아까 무슨 팽마씨?

103019 #1 그, 등절팽이라고 그런 팽덜 잇어낫주.

103019 @2 등절팽.

103019 #1 옛날 그 뭐인가 그 대정에서 만드는 그런 사기 팽 잇잖여게.

103019 @2 예, 예.

103019 #1 그런 것에 주로 보관해놔주.

103019 @2 그걸 여기에서는 무슨 팽이렌 해서마씨?

103019 #1 그거, 등덜팽이엔도 허고.

103019 @2 등덜팽. 등덜팽, 등덜팽. 혹시 씨부게기 해갖고 저 새로 만들진 안 헛수과? 허벅 모양으로?

103019 #1 아니 게메 그 작은 허벅거치 쥔 거주게 그 등덜팽이엔 헛 게.

103019 @2 등덜팽이엔 헛 게, 아.

103019 #1 등덜팽이엔 헛 게 배가 불락허고 그 꼭지가 쪽 허게 올라와근에 거 세기 우인 울허벅 식으로 쥔 거주게 그게.

103019 @2 예, 요런 모양으로 해 갖고.

103019 #1 으.

103019 @2 아, 그런 거에 씨 보관헛구나예.

103019 #1 으. 그런 거에 주로.

103019 @2 따로 씨 부게기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예.

103019 #1 으. 그러진 않고.

#### 밭벼 농사

103039 @2 아, 예. 알앗수다. 산뒤는 어떤 식으로 헛수과?

103039 #1 산뒤, 산뒤도 여기 많이 갈아놔주게 옛날은.

103039 @2 예.

103039 #1 그걸 갈아야만이 기제사 때 그걸 곤밥을 행 먹게 돼니까.

103039 @2 겐 그건 언제 어떤 식으로 준비헛 갈앗수과?

103040 #1 건 산뒤는 언제 가는고 허니 뭐인가 하지, ㄴ만 잇으라, 망종에 술 거리게 해는디 그 망종 전이 갈앗주 그 산뒤는.

103040 @2 예.

103040 #1 산뒤는 그 소만 잇잖아이.

103040 @2 예, 소만.

103040 #1 소만 넘으면은 제일 일찍 갈앗주.

103040 @2 아, 산뒤가.

103040 #1 으, 으. 게만 스월 중순 뒤편은 산뒤가 갈기 시작해근에가 산뒤가 나가 허 십 일, 십 일 거의 이상 걸리주게.

103040 @2 아.

103040 #1 이 망종에 술 거린다 허는 것은 그 뭐인가 종자가 그 발화 돼가지고 서 그 뭐인가.

103040 @2 짝이.

103040 #1 이삭 거린다 해가지고.

103040 @2 예.

103040 #1 망중에 술거린다. 제일 일찍 갈았주.

103040 @2 삼춘 아까 망중에 술거린다 헛잖아예. 산뒤도 술거린텐 허고 조도 술거린텐.

103040 #1 아니 조는 아니. 조는, 조는 처서에, 처서에 막 익넌 허는 거주.

103040 @2 아까 술거린텐 허는 말은 무슨 말이과?

103040 #1 그 산뒤가 뭐인가 산뒤가 나오라가지고 술거치 이렇게 거린다 말이 주게.

103040 @2 아.

103040 #1 술, 술이 이거 머리거치 이렇게.

103040 @2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아지куда. 그 고고리 나오기 시작헌 거를.

103040 #1 아니 고고리 나오는 게 아니고.

103040 @2 짹.

103040 #1 짹, 짹.

103040 @2 아, 짹 나오는 거를 술거린다 허는 거라예.

103040 #1 어.

103040 @2 아, 조 헛 때는 그런 말 안 해마씨?

103040 #1 안 해.

103040 @2 뭐 칙 나왔저. 뭐 헛저 이런 말.

103040 #1 그런 말 아니.

103040 @2 게민 술거리면 그렇게 해서.

103040 #1 술거려, 술거려, 술거리근에 그렇게, 그렇게 뭐인가 파종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몰덜 다 방돈해낫주게.

103040 @2 예.

103040 #1 방돈허난 방돈허, 방돈허니깐이 이것이 술거린 이 뭐인가 이 하지가, 하지가 오월 중순 돼가면 몰덜을 이젠, 이제는 이제 그 이젠 산뒤가 나기 시작허민 몰덜 방돈해영 낱 내불민 이젠 관리를 해야 돼주. 산뒤가 나기 시작허민. 그 뭐인가 몰 임제가 ㄱ꾸주게.

103040 @2 예.

103040 #1 낮에 간 허다가 목장에 강 가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허는 거.

103040 @2 그럼 산뒤 갈면은 술거리기 전까진 그 밧디 그냥 내부는 것과.

103040 #1 으, 으. 몰 그냥 ㅁ쉬 그냥 막 내불주.

103040 @2 아 블라지게.

103040 #1 막 블르고 ㄴ 둥글고.

103040 @2 그렇게 허는 거를 방돈헛던 허는구나예.

103040 #1 으. 방돈허는 건 제멋대로 풀영 내부는 거.

103040 @2 풀어내부는 거예. 예 게난 그 ㄱ꾸레 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ㅍ 두는 것도 방돈헛던 허는구나예.



103040 #1 으. 그냥 내부는 거.

103040 @2 풀어내부는 거를예. 그런 식으로. 산뒤도 불린덴 험니까?

103040 #1 아니 산뒤는 안 불리는 거.

103041 @2 아, 불린덴 안 허고 그런 식으로만 허는 거라예. 그 다음에 산뒤도 걸름을 헤신가마씨?

103041 #1 아니 걸름도 허지 안 허고.

103041 @2 걸름도 안 허고예.

103041 #1 옛날엔 걸름이 어디 셔서. 보리베긴 걸름 헤어나진 안헛주게.

103041 @2 아, 보리 걸름. 보리헌 걸름이 다 돼는 거군나.

103041 #1 으, 으.

103040 @2 그 산뒤 씨는 어떻게 갈았수과? 밧을 갈앙 허는 것과, 미리.

103040 #1 아니 거 산뒤는 뭐인가 그, 그 초불을 밧을 갈아야 헤. 초불을. 초불 갈아근예가. 초불 갈앙 갈레 가근에 씨를 뿌령 두불 갈앙 내부는 거.

103040 @2 게난 미리 번헨 낫다근예.

103040 #1 으. 번헨 낫당 그 밧을 번헤야지, 초불 밧을.

103040 @2 게난 산뒤는 어느 그르에 가는 것과?

103040 #1 산뒤는 보통 이제 뭐인가 그 저 믱물 그르에 갈았주.

103040 @2 아, 믱물 그르. 게몬 믱물 헌 다음에 보리, 저.

103040 #1 산뒤.

103040 @2 저 밧을 번헨 놔 두는 거군아예.

103040 #1 으, 으.

103042 @2 예, 예. 경헨 두불 갈 때 씨 빼여근에 이제 허는 거.

103042 #1 으.

103042 @2 그것도 아까 멩텅이 헤근에 빼여예.

103042 #1 으, 으.

103043 @2 저기 산뒤 밧도 검질 메신가마씨?

103043 #1 산뒤 밧도 검질 메야주.

103044 @2 어떤 검질 메수과?

103044 #1 거기도 제환지가 주로 제환지주. 으름이난 제환지. 그거허고 아까 해바레기.

103044 @2 해바레기가 어떤 건고?

103044 @1 그 빨간 열매가 동글동글.

103044 #1 으, 으. 그 우터레 막 올라가는 거.

103044 @1 예, 예.

103044 #1 썸도 넓지 안 허여, 썸도 그냥 요정도 올라가면서. 게난 올라가면서 그냥 빨강게 그냥 막 켜켜헌 것덜.

103044 @2 예, 예. 역귀, 역귀. 역귀렌 말은 여기선 안 들어 봐수과?

103044 #1 아니.

103044 @2 알아지쿠다. 이파리 이만큼허고 빨간 걸로 해가지고.

103044 #1 빨간 거 쪽허게 그냥.

103044 @2 예, 예.

103044 #1 쪽허게만 올라가, 가쟁이도 안 벌리고.

103044 @2 예, 맞수다 맞수다. 잎이 빨강허는 거예.

103044 #1 으, 으. 거 씨덜 막 좁쌀 방울만이.

103045 @2 건디 빨강헌 디 해바레기엔 골앗수다예. 그 다음에 이 산뒤는 어떤 식으로 수확을 허는 거우과?

103045 #1 산디는 그 익으민 비여야 돼여야주. 익으민 비어근예가 예전에 것도 이제 주로 이제 태작을 헛주. 태작.

103045 @2 예. 태작을예.

103045 #1 태작 안 헌 때는 그자 못차 그 못을 준준허게 무꺼가지고서 못차 쪽허게 마당에 놔가지고서 이거, 이거 곡지를 이레 가게 놔가지고서 이제는 두드렷주게.

103045 @2 아, 도끼로예.

103045 #1 도끼로. 초창기에는 그랬주. 이제 태작기 나기 전에는.

103045 @2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산뒤클로 이제.

103045 #1 산뒤클로 홀트진 안 허고 조, 저 보리베낀.

103046 @2 아 보리만예. 여기는 산뒤클은 안 썬구나예. 게난 산뒤줄은 뭐 허는 디 먹어신고마씨?

103046 #1 산뒤줄은 생일 때나 부모네 생일 때나 그 기제사 때베낀 평소는 못 먹지.

103046 @2 예.

103046 #1 또 그거 밥 못, 어린 아이가 아파근예 밥 못 먹영 혈 적에는 또 그거 해근예 지름 놔가지고서, 그 부모네가 몸이 막 고단헐 거 아니라.

103046 @2 예.

103046 #1 경허면은 그 지름 낵 밥 행 먹으면은 싹 옛날은 풀어젓주.

103046 @2 그 지름 낵 헌 밥을 무슨 밥이렌 헉니까?

103046 #1 거 지름 밥이주.

103046 @2 여기서 지름밥, 지름밥 해서예.

103046 #1 으.

103046 @2 무슨 지름 낵수과?

103046 #1 찰지름, 찰지름이주. 찰지름베끼 그 약이, 약 되는 게 엇엇다고.

103046 @2 예, 그래서 지름밥을 해서 맥인 거라예.

103046 #1 으.

103046 @2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헌 밥을 무신 밥이렌 헛수과, 곤밥?

103046 #1 곤밥, 찰지름밥이엔 허민 곤밥이주, 다른 밥에 찰지름 못 놓거든. 게민 찰지름밥이엔 허민 곤밥에 찰지름 논 것을.

103046 @2 예 맞수다. 그 다음에 산뒤로는 떡덜도 다 산뒤쫄로 현 거 아니라 예.

103046 #1 산뒤쫄로는 콩떡이 그 뭐인가 송편하고 절편 잇잖아이. 그걸 산뒤쫄로 했주.

103046 @2 아, 송편하고.

103046 #1 젤, 절편.

103046 @2 삼춘, 송편은 어떤식으로 만든 것을 송편이렌 험니까?

103046 #1 송편은 돌 식이주 이렇게 해가지고 돌, 반돌, 반돌.

103046 @2 예, 이거를 여기서는 송편이렌?

103046 #1 어, 송편하고 동글랑현 건 절편이고.

103046 @2 이 송편을 솔벤이렌 말 안 험디가?

103046 #1 아 솔벤이, 솔벤이렌 허주. 이딴말로 솔벤, 솔벤.

103046 @2 솔벤예.

103046 #1 게난 표준말로 송편이주.

103046 @2 예, 예, 예. 게난 혹시 이 동네는 솔벤을 송편이렌 곶암시카부덴.

103046 #1 아니, 안 곶아. 솔벤이엔 허주.

103046 @2 솔벤예.

103046 #1 절벤, 솔벤.

103046 @2 게른 솔벤, 절벤은 동글락현 거예.

103046 #1 동글락현 거.

103046 @2 두 개 부찢수과 안 부찢수과?

103046 #1 두 개 부찢 집도 잇고 안 부찢 집도 이서. 게난 거기 저 뭐인가 저 꽃무늬 또 잇주게.

103046 @2 예, 절벤 본으로 이렇게 허는 거 아니라예. 겐 그런 식으로 허고. 게고 네모난 떡은 안 만들안마씨?

103046 #1 네모난 떡은 것도 만들앗주, 거 뭐인가.

103046 #4 상웨떡.

103046 #1 그 밀도 상웨떡도 잇고 또 이제 조금 여유있는 집에는 거 뭐인가 시리떡을, 거 시리떡을 치는데.

103046 @2 예.

103046 #1 좁쌀, 좁쌀 밑에 혼 징 놓고 그 곤썰현 거 우이.

103046 @2 예.

103046 #1 우이 놔근에 곤친떡이라고 그걸 이제.

103046 @2 그거는 곤친떡예.

103046 #1 으, 곤친떡.

103046 @2 아.

103046 #1 계난 이 아랫 건 메파버리는 거지.

103046 @2 예, 예, 예.

103046 #1 그 절약하기 위해서.

103046 @2 으. 계난 반착씩 반착씩 낡 허는 거라예.

103046 #1 으. 경헌 것도 있고 또 여유 이신 디는 곤친떡 딱로 허는 디도 있고.

103046 @2 그때 곤친떡이라는 거는 그대로 곤썰로만 헨 거는 곤친떡이렌 헨 거라예.

103046 #1 으.

103046 @2 보통은 조친떡 헛구나예.

103046 #1 으, 조친떡.

103046 @2 아, 제에 올리는 거. 계민 제에 올리는 거를 아까 이제 제상이라고 헛는데 상웨 말고이 이 산뒤쌀로 네모나게 안 만들안?

103046 #1 그건 안 만들고.

103046 @2 은절미 이런 말 안 헛수과 여기는?

103046 #1 은절미도 아 그것도 허기는, 그 당시는 옛날에 은절미가 경 잘 안헛 그 뭐인가 그 지름떡은 헛주, 지금떡.

103046 @2 지름떡.

103046 #1 동글랑 헨 거 지름에 지지근에.

103046 @2 예, 예

103046 #1 그거 허고 또 옛날에 과줄이란 것도 잇엇주.

103046 @2 예, 예.

103046 #1 이 밀꺠루 나기 전에. 밀꺠루는 이제 해방 후에사 뒤.

103046 @2 맞수다, 맞수다.

103046 #1 미국에서 들어오난 헛주만. 계난 그 뭐인가 채래, 채래 우리밀로도 상웨떡을 헛주.

103046 @2 예.

103046 #1 상웨떡을 허고 또 이 과줄이라는 게 잇어. 지금도 이 서귀포서 막 푸는 모양인데. 그것도 우리 여기서 흐는 사름이 잇어나서 과질이, 전문으로.

103046 @2 아, 한동에도예.

103046 #1 으. 한동에. 으디 살단 할망이 헤 낫는디. 겐 과질도 행 올리고 헤낫주.

103046 @2 그 과질은 언제 헨 올려낫수과?

103046 #1 그 제사 때.

103046 @2 제사 때 과질을 행 올려서?

103046 #1 으, 과질을. 제사 때 허고 또 다시 이제. 멩일 때도 허고.

103046 @2 멩일 때도 허고. 계민 과질허게 뒤민 과질은 무신 거로 만들안마씨?

103046 #1 과일 그것이, 그 재료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거.  
 103046 @2 모르는데 멘 바깥디는 산뒤 퇴와근에?  
 103046 #1 으. 그디 부찌근에가.  
 103046 @2 그디 부찌 헛잖아예.  
 103046 #1 으.  
 103047 @2 예, 예. 그런 거 할 때도 산뒤허고. 산뒤찍은 주로 뭐 헛수과?  
 103047 #1 산뒤찍은 주로 멍석을, 저 멍석을 줄아야 돼고.  
 103047 @2 예.  
 103047 #1 맥, 맥도 줄아야 돼고.  
 103047 @2 예.  
 103047 #1 또 이제 그 집세기도 뭐인가 초신을 삼아 신어야 돼고.  
 103047 @2 예, 집세기도 허고예.  
 103047 #1 건 산뒤찍으로, 배도.  
 103047 @2 배예. 배는 드린덴 헛니까?  
 103047 #1 배는 드리는, 드리는 거 물 허는 거, 물이나 쉼허는 거는 드리는 것  
 이고, 드리는 것이고.  
 103047 @2 예.  
 103047 #1 이젠 물허벅거튼 거 지는 것은 거 드리면 이디가 막 골아지주게 이  
 디가 아파 딱딱해부난.  
 103047 @2 예.  
 103047 #1 게나 거 산뒤찍을 좀 잘 뭐인가 정성 들영 허면은 안 골아지주게. 이  
 디가 아프질 안 허여. 부각부각 헤영.  
 103047 @2 아, 그러면 그건 산뒤찍으로 허는 건 뭐엔 헛니까, 쏘든 헛니까?  
 103047 #1 으, 으. 산뒤찍을 꼬아근에 배.  
 103047 @2 배허는 거고.  
 103047 #1 경허고 또이 산뒤찍으로 주로이 이제 당주 당아. 머리 당듯이 그렇게  
 납작허게. 경허면은 이디가 거시기, 거시기 저 넙적허니까 이디가.  
 103047 @2 게민 그 배 짜는 거를 것도 당는덴 헛니까?  
 103047 #1 으, 으.  
 103047 @2 배 당아근에 만드는 거라예.  
 103047 #1 으, 배 당앙.  
 103047 @2 그거는 무슨 배 헛니까?  
 103047 #1 건 뭐 대개 물, 물허벅을 그걸로 많이 헛주.  
 103047 @2 아, 머리 당는 것처럼.  
 103047 #1 으. 머리 당는 것처럼.  
 103047 @2 예, 예, 예. 그 다음에 경허고 삼춘이 산디 하영 갈아낫수과?  
 103047 #1 하영 갈아낫주. 여긴 막 하영덜 갈아낫어.

103047 @2 아, 산디 이 동네 하영 같았구나예.

103047 #1 으, 산뒤 ㅁ물이 최고 막 많이 같아났주. 조 보단도.

103048 @2 조보단도. 그든 그 산뒤 농서헐 때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같은 것도 이시크라예.

103048 #1 추억같은 것은 산뒤가 하도 귀혜 노니까 그 뭐인가 그 밥 먹기 실프, 아짱 해난 때도 그거 해근에 먹고 어디 일허당 고단허면은 집이 할망이 지름밥 해 주면 몸이 확실허게 풀리고. 그게 최고 보약이랏주 옛날에.

103048 @2 옛날에예. 아. 게난 이것도 동네마다 트나예.

103048 @1 거름 내는 날 먹어난 거 기억 남수다.

### 고구마 농사

103049 @1 감저 농서 해난 거 물어보쿠다.

103049 #1 으 감저.

103049 @1 감저 농서 짓젠 허면은 뭐부터 준비헐니까?

103049 #1 우선 밧을 초불 같아야지, 감저 놀 겐.

103049 @1 감저 놀 겐예.

103049 #1 초불 같고 그 뭐인가 감저를 모종을 봐야 돼 종자를.

103049 @1 예, 예.

103049 #1 종자를 감저 놓기 전에 그 전에 양력 3월 말일경에 저 감저를 갖다 근에 종자 감저를, 씨감저를 영 봐야돼주. 게난 그 감자 순이 커야 그걸 비여근에가 그 고구마, 여기 보통 감저, 감저 현 게 고구마를 말헌다. 게난 주로 이제사 지슬 감저 저, 감저엔 현 거 허는디 옛날은 저런 거 안 해낫주게. 옛날엔 고구마만 헤여 나서. 그것ㄴ라 감저, 감저엔 헛주.

103049 @1 게난 3월말예?

103049 #1 3월말 경에 종자를 봐가지고 그걸 키와가지고.

103049 @1 예.

103050 #1 유월, 양력 유월달에 그걸 파종을 헛저.

103050 @1 아, 유월달에 파종을 해.

103050 #1 으. 감저는 논넨 헌다. 그 줄 헤다가.

103050 @1 줄 헤다가.

103050 #1 으, 줄 해당 그차근에가 밧디 파종을.

103050 @1 게난 모종 심는 거부터 줄 놓는 것까지 쭉 곁아줍서. 모종 싱그젠 허면은?

103051 #1 모종을 심젠 허면은 거디 걸름도 많이 놓아야 웨이. 쉼걸름든, 쉼걸름 봐도 돼고 돛걸름 봐도 돼고 그렇게 걸름덜 많이 봐가지고이 경해야 종자가 감저를 모종 노면은 그 순이 막 많이 난다. 잘 나고 막 질게.

103051 @1 걸름 봐사예.

103051 #1 으. 걸름 안 놓민 안 크주게 종자가.

103051 @1 으.

103052 #1 줄이.

103052 @1 으, 줄이. 유월달에 밭 갈 때는?

103052 #1 혼 유월 혼 초순에 밭 갈았다근에가 계난 약을 쳐야 돼, 요새 제초제 이. 옛날엔 제초제 엇어나부난 제초제 안 쳐주만은.

103052 @1 계난 옛날 걸로, 지금 꺼 말고.

103052 #1 으, 게메. 초불을, 거 유월 초에 초불을 갈아가지고서이 갈아가지고서 또 다시 감저 놓젠 허민 두 불을 갈아야 돼. 감저 놀 때 또다시 갈아가지고 감저 놀 줄 비여다가.

103052 @1 계민 초순 때 먼저 밭을.

103052 #1 으, 초불 같고.

103052 @1 갈아 나서.

103052 #1 갈아 나서 또 줄을 다 키워 줄을 비여당 놓젠 허면은 놓기 삼일, 이 틀 전에 밭을 또 갈아야 경 해근에 두 불 가는 거지 밭은이.

103052 @1 으.

103052 #1 초불 같고 감저 저 뭐인가 심을, 싱글 때 그 또 갈아근에가 놓는 거 감저 줄을.

103051 @1 계민 감저 밭디 거름 놀 때.

103051 #1 감저 거름은 안 낫저 거름은. 감저 종자 헐 때만 그때만.

103051 @1 아, 종자 헐 때만.

103051 #1 감저 씨 놀 때만 감저 씨 놀 때만 거름을 헤가지고서 그, 그 저 감저 순 종자를 많이 키울라고 거름을 낫저. 기자 밭디는 이 걸름을 잘 안 낫저. 그 감저 밭디 놀 걸름이 엇어.

103051 @1 엇어.

103051 #1 옛날은 조, 보리 거튼 거 허젠 허면.

103051 @1 예. 감저 밭디 줄 놓을 때.

103051 #1 으. 감저 씨 종자 놀 때 그 때는 걸름을 많이 놔, 쉼걸름이나 돛걸름 이나.

103051 @1 아, 쉼걸름이나 돛걸름이나. 뿌렁 밭 가는 거마씨, 아니면 밭 갈아놔 걸름을 놓는 거?

103051 #1 아니 밭 갈아 놔 걸름을 그 고랑덜에.

103051 @1 예.

103051 #1 고랑덜에 걸름을 놔나근에가 흑 영 문영 감저 쪽허게 밀어놔 영 더 뜨는 거.

103051 @1 아 걸름놔.

103051 #1 으.

103051 @1 감자 낱 더퍼부는 거라예.

103051 #1 으, 으.

103052 @1 경 줄 비어당 심을 때는 어떻게마씨?

103052 #1 게난 그 줄, 그것을 밧에 강 놓젠 허면은 종자를 줄을 비여다근에가  
이.

103052 @1 으.

103052 #1 그 지영 가야 돼여. 지영 가야 돼. 지게로 지영 갈 수도 있고 뭐, 보  
통 지영 다넛주, 지영. 옛날 그 감저 줄을 쉼로 시경다니지 아니헌 게 감저줄을 쉼  
가 막. 지게로 지여근에 밧에 강 그 줄을 막 질면은이 그걸로 혼 뽀, 혼 뽀정도씩  
헝 끊어가지고서 판이, 판에 쪽허게.

103052 @1 우이를 판이렌 험니까?

103052 #1 으, 우이를 판이엔.

103052 @1 우이를 판이렌 허고.

103052 #1 그 고랑진 걸 그 고랑이엔 허고.

103052 @1 고랑이에 허고 우이를 판이렌 허고.

103052 #1 으, 판이.

103052 @1 밧 갈양 판이 우에.

103052 #1 판이 우에 것을.

103052 @1 아, 간격은 얼마나 헤여.

103052 #1 간격은 아무튼 간격은 바짝 부짱 놓는다.

103052 @1 바짝 부짱.

103052 @1 혼 오 센치나 십 센치 떨어질 정도로 헤근에 쪽허게 다 심어간다.  
감저 줄을 다 심는 거.

103053 #1 감저밧디 검질 뽀니까? 검질 멘다.

103053 @1 뽀 번이나?

103053 #1 혼 불정도 멘다.

103053 @1 스끄는 건 엇고예?

103053 #1 감저는 스끄는 거 엇고.

103055 @1 감저 수확헝 때 어떻게는지 곶아줍서.

103055 #1 고구마 수확헝 때 그것이 팔 월말에 수확허는 데, 팔월 말 내지 구월  
초순에, 양력으로 구월 초순에.

103055 @1 예, 예.

103055 #1 게난 그거 허젠 허민 감저줄이 막 옛날 감저줄은이 밧을 다 더퍼진  
다.

103055 @1 으.

103055 #1 다 더퍼지기 때문에 우선 감저줄을 비와나야 뽀다. 감저를 파기 전  
이. 내일 감저를 파게 뽀민 오늘은 감저줄을 걷어야 돼여.



103055 @1 으.

103055 #1 감저줄을 다 뺑돌글랑허게 그치면서 말야 그렇게 그 걷어야 웬다, 감저줄을 걷은 다음에 감저를 파는 거라 글쟁이로.

103055 @1 글쟁이로. 수눌영?

103055 #1 아 수눌영도 허고 이녀 식구 이신 사름은 식구가. 수눌영덜 허주 동네사람들.

103055 @1 줄 먼저 베여 낱.

103055 #1 으. 줄 다 걷어 낱.

103055 @1 줄 걷어 낱.

103055 #1 으 줄 걷는덴 험다.

103055 @1 줄 걷는 거는 뭐로 허고?

103055 #1 호미로 걷는 거.

103055 @1 호미.

103055 #1 손으로 영 험. 게난 또이 쉼스렁 잇지 않느냐?

103055 @1 예, 예.

103055 #1 쉼스렁은 혼 사름이 뺑기는양 걷은다고 경험다.

103055 @1 예. 경험 팔 때는 글쟁이로?

103055 #1 으, 글쟁이로. 판이 우이 앓앙 글쟁이로. 판이 우이 앓앙. 혼 사람이 혼 판이씩 앓아가지고.

103056 @1 으 혼 판이씩 앓앙. 그 감자 파시민 이제 감저눌 놀 거 아니과?

103056 #1 으 감저눌. 게난 그때에 이제 종자허고이 그 겨울에, 겨울에 썬 먹을 거 집이 해당 놀 눈다. 놀 누는 건이 땅을 파근에 땅을 막 지프게 파 가지고 조칩을 엠에 빙허게 판 디, 동그렁허게 팔 거 아니가이.

103056 @1 예.

103056 #1 동글랑허게 파면은 흑 예염더레 영 조칩같은 쪽허게 거 흑 들어가지 못허게이.

103056 @1 예.

103056 #1 짹 폐우라가지고서 그 가운데에 감절 막 놀 거 아니가이. 감절 막 담양이.

103056 @1 조칩 밑에도 깔고?

103056 #1 으, 율이도 깔고 밑에도 깔고 율이 흑 들어가지 못 허게 쪽허게 뺑돌아가명 세와놔가지고서 가운데 감저 놔가지고 율이 흑을 더퍼서 동글랑허게 산식으로 동글랑허게 봉분식으로 헤가지고서 우이는 그 노람쥐 잇저, 노람쥐.

103056 @1 노람쥐.

103056 #1 으. 노람쥐에 헤가지고서 겨울에는 노람절 헤가지고서 주쟁일 행 겨울에 뭐인가 이제 먹곡 새해 종자허고 그 남은 것을 전부다 절간을 헛주, 절간.

103057 @1 절간헌다는 게 뭐과?

103057 #1 감저를 썰어가지고서이 바쳐주, 바쳐서. 국가에서 다 수매행 간.

103057 @1 그럼 빼때기 만들었다는 거?

103057 #1 으, 빼때기.

103057 @1 만들양 팔았던 거잖아예.

103057 #1 으. 빼때기.

103057 @1 감자 빼때기 만드는 건 수확할 때 감자 갈명 널영 빼때기 만드는 거 아니?

103057 #1 겨울 밭데서 헛저 밭데서 그 저 빼때기 허는 건 밭데서, 그 저 기계가 있저 감저 ㄴ는 빼때기 허는 기계.

103057 @1 예.

103057 #1 그걸로 해가지고서 밭데. 펜펜현 밭데 놓고 여유잇는 사름은 집이 오랑 집 가까운 디 왕 썰영 널고 그추록 헛주.

103057 @1 게난 놀 놀어낭 그 빼때기 헛 먹기도 허고예.

103057 #1 으, 아니 이 빼때긴 그냥 바치는 거.

103057 @1 바치는 거.

103057 #1 으 게난 놀 누는 건 겨울에 청 먹고 남은 거 종자로 씨감저 허는 거.

103057 @1 게민 겨울에 거 먹젠 허민 어떻 꺼내여.

103057 #1 아 게난 그 우에이 이렇게 조침으로 영 몬아시네이 글로이 사람 손 들어가게 벙허게 짜 잇저.

103057 @1 예.

103057 #1 주둥이거치 영 멘들아 낭.

103057 @1 게민 그 손 들어가는 부분을 뭐렌 겁니까?

103057 #1 거, 거 뭐인가 구덩이 주둥이.

103057 @1 주둥이렌 헤.

103057 #1 어, 어.

103057 @1 구덩이, 구덩이 감저 구덩이.

103057 #1 으. 감저 구덩이.

103057 @1 감저 구덩이렌 헛 거예.

103057 #1 감저 구덩이, 감저 구덩이 주쟁일 쓰우는 디 그걸 확 굴앙 거. 감저 구덩이엔 굴민 웬다.

103057 @1 게민 어쨌든 먹고 씨도 해당 남아지민 절간고구마를?

103057 #1 아, 절간고구마는 그 전이 다 허는 거. 절간고구마는 그 가을에 허여야 잘 몰르거든, 가을에 벳이 잘 나니까.

103057 @1 예, 예.

103057 #1 겐 전량을 정부 이제는 수매해갓저. 게난 그걸로 돈을 많이 용돈을 썼지.

103057 @1 게민 빼때기는 밭디 다 널어?

103057 #1 으. 널영 다 거뒀당 몰랑 다 가마니에 담양 낫당 판매할 적에는 공동으로 강 판매하는 거.

103057 @1 겐 삼춘네 집도 감저 막 하영 헛수과?

103057 #1 으 그때는 많이 헤세, 경 안 허민 돈 날 디가 엇주게. 집집마다 건감자덜 많이 헛저.

103059 @1 많이 헤서마씨? 감저 농서 지으면 기억나는 거 혹시 잇수과?

103059 #1 아니 뭐 기억나는 건, 집집마다 다 허는 거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엇고.

### 기타 농사

103060 @1 예. 수박 농사 헛수과? 수박 농사?

103060 #1 수박 농사도 요 중간에 많이 헤낫저. 이 상종이네 누구네 많이 거세기, 영길이네 수박덜 많이 봐난 저디로 느네 봉효네도 다 수박 봐 낫저.

103060 @1 예, 예.

103060 #1 상숙이 아방네 막 헤가지고 막 서귀포까지 가가지고 풀고 헤낫저.

103060 @1 수박 농서 지을 때 어떻 헤나신지 곱아줍서.

103060 #1 저 수박은 지금으로부터 나는 거, 지금은 한 오월 경, 스월 말일에 저 놓기 시작한다. 오월 초구나, 오월 초.

103060 @1 양력예.

103060 #1 으, 양력. 오월 초 헤가지고서 수박 봐 가지고서 수박을 놀 때는 비료를 많이 봐야 웬다. 그때는이 옛날은 이제거치 뭐 비료가 많이 엇어부난 돌똥 좇어다가이 수박은 돌똥 좇어다가 그걸 다 슬아가지고서 재로 그레 놓고 경 안허민 돌똥도 그레 놓고 경허여.

103060 @1 아, 돌똥 슬앙 재로 헤여?

103060 #1 으 또 이 소결름도 놓고 돛결름도 놓고.

103060 @1 으, 으.

103060 #1 경혜근에가, 경헨 구덩이, 수박을 놓젠 허민 구덩일 파야 돼이.

103060 @1 예, 예.

103060 #1 동글랑, 동글랑허게 이 앞쪽에 구덩일 팡 그 구덩이에 걸름을 봐 가지고 걸름 우터레 흑을 더플 거 아니냐.

103060 @1 예.

103060 #1 그 우에 저 수박씨를 파종헤가지고서 그 나면은 걸 소까줘야 돼 거 일정허게끔이.

103060 @1 아.

103060 #1 게니까 혼 못에 세 개 정도 영 념긴다 보통. 보통 세 개.

103060 @1 그럼 수박 싱글 때도 판이 잇곡?

103060 #1 아니 그건 판이 엇다. 건 그것은 밧 펜펜허게 갈아가지고서 밧을 쉼

로 갈 거 아니냐 뽀뽀하게 갈아가지고서 구텡이는 혼 발 간격에 혼나씩 파가지고서 쪽허게.

103060 @1 걸름 낱.

103060 #1 걸름 놔가지고 수박 싱거가지고서 그것이 팔월 뒤편은 뭐인가 커갈 거 아니라이. 커 가민 윽으로 나는 순들은 잘라주고 질게 번어가게. 경해야 수박이 힘차게 올주게.

103060 @1 아, 게민 검질메는 김에 소끄는 것도 하고.

103060 #1 으 검질도 메고.

103060 @1 메고 소끄는 것도 하고 줄.

103060 #1 줄 질게 나가가민 윽으로 난 가지를 치어야.

103060 @1 가지도 치고 손 많이 간다예.

103060 #1 으, 손 많이 간다.

103060 @1 밧디 살다시피 한다.

103060 #1 아 살다시피 헛수과?

103061 @1 경헛 열민 따는 거. 참웨는마씨, 참웨?

103061 #1 참웨도 그때 같이 한다. 수박과 ㄴ치.

103061 @1 ㄴ튼?

103061 #1 으. ㄴ튼 시기에.

103061 @1 참웨는 어떻 씨뿌령 어떻?

103061 #1 참웨는 똑 가트다. 수박 놓은 거 같이 구텡이 파가지고서이.

103061 @1 으, 으.

103061 #1 구텡에 파가지고 거기 걸름 놔가지고 씨 놔서 이제 씨가 나면은 거 기 적당히 혼 못에 두 개내지 세 개 헛 다른 건 다 뽑아 버리고 게고이 약도 잘 취, 취취야돼. 베랭이도 잘 잡아취야 돼고.

103061 @1 아.

103061 #1 경 안허민 그것이 똑 뒤편에 그런 그 까망헛 그 노텡이엔 헛 폭리 님은 거 있어 그것이 다 쫄라 먹어볼주게.

103061 @1 아.

103061 #1 게난 처음에 그걸 잡아주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

103061 @1 약 칠 때 아니난 그냥 손으로 영 보멍 구텡이 이시민 잡아불고?

103061 #1 으. 수박은 수박은 경 안헌데 이 참웨는 그런 것이 많이 그거, 그런 충이 인다.

103061 @1 그럼 수확허는 시기는 같은 거다예.

103061 #1 으 다 비슷허다. 참웨가 조금 일르, 일르게 한다. 참웨가 혼 십오일 정도 수박보다 혼 혼 들정도주. 수박은 좀 늦게 허고.

103061 @1 참웨나 수박은 무슨 그르에 헛니까? 뭐 농사 지어난 후에?

103061 #1 게난 거 겨울에 거 허젠 허면 겨울에 아무 농서도 안 헤영 그냥 내

불엇다근에.

103061 @1 예.

103061 #1 나중에 땅, 밭 초불 갈아근에가 허는 거 겨울에 농서 지면 안 돼니까.

103061 @1 게니까 겨울 동안에 초불은 갈양 나 돼야 허는 거예.

103061 #1 으. 봄 나면 초불 갈아근에.

103062 @1 고추는마씨 고추?

103062 #1 고추는 뭐 별도로 안 해나, 고추는이.

103062 @1 먹을 것들은.

103062 #1 먹을 것만 우영에 좀 싱것주, 우영에. 건 그냥 씨 빼여근에이 쉼스령으로 그냥 영 좇앙 내불민 그거 반찬용으로. 다 우영에만 헛주 밧에 같은 경우는 안 허고.

103062 @1 안 허고. 저기 집이 먹을 것만.

103062 #1 으. 먹을 것만.

103062 @1 모종해가지고 따로 안 헛수과?

103062 #1 으, 으.

103062 @1 씨 뿌령?

103062 #1 씨 뿌렸주. 모종으로 행 읍겨 심진 안 해낫저. 그냥 씨 뿌령. 그런 디도 거름도 허고 헛니까?

103062 #1 거름은 그런 디꺼지 안 해낫저.

103062 @1 안 해예.

103062 #1 안 해낫저. 대개 우영에, 집 앓은 우영에 주로 허니까.

103063 @1 예. 배추 같은 것도 해낫수과?

103063 #1 배춘 안 해낫저. 먹을 배추, 송키 배춘 해 낫주게.

103063 @1 먹을 배추.

103063 #1 것도, 것도 우영에.

103063 @1 우영에.

103063 #1 우영에 씨 빼영 쉼스령으로 좇앙 내불이면 그것이 자라면은 톨아 먹고. 겐 옛날은 그걸로 김장은 못 담가낫저.

103063 @1 김장 담지는 못 허고.

103063 #1 으, 김장 담지 못허고. 김장 담는 배추는 보통 그때 함덕, 주로 함덕이 많이 헛는데, 건 장에 가 사당 배추허는 거 딱로 허고 집이서 송키로 먹는 건 그자 우지, 우지왓, 우지왓이엔 현다. 우영팻디 심어근에가.

103063 @1 우영팻을 아까 뒀렌 헛수과?

103063 #1 우지왓이엔도 현다, 우지왓.

103063 @1 아, 우지왓.

103063 #1 우지왓이엔 현 건 집 안에 잇는 것을 우지왓, 우지왓디 걸 우영이엔

도 하고.

103063 @1 아 우지왓이엔도 허고 우영이엔도 허고예.

103063 #1 우영이엔도 허고.

103063 @1 예, 김치렌 곱아낫수과 옛날말로.

103063 #1 김치, 김치, 김치엔 헛주.

103063 @1 김치예. 어쨌든.

103063 #1 김치엔도 허고 김치엔도 허고 그거 ㄴ튼 말.

103063 @1 김치는, 김치해 먹을 배추는 못 허고.

103063 #1 으.

103063 @1 예, 함덕 배추 사당 허고.

103063 #1 함덕 배추 사당.

103064 @1 무수는마씨? 무우는?

103064 #1 무우, 무수도 무수는 이제는 해도 여기는 안 돼서 옛날엔 송당 무수, 송당에서 무수가 많이 나니까 송당 무수 풀레 오면 사 먹어낫주. 원래 한동은 집집마다 무수를 안 갈아낫저.

103064 @1 으.

103064 #1 지금은 갈긴 가지만은 옛날 그때는 안 갈아낫저.

103064 @1 게도 배추처럼, 송키처럼 우영 밧디 먹을 건 안 갈아낫수과?

103064 #1 먹을 건 약간 헛주, 갈았주게. 먹을 건. 그때는 송당, 송당, 송당 무수엔 해낫주. 송당에서는 잘 돼니까.

103064 @1 무수가 송당에서 잘 돼는 거과?

103064 #1 옛날은 송당에서가.

103066 @1 혹시 피 농사도 짓어낫수과?

103066 #1 제주돈, 우리 이 해안에는 피가 안 돼엇저. 피는이 송당 저 우이 산간 부락에만 뻬저.

103066 @1 산간부락에만예.

103066 #1 으, 으.

103067 @1 믱물, 믱물 농사허는 거 곱아줍서. 믱물 농사허젠 허민 뭘 준비해야 뻬마씨?

103067 #1 거 불치를 준비해야 뻬. 불치.

103067 @1 불치예.

103067 #1 게난 믱물 농사헐 적에는이, 일 년동안에 이제 그 저 부엌잇잖어나이, 옛날 그거 뭇인가 송강알엔 정지엔 해연.

103067 @1 예.

103067 #1 정지에 솟에서이 일 년동안에 그 불치, 찹을 밥을 헐 때 사용허거든 그걸 불치를 몰아근에가 불치가 막 모여가면은 골채로 가근에 그 저 뭇인가 불치막이라는 게 딱로 췌저게. 불치 데미는 디. 그 불치 데미는 디 그디 강 뿔앙뻬다가 그

ㅁ물 허젠 허면은 그것이 이제 처서, 처서 한 오일 전에, 오일 내지 일주일 전에 ㅁ물을 파종한다. 파종허면은 그, ㅁ물 파종허기 전에 그 불치를이 전부 ㅁ물 밋디 시꺼가야 돼여 쉼로. 그때는 마차 같은 게 엇어부난 쉼로 다 시꺼가근에가 그걸 ㅁ물 밋디 시꺼다근에 밋디 거 놀영놔둔다. 밋디 영 뭐 땀땀하게 헤영 막 놀어가지고 것도 흑을 씹와야 돼여.

103067 @1 불치 눈 거에?

103067 #1 으. 불치 눈 것에 막 그걸 씹와근에. 그걸 미릿 시꺼간다 흐기 전에 ㅁ물 파종허기 전에 혼 십오 일 전에 강 밋디 강 놀영 놔당.

103067 @1 누는 건 놀처럼 막 크게 누는 건 아니고?

103067 #1 아니 산, 보통 산보단 조금 좋게, 그 양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많이 시꺼가면은 놀이 크고. 또 그 놀이 혼 군데만 허지 않고 혼 두어 군데 헤가지고 마쩍마쩍허게 헤가지고서 놀 놀엇당 그 ㅁ물을 갈 때 뉘면은 그 뭐 쉼쟁기, 소허고 쟁기가 가져가야 할 거 아니라. 그거 장만헤야 돼고, 게민 그 놀을 전부 그차가지고 그차가지고서 ㅁ물 씨를 그 불치에다가 서꾼다.

103067 @1 아.

103067 #1 그 불치에다가 서꺼가지고서이 저, 저 출구덕이라 헤 출구덕, 출구덕.

103067 @1 예.

103067 #1 출구덕에 그 불치를 이제, 이제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줍아 놓는 거라. 줍아 놓는 거.

103067 @1 아, 씨를 불치에 서깁.

103067 #1 으, 서꺼서 이렇게 줍아 놓는 거.

103067 @1 줍아 논는 거?

103067 #1 줍아 놔근에 줍아 놔근에, 쪽허게 줍아 놔근에가 다 줍아 놀 거 아니가 밋 가는 디. 다 줍아 놓면은 낸중에 그 줍아 논 자리를 갖다가, 이제 고랑에만 줍아 놀 거 아니라 고랑에만.

103067 @1 예.

103067 #1 고랑에만 줍아 놀 거, 밋 다 깔민 다 줍아 놀 거 아니가. 경허민 ㅍ실귀로 영 꺾어부는 거라.

103067 @1 게민 밋 갈 때도 영 고랑은 잇게 가는 거다예.

103067 #1 으. 골 쳐텐 한다 골 쳐.

103067 @1 골 쳐예, 게민 골 간격은 얼마나 험니까?

103067 #1 혼 뽀, 혼 줄에 혼 십 센치 텔 건가 십 센치 십오 센치 정도.

103067 @1 경헤가지고 골 행 골 잇는 자리에.

103067 #1 고랑에 골러레만 줍아 놔가지고서 낸중에는 ㅍ슬귀. ㅍ슬귀란 것은 나무로 거시길 만든다. ㅍ슬귀.

103067 @1 ㅍ슬귀렌 험니까 ㅍ슬귀렌 험니까?

103067 #1 ㅍ슬귀.

103067 @1 꼬슬귀 만드는 건 무슨 낭으로 헤마씨?

103067 #1 거 꼬슬귀 만드는 건 나무가 존 거라 웨여. 그 나무가 거 뒤흔다.

103067 @1 거 나중에 또 물어보쿠다.

103067 #1 ㄴ만 셔 보라, 여디 강 한 번 물어보켜.

103067 @1 깨팡낭.

103067 #1 꼬슬귀 같은 건 깨팡낭이라고 깨팡낭은 썩이 무성허지 안허고 막 가지가이 막 거세기 현 거난 잘 부숴지주게.

103067 @1 아, 깨팡낭마씨?

103067 #1 깨팡낭이라. 깨팡낭으로 꼬슬귀 헤가지고서 다 줍아논 다음에 거 곳 어불민 웨.

103067 @1 꼬슬귀로예.

103067 #1 건 처서 전후에 건 현다. 처서.

103067 @1 가는 걸 처서 전후에?

103067 #1 아니, 아니. 파종허는 거.

103067 @1 아, 파종허는 거예.

103067 #1 갈아낱 처서가 가까와 가면은 아까 불치로 걸름을 현다. 불치를 시꺼 당 놔가지고 밭 가는 날에 그 불치를 다 헤쳐가지고서 그디 씨 빼왕 골고루허게 손으로 다 거시기 허야웨주게 손으로 다 이렇게 다 씨를 골라놔가지고 그걸 출구덕에 메영 이렇게 줍아놓는 거.

103067 @1 게민 밭 갈 때는 남자가 갈 거 아니예.

103067 #1 남자가 갈주.

103067 @1 줍아놓는 건 여자가 허여.

103067 #1 으. 남자도 현다 줍아 놓는 거. 여저덜 헐 때논이 막 좇게 해부난이 여저덜 못 허니까이 놉덜 빌영 현다. 수눌영.

103067 @1 아, 수눌영. 아까 불치 쉼로 행 시꺼간덴 헛잖아예?

103067 #1 으 시꺼갈 땀이.

103067 @1 예.

103067 #1 불치 멍텅이, 불치 맥이란 게 잊저.

103067 @1 예.

103067 #1 맥에 담아근에가 혼쪽에 맥 하나씩 양쪽에 두 개 헤가지고 혼 바리에 두 개. 두 개씩, 게난 그게 혼 사름이, 혼 사름이 힘겹게 질만이씩 그, 그 맥에 담나. 두 사람 짐을 거, 두 사람 짐을 쉼에 시꺼가는 거주.

103067 @1 게민 지난 번에 거름헐 때도 맥에 담아 가논디 불치맥이랑 돛걸름 맥이랑 따로 씹니까?

103067 #1 돛걸름 맥, 돛걸름은 이 그거이 막 작나, 작은 거고.

103067 @1 작은 거고.



103067 #1 불치맥허고 쉼결름은 좀 큰 거.

103067 @1 아, 큰 거고. 돛결름은 무거워부난.

103067 #1 으, 무거워부난. 조그만헌다, 조그만.

103067 @1 어쨌든 용도는, 용도는.

103067 #1 틀리다.

103067 @1 달리, 달리 쓰는 거라예.

103067 #1 으 달리 쓴다.

103067 @1 이거는 불치맥이렌헨 쓰고예.

103067 #1 으, 불치맥이렌 따로 잇주.

103067 @1 그리고 믱물 밧디 검질 뻘니까?

103067 #1 믱물 밧디 검질 안 뻘다.

103067 @1 안 메여마씨. 그냥 뿌렁 내부는 거라.

103067 #1 믱물은 저거 해가지고 두 덜, 두 덜 내지 석 덜이민 뻘는 거난 굉장 히 빨리 뻘는 거주게.

103067 @1 아, 경 빨리 자라? 그럼 언제, 아까 처서?

103067 #1 처서, 처서가 저것이 칠월 혼 양력 칠월 칠일쫘 처서가 뻘주. 경허민 저것이 구월 말, 말 뻘민 먹는 거난 저것이 약 두 덜 반 뻘민 먹는 거라.

103067 @1 아.

103067 #1 상당히 빨리 먹는 거라. 게난 풀 뻘 새가 없어.

103067 @1 하하하.

103067 #1 풀 뻘 새가 없어.

103067 @1 씨 뿌렁 나두민 그방 믱물 뻘 부는 거예. 으. 수확허는 거 곶아쫘서.

103067 #1 수확헐 때는 수확허는 것도 호미로 전부 비여야 뻘는 거라. 수확헐 때도 많이 헐 사름은 눅 빌영 가고 또 경 안헐 뻘 수눌영 가고. 큰 밧 헐 적에는 으나명 가야 뻘니까 그렇게 눅 빌영 가고.

103067 @1 눅들 빌영 비여 뻘 무경.

103067 #1 어. 비여놔근예가 밧데서 두드려 낫저. 밧데서.

103067 @1 아, 밧디서. 어쨌든 모다야 뻘 거 아니?

103067 #1 으 게난 그 테작을 허젠 허면은이 그 테작허기 혼 삼일 전에 강이 그 비여논 걸, 쪼그만씩 비여 낫거든이 그걸 이제 그 뻘인가 눈, 눈 일른다고 헌다 눈 일러.

103067 @1 눈 일러?

103067 #1 으 눈 일러. 눈 일러 낫당 왜 눈을 일르논고 허니 땅에 딱 부떠 부뜬 걸 같다가 그걸이 이렇게 저 뒤집어근예가 서너니군데 걸 혼아름씩, 혼아름씩 안게 금 모다놔. 눈 일렁, 것ㄴ라 눈 일렁 모다놔근예가 그 두드리레 갈 적에는 그 밧데 서 두드리니까 그 날르는 사름은 날름만 허고 거 두드리는 사름은 두드림만 허고.

103067 @1 어, 으 기민.

103067 #1 거 집이서도 조그만, 조금만 허게 현 사름은 집이 낡도 두드리고 시꺼장.

103067 @1 기민 비여근에 맞디 그냥 놔 두는 거라예?

103067 #1 으. 막 물르게.

103067 @1 겐 삼일 지나사.

103067 #1 아니 삼 일 더, 혼 일주일, 열흘 이상 물려사 한다.

103067 @1 아고, 비 와볼민 어떻허여.

103067 #1 비 맞아도 어떻 안 허여 ㅁ물은.

103067 @1 비 맞아도 어떻 안 험니까?

103067 #1 비 맞으면 더 까맣게 잘 익고 ㅁ물이 속히 물르메. 비 맞아 나야.

103067 @1 아, 경험 비 맞으멍 눌러질 걸 일으켜 세우멍.

103067 #1 으, 그거ㄴ라 눈 일른다 허는 거.

103067 @1 예, 눈 일르는 거예.

103067 #1 으. 눈을 일러 낡.

103067 @1 게민 그런 걸 눈이렌 험니까?

103067 #1 으 그 하나 하날 혼 눈, 두 눈 한다 그걸 비여낡, 비여낡 모다 눈 걸 눈이주게. 그걸 눈이엔 한다.

103067 @1 예.

103067 #1 그거 무끄걸 혼 못 두 못 허지만 그걸 눈이엔 한다. 눈을 일러근에 영 뒤집어 놓는 걸 눈 일른다 허주게. 눈 일러낡 두드리주.

103067 @1 두드리는 거예. 두드릴 때는 어떻 두드리는 거?

103067 #1 거 도끼로 두드린다.

103067 @1 영 모아낡 모양 가져 낡 두드리는 거예?

103067 #1 으. 도끼로 두드려근에가 그걸 이제 두드린 다음에 이젠 낭뎡이를 다, 게니까 혼 번에 다 못 두드린다 게니까 혼 마당에 헤, 헤나면은, 혼 마당에 헤 나면은 그, 그 ㅁ물쥌을 다 갓당 그것에 청 내뎡, 내뎡 그것에 정리해 놓앙 다시 걸 다시 날라당 마당에 걸 테작허는 디 끌앙, 끌아근에가 그냥 또 허고 또 허고. 혼 대 여섯 마당을 한다.

103067 @1 아, 대여섯 마당까지.

103067 #1 큰 밧은.

103067 @1 큰 밧은예. 그민 이제.

103067 #1 경험서 다 두드리면은 이제는 그뎡 브름이 잘 분다. 그럼 그것을 브름에 불러야 돼여 그걸.

103067 @1 아, 아.

103067 #1 브름에 브름에 불리기 전에 그 뭐인가 얼뎡이로 다 친다. 그거 다, 다 두드려나민 그 썩을 다 당겨가지고 손으로 다 당겨가지고서 얼뎡이로 쳐가지고 이, 얼뎡이 아래로 느린 건 브름에 불러근에가 거 다 불리면은 쉼에 시경오주. 그거

거 뭐인냐 맥에 담아가지고서.

103067 @1 맥에 담양 쉼에 시경와예, 예.

103067 #1 으 쉼에 시경와.

103067 @1 경헨 장만허는 건?

103067 #1 장만은, 장만은 물류왕 거 삼스일은 물류와야 돼 날 좋은 날은 물류와가지고, 옛날에는 저 돌ㄱ레 잇잖허냐이.

103067 @1 예, 예.

103067 #1 이어도 ㄱ레, 쪼그만헨 ㄱ레 그것에 건퍼근에가, 건퍼근에 보통 집이 서 먹었는데 양이 많은 건 그때 거 정미소가 잇엇저 옛날에도.

103067 @1 예.

103067 #1 거 뭐인가 기계빵이 잇엇저, 정미소가 기계빵, 기계빵 헨.

103067 @1 기계빵 엇일 때는?

103067 #1 기계빵 엇일 땐 기자 멧돌에만 곁아가지고.

103067 @1 멧돌에 곁아. 그 멧돌은, 큰 거는 물 ㄱ레엔 허고?

103067 #1 으. 그 물ㄱ레에 허민 저건 다 까져볼테.

103067 @1 까지고예.

103067 #1 으, 까정 안 돼난 그것은 그냥 멧돌에만.

103067 @1 그걸 정ㄱ레엔 험니까 멧돌을?

103067 #1 쟁ㄱ레엔도 허고.

103067 @1 쟁ㄱ레?

103067 #1 어 그자, 기자 멧돌ㄱ레엔도 헨다.

103067 @1 아, 멧돌ㄱ레엔 해예. 쟁ㄱ레엔.

103067 #1 쟁ㄱ레엔 허는 사름도 잇고.

103067 @1 으. 쟁ㄱ레엔 허는 사름도 잇고. 게민 ㄱ물은 주로 뭐 행 먹읍니까?

103067 #1 으. ㄱ물은 주로, 그 ㄱ루는 주로 범벅을 행 먹고 옛날엔이.

103067 @1 예.

103067 #1 범벅이란 거 잇저. 고구마, 감저 썰영 낱 범벅행 먹고.

103067 @1 으.

103067 #1 또 이제 ㄱ물즈베기, ㄱ물 국수라고 ㄱ물조베기 헨 먹고이.

103067 @1 으, ㄱ물즈베기.

103067 #1 으, ㄱ물즈베기엔 헨다, ㄱ물즈베기. 지금 우리가 국수, 국수 허는 걸 ㄱ물즈베기, 즈베기 헨다.

103067 @1 예, 예.

103067 #1 게난 ㄱ물즈베기도 칼국수 잇고 기자 좁양 거려놓는 거 거 수제비 국수도 해영 먹곡, 수제비.

103067 @1 예, 수제비 국수도 해 먹고예, 또?:

103067 #1 또 그 외에는 용도가 엇다. 켜켜, 제서 때 돼민 목을 허야 돼고. 주로

묵 허는 것주.

103067 @1 빙떡행 먹고.

103067 #1 으, 빙떡행 먹고.

103067 @1 죽, 죽, 믰물죽?

103067 #1 믰물죽도 믰물죽도 이거 막이 많이 해 먹나. 왜냐하면 옛날에는 감기가 많이 와 낫거든이 거 믰물죽에 또 거 새우리 패마농 거튼 거 놔근에가이 썩, 썩 감기 때 썩 먹영 뚱나 나민 그때는 것도 경 해낫저.

103067 @1 감기 걸렸을 때?

103067 #1 으, 주거 그거 농촌에서 그거 비상약으로 사용했저.

103068 @1 예. 거 옛날에 담배도 농사 해낫지예.

103068 #1 으, 담배도 농사 해낫저. 담배 농서는 중간에 저 뭐인가 새마을사업 저 소득사업으로 정부에서 장려해가지고서 그거 해낫저. 한동에도 많이 해낫저. 느네 아부지도 많이 해낫저.

103068 @1 아부지 해난 건 생각 안 나고 어렸을 때 웨할아부지 집 앞이, 앞이 그 담배 밭 해난 거.

103068 #1 으. 담배행 막 넣어, 줄로 영 넣어논 거.

103068 @1 예 넣어난 거.

103068 #1 집집마다 막 했저. 그때는이 그것이 막 갑이 많이 했주게.

103068 @1 예. 담배 농서 짓는 거 곶아줍서.

103068 #1 담배 농서 짓는 거 저거이, 그때는 담배를 나도 하도 오래 돼가난 기억을 해사.

103068 @1 생각나는 것만 곶아줍서.

103068 #1 게난 담배를 이거 종자를 놔가지고이, 담배도 종자를 놔가지고이 것도 담배를이 그 종자를 키와가지고 밭디덜 싱것저 거.

103068 @1 으.

103068 #1 밭데덜 싱거가지고서 그걸 막 여름내낭, 거 잘 여름엔이 막 더운 때 그걸 또 누렁해가민 익어가민 톨아야 웨여 밭디 가근에가.

103068 @1 그믐 가는 게 언제디마씨?

103068 #1 가는 게 저것이, 예 또 하여튼 유월초에 험다 유월초에 해가지고서 칠월 내지 팔월꺼지 저거, 저거이 땀다. 흔꺼번에 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밑으로부터 누렁케 익어가민 익어가야 따니까 그거 익은 것만.

103068 @1 예.

103068 #1 영 숙성웤 것만.

103068 @1 으, 영 올라와가민 이파리가 영 웨민 밑에서부터 누렁게 변하난 그거 밑에서부터 영 땅.

103068 #1 으, 땅 올라가.

103068 @1 땅 올라가는 거예.

103068 #1 으.

103068 @1 그민 이거 담배도 대개 빨리 컴수다예.

103068 #1 으, 그거 빨리 크다. 빨리 크는 디 저걸 딸 땐 혼 유월경에 칠에는 저것이 칠, 팔월 상당이 겨울엔, 아 여름에 막 더우니까 빨리 크다. 경해가지고서 저걸 톤아다가 새끼로 예긴다. 그 산뒤쪽으로 거 예껴가지고서 혼 줄씩 혼 줄씩 예껴가지고서 걸 그늘에서 돌아맹 물려야 돼여.

103068 @1 아.

103068 #1 그늘에서. 경해야 빗칼이 나지 뱃디서 허민 하양해불영 안 돼여.

103068 @1 음.

103068 #1 그늘에서 창고에 돌아맹 물황 또 시월에서 십일 월 땀민 판매가 잇저 그걸. 바찌라고 경헨 판매헨 그걸로 용돈을 많이 헛지.

103068 @1 바찌는 거예.

103068 #1 으, 판매, 판매.

103068 @1 이파리 물리민 이파리차 그대로?

103068 #1 이파리, 이파리 허민이 이파릴 또시 그 줄에다 그 저 새끼로 파가지고 줄에다 헨 걸이 전부다 빠가지고서이 그 열 개씩 혼, 혼 도로무씩 무꾼다이.

103068 @1 예, 예.

103068 #1 열 개 내지 열 다섯 개씩.

103068 @1 이파리 열 개?

103068 #1 이파릴 모당 헤가지고 무꺼가지고이 그걸 점진텐 헨다 그걸 요렇게 무꾼 것을 갖다가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해서 혼 점이라. 열 개에, 열 개에, 열 개씩, 혼 점씩 만들어가지고 판매허는 거.

103068 @1 아. 그럼 열 개씩 무꾼 게 혼 점이면.

103068 #1 아니 다섯 개, 다섯 개 허민 그것이 혼 점 아니가이.

103068 @1 으.

103068 #1 그렇게 포장헤가지고 판매헨 땐 경허는 거.

103068 @1 아, 판매헨 때. 게난 부비지는 안 해낫구나.

103068 #1 으.

103003 @보리 농시허는 디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이신고마씨? 갈 때부터 시작헨 때부터.

103003 #1 거 도구 특별히 무시거 헨 거 엇어. 그냥 걸름 깎는 거.

103003 @ 예.

103003 #1 걸름을, 걸름을 깎아야 그 밧을 영 갈앙 고랑에 걸름을 깎앙 우선 밧을 갈아야 돼지. 거 조크르 등탄다고 그랬어 등탄다고.

103004 @ 조크를 등탄다. 이거는 무슨 말인거마씨?

103004 #1 거는 흙 이렇게 생밧 돼게시리 이렇게 그릇만 굿주, 그릇만 굿어.

103004 @ 예.

103004 #1 이게 가운데 생밧에, 생밧이고 이거 고랑 영. 그걸 등탄다고 그래 등탄다.

103004 @ 예.

103004 #1 보리 갈 적에 등타는 거.

103004 @ 예.

103004 #1 조크르에 보릴 가니까. 쟁 등타, 처음에 등타야 돼고 쉼 그 밧 갈을 때 등타야 돼고 그 다음은 그 걸름을 그 고랑에 다 끌어야 돼주게.

103004 @ 예, 예, 예.

103004 #1 그 다음에는 이젠 씨 빼어근에 이젠 갈민 되는 거.

103004 @ 예. 삼춘 이제 조크르 등탄다 허는 거는 이제 걸름 끌젠 허는 거군아 예.

103004 #1 으. 걸름 끌젠 허는 거.

103003 @ 걸름 운반허젠 허민 뭐뭐 필요해마씨?

103003 #1 맥허고.

103003 @ 맥허고.

103003 #1 뭔가 그 사람 지게허고 쉼 시끄젠 맥허고 그 맥에 담을 거이. 또 쉼 앓배도 필요허고.

103003 @ 쉼앓배도 필요허고.

103003 #1 어 쉼질메, 쉼앓배.

103003 @ 쉼질메행예. 게문 예전에는 걸름을 양쪽 맥헤근에 두 개를?

103003 #1 어 두 개를.

103003 @ 헨 거잖아예. 그땐 그냥 돛가래착이여 돛걸름착 이런 말은 안 해수과?

103003 #1 아 돛걸름착이엔 헛주게 돛갈름착. 돛갈름착은이 돛갈름착 족아야 돼고 건 물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쉼걸름 시끄는 건 막 커야 돼고.

103003 @ 아.

103003 #1 흔 솜짜리라야 돼어.

103003 @ 아, 게난 쉼걸름 시끄는 거는 맥에 해갓고 흔 솜짜리 해갓고 실르고. 돛걸름은.

103003 #1 어. 돛걸름은 그거 죽은, 거 돛걸름허는 뭐인가 멩텅이가 있주. 작은 거 작은 거 멩텅이렌 해가지고 있어.

103003 @ 예. 멩텅이 그거는.

103003 #1 돛걸름.

103003 @ 돛걸름착이렌 험니까?

103003 #1 돛걸름은 물이 차부난 무거웁주게. 게난 쉼걸름은 막 몰라부니깐이 게난 그 큰 거로 열 말들이 이상, 흔 섬들이라야 그 그 타명 시끄곡.

103003 @ 으. 게문 이제 맥 이런식으로 헤근에 쉼질메 메왕 가는 거 아니라예.

겐 양쪽에 헛나씩.

103003 #1 으. 양쪽에 헛나씩.

103003 @ 그것도 헛 바리 헛니까 옛날은?

103003 #1 으. 것도 헛 바리엔 허주.

103003 @ 예. 게른 쉼결름은 맥에 시경 헛 바리.

103003 #1 어.

103003 @ 돛결름은 돛가래착에 양쪽 시경 헛 바리.

103003 #1 어 헛 바리.

103003 @ 그 다음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깎 때는 손으로 깎아마씨?

103003 #1 어 손으로. 손으로.

103003 @ 아 손으로예. 그럼 돛결름만 헤수과, 아까 듬복 결름은 안 헤수과?

103003 #1 듬복도 헛주.

103003 @ 듬복도 보리헛 때도 헤마씨?

103003 #1 듬복도 보리헛 때도 허는 거. 보리 안 허민 필요가 없는 거지 거.

103003 @ 아 예. 듬복은 듬복 결름, 그거는 어떤식으로 듬복 결름은 어떤 식으로 허는 것과?

103003 #1 것도 아까 등탄 디 가근에 고랑에만 깎는 거.

103003 #4 듬복은 고랑에만 깎주 고랑에만

103003 #1 게나 이거 쉼결름 같은 건 영 손으로 허터도 돼긴 돼주만은 듬복은 고랑으로 안 갈민 밧 갈 때에 걸렁 그냥 막 나와불주게.

103003 @ 예, 예.

103003 #1 게난 꼭 그거 땅 속에 잘 들어가게끔.

103005 @ 그런식으로 하고예. 씨 빼는 거는 손으로 그냥?

103005 #1 으 손으로. 모든 거 손으로 그냥.

103005 @ 씨 빼젠 허민 그 씨 놓는?

103005 #1 멍, 멍탱이란게 있어. 그 췌멍탱이, 췌멍탱이.

103005 @ 췌멍탱이?

103005 #1 어 췌멍탱이.

103005 #4 씨 빼는 멍탱이가 만들앙 잇주 다 허허허.

103005 @ 거는 뭘로 만들앗수과?

103005 #1 거는 저 산디찍, 산디찍으로 늘은 그 늘은 밋늘로 헤근예.

103005 @ 아 늘은 밋늘로 헤서예.

103005 #1 으.

103005 @ 아까 밋늘이엔 헛 때 미가 뭐우과?

103005 #1 미가 저 미빼쟁이라고 있지 안허냐.

103005 #4 억새, 억새. 억새라 꽃 피기 전에.

103005 #1 억새 그걸 꽃 피기 전에 부룩이 영 사민 그걸 빠 가지고 그 미 빠

온텐 허주.

103005 @ 예.

103005 #1 그걸 빠다가 집이서 물류와 가지고서 물류민.

103005 #4 억새꽃 빠두고.

103005 #1 그 꽃을 빠불거 아니라 물류민 그거 팍 퍼지민 그걸 헤불민, 빠불민 그걸로 이제 낚다가 노 파서 신도 삼고 쉼배도 허고 물 지는 허벅 뿔도 허고 다 그렇게 했주.

103004 @ 예, 예. 그런식으로 하는 거라예. 그 다음에 갈젠 허민 뉘로 갈아수과?

103004 #1 쉼로 갈주 쉼로.

103004 @ 쉼로예. 게민 쉼로 갈젠 허민 필요헌 게 뉘뉘 잇어마썸?

103004 #1 쟁기가 필요허주 쟁기.

103004 @ 쟁기.

103004 #1 어. 쉼 갈젠허민 쉼 멩예.

103004 @ 예, 멩예.

103004 #1 으 멩예, 그 쟁기 또 이제 거 뉘인가 가린석이란.

103004 @ 가린석.

103004 #1 으. 거 쉼 이레 갓당 저레 갓당 허는 거.

103004 @ 쉼 게민 뿔에 이렇게 허는 거우과?

103004 #1 어어.

103004 @ 가린석. 가린석은 양쪽에 있는 거우과?

103004 #1 어. 어 양쪽에 있는 거.

103004 @ 한줄은 뉘우과?

103004 #1 한줄은 쉼가 이렇게 멩예에 부튼 거주. 그걸 이렇게 땡길 거주.

103004 @ 아 한줄은.

103004 #1 한줄은 멩예 메와근에 그걸 땡기는 거.

103004 @ 예. 게민 멩예가 필요허고.

103004 # 한줄 필요허고, 그 다음에는 뉘엿거, 무시거엔 허느니 거.

103004 #4 어?

103004 #1 그 한줄 뉘에 쟁기에 메우는 거.

103004 #4 아 오리목 말허는 거. 오리목입주게.

103004 #1 아, 오리목, 오리목.

103004 @ 오리목 한줄 다음에 오리목 뉘에 이렇게.

103004 #1 그거 오리목이 쟁기에 이렇게 헤영.

103004 #4 거 부튼 것이 영 돌아진 것이 오리목이라.

103004 @ 예, 예. 게민 쟁기헉니까, 잠대엔 헉니까 여기선?

103004 #1 잠대지 잠대.



103004 #4 여기선 잠대.

103004 @ 예. 옛날말로 막 튼내 줘야 돼예. 잠대. 삼춘 여기 혹시 보리 갈면 보리 간 다음에 골 갈아수과?

103004 #1 아이 아이 갈아서.

103004 @ 여기는 안 갈양 한 번 갈양?

103004 #4 뭘 안 갈아?

103004 @ 골, 골.

103004 #1 아 게메 보리 씨 빼낭 갈아야지.

103004 @ 그 다음, 아니 짹 난 다음에.

103004 #1 아니 난 다음에 안해서.

103004 @ 난 다음에 안 해예. 게믄

103004 #1 건, 건 수돗물 불린덴 경 헛주만은 옛날에 요샌 경 안 돼여.

103004 @ 음. 여기는 수돗물 안 눌렀구나예. 예 알았수다. 그렇게 해서 허믄 게믄 잠대도 흔 종류베끼 엇이켜예 이 동네예.

103004 #1 으 잠대도 흔 종류베끼 엇어.

103004 @ 그 다음에 잠대허젠 허믄, 밧 갈젠 허믄 필요헌 도구덜이 있지 안 허과? 아까 벳도 잇덴 허고 삼춘.

103004 #1 아 게메 벳 보섭게.

103004 @ 벳허고 보섭

103004 #1 보섭.

103004 #4 아 거 잠대 다 부텃주 벳이고 보섭이고.

103004 @ 예.

103004 #4 다 무췌로 멘든 건디.

103004 @ 게믄 벳허고 보섭도 전부 이 동네 아까 불미항에서.

103004 #1 에이 그건 엇고.

103004 #4 건 이 동네 엇어.

103004 # 이딘 없어가지고 주로 이 대정서 이디 많이 만들영 왕 폴주. 대정.

103004 #4 어.

103004 @ 아.

103004 # 대정.

103004 @ 아 대정에서.

103004 #4 어 벳, 보섭은.

103004 #1 벳, 보섭은.

103004 #4 잠대는 이 동네에서 아무거 해서 멘드는 사람도 잇엇주만은이.

103004 @ 예.

103004 #4 옛날에 그 벳 보섭은 그 공장이 제주도도 멧 밧디 엇어서.

103004 @ 예.

103004 #4 계난 주로 우리 듣기론이.  
 103004 #1 시장에 강 사야주.  
 103004 #4 안덕면 덕수리가이 큰 저기, 안덕면 덕수리에서.  
 103004 #1 대정에서 많이 이디 오랑 풀앗주.  
 103004 @ 삼촌도 직접 쟁기 멘들아 봅디다.  
 103004 #1 아니 건 목수 아니민 못 멘들아.  
 103004 @ 아 직접은 안 허고예.  
 103004 #4 잠대는이 목쉬베끼 못 멘들아. 어 저 지게허고.  
 103004 @ 예, 지게허고.  
 103004 #4 계난 하나토 없어. 지게도이 계난 해나지 안 현 사름은 못해.  
 103004 @ 이 동네 계른 잠대 멘들아난 사름은 엇구나예.  
 103004 #1 흔 두어 사름 목수덜은 다 목수덜은 다 해.  
 103004 @ 아, 이제 잇우과. 그 어른덜도?  
 103004 #1 아 다 돌아갓주만은.  
 103004 #4 다 돌아가부난 엇어.  
 103004 #1 거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꾼텐 허주.  
 103004 @ 쟁기 서꾼텐예.  
 103004 #1 쟁기 서끄는 거.  
 103004 @ 예, 계난 그 쟁기 서끄는 사람이 잇어야 돼는 건디예.  
 103004 #1 예, 그건 엇다.  
 103004 @ 그건 엇우과? 이런식으로 하고. 이건 갈 때, 갈 때였잖아예.  
 103004 #1 으.  
 103010 @그 다음은 아까 빌 때 허젠 허면은?  
 103010 #1 호미가 필요허고.  
 103010 @ 호미가 필요허고 만약에 호미가 이제 무껴볼 거 아니우과?  
 103010 #1 게 골아야지.  
 103010 @ 예, 골젠 허민 또 뭐가 필요헐니까?  
 103010 #1 신돌게.  
 103010 #4 신돌로 골아야주, 골아야.  
 103010 @ 신돌예. 신돌로 골고.  
 103010 #1 걸 골아야. 하루 흔 번은, 두 번은 골아야 돼주. 낮에 허고. 열두 시  
 에 흔 번 골고 세 시에쯤 흔 번 골고.  
 103010 @ 예. 그 다음에 신돌이 필요헌 거고 무끄젠 허민 보리.  
 103010 #1 으.  
 103010 @ 그 그냥 보리 제께로 해서.  
 103010 #1 제께로 해서.  
 103010 @ 무끄고 그 다음에 늘어근에 이젠 비 맞지 말젠 해갓고 더까야.

103010 #1 겐 느람지, 느람지를 더껏주.

103010 #4 새, 새로 현 걸 느람쥐라고이 이런 집이서 새 물, 비어다가 겨울에  
몰려서 그거로 역불로 멘드는 거라. 게난 옛날은 갓빠도 뭐 없었거든. 뭐 없으니까  
다 겨울이나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조나 다 그걸로 더꺼지게.

103010 @ 예, 느람쥐.

103010 #4 저 집 이는 새로.

103010 #1 새로 멘든, 예깁(여쁜) 거주.

103010 @ 예, 새로 예깁 거. 그 다음에 느람쥐 위에 더끄는 거는 뭐렌 해수과?

103010 #1 거 주쟁이.

103010 @ 주쟁이.

103010 #4 느람쥐 우이 가운데 그거를 게메 주쟁이라, 주쟁이 허허허.

103010 #1 주쟁이 거는 다 사람덜마다 만들 수 있는 거.

103010 @ 아. 주쟁이는 만드는 거예.

103010 #1 건디 새로 해야 돼.

103011 @ 예, 주쟁이도 새로 해여서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가져오고. 그  
런 다음에 이 녀석을 타작할 때 필요헌 게 아까?

103011 #1 도께.

103011 @ 도께. 도께 필요허고 그 다음에 도께는 뭐에 놔근에 해난 거라마씨?

103011 #1 거 마당에, 마당에 거 다 퍼 놔서 게난 그걸 뭐 고스라기 어디 가지  
못허게 그 지지개를 다 쳐. 지직이란 거.

103011 @ 지직.

103011 #1 지직 거 빙허게 돌아가면서. 거 뭐인가 곡식거튼 거 어디.

103011 @ 튀지 못허게.

103011 #1 튀지 못허게. 경 다행 도께로 태작허는 거.

103011 @ 그럼 맨땅에서 현 거라마썸.

103011 #1 맨땅에서.

103011 @ 아, 명석 낀 거 아니고.

103011 #1 아니, 명석 안 낄아.

103011 @ 아하, 마당 옛날에야 마당에 다 흑 아니과?

103011 #1 흑이주게. 게난 명석이영 안 낄앙 헛주게. 명석 안 낄앙 그냥.

103011 @ 그걸 이제 다 현 거라예. 삼춘 아까 지직은 뭘로 만듭니까?

103011 #1 지직은 지직은 것도 여라가지로 만들주게. 지직이란 건 예또 뭐인가  
그거 아까 역새 있지 안허여.

103011 @ 예예.

103011 #1 그런 것도 비여다가 그 익은 거 비여다가도 만들고 뭐 또 이 새로도  
만들고 또 이 조침으로도 만들고 허엿주게. 조침으로.

103011 @ 조침으로예.

103011 #1 어.

103011 @ 그러면 그 지직은 만들면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땀수과?

103011 #4 아니, 옛날은.

103011 #1 그 초석 봐나서 초석?

103011 @ 예, 예.

103011 #1 거 그런 식으로 땀주게 그런 식으로. 질게 짜민 막 질게도 찢 수 있고. 또 흔 흔 땀자씩 해근에 영 부쳐근에 지직 영 칠 때는 경혈 수도 있고.

103011 @ 그럼 지직의 용도는 주로 그런 용도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써나수과?

103011 #1 다른 용도는 엇고 그런 디로 주로 많이, 많이 쓰고 또 이제 그 옛날엔 그 뒤인가 그 산모가 있으면은 것도 바깥디 지직을 쳐낫주 또.

103011 @ 아.

103011 #1 그 무시거 몸 비린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시기 허카부덴.

103011 @ 그 지직을 어디에, 올레에 치는 거라마씨?

103011 #1 아니 아니, 창문. 난간 창문에 영 치고 또 이제 상이 나도 지직을 영 임시 쳄다가 거 가져 두고 상 싱그고 경허는 거주.

103011 @ 아 상 낫을 때.

103011 #4 거 초상 날 때도 쳐나지 안헤수과?

103011 #1 게메 초상 날 때.

103011 @ 게민 초상 날 때도 방 앞에 치는 거?

103011 #1 아니아니, 방 앞 그 그 방 바깥, 바깥 있지 안허냐, 난간, 난간.

103011 @ 난간.

103011 #1 난간 창문. 창문.

103011 @ 창문 앞에 무땡에.

103011 #1 으. 창문 무땡에.

103011 @ 아, 창 무땡에 허는 거라예. 방 못 보게.

103011 #1 으. 못 보게.

103011 @ 아. 게난 도깨질 혈 때도 튀지 말렌 치고 그 다음에 산모 있을 때.

103011 #1 것도 치, 그 때도 쳄고.

103011 @ 애기 낳고 이럴 때도 이제 치고.

103011 #1 어. 거 몸 비린 사름 다니면은 산모가 막 거 등 올르주게. 거 우리가 저 미신이라고 허주만은이 옛날에는 여기 종기가 많이 나낫어. 사람이 이 어린 아이덜이 종기.

103011 @ 예, 예.

103022 #1 종기가 많이 낫는데 게 이 종기가 많이 낫는데 그 영장이 날 거 아니냐이 영장이 나면은 뒤인가 양웨라고 잇어 양웨.

103022 @ 예. 양웨.

103022 #1 양웨를 헤다가 거 채와주던가 그렇게 방세를 헤여. 그러면 그런 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거 안 채와근에 피부병이 피부병이 잇은 사람이 영장 그 몸 비린 사람 보면은 막 헤싸지고 말야 거세기 헤났어. 경헤가지고 그 저 땡유자낭 허고 양웨헤서 방세헛지.

103012 @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작을 하고예, 아까 얘기한 타작헌 거를, 타작헌 거를 이제 쌀로 만들젠 허면은?

103012 #1 거 불려야 돼. 그 다.

103012 @ 불린 다음에.

103012 #1 어.

103012 #4 브름으로 불려야 돼, 브름으로.

103012 #1 바람이 바람, 바람 거 쟈게 나는 날 불려야 돼. 그 날 못 불릴 수도 있어. 게난 그걸 깨끗이 불려가지고서 맥에 담양 뉘다가.

103012 @ 예.

103012 #1 게 요 그 항 그 항상 밭에 나가기 때문에 그 틈을 타가지고서 쏠이 떨어지민 밤에도 영 헐 수 있고 경 안 허민 비 온 날 물ㄴ레에 강 굴고 그렇게.

103012 @ 물ㄴ레 가근에 ㄴ는 거라예 아. 갱 이제 물ㄴ레 강 굴 때 아까 필요헌 것들은 사람 수눌어근에 허고.

103012 #1 사림 수눌영.

103012 @ 맥에.

103012 #1 푸는체도 필요허고 거디.

103012 @ 예 푸는체.

103012 #1 푸는체허고 거 뭐인가 거 비, 비차락.

103012 @ 예.

103012 #1 비차락은 항상 쓸어근에 그레 행 뭐인가 그 올려줘야 헤 이레 나오는 걸 자꾸 이렇게.

103012 @ 올리는 비차락을 무슨 비차락이엔 헤수과?

103012 #1 ㄴ레, ㄴ렛비라고 헌 거 쪼금 든든헌 거라야 돼.

103012 @ ㄴ렛비?

103012 #1 ㄴ렛비.

103012 @ 그 ㄴ렛비는 뭘로 만들언마씨?

103012 #4 스레비.

103012 #1 스레비로 주로 멘들앗주. 스레비.

103012 @ 아, 요즘도 스레비 갑니까?

103012 #1 아 스레비 같아.

103012 @ 아.

103012 #1 나. 게난에 그 스레기로도 허고 그 뭐인가 여기는 저 그 뭐인가 그.

103012 #4 대축낭으로도 허고.

103012 #1 대축낭 그 느렁대축. 종지대축이라고 잇주.

103012 @ 예.

103012 #1 그 범벅행 먹고 허는 거.

103012 @ 예.

103012 #1 그 대축이 그 뭐인가 딱딱허주게. 그걸로 주로 많이 헛주. 고랫비는.

103012 #4 그런 것이 여름에도 먹어놔주게. 여름에 막, 막 여름에. 여름에 중간에 보민 거 가는 사름 재배허는 사름해놔주게.

103012 @ 잠깐만예. 느렁대축은 쌀이 이렇게 췌 것과 아니면 축축 늘어진 것과?

103012 #1 느렁, 느렁대축은 축 거시기현 것이고 이건 종지대축은 그자 곧작 사가지고 발강게 익어. 그건 막 출 출지주. 계난 옛날은 도체비가 대축범벅행 먹어 그거 해가지고서 도체비 거시기 헌덴 해놔주.

103012 @ 도체비가 대축범벅 먹는다고예?

103012 #1 어.

103012 @ 삼춘 아까 느렁대축은 혹시 비 만드는 거가?

103012 #1 아, 것도 비, 주로 비 만들주. 거 게 그자 가쟁이 사용허는 거.

103012 @ 으.

103012 #1 것도, 것도.

103012 @ 비대축은 어떤 것과, 비대축은?

103012 #1 비대축. 느렁대축이 그 비 만들고 종지대축, 종지대축은 건 물그레헐 때.

103012 @ 아 물그레 헐 때 허고. 그러면 종지대축이 우리 요즘 말허는 수수라예.

103012 #1 으 그게 수수대추여.

103012 @ 예 그럼 쌀이 종지대축이 쌀이 더 좋구다예.

103012 #1 거 좋주게. 이 느렁대축은 안 먹는 거.

103012 @ 안 먹는 거.

103012 #1 거 비차락용으로.

103012 @ 예 비차락용으로 느렁대축 간 거라예. 삼춘 스레비엔 현 것은 어떤 것과?

103012 #1 스레비란 것은 이 그 스레비가 주로 이 마당도 쓸고 뒹허고 청소헐 때 허는 거주게. 그 땅땅헌 건디 거 이제도 많이 간다 거.

103012 @ 아.

103012 #1 우리집이도 나 갈아 있는디.

103012 @ 아 지금 갈아 이수과? 자 사진 찍을 게. 옛날에는 비 만들젠 허민 스레비들 영 갈았잖아예.

103012 #1 어. 다 갈았주게.

103012 @ 어떤 건지 알아지쿠다.

103012 #1 스레비가 왜 필요했는고 허민 옛날에 눈이 많이 와서, 마당에 눈이 많이 오면은 날렛군데 잇어이.

103012 @ 예.

103012 #1 날레 군데로 눈을 이렇게 헤가지고 눈을 거 옮길 거 아니라이. 밑에 는 눈이 잇거든 걸 소레비로 다 쓸어내고.

103012 @ 아, 눈 하영 오난. 삼춘 아까 이제 날렛군데 이제 우리 날레 너는 거 를.

103012 #1 으 그 날레 날레 널면은 그 날렛군데로 영 거 다 영 거세기 멍석이 영 허면은 날렛군데로 나뉘 영 펜펜허게 ㄴ루주게 날렛군데로.

103012 @ 예. 여기도 멍석짜는 하르방덜 잇어나수과?

103012 #1 서 낫주. 우리도 다 짜 낫는데.

103012 @ 아아.

103012 #1 멍석덜은.

103012 #4 멍석, 맥 다, ㄴ렛방석이라고 그런 것도 다 다.

103012 #1 우리가 다 헛주게.

103012 @ 예.

103012 #4 그때는이 밧베잇잖아, 밧베, 밧베낭으로.

103012 @ 예, 알앗수다.

103012 #4 겨울땀면은 그걸로 다.

103012 @ 예. 게민 멍석도 왜 크기도 종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잇지 안 허우과?

103012 #1 보통 규격이 거의 ㄴ트지. 날레 너는 것은. 그 ㄴ렛방석만 제외허고 는 거의 ㄴ타.

103012 @ 아 예 알앗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멍석이 필요헌 거고 날렛군데가 필요헌 거고.

103012 #1 이 날렛군데 우리집이도 잇고. 멍석도 잇저.

103012 @ 예 알앗수다. 그거 사진찍을 거고. 게민 불림질헐 때 이제 손박예?

103012 #1 어 속박허고 얼멩이가 꼭.

103012 @ 속박허고 얼멩이 필요헌 거고 그 다음에 푸는체도 필요헌 거라예.

103012 #1 으.

103012 @ 경허고 그거도 치니까 체도 필요헌 거고.

103012 #1 으. 체도 필요허주.

103012 @ 그 보리 칠 때는 어느 체로 쳐수과?

103012 #1 주로 얼멩이로 쳐, 얼멩이도 치고 대체로 치주 대체.

103012 @ 대체로예. 뭐 총체나 거름체는.

103012 #1 아, 그건 안 허고.

103012 @ 그거는 가루들 허는 거지예. 예 이렇게 하면은 거의 웬 거 답수다. 고

생헛수다.

#### 4. 들일

104001 @1 이젠 쉼 길러난 거 여쭙보쿠다. 쉼 길러난 거.

104001 #1 쉼이 쉼은 거 집집마다 농사짓젠 허민 쉼 없이는 안 돼주게. 집집마다 남자,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쉼로 길러는데이 소는 길르는 목적은 우선은 농사 짓기, 밭 갈기 위해서 소를 길렀고이, 소를 길렀는데 뉘중에는 저것이 이제 소가 시세가 좋니까, 좋니까이 새끼를 그 부랭이, 부랭이 나면은 그때 돈도 혼 오만원, 십만원 갖지. 게난, 게난 소 질름도 큰 소득이 뻬지.

104001 @1 음.

104001 #1 소득이 뻬고 또 이제 그때 정부에서 막 축산을 장려했저. 돈 날 것이 없으니까이. 웃둥네선 느네, 느네 아방이 소 많이 질렀저. 일고으둑 개. 보통은 그자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헤가지고서 새끼 내면은 그 새끼를 풀아가지고서 게난 암송애기 갑이 얼마 안 줘. 숫송애기 나면은 십만원 받으면은 암송애기 오만원밖에 안 주거든.

104001 @1 아, 기짜?

104001 #1 으 게난 그 숫송애기 나면은 아 이 집이 운 좋다. 숫 송애기 나는 사람은 상당히 운 좋다 막 헤낫주게.

104001 @1 아.

104001 #1 경헤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소를 풀아가지고. 송아기 때 막 받으레 온다. 육지에서. 보통.

104001 @1 새끼 나면은 송애기로 그냥 풀아부는 거?

104001 #1 으. 다간 날 때, 두 설 쯤 때.

104001 @1 다간 날 때.

104001 #1 으 다간 날 때 다 사례 온다. 두 설 쯤 때 사례 오면 거 풀고. 거고 주로이 그 밭갈췌라고 잇저, 밭갈췌.

104001 @1 으.

104001 #1 밭갈췌가 주로 밭만 가는 전용인디이 게난 밭갈췌 엇은 디가 그냥 암췌도 ㄹ르청 갈기 갈앗저.

104001 @1 게민 췌 길르젠 허면은 여름에는 언제췌?

104001 #1 게난 췌는 췌는이 겨울엔이 그 이제 농서가 다 끝난 양력 십일월, 십이월 양력 십이월 혼 중순뽤민이 추위가민 췌를 집이 췌막에 다 들어 뽤다.

104001 @1 예.

104001 #1 췌막에 다 들어 매고 또 이제 저 그 또 췌막에 들어 뽤당 봄 나민, 청명 뽤면은 출이 이제 출을, 겨울 때는 출을 므른 출을 우리가이 므른 출헤근에



겨울에는 주고 그 출도 봄 나민 다 떨어져 가니까,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청명  
넘으면은 소를 이제 이제 밧데다 논다. 밧데다 놔가지고서 이제 혼 두 집 세 집 어  
울어가지고이 그 당번 헤가지고서 오늘은 나가 가가지고 그 세 집서 논 거 강 보민  
뒷날은 판 사름이 강 보고. 경해서 이제 농서를 다 헤버리면은 소가 필요가 없으니  
까 그때는 그때도 여름에는 그 이제 다 그 동네에 대여섯 집이 모다가지고서 소를  
이젠 맥이레 간다. 당번헤가지고서 하루 종일 맥이다가 밤에는 바령밧이라고 혼 디  
어디 도망가지 못허게 그 바령밧디 영 노면은 당번해서 뒷날은 판사름이 강 판사름  
이 강. 그렇게 그 소 길르는게 어려와났저.

104001 @1 기민 밧사름이 ㄴ치덜 다.

104001 #1 으. 다 다섯 사름 내지, 다섯 사름이나 으섯 사름.

104001 @1 으.

104001 #1 그렇게 헤가지고 그걸 혼 조로 헤가지고서 그렇게 저 들에 강 쉼 맥  
인텐 현다. 그것ㄴ라.

104001 @1 쉼 맥인텐예.

104001 #1 으. 쉼 맥인텐. 게난 밧디 농서 다 헤부니까 낫\*\* 쉼 맥일 디가 없어.  
둔지봉 같은 디 그런 디 강 맥이젠 허면은 거 혼 사름이 다, 주인이 다 가젠 허면  
은 농촌이 바쁘니까 안 돼니까 그러니까 당번헤가지고서 일레에 혼 번 삼일에 혼  
번, 일주일에 혼 번 맥이레 가고.

104001 @1 맥이레 가고.

104001 #1 으. 쉼 맥이레 가고.

104002 @1 쉼도 아까 밧갈쉼도 있고 종류덜이 있잖아예.

104002 #1 으.

104002 @1 밧갈쉼 있고?

104002 #1 주로 밧갈고 짐 시끄는 거.

104002 @1 그거 밧갈쉼렌 허고예.

104002 #1 으, 으.

104002 @1 그 다음 또, 또 다른?

104002 #1 짐 시끄는 거. 그 외로느 우리가 뭐 송애기 나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풀젠 현 것이 암송애기.

104002 @1 소 종류는 암쉼랑 밧갈쉼랑.

104002 #1 소 종류는 거 뭐인가 검은쉼도 있고이.

104002 @1 예, 예 그런 거 곁아 줍서. 검은쉼?

104002 #1 검은쉼도 있고 또 이제 어럭쉼도 잇고 얼룩얼룩 현 거 어럭쉼도 잇  
고 득쉼도 잇고.

104002 @1 득쉼는 어떤 거?

104002 #1 득쉼는이 이 검은, 검은 거, 노린 거영 서꺼진 걸 득쉼라고 현다.

104002 @1 아.

104002 #1 검은 거 노린 것이 영 잡색으로 뵈는 것이 습췌. 그건 습췌는 많지 안  
현다. 게난 검은췌, 검은췌, 황췌, 그자 습췌.

104002 @1 어럭췌.

104002 #1 으 어럭췌.

104002 @1 습췌예. 뽕 모양에 따라 뭘 불르는 건 엇수과?

104002 #1 그건, 그건 뭘.

104002 @1 아까 불렀던 거 털, 거의 털 색깔로 불렀던 거잖아예.

104002 #1 뽕 뒤테레 이렇게 간 거는이 대개 뒤테인가 솟소가, 솟소가 뒤테레 건  
적박두리(갓박두리)라 뒤테레 뽕이 영 뒤테레, 뒤테레 영 갓박두리. 갓  
안 현 건.

104002 @1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적박?

104002 #1 적박두리.

104002 @1 아 적박두리 뽕이 이렇게 뵈는 거?

104002 #1 뒤테레 간 걸 적박두리. 그 외에는 보통 앞으로, 뽕이엔 뵈는 특별현  
거.

104003 @1 아 엇고예. 췌 이용현 건 밧 같고 짐 시끄고?

104003 #1 으, 짐 시끄고. 새끼를 나면은 거 풀아서 용돈 쓰고.

104003 @1 으, 으 쓰고예.

104003 #1 겨고 걸름허고.

104004 @1 걸름허고. 췌 밧 갈젠허민 영 길들여야 헐 거 아니예.

104004 #1 으. 길들이는 거.

104004 @1 그거 길들이젠 허민 어떻게여.

104004 #1 길들이젠 허민 그것이 세 살 날 적에 세 살, 사릅이엔 현다이. 세 살  
때에 봄에, 봄에 가가지고서이 저 바당같은 디 모래판에 가가지고서이 그걸 이제  
쟁기 메와, 메와서 사릅이 소를 이꺼, 이꺼야 뵈다. 이끄멍 그르치고 따시 이디 멍  
에 거 멍에, 멍에엔 현 것이 잇지이 제춌말로이.

104004 @1 으.

104004 #1 멍에 메와가지고서 그 돌을, 돌을 꺾는다. 왜 그 돌을 꺾는고 허니  
밧 갈젠허민 이디 멍에가 막 질들여야 안 아플 거 아니가이. 처음 메우민 이디가  
막 아프니까. 게서 그 돌 꺾는, 처음에는 돌 꺾음을 먼저 현다 돌 꺾음을.

104004 @1 돌 꺾음.

104004 #1 으. 췌 그르친텐 현다.

104004 @1 으.

104004 #1 사릅 쫄 날 때 소를 그르쳐근에가 돌 꺾으멍 그르쳐 조금 그것이 쉽  
게 뵈면은 바당거튼 디 강 모래판에 강 직작허게 쟁기로 이제 그.

104004 @1 진짜 밧 갈기 전에 연습헐 가는거다예?

104004 #1 으. 것그라 돌 꺾는 것그라 질들인텐 현다.

104005 @1 아, 질들인텐 헤. 기민 아까 질들이 거 물엇고예, 쉼 한 살, 두 살, 세 살이 있잖아예.

104005 #1 으.

104005 @1 흔 살이 아까?

104005 #1 흔, 흔 살은 금송이엔 허고.

104005 @1 금송.

104005 #1 으. 흔 설 때가 금송, 그 다음 두 설 때 다간이엔 허고.

104005 @1 다간.

104005 #1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었다. 물은, 물은 여러 가지 잇는다.

104005 @1 아까 삼춘 세 살 때도 뭐렌 골읍디다.

104005 #1 삼수엔 허는 디 계난 거 물은 삼수엔 허고.

104005 @1 아.

104005 #1 소는 소는 그냥 세 살 현다.

104005 @1 아, 세 살.

104005 #1 금송, 다간 그것 외에는. 금송허고 다간.

104005 @1 금송허고 다간예.

104005 #1 금송은 흔 설이고 다간은 두 설.

104006 @1 이거, 이거. 밧 갈 때 써난 거, 밧 갈 때 쓰는 거 이거잖아예.

104006 #1 이것은 뱃이고 이거는.

104006 @1 잠깐만에 이건 뱃이고.

104006 #1 으. 으건 뱃이고 이거, 이것은 보섭이고 이거 손에 심은 건 양죽머리엔 허는 것이고.

104006 @1 양?

104006 #1 양죽머리.

104006 @1 양죽머리. 예, 예.

104006 #1 또 으것은 예, 이것도 거. 쟁기 성에엔 현 거. 쟁기 성에. 이건 보섭 끼우는 거난.

104006 @1 요 부분을 뭐렌 곤는 거 잇수과?

104006 #1 으것은 이거 이것은 뭐인가.

104006 @1 돌벙이뿔이엔 험니까?

104006 #1 돌벙이뿔 맞다 이거 돌벙이 뿔.

104006 @1 요기를 몽클이엔 험니까.

104006 #1 으, 몽클. 쟁기 몽클.

104006 @1 몽클.

104006 #1 쟁기 몽클.

104006 @1 몽클, 이게 성애예.

104006 #1 으. 으것ㄴ란 설치이엔 현다 설치.

104006 @1 설칫. 그림 이런 쟁기 만들 때는.

104006 #1 아 으건 으건 또이 이건 뱃, 뱃 바투기엔 이걸, 이걸로 뱃을 이레저 레 가지 못허게 바투는 거주 이거.

104006 @1 아.

104006 #1 뱃바투기.

104006 @1 뱃?

104006 #1 뱃바투기.

104006 @1 뱃바투기. 움직이지 못허게.

104006 #1 으 뭐인가 이거, 으거 움직이지 못허게.

104006 @1 으, 으. 뱃 갈 때 영 허잖아예.

104006 #1 음.

104006 @1 영허면?

104006 #1 영허면 으것이 멩에고.

104006 @1 멩에예.

104006 #1 으것ㄴ라 한줄이엔 현다, 한줄.

104006 @1 한줄.

104006 #1 한줄이엔 허고 으건 고들게 으디 잇는 건 고들게.

104006 @1 아, 고들게.

104006 #1 어 고들게. 이건 이것은 뿔에 영 감는 건 가리석이라고 현다, 가리석.

104006 @1 어, 뿔에 영허는 건 가리석.

104006 #1 가리석.

104006 @1 음.

104006 #1 이, 이 줄, 이것은 이, 뭐인가 멩에가 알려레 내리지, 멩에줄에 내리지 못허게 이건 등바테엔 현다, 등바테.

104006 @1 아, 등바테. 으 등바테에 내려오지 못허게.

104006 #1 으, 이거 내려오지 못허게. 이거 영 내려오민 이것이 땅 박아져근에 안 돼주게.

104007 @1 음. 나중에 또 한 번예, 이 부분 명칭은 한 번 더 물어보쿠다. 이런 것덜 박물관에 있는 자료들마썬. 질메도 부분 명칭 알아지쿠과?

104007 #1 질메가 그건.

104007 @1 이름 생각 안 나민 나중에 물어보쿠다.

104007 #1 아니 이 질맨이 앞에 있는 건 앞가쟁이엔 허고이, 뒤에 있는 건 뒷가쟁이엔 허고이.

104007 @1 으.

104007 #1 또다시 이거 뭐인가 그 질메엔 고정허는 걸 것ㄴ라, 것ㄴ라.

104007 @1 나중에 또 한 번 물어 볼 때 잇수다. 그때 튼나지민 곶아줍서예. 여 기 목장도 해낫지예.

104008 #1 으, 목장 해놔져.

104008 @1 어디에 해놔수과?

104008 #1 한동 공동 목장은 선홀, 선홀 지경에, 선홀곶, 선홀 목장이 셔놔져.

104008 @1 그 목장 관리는 어떻게마씨?

104008 #1 그 목장, 목장 관리는 그 목장에 가입허는 사름만이.

104008 @1 예

104008 #1 거기 강 소를 놓는다.

104008 @1 예.

104008 #1 뭐인가 으름에 바쁘니까 그 \*\*서 백이질 못 헐 사름은 이 목장에 강 내불민 거기도 당번이 있어야 쁘다. 거기는 열홀에 혼 번씩 열 집에 이렇게 해가지 고서이 그 목장이 그냥 그 담 다 다와정이지니까 그 목장에 강 디물앙 내버리면은 소가 어디 간 지 도망간 지, 죽어분 지 모르니깐이 그 당번해가지고 그걸 항상 돌아본다. 이녁 거 알아지니까.

104008 @1 예.

104008 #1 돌아보면서 소 걸 본다.

104008 @1 땃 집이 소 같이 관리허는 디.

104008 #1 거기 갈 적에는 혼 열다섯 집 내지 열 집서 경허고.

104008 @1 그거 쁘 뵙 다 알아집니까?

104008 #1 으?

104008 @1 쁘 뵙 누구네 집 쁘인지 다 알아집니까?

104008 #1 으, 다 안다 동네 쁘는 다 안다.

104008 @1 거 다 알아져마씨?

104008 #1 다 알아, 다 알아져.

104008 @1 하하하.

104008 #1 동네 쁘는 다 알아져. 이 소는 항상, 소도 사람거치 다 모양이 다 틀 린다.

104008 @1 거 신기해 다 알아진텐 허니까.

104008 #1 몰 허는 사름은 몰 그렇게 잘 알아 뵙. 늙의 몰이영 세껴져도.

104008 @1 아. 알아져. 거 목장은 빌령허는 것과?

104008 #1 아니 거 정부에서 뭐인가 정부, 정부에서 임대해서 허는 거. 게니까 목장 세금을, 세금을 내야 뵙. 그 뭐인가 목장에 가입헌 사름은.

104008 @1 아 그럼 임대료 형태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세금 정도만 내 는 거군아예.

104008 #1 으. 세금정도만. 그게 임대료나 마찬가지로.

104008 @1 그게 임대료나 마찬가지로. 막 비싸지는 았앗다예.

104008 #1 으. 비싸지는 았아. 게난 우리 소, 쁘 뵙이는 데는 돈을 안 내는데 그, 그 일 년, 일 년 목장 임대료를 부담을. 세금식으로.

104011 @1 예. 물 질러난 것도 물어보쿠다. 물 질러난 것도 물은 어떻게?

104011 #1 물. 물은 거 집집마다는 아이 질랐는데이, 한동에도 물 허는 사름을 몰테허는 사름 현다, 몰테.

104011 @1 몰테허는 사름예?

104011 #1 으 몰테허는 사름. 물 많이 허는 사름ㄴ라 몰테허는 사름. 게난 허나, 둘, 서이 으 알동네도 혼 서이 잇고 한동에 혼 여섯 사름쫘, 겐 여섯 내지 일곱.

104011 @1 음. 여섯 내지 일곱?

104011 #1 건 물 혼 집이 허나 허는 것이 아이라 그 여러 개, 열 마리 이사 허는 사람. 열 마리 이상 허는 사람.

104011 @1 아, 보통 물 허는 사름은 혼 집이 허나헨 다 허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104011 #1 으. 대단위로.

104011 @1 그럼 물 키우는 것도 쉼랑 같습니까?

104011 #1 소랑, 소랑 ㄴ튼다. 몰도 몰도 마찬가지로 목장에 몰도 몰대로만 놓고 소허고는 물은 ㄴ치 합쳐 놓지 안 현다.

104011 @1 딱로?

104011 #1 으, 딱로.

104012 @1 아, 합쳐 놓지 안 허영. 물 종류는 어떤 종류?

104012 #1 물 종류는 여러 가지 뭐 종류덜이 여러 가지 현다. 뭐 가라몰도 있고.

104012 @1 으.

104012 #1 가라몰도 있고 유마엔도 허고 청충이엔도 허고 뭐 흑가라엔도 허고 해도 그거 우린 잘 모르니까.

104012 @1 가라몰이엔 현 건 어떤 것과?

104012 #1 가라몰이엔 현 건 검은 것ㄴ라 가라몰이엔 허여. 청충이엔 현 거 좀 푸른색이 껴 있는 것ㄴ라 청충이엔 허고.

104012 @1 유마몰은?

104012 #1 유마는 좀 노랑현 걸 유마라고 허고.

104012 @1 아, 유마라고 하고.

104012 #1 적다몰은 또 빨간 걸 적다몰.

104012 @1 예, 예.

104012 #1 게고 얼룩말도 잇고.

104012 @1 얼룩말도 있고. 얼룩말은 그냥 얼룩말이엔 허고?

104012 #1 으 얼룩말.

104012 @1 얼룩말이엔 허고예. 그거는 털, 털 색깔에 따라 부른 거잖아예.

104012 #1 으, 털 색깔에.

104012 @1 혹시 모양에 따라 구분헌 거 알아지쿠과?

104012 #1 건 잘 모르켜.

104013 @1 말은 뭐 헐 때 씹니까?

104013 #1 말은 주로 조 볼릴 때 헤, 조 볼릴 때.

104013 @1 아, 조 볼릴 때.

104013 #1 제주도에는 그때는 전부 다 조를 불리젠 물을 불려야 돼니까.

104013 @1 으, 으.

104013 #1 게난 그걸 허기 위해서, 또 거기서도 몰도이 몰은 얼마 깎, 소만이 깎은 안 가냔는데 게도 그거 웅마를 나면은 마차용으로 또 그거 사가주.

104013 @1 음.

104013 #1 주로 밧 불릴라고 그레 헛고 그, 그 외로는 뭐인가 마채용으로 웅매를 잇잖느냐 웅매들은 마채허젠 많이 사 가고. 웅매는 팬참허게 가.

104013 @1 아, 웅매를 마차용으로 헛던 거예.

104013 #1 으, 마채용으로.

104013 @1 조밧 불릴 때는 몰은 그냥 담양 내부는 거, 아니면 누가 이껴?

104013 #1 아니아니. 조밧 불릴 때는 몰임제가이 앞서가지고서이 이렇게이 월월 소리허면서 헤가면 몰이 그 스무남으 머리가 다 혼 디로 다 조르르조르르 돌아댕긴다. 경헐 몰 볼르느 거.

104013 @1 예, 예. 운반허는 거는 몰 혼 마리가 허는 거? 여기서도 막 마차 끌고?

104013 #1 으, 마차허고. 마차허는 건 웅매가 웅매덜이 주로 허는데 거 출도 시끄고 짐을 날르는 거라. 그 몰로 마차를 헛주.

104014 @1 아까 몰 나이는 어떻 웰 거 마씨?

104014 #1 몰 나이는 오래산다고 허는데 몰은 하여튼 보통 한 이십 살 돼면은, 한 살부터 이십 살, 이십 살 넘으면은 다 그걸 여기서도 늙은 볼은 다 잡아 먹고 헛저. 다 풀아볼고.

104014 @1 아까 혼 설 나는 몰은?

104014 #1 혼 설 나는 건 금송이엔 현다.

104014 @1 으.

104014 #1 금송, 그 다음엔 두 설은 이수엔 허고.

104014 @1 아, 아까 쉼는 다간이엇는데 몰은 이수예.

104014 #1 으, 으. 이수, 삼수. 오수, 육수 그렇게 나간다.

104014 @1 아, 이수, 삼수, 오수, 육수. 켜 열 설이면 열 수엔 헤?

104014 #1 아니 그 이상가민 그걸 쓰지 안 현다.

104011 @1 그 이상은 쓰지 안 허고. 쉼랑 말이랑 겨울에는, 겨울에는?

104011 #1 아 겨울에는 몰은 그냥 산에 그냥 내버린다. 시월 말 돼민이 시월 말 돼민 곡식이 이제 다 곡식을 헤들이민 그디 아무 것도 엇이 몰은 그디 그냥 내버린다.

104011 @1 겨울에?

104011 #1 으, 겨울에. 집에 그거 다 맥일 수가 있주게.

104011 @1 아.

104011 #1 겨난 겨울에 맥이는 것은 마차허는 그런 물 외에는 전부 다 그 밧  
블리고 허는 건 전부 다 산에 내버리고

104011 @1 아, 산에 내붙어마씨. 그민 물이랑 쉼랑 먹이젠 허민 출 해야 쉼 거  
아니예.

104011 #1 물 출은 쉼출이, 쉼출이나 물출이나 그튼 겨난 겨난 물 많이 허는 사  
름덜은 출허지 안 허영 그냥.

104011 @1 밖에 내붙고?

104011 #1 내붙고 집이서 부리는 물, 가령 밧 가는 물도 있주. 밧 가는 물이나  
마차허는 물이나 그 그런 건 이제 집이서 이제 소나 마찬가지로 겨울에 마귀에서,  
그 물은 마귀에 안 해영 바깥디 그냥 매영 내분다. 눈 맞아도 어뎡 안 허난 바깥디  
출 주멍 경헌다. 경험 쪼금 뜻아가면 밧데 강 줄 싸근에, 줄 영 해가지고 어디 가지  
못허게 말뚝 박앙 내붙민 그 주위에만 영허게.

104011 @1 아, 줄 질게 해가지고.

104011 #1 어, 어.

104011 @1 말뚝 박앙 내붙민.

104011 #1 말뚝 박앙 그 주위에만 돌아댕기멍 물은 그렇게.

104011 @1 아까 그걸 줄 썬덴 험 거?

104011 #1 으. 줄 썬덴. 줄 싸는 거.

104017 @1 예. 출 비잖아예, 물 맥이젠, 소 먹이젠 허민.

104017 #1 그 출은.

104017 @1 언제 장만, 언제 빙니까?

104017 #1 양력 구월 초가 돼주, 음력 팔월 덜, 팔월 덜이니까. 팔월 덜에 그 출  
을 험다.

104017 @1 팔월 달에.

104017 #1 음력 팔월 달에.

104017 @1 으.

104017 #1 음력 팔월 덜에 하늬, 하늬보름이 나면은 그때 출을 해가지고서 한  
달 거의 걸린다. 그 출.

104018 @1 출 장만, 다 허는 디 험 달 걸리는 거. 하늬 보름 불민. 출 비영, 거  
누게가 비여?

104018 #1 주인이 비고 경 안허면 물, 거 소덜 많이 허는 사름은 낫꾼이라고 헤  
서 거 눅을 빈다 눅을 빌어. 눅을 빌어근에 눅을 빌영 비여 노면 험 이틀 돼민 물  
를 거 아니라.

104018 @1 예.



104017 #1 경허민 또 다시 눅 빌영 그걸 무꺼야 돼여.  
 104017 @1 으.  
 104017 #1 거 무꺼근에가 늘어 낫당.  
 104017 @1 으.  
 104019 #1 늘어 낫당 또 다시 그걸 마차로나 쉼로나 다 시꺼오주게 그걸.  
 104019 @1 아, 밧디 늘어 낫당.  
 104019 #1 으, 밧디 늘어 낫당.  
 104017 @1 게민 무끄는 거는 출로 그냥.  
 104017 #1 으, 그걸로 그냥 꼬멍 영영 현다.  
 104017 @1 아, 꼬멍예. 그럼 그 묶음을 뒤편 헵니까?  
 104017 #1 흔 못, 흔 못.  
 104017 @1 예, 흔 못, 두 못예.  
 104017 #1 게난 흔 바리를 서른 못ㄴ라 흔 바리렌 현다.  
 104017 @1 서른 못을 흔 바리렌 애기 헐 거. 경 밧디 널영 놔 뒫당 시경 왕.  
 104019 #1 시경 왕 집이서 오랑 놀주게. 집이서 왕 어디 장소에 그냥 늘어가지고 그거 다 시꺼와지민 늘어가지고 것에 그 새나 뒫인가 어웁 비여다가이 물메 물 들어가지 못허게 해영. 것ㄴ라 거시린텐 현다. 거시리멍, 거시리멍 잘 늘어가지고서 이제 낸중에는 거 다 이제 다 해오민 지붕식으로 지붕식으로 그렇게 늘어가지고이 늘어가지고 물메 나게 잘 해가지고 이제 그 그 뒫인가 돌을 돌아매야돼, 돌을 그 뒫인가 늘, 늘 크면은 하여튼 흔 발 사이에 돌 하, 흔 발 사이에 돌 하나씩.  
 104019 @1 하나씩.  
 104019 #1 흔 발 사이에 돌 하나씩 양쪽, 양쪽더레 가게 돌아가지고서 게서 저 엽은다 엽어 영 그물식으로. 경허민 다 끝난다.  
 104019 @1 이 줄 끝에 돌 둘앙 영 언치고, 영 언치고, 영 언치고 한다는 애기 잼아예.  
 104019 #1 가운데 뭉루에는 큰 돌로이, 가운데 뭉루 잇잖여.  
 104019 @1 예.  
 104019 #1 뭉루엔이 줄로 해가지고 줄로, 새로 만든 줄로 해가지고서 그 줄 두 개 현다. 두 개 헐 큰 돌은 뭉루로 영 해낭 그 윗으로 허는 건 존존현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104019 @1 아, 가운데는 큰 줄 해 놓고. 게민 그 줄은 뒫로 만드는 거마씨? 그 줄은?  
 104019 #1 그 뭉루줄은 대개 새, 새로 꼬아근에 허는 것이고 그 윗이 것은이 칙 걷어다가, 칙 걷어당.  
 104019 @1 아 칙 걷어당.  
 104019 #1 칙이란 게 잇저.  
 104019 @1 예, 칙 걷어당.

104019 #1 어, 어. 칩 건어당.

104019 @1 게민 출 놀에 우이 부분을 뭘렌 불러마씨?

104019 #1 그 거스린덴 허는 건데.

104019 @1 이렇게 지붕 만드는 걸 거스린덴 허는 것과?

104019 #1 으. 그거는 새, 그 출 중에서도 새가 많이 들어간 거이.

104019 @1 예.

104019 #1 쉼 잘 안 먹을 거. 그걸 거슨, 거슨, 거슨출이엔 한다. 그런 걸로 우이 뱅허게 거스려 놔가지고서 마지막엔 또 이제 우에는 어웁이나 새나 헤다가 므루로 헤가지고.

104019 @1 음, 만드는 거.

104019 #1 어.

104019 @1 어웁이나 새나. 예, 예.

104019 #1 새나.

104019 @1 그 출 날라올 때, 날라올 때 쉼로 시꺼웁니까, 물로 시꺼웁니까?

104019 #1 쉼로 주로 시꺼왔져.

104019 @1 게민 쉼에 어떻 옆에?

104019 #1 양 옆에 혼 쪽에 열다섯 못, 열다섯 못씩 헤가지고서 이제 서른 못. 게난 쉼가, 쉼 질메에 세, 세 칸이 잇져.

104019 @1 음.

104019 #1 게난 혼 칸에 다섯 못씩 삼오 십오 아니가이.

104019 @1 으.

104019 #1 게민 이짝에도 삼오 십오 서른 못 헛져. 혼 번에.

104019 @1 아, 서른 못이 한 바리니까 혼 번 올 때가. 아.

104019 #1 어.

104020 @1 출말고 쉼 맥엇던 거 또 뭘 잇수과? 콩쩍도 잇고.

104020 #1 콩쩍도 맥이고이. 또 콩쩍도 맥이고 또 다시 그 조침도 겨웁에 맥이고.

104020 @1 음.

104020 #1 조풍뎡이도 맥이고 경한다.

104021 @1 아 조풍뎡이도 맥이고. 출 비멍, 출 장만허멍 뭘 재미난 일은, 기억나는 일을 잇수과?

104021 #1 출 허멍 기억나는 건 엇다만, 출 빌 때이, 출 허멍 노래 잘허는 사람은 소리를 허거든 흥애기소리로 흥애기, 흥애기소리 허면서 허면은 기분이 아주 좋주게.

104021 @1 아, 출 비는 소리를 흥애기소리엔 험니까?

104021 #1 으, 흥애기, 흥애기소리엔 헤가지고서.

104021 @1 노래 불르멍.

104021 #1 으. 노래 부르명 잘 부르는 사람은 아주 잘 부른다.

104021 @1 잘 못 부르십니까? 잘하실 거 같은데.

104021 #1 우린 잘 못 불러. 우리, 우리 또래엔 잘 못 불렀주. 이디 \*\*아방네 누구네 잘 불러났저.

104022 @1 아, 흥애기소리. 그 다음 땀감 물어보쿠다예. 땀감예. 그 그 지들커?

104022 #1 게 지들커은 지들컷은 항상 그 저 뭐인가 우리가 이 옛날에는 다 푸싯자루만 헐 거 아니냐이. 게난 지들커 허젠 허면이 봄나면은이 여유 있는 사람은 저 선흘곳이엔 현 목장에 가근에가 고사릴 빈다 고사리.

104022 @1 아, 고사리 비여.

104022 #1 고사리 비여근에가 그걸 물류왕 무경 놀영 낫당 겨울에 시꺼당도 허고 또 다시 그 뭐인가 이제 팔 월 산소에 소분 헐 때 잇잖여이.

104022 @1 예, 예.

104022 #1 소분허는 것을 갓다가, 소분헐 때, 소분헐 때 사람에 전부 지여다가 혼 군데 물류왕 그걸 놀영 낫당 시꺼당도 겨울에 때고, 겨울에 때고.

104022 @1 아.

104022 #1 주로 쉼 먹당 남은 거 많이 썰저. 게고 또 겨울에 또 다시 나무 삭다리엔 현다 나무가 영 자연으로 나무가지 죽어분 것을 갓다가, 소나무, 소나무나 다른 낭도 그 삭다리를 헤다가 겨울에는.

104022 @1 삭다리?

104022 #1 삭다리를 헤다가 겨울에 많이 썰주게.

104022 @1 솔입은?

104022 #1 솔입도 경허고.

104022 @1 솔입도 걷어당?

104022 #1 으, 솔입도 걷어당.

104023 @1 솔입도 걷어당허고예. 소똥, 말똥은?

104023 #1 소똥, 말똥은 거는 온돌을 허제 허민 거 좇어야 돼.

104023 @1 굴묵깃젠 허민.

104023 #1 으. 굴묵깃젠 허민. 똥똥, 똥똥을 주로 주엇저. 소똥은 그 뭐인가 헤싸져부난 헤싸져불고 허난.

104023 @1 아.

104023 #1 똥똥이 하여튼 그걸 일찌감치 좇젠 막 애써나신예.

104023 @1 어.

104023 #1 그거 아니민 겨울에 온돌이 때지 못허민 상당이 추우니까.

104023 @1 예.

104023 #1 똥똥을 주로.

104023 @1 어디 강 좇어마씨?

104023 #1 그 쉼, 밧, 밧디. 그 난덴디, 난덴디엔 현다 밧 바깳디 막 널른 디 가

근에가.

104023 @1 아까 날텐디?

104023 #1 뭐이냐 난텐디.

104023 @1 아, 난텐디.

104023 #1 으 난텐디 가근에 그걸.

104023 @1 널른 디예.

104023 #1 으. 좇어다가 겨울에 온돌을, 굴묵 때는 거라.

104023 @1 으, 으.

104023 #1 굴묵이라고 온돌이.

104023 @1 예, 그거 짚으는 거예.

104023 #1 아궁이가 그거 구들 거시기주게.

104024 @1 예, 굴묵 짚는 거예. 솔입 걸젠 허민 솔입은 어디 강 건너.

104024 #1 소나무, 소나무가 막 많은 데. 큰 소나무가 많이.

104024 @1 소낭 아래 강.

104024 #1 소낭 아래 겨울에 바람이 막 지독히 불땡이 거 떨어지주게 경허민 그거 건너다근에.

104024 @1 뭐로 걸읍니까, 걸을 때는.

104024 #1 거 글쟁이로도 걷고. 이 중간에 글쟁이 나니까 글쟁이로 걷고 헛저. 글쟁이 엇일 적에는 글쟁이로 행 영 손으로 모당.

104024 @1 아, 손으로 모당.

104024 #1 으. 손으로.

104024 @1 경 모드민 영 무끄는 거 만들 거 아니예.

104024 #1 으 무끄는 거 만들주. 무끄는 거 만들젠 허민 나무를 이제 혼 바리쫄 현 거이 그런 뽕쪽뽕쪽 현 걸 그런 걸이 하여튼 스무남으 개 끄차다가이 그 칙 놔가지고서 이레 영 이레 영 놀 거 아니가이. 영 그레 솔입을 조근조근 땡 불르멍 경혜가지고 빠지지 못허게 영영 뱅허게 영 무꺼는 식으로 경혜가지고서 그걸 집이 정와세.

104024 @1 게민 그걸 한 묶음이엔 험니까?

104024 #1 으, 혼 집이 혼 묶음이야. 혼 짐 뒤편 혼 묶음.

104025 @1 아, 혼 집이 혼 묶음. 낭은 안 헤낫수와 낭은? 지들커로 쓸 거로 낭?

104025 #1 낭은, 낭은이 거 허지 못허게, 엄허게 산림녹화혜가지고 이런 그냥 산 나문 손을 못 것젼주게. 게난 죽은 남만 사용헛주.

104025 @1 아, 게난 삭다리를.

104025 #1 으, 삭다리만 사용헛주. 그때는 나무에 손 대민 그건 살인죄나 마찬가지라.

104025 @1 아. 하하하. 아, 살아있는 낭을 끄치지 못허게.

104025 #1 절대 거 그 새 남, 퍼렁헌 씹 있는 건 못허게.

104025 @1 그럼 집 짓을 때 어떻 나물 구헿수과?

104025 #1 집 짓을 때는이, 그 이녀, 그때는이 이녀이 소나무덜 많이 심지 안헤사 그걸 솔썩솔썩 그차신예. 그리고 또 허가도, 그 집 짓젠 허민 허가도, 허가도 준다.

104025 @1 아 그럼 우리 집 짓을 겨우다 낭 비쿠다 허가 받고?

104025 #1 으, 몰르게 헷다가 그거 영창가는 겨주.

104026 @1 솟 구워낫수과?

104026 #1 으, 솟덜 구워낫저.

104026 104026 @1 솟 구워난 이야기 해 줘서.

104026 #1 솟은, 솟은이 가을 농서가 다 끝나민 이젠이 겨울 돼영 다 헐 거 아니가이. 농서가 다 끝나버리면은 한결헐 때이 이디서 허면은 저 산에 강 솟 묻는다 저 뭐인가 저 겨난 건 솔썩기 가근에가, 솔썩기 가근에가 그 놀남을 꿰어야돼주게.

104026 @1 솟 만드는 나무가 뭐 놀나무?

104026 #1 아니게 살아 있는 거, 살아 있는 걸 놀남이엔 허주. 그런 거 꿰어가 지고서이 거기서 산에서 솟, 솟 묻는다. 경해서 솟을 묻어야만이 겨울에, 겨울에 그 기제사 때, 멩질이나 제사 때 묵 굽고 뭐 허젠 허민 그 화리불 살라야 돼. 솟불, 솟이 엇이민 안 돼여. 게난 그건 가정용으로 상비, 상비적으로 가정용으로 솟을 꼭 집집마다 그 솟을 구워.

104026 @1 게민 무슨 낭으로 솟을 구윳수과?

104026 #1 건.

104026 @1 풍낭으로?

104026 #1 풍낭거튼 것도 허긴 헷주만은 그, 갑자기 애기허젠 허난.

104026 @1 예, 나중에 생각나민 애기해줍서예. 풍낭말고?

104026 #1 풍낭, 풍낭으로 그때 풍낭, 풍낭허고이 소낭으론 솟 아니 군다. 풍낭허고 그자 이 잡낭허고.

104026 @1 으, 잡낭허고. 솟 굽젠 허민 낭 짤랑?

104026 #1 낭 짤랑, 것도 낭 짤라근에 영 제겨 낭, 제겨 놔가지고이 제겨낭 어귀를 세 군데 내야 웬다.

104026 @1 예.

104026 #1 공기 통허는디.

104026 @1 예.

104026 #1 어귀를 세 군데 내 놔가지고서 낭 짤랑 낭 주위, 이렇게 다 제겨낭 그 주위에 뭐 주위에 가마니 옛날 잇잖아이 가마니 뭐 가마니 빙허게 그걸 덮어가 지고서 그 흑을 막 더폰다. 흑을 더퍼가지고서 우이로 불 질를 수도 있고 알로 불 때는 사름도 잇고 경허난 우이로 불 질렁근에가 그 솟남에 불 많이 부터가기 시작 허면은 우이로 막아버리주게. 영 막아불민 우이로, 우이로 불 낫으니까 밑으로 연기

가던 것이, 우이 막아불민 공기가 알로 돌아올 거 아니냐, 경허면 불 알려레 켜져근  
에가 솟이 그래서 이제 헨 놔두민 그거 지켜야 돼. 왜 지켜야 허는고 허민 그 솟이,  
나무가 잘 못 허면은 그 나무가 혼 쪽으로 막 타버리면 그 나무가 이 굴라 앓을  
거, 터져볼거 아니냐.

104026 @1 으.

104026 #1 경허민 항상 불러줘야 한다.

104026 @1 어디를 불러 줘야?

104026 #1 그 솟, 솟 그 동그랑 헨 걸 발로 영 불러줘야 해. 경헤가지고 츠츠츠  
츠 솟이 영 타가면은 돌랑 헐 때는 곧작헐다가 타가면 영 줄아질 거 아니냐. 줄아  
들이면서 알려레 쳐지면서 불이 또 알려레 내려왕 이쪽, 이쪽 구녕으로 불 나오면  
몬저 헨 딜로부터 막고 경허민 마지막이 나온 디 막아가지고서 쫓는다.

104026 @1 거 높이는 어느 정도 만듭니까? 팡 파고 허민.

104026 #1 높이는 나무, 나무에 비해서 나무가 많으면은 높이 허고 나무가 족으  
면은 족게 허고.

104026 @1 층층이 쌓아 낵, 구멍 한 세 개 정도예. 우이도 구멍 냉 우이로 불  
부치는 거라예.

104026 #1 우이로 많이 불 부찐다.

104026 @1 솟, 솟도 거의 다 집집마다.

104026 #1 으. 집집마다 그렇게 헛저.

104026 @1 만들양 써, 산에 강 만듭니까?

104026 #1 으, 산에 강 만들고, 또 장에 가민 또 솟 많이 팔아낫저.

104026 @1 아, 팔고예.

104026 #1 솟 못 만드는 사름은 장에 강 사당. 거 비싸주게.

104028 @1 거, 사냥도 해낫수과, 사냥?

104028 #1 사냥거튼 건 안 해낫저.

104028 @1 사냥은, 사냥을 뭐렌 굴읍니까 여깃말로?

104028 #1 사농이엔 허주, 사농. 여기 개 잇는 사름은이 개 잇는 사름은 추미로  
이 추미로 꿩 사냥을 허긴 해낫저.

104029 @1 꿩사냥?

104029 #1 으, 꿩사냥.

104029 @1 다른 사냥은 해난 거 엇고. 꿩 사냥 안 해도 꿩코 낵 잡으레.

104029 #1 어, 꿩코 낵 많이 잡으레 텅겨낫주. 나도 잡으레 많이 텅겼는데, 꿩코  
는이 우리도 심허게 놔 낫저. 경허난이 겨울 뒤편은이 꿩이 다 해변으로 느려오면  
이, 산에 잇다가이.

104029 @1 예, 예.

104029 #1 게민 꿩 잘 다니는 그 뭐인가 섣덕이 잇저. 가시덤벌 속으로 가시덤  
벌.

104029 @1 아까 설텍?

104029 #1 설텍.

104029 @1 아, 설텍.

104029 #1 그 뭐인가 가시 섬벌, 거를 섬벌이엔 한다. 섬벌 소곱에 항상 꿩이 곱주게이.

104029 @1 예.

104029 #1 그런디 영 강 보른 꿩이 텅겨난 길이 난다. 그런 디 길이 난 디 영 코 낱 나두민 그 길에 꿩이 걸리는 거주.

104029 @1 아, 눈 우에 질 나는 거마씨. 경 그 질 뵙 꿩코 나두면.

104029 #1 한동리도 꿩코 낱 꿩 하영 잡아낫저.

104029 @1 기지예. 저 어릴 때도 꿩코 보러.

104029 #1 막 돌아뎡겨나세.

104031 @1 예, 텅겨난 거 기억나마씨. 게난 꿩 사냥만 허고 노루나 지달이?

104031 #1 지달, 지달이 사냥은 안 헛저. 거 몰라 다른 부락은 어디, 선홀허고 저디 송당은 헤낫저. 거기 사농허는 사름은.

104031 @1 으. 족제비 그런 것도 엇어난?

104031 #1 족제비는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족제비 잡아낫저. 우리도 경 다 잡 아난. 그 때는 이디 많아낫저 족제비.

104031 @1 건 어떻 잡읍니까 족제비 잡젠 허민?

104031 #1 족제빈 거 덧이라는 게 잊저. 덧을 만들야야 허여. 그 나무, 나무 비 여다가 영 헌 것을 잘라서이 이렇게 족제비 덧을 만들야 가지고서이 거기 쥐를 잡 아가지고서 쥐를 영 돌아맨다.

104031 @1 으.

104031 #1 쥐를 족제비가 상당히 좋아헛주게. 게난 쥐, 쥐를 돌아뎡 나두민 족 제비가 쥐를 영 돌아맨 거 영 허면은 이디 거, 이디 영 바툰 것이 이렇게 허게끔 장치를 뒀어서.

104031 @1 예.

104031 #1 경허민 그거 건드리면은 우이 돌이 무거운 것도 잊주 게난 이거 쥐 만 건드리면은 그냥 빠지게 뒀서 탈락허게 경허민 그냥 어퍼져가지고 족제비 그것 이 죽게 뒀주게.

104031 @1 게민 덧은 어디 강 놔 두는 거마씨, 덧은?

104031 #1 덧은 거 족제비 잘 텅김직 헌 디, 어디 어수룩 헌 디 그디, 백담, 백 담.

104031 @1 집 주변마씨?

104031 #1 집 주변도 뒀고 집 바깥디, 백담덜 많은.

104031 @1 백담덜 많은 디.

104031 #1 백담 속에 많이 사니까.

104031 @1 계난 산, 들에, 밧디 강 놓는구나예.

104031 #1 으, 밧디 강 논다.

104031 @1 밧디 강예, 밧디 강 놓는 거. 예.

## 5. 바다일

105001 @1 이번엔 바닷일 물어보쿠다, 바닷일예. 그 바다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이신고예?

105001 #1 옛날에는 주로 그 메역을 주로.

105001 @1 예.

105001 #1 뭐인가 즈물아낫저. 메역이 그 주업이랏주게 해녀들이 주업이 메역 즈물양 우선 그게 주업이란디 이젠, 이제는, 이제는 천초도 많이 나고.

105001 @1 으.

105001 #1 천초는 저 우미엔 현다. 제줏말로 우미도 나고. 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톨허고 우미허고 돈을 많이 쫓저. 메역은이 이제 시세 엇영 이젠 안 쫓불고, 옛날에는 메역만 좋아났는데.

105001 @1 메역이 시세 좋아나신디. 게민 메역 즈물고, 우미 즈물고.

105001 #1 즈물고, 게 톨, 톨은 기자 거 즈문텐 안 해여. 톨은 기자 그 각자가 조합에서 조합별로 강 각자가 캐낫저 거. 해녀들이 가근에 호미로 거 건 물에 안 들영 돼는 거난.

105001 @1 예, 예.

105001 #1 그거 허고 또시 이제 메역 즈무는 거 끝나면은이 젊은 사름덜은 이제 헛물예를 많이 헛저. 헛물은 뭐냐 허면 고동거튼 거, 뭐 고기도 쏘고 뭐인가 오분제기도 잡고.

105001 @1 그걸 헛물이엔 험니까?

105001 #1 으, 헛물이엔 현다.

105001 @1 어.

105001 #1 헛물예 가근에가 헛물예 강. 머정좋은 사름은, 이게 갯궂이 소질 잇는 사름은 고기, 고기 많이 쏘는 사름은 고기만 많이 쏘고. 고동 많이 허는 사름은 고동도 많이 허고 그렇게.

105002 @1 듬북이랑 감태는 안 해낫수과?

105002 #1 감태는, 감태는.

105002 @1 제주도 말로 듬북, 감태는 그냥 듬북, 감태?

105002 #1 으, 듬북, 감태여. 그 감태는이 감태는 막 지폰 바당에서 허는 거기 때문에 이디선 즈물질 못허고.

105002 @1 으.



105002 #1 감태는 놀 불어나민 감태가 올라오민 그걸 해근에가 막 건져다가, 그 걸 각자가 건져다가 이녁냥으로 건져 지금도 건조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쏜다.

105002 @1 뭐, 뭐 해나민 감태가?

105002 #1 놀 불어나사.

105002 @1 놀 불어나사.

105002 #1 으, 셋놀. 셋브름이 셋놀이엔 한다. 북군에선 셋브름이 굉장허지. 셋 놀 불어나민이 감태가 올라와서 그걸 각자가 주워다가 자기만씩 몰류와서 지금도 이제 쏜다. 거 깎 많이 준다.

105002 @1 그민 듬북이랑 감태를 다 공동으로 안 허고 개인으로 해낫수과?

105002 #1 감텐 안 헨 감텐 내베낫주. 겨난.

105002 @1 내베난.

105002 #1 듬북, 듬북은 거세기 헛는디 이제는 듬북은 안 허고 감태만 올라온 다.

105002 @1 감태만. 게민 듬북은 제로 헛던 거고? 듬북제로 헛던 거고.

105002 #1 으. 듬북제로, 듬북제로 해가지고서 그걸, 듬북 올라오민 그걸 몰류왕 몰류우민 각자가 갈라가지고서 그건 시꺼다가 눌엉 낫당 보리갈 때에 걸름 대신 그 거 끌양 이렇게 허고.

105002 @1 듬북제는 멧 사람이나?

105002 #1 듬북제는 우리가 조합, 조합으로 헛주, 일 조합, 이 조합. 웃동넨 이 개 조합이주. 게난 일 조합, 이 동으로 길 이쪽에는 일 조합, 길 저쪽에는 이 조합.

105002 @1 게난 일 조합이민 일 조합 사람들은 다 참가헌 거마씨?

105002 #1 으, 다 일조합은, 그 바당에도 순서가 있주.

105002 @1 예.

105002 #1 가령 이 앞바다가 우리가 당번이 텔 때도 잇고 \*\* 텔 때도 잇고 저 서알 텔 때도 잇고. 게난 그건 그 그 동네마다 그 해마다 배당헌다. 바당을.

105002 @1 그럼 우리가 웃동네는 일 조합, 이 조합으로 나누잖아예. 알동네 삼 조합, 사 조합으로 나뉘가지고 그럼 네 개의 제가 있는 거예.

105002 #1 으, 으.

105002 @1 바당은 멧 개로 나뉘져 잇수과? 한동 바당은?

105002 #1 바당, 바당도 그, 그 뭐인가 지금 그 네 개로 나뉘 잇주.

105002 @1 아 네 개로 나뉘 잇엉 이쪽 바당이 일 조합이 텔 때 잇고 이 조합이 텔 때 영 엇갈리멍.

105002 #1 으, 엇갈리멍. 경해야 불평이 엇주게. 많이 올르는 디 잇고 안 올르는 디 잇고.

105002 @1 하하하.

105002 #1 게도 거세기 허는 건 그건 구분이 엇고. 메역 즈무는 거나 다른 헛물 에 허는 건 그건 구분이 엇고 풍조 올라오는 건.

105002 @1 뭐, 뭐 올라오는 거?

105002 #1 풍조. 풍조하고 그 톨 허는 것만 구분이 있어.

105002 @1 아, 풍조.

105002 #1 으.

105002 @1 거 풍조렌 허는 거예.

105002 #1 으, 듬북거튼 거 올라오는 걸. 브름 풍조에 거 풍조는 브름에 밀려 올라오는 거. 일일이 말허민 듬북게.

105002 @1 아, 풍조로 올라오는 거는 듬북이난.

105002 #1 으, 듬북.

105002 @1 헨 일 조합 사름덜은 다 ㄴ치?

105002 #1 으, ㄴ치.

105002 @1 다 행 왕 놀영 놔뒀당 똑같이 나누는 거마씨?

105002 #1 으. 거 바당에, 바다에서 물르민 똑같이 나눠버린다. 그 수정마다, 게 난 각자가 시켜가야 웨여. 바당에서 놀 누는 것이 아니고.

105002 @1 아, 거기서 똑같이 나누는 거.

105002 #1 으.

105002 @1 똑같이 나눠가지고 각자가 가져왕.

105002 #1 으, 물령. 물려와서 물린 다음에 나뉘 집이덜 놀영 뉘당. 일년에 댕번 도 허고 놀 나민.

105002 @1 게민 놀 불어가지고 듬북허레 가젠 허민 모입서 허영 굽니까?

105002 #1 그건 조합장이 그 뭐인가 일 조합, 이 조합 조합장이 잇저. 조합장이 다 거세기 연락을 다 한다. 이제는 마이크 잇이난 마이크로 다.

105002 @1 마이크로.

105002 #1 그 전인 마이크 엇일 적에는 돌, 돌아다니멍 다 반장안티 연락허민 반장은 또 그 동네에 다 연락허주.

105002 @1 넬 듬북혈 거우다. 나옵서, 뗏 시에 나옵서. 걸읍서헨예.

105002 #1 으.

105004 @1 저기 고동, 고동이 보말?

105004 #1 고동, 고동이엔 허는 건 그건이 구쟁기ㄴ라 표준말로 고동이엔 허는 디어 우린 구쟁기.

105004 @1 으, 구쟁기.

105004 #1 보말은 구쟁기보단 존존헌 그냥 보말은 존 것ㄴ라. 수두리, 수두리도 잇고 뭐 보말도 잇고.

105004 @1 게민 보말 종류가 뭐, 뭐 잇수과? 보말 잇고.

105004 #1 보말 잇고 저 구쟁기가 잇고. 아 그 구쟁기는 딱로고.

105004 @1 으, 수두리 잇고.

105004 #1 또 수두리 잇고, 돌포말 잇고 또 춤가메기가 잇고.

105004 @1 돌포말 잇고.

105004 #1 으, 춤가메기.

105004 @1 춤가메기 잇고예.

105004 #1 또 그 수두리 닳은 것ㄴ라 뭐엔 곤는다만은 또 것도 잊어불어졌저.

105004 @1 예, 나중에 튼나지민 곶아줍서. 강이 종류마씨?

105004 #1 강이는 흔허지 안 현다. 강이는 강이덜이 거 헤다가 으름에 거 뭐인가 죽 씨 먹고 경해났저.

105004 @1 으.

105004 #1 거 강이덜 뽕아근에가. 왜냐면 강이 먹으면은 신경통에 좋다고 그래서.

105004 @1 예.

105004 #1 강이는 많이 나질 안 현다. 그거 힘들어 강이 잡는 것이.

105003 @1 아, 어떻 잡아난마씨?

105003 #1 돌, 돌, 돌 텅굴영 큰 돌덜 텅굴여야 그 강이가 나온다 돌 소곱에.

105003 @1 아, 돌 소곱에. 보말은 어떻 잡앗수과?

105003 #1 보말은 뭐 그냥 나온다.

105005 @1 바깥데 나온 거예. 강이 종류는 무신 거 따로 무슨 강이, 무슨 강이 안 허고?

105005 #1 아, 것도 춤강이가 잇고 또 펼강이가 잇고.

105005 @1 으. 춤강이.

105005 #1 으, 펼강이엔 현 거.

105005 @1 펼강이.

105005 #1 으. 펼강이 그건 노린내 나난 먹지 안 허는 거.

105005 @1 아, 우리가 먹는 건 춤강이예.

105005 #1 으, 춤강이.

105006 @1 그 햇불 싸가지고 뭐 잡고 헤났수과?

105006 #1 으, 거 헤났저.

105006 @1 뭐 잡앗수과?

105006 #1 거 햇바리라 헤가지고서 그 뭐인가 물어.

105006 @1 아, 물어 잡을 때. 그걸 햇불이엔 불렀수과?

105006 #1 햇불을, 햇불헤근에가 그 뭐인가 가을, 그건 주로 가을에 거시기 허는다이.

105006 @1 예.

105006 #1 가을밤에이.

105006 @1 으.

105006 #1 가을밤에 햇불을 영 들르면은 그 문어가이 문어가 그 불을 봐가지고 이, 숨엇다가 불을 봐가지고 나온다게.

105006 @1 으.

105006 #1 경허면은 그거 잡는 거.

105006 @1 음.

105006 #1 햇불을, 불 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햇바르엔 헨다 햇바르.

105006 @1 햇?

105006 #1 햇바르. 햇바르 가자 영 허는 거.

105006 @1 아 그럼 햇불 들고 잡는 거를 햇바루이렌 허는 거예.

105006 #1 으, 햇바루. 햇바르 가자 헨.

105006 @1 아, 햇바루 가자 헨. 게민 햇바루 가자 허는 말이 문어 잡으레 가자 허는 말이과?

105006 #1 어. 거 주로 그것베끼 안 나오니까. 문어베끼.

105007 @1 아, 문어베끼 안 나와, 다른 건 안 나와. 또 멜 들어올 때 허젠 허민 원이 잇을 거 아니예?

105007 #1 어, 원은 그 옛날에는 그것이 들어왕 이디 담이 다와젓져. 갯담이라고.

105007 @1 예, 갯담.

105007 #1 으, 갯담이라고, 갯담이라고 헨 다와젓는데 멜이 많이 들어와근에가 그 뭐인가 물이 쌍 몰라근에가 몰라가면은 갯담에 거 실 거 아니가.

105007 @1 예.

105007 #1 경허면은 알동네 사름들이 이 바다에 있는 사름, 해초 못허는 사름은 해당이 엇고, 게민 사달이라고 해 사달.

105007 @1 예 사달.

105007 #1 사달이 구물로 이정게 둥글렁헌 거 낭으로 행 만들아근에 그걸로 헤 가지고서 거렁덜 먹주게 알동네서. 겐 많이 거릴 때는 막 소문낭 웃동네 사름도 강 거렁 올 때도 잇고.

105007 @1 아. 그, 그 멜 거리는 건 웃동네 사름덜은 해당 안 되는 것과?

105007 #1 해당이 안 웨어.

105007 @1 무사, 무사 알동네 사름들은 웨고 웃동네 사름은 안 웨는 거?

105007 #1 웃동네 사름은 그런 족바디, 족바데 그런 구비헌 사름이 엇어.

105007 @1 아, 그런 그물로 행 만든 걸 뭐렌 헤여?

105007 #1 그거 족바디엔 헨다. 족바디.

105007 @1 족바디?

105007 #1 으.

105007 @1 족바디렌 불렀던 거예. 그걸로 멜 거렁 먹었던 거예.

105007 #1 으.

105007 @1 그럼 그거 원 같은 거 원에 들어온 거 족바디로 영 거리는 거 아니?

105007 #1 으, 원 안에 담 안에 들어 잇는 거.

105007 @1 족바디 생긴 건 어떻게?

105007 #1 막 크게 멘들었저. 족은 건, 족은 것도 개인으로 허기 때문에. 크게 허는 건 나무, 나무로이 혼 쪽에가 혼 두 개, 두 개씩 두 개 더 뿔 거여. 이렇게 헤영 영 예껴가지고서 이디 그물을 놓주게. 경허면은 혼 사람이 힘들 정도로 크게 멘들앙.

105007 @1 아, 예 우리 뜨는 그물처럼 만든 거군아.

105007 #1 으, 그물처럼 만들앙.

105007 @1 만약 그럼 원 보수는 알동네 거려 먹는 사름덜이?

105007 #1 거려 먹는 사름덜이 헛저. 옛날에 처음 헐 적에는 전부 다 우, 알동네 다 ㄴ치덜 거려근에 헛는디 게난 그 헛택은 가까운 동네 사름이 보는 거라.

105007 @1 아. 처음 만들 땐 아무것도 엇영, 처음 원을 만들 땐 다 ㄴ치 헛던 거라예.

105007 #1 게고이 저 서알이렌 현 딘이 갓, 다찌 올라오는 디가 잇주.

105007 @1 으.

105007 #1 거긴이 다운 사름만 임제라. 건 허물어지면은 가근에가 동네 사름이 다와근에게 그 다찌 거시기 허민 다찌 심영 먹고 경헤났저.

105007 @1 다찌가 물고기 이름이과?

105007 #1 으, 다찌라고 저것이 독가시엔 현 건디, 표준말로 독가시. 거 쏘이면 막 아프고 헛다게. 그것이 저 서알이엔 현디 올라와났저. 경허민 웃동네 사름덜 여기 동민이 아방네 많이 거 다와근에게 잡앙 먹으민 우리도 ㄴ치 강 잡으멍 헤났저.

105007 @1 서하리?

105007 #1 서알, 서알.

105007 @1 바당 이름?

105007 #1 으. 것ㄴ라 다찌개엔 현다, 다찌개.

105007 @1 다찌개. 다찌개가 뭐과?

105007 #1 다찌가 들어오는 개.

105007 @1 아 다찌개. 담 다와질 거 다찌개렌 현텐 말이지예.

105007 #1 으, 으.

105007 @1 아까 서알나와신디 바당 이름이 뭐, 뭐 잇수과? 한동 바당이?

105007 #1 한동 바당이 개랭이 바당이 잇고이 비릿질이엔 현 디 잇고이.

105007 @1 비?

105007 #1 비릿질.

105007 @1 비릿질.

105007 #1 으. 그 다음은 서알.

105007 @1 서알.

105007 #1 또 독그슨개가 잇저. 독그슨개.

105007 @1 독그슬개?

105007 #1 독그스개.

105007 @1 아, 독그스개. 게민 이름이 네 개 있다예, 바당 이름이예?

105007 #1 으, 네 개.

105007 @1 서알과.

105007 #1 거기 다찌개가 잇고.

105007 @1 원담은 어디 잇어낫수과?

105007 #1 원, 그디도 원담 멘들앗는디 그딘 자꾸, 파도가 썰니까 자꾸 허물어 쳐불고, 원담 비릿질이엔 현디 지금 남아 잇저. 비릿질이엔 현 디 남아 잇고 이 뭐 이냐 강이며루엔 현 디도 잇고. 이 바로, 바로 이 앞이가 강이며룬디 이제도 남아 잇저.

105007 @1 아, 강이며루?

105007 #1 으.

105007 @1 여기에도 아직도 원담 남아이서예?

105007 #1 으.

105007 @1 기민 뿔은 다 원담에 들어오는 것만 잡아낫수과?

105007 #1 으. 뿔 원담에 들어오는 거만. 주로 구좌에서는 월정이 주로 집단으 로 잡아낫저. 월정.

105007 @1 뿔은 월정에서. 물케기는, 물고기는 어떻 나까낫수과?

105010 #1 물고기는 뭐 많이 나끄레, 나끄레 다녀낫저.

105010 @1 물케기레 험니까 바닷케기렌 험니까?

105010 #1 바닷고기렌 허주.

105010 @1 케기과 고기과?

105010 #1 우리 제주말론 케기렌 허주.

105010 @1 케기.

105010 #1 게난 바닷케기도 거 이름이 잇저.

105010 @1 예, 예.

105010 #1 멧부게도 잇고.

105010 @1 멧주게.

105010 #1 어랭이도 잇고.

105010 @1 어랭이.

105010 #1 술벙이도 잇고.

105010 @1 술벙이.

105010 #1 졸락도 잇고.

105010 @1 졸락.

105010 #1 또 다시 이제 볼락도 잇고.

105010 @1 으.

105010 #1 우럭도 잇고.

105010 @1 으.

105010 #1 검탱이도 잇고.

105010 @1 으.

105010 #1 또 이제 농어도 잇고.

105010 @1 농어도 잇고.

105010 #1 가문돔도 잇고.

105010 @1 가문돔도 잇고.

105010 #1 부리도 잇고.

105010 @1 부리도 잇고.

105010 #1 그거 그거주.

105010 @1 그럼 아까 곁은 것들은 사진 보민 이게 뭔지는 알아지지예?

105010 #1 으, 알아지주.

105011 @1 나중에 그것도 여쭙보쿠다. 퀘기 나끄젠, 바닷퀘기 나끄젠 허민 낚시줄도 있어야 헐 거고.

105011 #1 으, 낚시줄 있어야주.

105011 @1 낚시줄도 있어야 헐 거고.

105011 #1 뽕돌도 있어야 헐 거고.

105011 @1 예, 뽕돌도 있어야 헐 거고. 케민 이걸 어디서 어디 강 구해?

105011 #1 건 세화리 가면은 주로 폭는 디가 잇저. 어구 폭는 디가.

105011 @1 어구 폭는 디가. 그 옛날에도?

105011 #1 으, 그 옛날에도.

105011 @1 낚시대는 뭐?

105011 #1 낚시대는 저 대, 대로 저 덕천 가서 대를 빌어다가.

105011 @1 대나무로?

105011 #1 대나무로 주로. 한동도 많이 땡겼저, 많이 땡겼저.

105011 @1 그런게예.

105011 #1 느네 동네도 그 회수, 회수 그 승안이 아방이영 회권이도 막. 느네 아바진 잘 안 땡겼저.

105011 @1 퀘기 나끄레?

105011 #1 으, 느네 아바진 좋아 안 허는데, 상당히 좋아 해낫저. 승안이 아방이나 저 뭐 용오 아방이나.

105012 @1 예. 작살로도 잡아나고?

105012 #1 작살은이 해녀들 가정 다닌다.

105012 @1 해녀들.

105012 #1 고기 보면은 그 저 고무 작살로 해가지고 그 고무줄 바근에가 쏙고, 그 남자들도 그걸로 주로덜 행 놀레 강 여름에. 그 저 학생덜 남자덜. 우리도 거 해 낫저.

105012 @1 그냥 물안경만 썩 들어강?

105012 #1 으, 물안경만 썩. 거세기 안 허고 테왁 안차고.

105012 @1 물안경은 제주도 말로 뭐렌 굴아낫수과?

105012 #1 물안경은 거 눈이엔 허주.

105012 @1 그냥 눈이엔?

105012 #1 그냥 눈이엔 눈 헛저.

105013 @1 그 고기 잡는 배, 고깃배는 뭐렌 불러낫수과?

105013 #1 꿔깃배는 우리 제주도, 아 저 한동엔 엇어 낫저. 자리, 자리가 자리 테우라고 잇어저. 자릿배, 자리.

105013 @1 예, 자릿배.

105013 #1 자릿배, 자리 테우.

105013 @1 으.

105013 #1 그 테우란 거 어이 허냐민 낭, 낭으로만 영 쪽허게 무꺼가지고서 그 낭 펜펜허게 자리 테우 현 거여.

105013 @1 으.

105013 #1 것도 해근에 알동네, 알동네 허칩이 사름이 주로 해낫저.

105013 @1 으. 그럼 그 배를 뭐렌 불러난지 알아지쿠과, 이런 배를?

105013 #1 거 배 이름은 잘 모르겠는디.

105013 @1 이런 배를 뭐렌 불러수과?

105013 #1 우리 한동엔 이만이 현 배도 엇어낫어.

105013 @1 엇어난. 이 배를 풍선이렌 부르고 그런 건 모르겠다예?

105013 #1 으, 으.

105013 @1 그럼 배 부분 명칭도 모르겠다예?

105013 #1 으.

105014 105014 @1 해녀, 잠녀들이, 잠녀엔 헐 거, 줌녀엔 헐 거?

105014 #1 줌녀엔 헛저 줌녀.

105014 @1 줌녀들이 물 소굽에 들엉 잡는 거 뭐뭐 잇엇낫수과?

105014 #1 물 속에 들엉 잡는 건 첫째는 메역이 잇엇고이 메역이 잇고 그 다음에 우미, 그 다음에 고통.

105014 @1 고통?

105014 #1 고통이엔 현 거 구쟁기이.

105014 @1 예, 예.

105014 #1 또 다시 이제 전복?

105014 @1 으, 전복.

105014 #1 전복허고 고기 같은 거 쏙고. 그 외에는 엇다.

105014 @1 음.

105014 #1 아, 또 다시 우뭇가사리, 우미도 즈물고.



105015 @1 음, 우미도 즈물고예. 줌녀들이 물에 들어가지고 즈물젠 허면 뭐, 뭐  
잊어야 돼는 거? 우선은 옷.

105015 #1 옷이 잊어야 돼. 옛날에는 그 고무옷이, 고무옷이 잊일 적에는이 각  
자가 그 뭐인가 저 불 쪼일 출을 가정 가났저. 각자가 질구덕에.

105015 @1 으.

105015 #1 그 나무민 나무, 출뭇이민 출뭇. 그때는 고무옷이 잊어노니까 물에서  
나오민 막 चु겨든이.

105015 @1 으.

105015 #1 추우면은 불을 초야야 돼여. 것ㄴ라 불 초이는 디 불턱이엔 허여.

105015 @1 아, 불턱예.

105015 #1 그디서 불 살랑 초이고 경허다가 이제는 고무옷이 나기 시작허난 불  
턱이 이젠 잊어.

105015 @1 으.

105015 #1 가정가는 게 잊어졌지.

105015 @1 그럼 고무옷 입기 전에 입어난 옷을 뭐렌?

105015 #1 으, 그것ㄴ라 아랫건 속곳이라 속곳이라고, 우이는 적삼이라고 허고.

105015 @1 으, 속곳 입영 물질 헛엇던 거예. 기민 물에 들젠 허민 속곳 잊어야  
텔 거고?

105015 #1 으, 적삼 잊어야.

105015 @1 적삼 잊어야 텔 거고.

105015 #1 테왁 잊지.

105015 @1 테왁 잊어야 텔 거고.

105015 #1 또 다시 이제 그 중계호미가 잊어야 헐 거지.

105015 @1 으, 중계호미.

105015 #1 또 다시 이제 그 다시 그 골쟁이 닳은 그 무시것고, 문어 닳은 그거  
뽑아 내는 그런 골쟁이가 잊어야 돼고. 또 빗창이 있어야.

105015 @1 아, 골쟁이 따로 빗창 따로?

105015 #1 으. 빗창은, 빗창은 그 전복 떼는 거.

105015 @1 전복 떼는 거예?

105015 #1 그 뭐인가 아까 그 그 고기 쏘는 거, 거 고무작살.

105015 @1 고무작살.

105015 #1 그것도 필요허고.

105015 @1 눈에 쓰는 것도?

105015 #1 것ㄴ라 이제, 옛날에는 작은 눈 써낫는디 이젠 큰눈이엔 현다.

105015 @1 큰눈. 작은눈 잇고 큰눈 잇고예?

105015 #1 으. 옛날엔 전부 작은 눈이주만은.

105015 @1 작은눈 쓰고예. 머리에 쓰는 건?

105015 #1 머리에 쓰는 건 물수건이라고 해가지고 하얀천 천으로 만든 수건 써 낫저.

105015 @1 물수건예.

105015 #1 천으로 만든. 이젠 거 안 쓰주.

105016 @1 그럼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옷 달라졌고?

105016 #1 옷 달라졌고 이제는 불 안 초고.

105016 @1 불 안 초이고.

105016 #1 또 오래 살고. 바다에서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105016 @1 아.

105016 #1 고무옷 안 입을 때는 막 살아야 한 시간밖에 못 살아.

105016 @1 아, 추워부난?

105016 #1 추워부난.

105016 @1 또 뭐 달라졌수과?

105016 #1 그게, 그런 게 달라졌주. 불 안 초고 바당에서 오래 살고.

105016 @1 으, 테왁은?

105016 #1 테왁은 뭐 그때 테왁이나 지금 테왁이나 똑 고튼디 이제는 것ㄴ라 뭇엔 허나 거 부삭부삭헌 거?

105016 @1 스트로폼?

105016 #1 으, 스트로폼 그거 쓴다.

105016 @1 계난 옛날에는 뭐 써낫수과?

105016 #1 옛날에는 콧 테왁이 잇저. 거 집에, 집에 그 뭇인가 호박 싱그듯이 싱거가지고 지붕 우이 올령 내불민 그디 콧이 올주 호박거치 크게 올앙 그걸 사용헷지. 콧테왁이라고.

105016 @1 콧테왁예.

105016 #1 으.

105018 @1 그리고 툇은 개인이 허는 것과?

105018 #1 아니 툇은 툇이엔 현다. 개인이 아니고 건 공동으로 행 판매햐저.

105018 @1 공동으로 햐 판매.

105018 #1 건 일본으로 수출허고이 그것이 수지가 맞암주게.

105018 @1 옛날서부터?

105018 #1 옛날에는 엇어주.

105018 @1 아, 옛날에는 툇 안 햐낫수과?

105018 #1 깎이 깎이 얼마 안 가니까 그 주변서 안 햐 지키지도 안 햐낫주게.

105018 @1 아, 이제야 막.

105018 #1 이제야 일본 수출허고 막 허니까 지키, 지키면서 그 햐취허는 날만.

105018 @1 그럼 툇은 옛날에는 막 좇어당 먹기만.

105018 #1 으, 좇어당 먹고.

105018 @1 이제야 풀젠 허난 공동으로 채취허는 거.

105018 #1 우미도 마찬가지로.

105018 @1 우미도 마찬가지로, 우미도 공동으로?

105018 #1 아니, 우민 각자.

105018 @1 각자 자기가 허는 거예. 계민 물 들 수 있는 거는 조합원 가입해야?

105018 #1 으, 조합원 해야, 가입해야.

105018 @1 톨 허는 사람은 다 조합원?

105018 #1 으, 가입해야.

105018 @1 가입해야. 계민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 조합이라는 게 언제 생겼수과?

105018 #1 건 오랫동안. 옛날부터.

105018 @1 옛날부터.

105018 #1 옛날부터 생경 그 가입을 그때는 가입 명단이 벗어나고 무조건 참여허는 사람이 권리가 잇엇는디 이제는 가입 안 현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었어. 이제 는 거 뭐인가 해녀회가 조직웨영.

105019 @1 계민 우미는 자기가 해 왕 물령.

105019 #1 물령 자기 각자가.

105019 @1 톨은 물령 풀민 어떻헤여.

105019 #1 건, 건 물려근에가 공동으로 헤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헤영 공동으로 널영, 공동으로 저 널엇다가 창고에 데멏다가 공동으로 폰다. 폰는 날은 큰 마당에 그 사람덜 다 나오렌 헤영 다 담양.

105019 @1 으.

105019 #1 담양 폰는 거.

105019 @1 돈은 받으면 다 똑같이 나눠?

105019 #1 똑같이 나누고.

105020 @1 똑같이 나눠 주는 거예. 전복이랑 소라는 공동, 개인?

105020 #1 개인.

105021 @1 개인예. 전복에는 영 종류가 잇수과?

105021 #1 작은 것은 오분제기엔 허고 큰 것 7란 전복이엔 허고.

105021 @1 오분제기?

105021 #1 오분제기는 쪼그만헌 거.

105021 @1 여기서는 여기서는 전복 쪼그만 헌 거를 오분제기엔 보는 거마씨?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고?

105021 #1 아니, 종, 종류가 조금 틀리니까.

105021 @1 그지예.

105021 #1 종류가 틀리니까 전복은 전복이고 오분제긴 암만 커도 오분제기베끼 안 웨는 거고.

105021 @1 안 돼는 거고예?  
 105021 #1 안 돼는 거고.  
 105021 @1 그럼 전복인 경우에는 암컷이랑 숫컷이랑 그거 달리 헤가지고?  
 105021 #1 건 우리 해녀 아니라부난.  
 105021 @1 몰라. 이실 거라예?  
 105021 #1 잇고 말고. 모든 고기가 다 암놈, 수놈이 잇고 알 뻔 때 고기가 더 맛좋는다.  
 105021 @1 지금 우미 즈물레 물에 들 때 아니예.  
 105021 #1 이제 막 저거 넣어세. 저거 어제 해 온 거.  
 105021 @1 어제 해 온 것들예. 그럼 이제 물에 들민 지금 우미 즈물멍 전복이 영 행 와도 됩니까?  
 105021 #1 아, 거 돼는 거.  
 105021 @1 거 돼는 거?  
 105021 #1 으.  
 105022 @1 돼는 거예. 테우는 아까 자리 테우만 잇는 거라예?  
 105022 #1 어.  
 105022 @1 멜은 테우로 안 거렸던 거고? 자리만 거려?  
 105022 #1 멜은, 자리만 거리고이 그 멜은 개에 든 거이 족바데, 큰 족바데엔 해근에 그걸로.  
 105022 @1 족바데로예.

## 6. 의생활

### 옷감

106001 @1 옷 멘들 때 얘기를 물어보쿠다. 우선은 옷ㄱ슴, 옷ㄴ슴 종류에는 뭐 뭐가 있수과?  
 106001 #3 옷ㄴ슴 종류에는 미녕.  
 106001 @1 미녕.  
 106001 #3 광목.  
 106001 @1 광목.  
 106001 #3 베.  
 106001 @1 베.  
 106001 #3 그것만 셔 낫저게. 경헌 후제 또 글후젠 저 또 무시것고 뽀뻘리언 현 거 그거 나와 나고.  
 106001 @1 멩진 엇어 낫수과?  
 106001 #3 멩지 셔 낫주게.

106001 @1 멍지, 미녕?

106001 #3 으, 미녕. 이제 마페. 저것ㄴ라 마페엔 한다.

106001 @1 마페가 뭐과?

106001 #3 옛날, 옛날옛적 말은 마페.

106001 @1 마페가 뭐?

106001 #3 배웃ㄴ라 마페.

106001 @1 아, 배웃을 마페엔 험니까?

106001 #3 으, 마페엔 헤낫저.

106001 @1 예, 예. 마페렌 골아나서마썸?

106001 #3 으. 옛날에 나가 열니 설에 목포를 가난에.

106001 @1 예.

106001 #3 제국시절이난이.

106001 @1 예.

106001 #3 그 목포에서도 영암. 영암서 배를 짤 이렇게 허더라이. 저 제주도 할망은 우리 성님네 집이 강 그 마페를 이때에, 이때에 받아. 이때에 반앙 그 손님덜 저녁행 주곡, 똑 돌리가 오민 저녁행 주곡 아침 네 시 돼민 조반행 보내곡 경허민 아무도 몰르지아.

106001 @1 으.

106001 #3 몰르민 저 영 축보름에 이 문만이 고망 뜰랑 그 백장더레 다 담는 거라. 답앗다근에 아책이 또시 이때, 아홉시 전이 이때.

106001 @1 음.

106001 #3 이때 이젠 제주서 할망이 가근에 그걸 또시 할망이 보멍 재영 경헤 여근에 이젠 필로 헤영 이불포거추룩, 이불 하나 썬 거거추룩 허고 베개 하나 멘든 거거추룩 헤근에 어디 가근에 오는 할망거추룩 쌍 야미장시질을 허드라게.

106001 @1 아.

106001 #3 경허고이 목포서 영 보난이 이제 북한눔신디 강이.

106001 @1 으.

106001 #3 그디서 광목은 나오는 생이더라 채얌.

106001 @1 아. 그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듣기로 허고예. 옷감 종류에 아까 멍지?

106001 #3 멍지.

106001 @1 미녕.

106001 #3 미녕, 베 저 멍지. 채얌부터 곤주. 채얌은 베, 광목.

106001 @1 음.

106001 #3 미녕, 저 멍지 경행 나왔주.

명주

106002 @1 경험 나와난 거예. 그럼 멍지서부터 물오볼게마썸. 멍지실 만들젠 허민 어떻 험니까?

106002 #3 멍지실 만들젠 허민 유에 질황, 유에를 이제 새끼 깨와근에 질황 ㄱ싸 그 저 박스 닳은 것에 저 숨 끌아근에이 그레 베렝이덜이 다 낳.

106002 @1 음.

106002 #3 이제 키와근에 그 뽕남, 뽕남을 질황가지고 뽕남썸을 맥여근에 그 저 올을 뽑는 거주.

106006 @1 그 베렝이는 얼마나 키웁니까? 베렝이는 어디 강 사?

106006 #3 게 나 안 골암사 그 유에, 유에를 이만썸 질루주. 이만썸 뭉클락, 뭉클락 허게.

106006 @1 처음에 누에를 질루젠 허민 요만헌 알을 살 거 아니?

106006 #3 어. 경, 경혜근에.

106006 @1 그 알은 어떻?

106006 #3 그 뽕남에서.

106006 @1 으.

106006 #3 뽕남에서 그것이 나온 거라. 경허난 그 과학자덜이 그걸 질황 그걸 허민 이젠 뽕남 질황 뽕남 갈아근에 그 썸 톤아당 그걸 맥여근에 그 이제 올을 뽑는 거주. 멍지가 얼마나 공 드는 거라.

106006 @1 그니까. 알 사가지고 요만헌 누에 키울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06006 #3 그건 나 몰르크라.

106006 @1 몰르크라. 누에 키와 보진 안헌 거?

106006 #3 으.

106003 @1 그럼 멍지 종류에는 무신 멍지가 잇수과?

106003 #3 저, 그냥, 그냥 다듬앙 온 거 그냥 멍지엔 허고 그냥 또시 올로 뽑아 근에가 그냥 또시 온 거는 생멍지.

106003 @1 생멍지?

106003 #3 생멍지는 ㄱ싸 베거추룩 왕그랑허지이. 왕그랑허면은 비누 미쳐근에 가 쏘아. 쏘아근에 푸답허민 저추룩 몬지락헌 멍지가 뒤주.

106003 @1 아. 그냥 뽑아 온 건 생멍지렌 허는 거?

106003 #3 으 생멍지.

106003 @1 뽑앙 영 손 본 거는 그런 건 멍지.

106003 #3 멍지.

106004 @1 멍지예. 멍지로는 어떤 옷 만듭니까?

106004 #3 멍지로는 호상옷도 멘들곡게 신 사름덜은 이제 목수건도 허고 영 수건도 멘들고 두루메기도 멘들고 경험주 체암엔.

106004 @1 멍지로도 호상옷 멘들고?

106004 #3 으. 호상은 뭐 말째사 허는 거주만은 뭐 신 사름덜은 막 두루메기 만들앙 입주게.

106004 @1 두루메기 만들앙 입는 거.

106004 #3 으.

106002 @1 멍지썰 만드는 과정, 그 누에 뽕앙 만드는 과정 알아지쿠과?

106002 #3 유에 뽕앙 그 도레기에서.

106002 @1 도레기.

106002 #3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뽕앙 그걸 이제 실 감는 틀레에 낭에.

106002 @1 예.

106002 #3 몬 감아근에가 헛당 그 놀 잡앙 놀 이제 멧 개 허민 으만이 쉴 거다 헤여근에가 체암 놀러레 이젠 대막대기러레 그냥 몬딱 이젠 그걸 끼와근에 오래 질 뽕근에 낭 영 헤근에 영 행 멘든다. 영 행 멘들민 으디 걸로 요레 들어가게 헤근에 이딘 실 감고.

106002 @1 으.

106002 #3 경혜영근에 쭈르르 허게시리 탁탁 짜고 쭈르르 행 탁탁 짜고.

106002 @1 아.

106002 #3 이제 그거 허는 거 나왔주.

106019 @1 그거 허는 거 도레기는, 멍지썰 뽕을 때 도레기는 그거 뽕렌 불러? 도레기렌 불러, 물레렌 불러?

106019 #3 그냥.

106019 @1 물레?

106019 #3 물레. 물레는 이것ㄴ라 물레렌 허주. 영영.

106019 @1 실 뽕는 거예.

106019 #3 으. 그것ㄴ라 물레엔 허곡 그건.

106019 @1 그냥 도레기?

106019 #3 그냥 거세길 거라, 저 켄레기, 켄레기.

106019 @1 아, 켄레기.

106019 #3 어.

106019 @1 게민 누에를 그디 담앙 뽕 누르뜨민 실이 쭈 나오는 거?

106019 #3 아니.

106019 @1 어땡?

106019 #3 그 유에 먹영 유에 썬 걸로 뽕아가는 거.

106019 @1 아. 유에 썬 걸로 뽕아가는 거. 그럼 이번에는 미녕 물어보쿠다. 미녕.

**무명**

106007 #3 미녕은이.

106007 @1 미녕 종류에는 뭐, 뭐 잇수과?  
 106007 #3 미녕 종류엔 뭐, 뭐 엇다.  
 106007 @1 뭐 엇어?  
 106012 #3 어. 보리 갈아근에 골보리로 이 신장로 바에 갈앙허민 이 골보리로 간 트멍에 저 그 썰헤다근에 싱그주.  
 106012 @1 으.  
 106012 #3 싱거근에 허민 꽃이 허영케 필 거 아니가게.  
 106012 @1 예.  
 106005 #3 그 소게 뽑아다근에 이젠 저 영 틀 멘들아근에가 그레 벅이멍 영영 돌려가민 썬 앞더레 털어지고 소게는 저레 나가고 허민 그걸로 영 홀트멍 나 그 실 멘들앙 허ㄴ렌 허듯.  
 106005 @1 예, 예.  
 106005 #3 경 멘들안에 미녕을 멘들아세.  
 106005 @1 아.  
 106005 #3 다 경헨 허는 거 아니가. 베도 경허곡. 베는 영 그저 무신 남이여 만은 거 잊어벧저게. 거.  
 106005 @1 베 키우는 나무?  
 106005 #3 으, 베 키우는 나무, 무신남이여만은 예구 잊어벤.  
 106005 @1 모시남?  
 106005 #3 으, 모시남이엔 현 거.  
 106005 @1 삼남, 모시남?  
 106005 #3 삼남은 베허는 거고.  
 106005 @1 베.  
 106005 #3 으. 그 멩지허는 거는 모시남으로 헤근에 뽑앙 뽑아근에 경 헤나세.

## 무명

106007 @1 그 미녕에, 광목도 미녕 종류가 웨는 거 아니마썸?  
 106007 #3 으, 으.  
 106007 @1 닻새미녕, 옷새미녕 허는 말 엇수과?  
 106007 #3 건 몰르켜.  
 106007 @1 토목, 생목 그런 말도 안 쓰고예?  
 106007 #3 토목, 토목이엔 현 거 저 발레지 안 현 것ㄴ라 토목이엔 허고.  
 106007 @1 아, 발레지 안 현 거. 광목은 어떤 걸 광목이렌 헤?  
 106007 #3 광목은 그냥 필로 나오주게 기계에서 나와근에.  
 106007 @1 그건 손으로 뽑은 거 아니라예.  
 106007 #3 으, 기계로 뽑앙.  
 106008 @1 기계로 뽑앙예. 그럼 미녕으로는 어떤 옷 만듭니까?



106008 #3 미녕으론 옛날은 문 중의적삼 멘들고 해나세.

106008 @1 중의적삼?

106008 #3 바지, 바지 멘들앙 입곡.

106008 @1 바지 멘들앙.

106008 #3 몸빼 멘들앙 입곡. 몸빼도 허젠 허민 두 폭 입은 사름 싣고 또 일로 반 짜여근에가 올로 영 놔근에가 멘드는 사름. 이 몸빼는 일본 사름덜이 오라 가기 때문에 근때 반에 몸뻔 멘든 거. 갱 안 허민 벌락벌락 바지허고 치메만 입엉 땡겨야.

106008 @1 아.

106008 #3 굴중의 멘들앙 입곡. 막 힘들게 살아신디 일본 사름덜이 이추록 몸빼를 멘들앙 입은 걸 보난애, 우리 훈련시킬 때에.

106008 @1 예.

106008 #3 우리 훈련 시킬 때에 그 몸뻔 입어놔주게. 게난 그걸 보면서 몸뻔 멘들앙 입길 시작헌 거라.

106008 @1 게난 그건 제국시대에.

106008 #3 으, 제국시대에.

106008 @1 일본 사름덜 들어왔을 때.

106008 #3 으 혼 때 이거 몸빼가 난 거라.

106009 @1 그럼 토목으로 따로 만드는 거나 광목으로 따로 만드는 거는 뭐 잇어놔수과? 토목으로 멘드는 거는?

106009 #3 몰라.

106010 @1 광목으로 멘드는 거는?

106010 #3 광목도 그거주게. 멘네로, 멘네로 기계에서 공장 출령 멘든 거.

106010 @1 멘든 거예. 그럼 광목으로 뭐 잘 행 입엇수과?

106010 #3 뭐행 입느니게, 굴중의도 행 입곡.

106010 @1 굴중의?

106010 #3 바지도 행 입곡 두루메기도 허고.

106010 @1 으.

106010 #3 엇인 사름은 두루메기도 허고 걸로 저고리도 허고 경 해낫애.

106010 @1 광목으로 두루메기 행 입어?

106010 #3 으, 광목으로. 광목으로 경행 헤영케 이젠 발레 가민 헤영허주. 경허민 걸로 바지 저고리 멘들앙 입어세.

106010 @1 아, 광목으로예?

106010 #3 어.

106011 @1 홍세미녕이란 게 뭐과, 홍세미녕?

106011 #3 홍세미녕이엔 헌 건 거 필차 아기덜 장게 갈 때 홍셀 바뀌 살 걸, 홍셀 바뀌 살 걸. 것도 막 큰 걸로 생각해영. 홍세 바파살 걸 헤근에가 미녕 두 필 헤

근에가 그 으만이 현 말 님은 함이 시저게.

106011 @1 그건 뭐렌 험니까? 흥세함?

106011 #3 흥세함.

106011 @1 시집갈 때, 시집갈 때. 결혼할 때?

106011 #3 으. 그거 두 필 놔근에가 해나세게.

106011 @1 게난 흥세함에 넣는 미녕을 흥세미녕이렌 곶을 거마썸?

106011 #3 으. 흥세미녕이주.

106011 @1 게난 옛날에 시집갈 때 혼수렌 험니까, 그것도 하나의 혼수가 되는 거?

106011 #3 거 혼수 되는 거주게.

106011 @1 어무니 험 때는 땃 필이나?

106011 #3 두 필이주게.

106011 @1 그때 두 필?

106011 #3 다 두 필.

106011 @1 아, 다 두 필.

106011 #3 경험 허단 그걸 없애던 돈으로 험 시작헤세. 우리 아기덜 난 후젠 돈으로 돈으로.

106011 @1 으.

106011 #3 쉬웁게시리.

106011 @1 아, 게민.

106011 #3 졸은 저 가고.

106011 @1 아 졸은 저 가고?

106011 #3 졸은 두 말 놓는 사름 서말 허는 사름. 두 말 가웃 놓는 사름 쟁험근에가 저 가고 경 해나세.

106012 @1 게난 그 미녕은 목화 농사를 지어야 험 거라예. 목화 농사 아까 보리밭디?

106012 #3 으, 저 보리밭디 그냥 빈 밭디 허젠 허민 농서덜 해부난 밭이 엇이난 육지러렌 그자 빈 밭디 갈앗주만은 여기는 췌 차음 시작험 때 곶보리 갈앙 그 트멍에 멘네를 싱경 그 트멍에서 보리만 비영 앗앙 멘넨 말제 타근에 경험 헤세. 얼마나 고생허멍 살아시.

106012 @1 게민 보리 비여 아정, 보리를 먼저 비는 거라예?

106012 #3 어.

106012 @1 멘네는 나중에 타고.

106012 #3 어.

106012 @1 멘네 타가지고 집이서 그 미녕을 만들고.

106012 #3 널어진 때는 집이서 만들고 경 안 험 땡 다 공장에서 나왔주.

106012 @1 게민 목화 따가지고 쏘는 것과 공장더레? 아니, 그건 아니?

106012 #3 아니.

106012 @1 그건 아니.

106012 #3 경허난에 그 촌 구석에 사름덜이 베 헤영 오더라. 영암 사름덜이.

106012 @1 음.

106012 #3 영암 사름덜이 우리 목포서 보난 영암 사름덜이 벨 이디 두 필, 이디 두 필 헤근에가 영, 필로 영 입어놔 그 흘필 헤근에가 준둥에 딱 감앙.

106012 @1 음.

106012 #3 경헤근에가 두루메기 저 큰큰허게시리, 저 육지사름덜 검은 두루메기 느넨 안 봐낫저. 검은 두루메기 헤근에가 미녕이나 광목이나 헤연에 시꺼멓게 물들 어근에 동전만 헤영허게 행 입어불민 그 미녕, 베 싸진 줄을 모르주게.

106012 @1 아, 게민 곱정 들어온 거?

106012 #3 곱전 들어온다. 경행 허민 우리 성님은 그 촌에 강 다 들춰 말 헛다 근에가 이제 기차로 오민, 저 네 시뉘민 기차가 들어온다게 목포러래.

106012 @1 예.

106012 #3 들어오랑 허민 나가근에가 눈치만 치민 그 사름 조름에 줄줄 쫓아 오라근에가 폴아더근에. 영행 양 손에 두 필씩 제끄만 허게시리 옷 포데기거치 들 르고 이디 다섯 필 감고 경헨 오란 폴아덩 가더라.

106012 @1 아 그디 사름덜이 그추룩행 제주도까지 왕 폴아덩 간 거?

106012 #3 제주도 할망은 목포 강 이불포거치룩 행 상 오고. 오라근에 이디 오 랑 점빵에 강 폴고.

106012 @1 아.

106012 #3 그 사름덜은 그 장서꾼을 알아근에 사람 조름에 쫓아오랑 눈치만 치 민, 줄줄 오라근에가 허민 밤인 그거 문밖 필 잡아근에이 필 잡아근에 그레 다 담 앓당 아척인 제주 배 들어가민 그 할망 가근에가 경헨 오란.

106012 @1 게민 그게 제국시대 얘기 아니?

106012 #3 그게 제국시대. 탁 졸라멘 아무더레도 못 가게 헤부난.

## 모시

106013 @1 못 가게 헤부난. 이번엔 모시 물어보쿠다. 모시에. 모시실 만드는 것 도 알아지쿠과?

106013 #3 모시실?

106013 @1 예.

106013 #3 모시실이 저 그 저 무신 남이고?

106013 @1 모시남?

106013 #3 으, 모시남이 잇주, 구썩헌.

106013 @1 구썩허게.

106013 #3 그거 비여근에 이젠 막뎡이로 행 썩썩 홀타. 홀트민 썩썩 깨어근에가

숫디 낱 삶아. 그걸 올을 멘들앙 영영 동무렵에서 밀멍 잇어근에가 거 다 짠 거 아  
니가.

106013 @1 그럼 이렇게 홀트민 실 하나하나를.

106013 #3 거디서 나오지 안 허고.

106013 @1 어.

106013 #3 거디서 하나하나 혈만씩 짜영 얼마나 공들게.

106013 @1 게민 하나 헤영 으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106013 #3 하나 낱 잇어근에가 영 행 등경 허민 말젠 짜는 것들에 영영 감는  
거주. 낱 꿰기 소랑허게 해근에.

106013 @1 그 실 하나행 그 뒤에 다시 이으멍 이으멍 허는 거.

106013 #3 이으멍 이으멍. 어떻 공 드는 줄 알아 동무렵이 다 베껴지고. 육지  
사름덜 경허멍.

106013 @1 제주도에서는 모시 잘 안 해난 거?

106013 #3 어.

106014 @1 게민 모시로는 무슨 옷 멘듭니까?

106014 #3 모시로는 두루메기도 멘들고 고운 치메덜토 멘들고 적삼도 멘들고.

106014 @1 그건 여름옷이라예.

106014 #3 여름옷.

### 삼

106016 @1 모시 재배허는 거는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잘 안 헛던거예. 이번엔  
삼 물어보쿠다. 삼실은 어떻 멘드는 거과, 삼?

106016 #3 삼? 삼이 모시도 멘드는 거주게 삼이. 이제사 튼내점저.

106016 @1 아.

106016 #3 삼이.

106016 @1 삼이 베 아니예, 삼이 베. 베옷 멘드는 거.

106016 #3 베옷도 그.

106016 @1 모시랑 똑같애?

106016 #3, 으 똑같애 그추룩 헛 거라.

106016 @1 그럼 삼도 영 나무를 키우는 것과, 삼나무?

106016 #3 으. 이제도 종이도 그거 아니가 종이도 낱 꺾죽 뺏겨다근에 홀타근에  
가 삶아근에가 이제 그 놈을 막 찌. 찌어근에가 막 그를을 멘들지 안 험사. 그를을  
멘들앙 이 종이 헛 장이 얼마나 공 드는 건주 알암시. 그걸 생각헤야 허여.

106016 @1 맞아마썸.

106016 #3 우리 쫄 밥 먹는 거에 그까짓 밥 헤도 그 쫄 먹는 사름은 그 쫄 헛  
방울 멘들젠 허난.

106016 @1 얼마나 공 드는 거라예.

106016 #3 얼마나 공 들었시. 경허다근에 물 몰라 불민 나룩밧 문 손 털영 앓는 사름 싯곡.

#### 바느질

106022 @1 어무니 바농상지 잇수과?

106022 #3 바농상지 엇다.

106022 @1 바농상지 따로 안 헛구나예.

106022 #3 으.

106022 @1 바농질은 막 잘 헤난 거 님은디.

106022 #3 어 바농질은 잘 헤낫저. 우리집이 아방도 미싱 헤나난.

106022 @1 아.

106022 #3 미싱, 양복도 저 졸바로 안 웬 거 고쳐근에가.

106022 @1 입고?

106022 #3 으, 모저도, 중학생 모저도 멘들아나고.

106022 @1 아, 멘들아 나고. 게민 바농질을 허젠 허민 바농질을 헐 때 필요헐 물건들이 뭐, 뭐 잇수과?

106022 #3 필요헐 물건 ㄱ세 들민 돼주게.

106022 @1 ㄱ세. 바농도 잇어야 텔 거 아니?

106022 #3 으?

106022 @1 바농도 잇어야 텔 거 아니?

106022 #3 바농은 미싱에 들린 거난.

106022 @1 아니 그냥 손 바농질 헐 때?

106022 #3 손 바농질 헐 때 옛날은 저, 저 바농 동녕바치도 셔 낫저. 그자 동녕 도렌 허른 무시거 허난 바농, 바농 하나 앓고 쓸 흐쓸 도렌.

106022 @1 아, 기파?

106022 #3 경헐 동녕도 텡겨낫저.

106022 @1 아, 기파 바농 동녕바치?

106022 #3 으. 그자 공짜 가근에가 쓸을 흐쓸 줍셴을 못 허난.

106022 @1 으.

106022 #3 바농을 상.

106022 @1 으.

106022 #3 그 바농 하나 주크메 쓸 흐쓸 줍서. 쓸 흐쓸 줍서.

106022 @1 아, 경허명 동녕바치 다녀난예.

106022 #3 어. 이 대정 사름덜은이.

106022 @1 예.

106022 #3 옥양 일년이민 으거 먹어질 거로구나 허민 앓곡 으거 일년 먹지 못 헐 거로구나 허민 찰리 뚜러메근에 동녕 다녀.

106022 @1 으.

106022 #3 이레 모관더레.

106022 @1 으.

106022 #3 이디가 모관이주.

106022 @1 모관.

106022 #3 저 대정면은 그 영챙이 지꼭 허난이 그 한라산이 영챙이 지난 뺑신도 많고 경험세.

106022 @1 으, 게민 바농질 허젠 허민 바농도 잇어야 헐 거고 바농은 어디에 꽃앗수과?

106022 #3 어디에 꽃아 저 머리털 몽크령 이젠 그걸 주왕, 그 쯔지 멘들앙 이추룩.

106022 @1 예, 바농쑤지예?

106022 #3 으, 그레 바농 찢러나세 보미지 않게.

106022 @1 으, 보미지 않게.

106022 #3 이제도 바농 헤나민 영영 쓸지 안 허느냐, 보말 내 먹어나도 영영 머리가 쑤민 문지로와근에.

106022 @1 머릿기름에?

106022 #3 머릿기름 문지로와근에 보미지 안 헤.

106022 @1 게민 그거 말고 만약 바농 녹슬었을 때 영영 비비는 돌도 있지 안 허여.?

106022 #3 으, 속돌.

106022 @1 속돌, 속돌도 있고예?

106022 #3 속돌 봉가다근에 닦아나고.

106022 @1 이제 잘르젠 허민 그세도 필요허고.

106022 #3 으.

106022 @1 또 보선이라도 저고리라도 만들젠 허민 영 땡 그려살 거 아니?

106022 #3 기리지 안 허도게 눈짓 신 사름은 그냥 멘든다게. 우리도 눈짓 시난 그냥 멘든다게.

106022 @1 예.

106022 #3 옛날은이 속곳도이 미녕필 해근에 영헝 멘들아나세. 영 이거 이거. 속곳도 이걸 영 해영 삼가꾸 나게 헝 영 해영.

106023 @1 예. 그 바농질 방법도 여러 가지이지 안 헤예?

106023 #3 여러 개지?

106023 @1 뭐 뭐 잇수과? 생각나는 거. 영 박음질도 있을 거고?

106023 #3 박음질은 영 땡침허는 건 박는 거고.

106023 @1 예, 땡침질예?

106023 #3 땡침허는 건 박는 거. 들땡침, 들땡침이엔 현 건 이것에 이디 강 실

을 맞추지 안 허영 또 으만이 해근에 허는 건 들땡침.

106023 @1 또, 또?

106023 #3 그냥 영영 허는 건 호음.

106023 @1 호음?

106023 #3 영 영 또시 영 바위 영 놔근에 영, 영 영 감치는 건 또시 감치는 거.

106023 @1 감치는 거. 그거 휘감치는 거?

106023 #3 으.

106023 @1 휘감치는 거?

106023 #3 영영 부짱 영행.

106023 @1 예.

106023 #3 영영. 쉬웁게 허젠 허민 영영영영 호행 짝 빠고.

106023 @1 으.

106023 #3 곱게 허젠 허민 이걸 영 놔근에 밤이라도 영 꿔영 올 멧 개 해근에 빠네영 찢러찢러 허민 손으로 해도 미싱에 헨 거 닦주.

106023 @1 아까 멘들엇젠 헨 거 완전 미싱에 헨 거 닦안게. 그게 땡침?

106023 #3 땡침.

106023 @1 땡침질?

106023 #3 모시 적삼도 그추룩 행 멘들곡.

106023 @1 아, 땡침질 해가지고 멘들고예?

106023 #3 흐흐.

106024 @1 남자옷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남자 옷 종류?

106024 #3 남자옷 종류에게 살마다 허고 중의 허고 바지 허고 거베끼 더 셔게?

106024 @1 우이 두루메기?

106024 #3 으. 두루메기 허고.

106025 @1 게민 여저옷 종류?

106025 #3 여저옷 종류게 굴중이 싯고 치메 싯곡. 또 시집 갈 땐 단 속곳이엔 헨 거 싯고 경헨.

106025 @1 경헨 저고리도 입곡.

106025 #3 으.

106025 @1 저고리도 입곡예?

106025 #3 으.

106026 @1 아이옷 종류는 뭐 잇수과?

106026 #3 아이옷 종류는 그냥 뭐 요새 영 오그려 놔근에가 허듯이 해근에 입 겨낫주게.

106026 @1 겐 아이옷.

106026 #3 뿐 내웁지 안 허영.

106026 @1 뿐 내웁지 안 행. 겐 아이옷 종류에는 애기가 금방 태어났을 때 입

는 옷은?

106026 #3 베옷.

106026 @1 베옷. 거 붓땃옷이렌 헤여?

106026 #3 으, 붓땃옷이렌 헤근에, 베옷 헤근에 실로 옷고름 헤근에 영 헤영 영  
돌라당 영행 영 영 졸라멩.

106026 @1 묶고예?

106026 #3 으, 실 으라겍 헤근에.

106026 @1 아이덜 입힐 때 오줌싸니까 여기?

106026 #3 굴중이거추록 영 텅게. 바지.

106026 @1 영 터진 바지를 뭐렌 곶아?

106026 #3 건 바지, 바지주게.

106026 @1 강알 터진 바지엔 안 허여?

106026 #3 으. 강알 터진 바지주. 갹 멘들앙 입져나세게.

106026 @1 하하.

106026 #3 경허단 이젠 옥아가난에 그추록 하영 안 들여도 뺄스 멘들앙 입짐  
시작허난에 그 쉬웁게덜 살암주 이제.

106028 @1 으. 그민예, 저기 우리 그 바지 있잖아예. 남저덜 바지 명칭, 이름  
덜? 이 우이 부분은 뭐렌 부르는 게 잇수과?

106028 #3 허리.

106028 @1 허리, 여기는?

106028 #3 다님.

106028 @1 여긴 다님. 여기는?

106028 #3 거긴 안 험다게.

106028 @1 여긴 다님 여기 허리?

106028 #3 으, 허리띠.

106028 @1 또 여기 뭐 불르는 거 엇어?

106028 #3 엇어.

@1 게민 저고리, 저고리 보게예. 저고리 명칭에는?

106028 #3 저고린게 옷고름 잇주게.

106028 @1 옷고름도 잇고 아까 여기는 짓. 여기는?

106028 #3 이진 소미.

106028 @1 소미. 여기는 아까?

106028 #3 그 끝동 놓젠 허민 끝동저고리엔 허고 끝동 안 노민 그냥 저고리엔  
허고.

106028 @1 여기는 아까?

106028 #3 여기도 앞섭.

106028 @1 앞섭예. 안쪽에 있는 건.



106028 #3 안 앞섭, 밧 앞섭, 짓.  
 106028 @1 짓, 뒤에 건.  
 106028 #3 뒤엿 건 짓바데.  
 106028 @1 이젠 보선 보게예. 보선예. 이디 보선 이만큼 잇. 요디를 뒤편 허는 거 잇수과?  
 106028 #3 엿어.  
 106028 @1 보선코.  
 106028 #3 그건 영 보선 멘들젠 허민 이녁냥으로 멘드는 거난. 그거 이름 지왕 무시거.  
 106028 @1 그럼 이디 뒤편치 그런 거?  
 106028 #3 엿어.  
 106028 @1 이던?  
 106028 #3 엿어.  
 106029 @1 엿어. 그럼 옛날에 단추를 뒤편 헛수과?  
 106029 #3 그자 단추엔 헛저.  
 106029 @1 아니 이런 단추말고 이건 플라스틱은 이제사 나온 거고 이거 어실 때.  
 106029 #3 엿인 뎌 영.  
 106029 @1 속곳에?  
 106029 #3 영 췌께에 단추는 저 유리 구실 닮은 거.  
 106029 @1 어.  
 106029 #3 그거 헤여근에가 소랑허게시리 두 개 헤영 돌아근에가 메어나고.  
 106029 @1 예.  
 106029 #3 옛날 남저덜 쪼개.  
 106029 @1 예.  
 106029 #3 곱게 이제도 입지 안 허느냐. 경허고.  
 106029 @1 예.  
 106029 #3 속곳에는 이 옷에 적삼도 이 벌모작을 광목을 이렇게 이렇게 헤근에 가 땀뎡허게시리 네 고비 청.  
 106029 @1 예.  
 106029 #3 뻘뻘 감청.  
 106029 @1 그걸 뒤편 곱아서 아까? 벌모작?  
 106029 #3 벌모작.  
 106029 @1 아 예. 네 고비 청 영영 만드는 거예?  
 106029 #3 으.  
 106030 @1 그 옷감 다리미질 허젠 허민 뭐가 필요헤마씨?  
 106030 #3 윤디.

106030 @1 윤디.

106030 #3 멍지웃은 허젠 허민 윤디 으 밥 숟가락 닳은 거 화리에 불 살랑 노  
양 딱뚝하게 허여근에가 으거 다 주어 낱 윤디로 쪽허게 다리곡 게 안 허민 다리미  
이제 어디 실 거여. 경헌 다리웨.

106030 @1 어디 신고예 다리웨?

106030 #3 다리미. 윤디사 옛날 엇어부난 허주만은 다리미덜은 어디 실 거라.

106030 @1 윤디는 사진 찍엇수다만은 다리웨는 못 찍엇수다.

106030 #3 못 찍어서.

106031 @1 제주도에서도 염색 행 옷 입어낫지예.

106031 #3 염색?

106031 @1 예.

106031 #3 염색 헨 입어낫주게.

106031 @1 감물, 감물 들이는 거예.

106031 #3 으, 감물 들영도 입곡 그자 물색, 검은 물색도 헤영 입곡.

106031 @1 검은.

106031 #3 검은물 사당.

106031 @1 검은물 사당? 옛날에도?

106031 #3 으, 으. 옛날에도 저 폴레 오라낫저.

106031 @1 아.

106031 #3 이 중간에사 엇어졌주.

106031 @1 감물 들이젠 허민 어떻게낫수과?

106031 #3 감물은, 감 타다근에 뽏아근에 짱, 곱젠 허젠 허민 짜근에 그 물로  
저 밀어근에가 줍지랑 너는 거주게.

106031 @1 으.

106031 #3 그건 이제도 허는 거.

## 신발

106032 @1 이제도 허는 거. 어렵지 안 헤예. 신발 종류에는 뭐 잇수과?

106032 #3 신발에 종류에는.

106032 @1 옛날 거. 지금말고?

106032 #3 옛날은 우단신.

106032 @1 으, 우단신?

106032 #3 우단 코고무신.

106032 @1 아.

106032 #3 일분이나 탕긴 사름은. 우린 기자 신 안 신어 봤저.

106032 @1 아.

106032 #3 그런 우단 코고무신 신어 낫주.

106032 @1 그럼 어무니네 부자랏구나?  
 106032 #3 아버지가 일본 간 오난.  
 106032 @1 일본 간 오난. 우단신. 또 뭐 나막신도 잊어난?  
 106032 #3 으 나막신 신고.  
 106032 @1 가죽신도 있고.  
 106032 #3 가죽신도 신고. 가죽신은 무신 쉼거튼 거나 잡아댕기는 사름이 가죽신 신엇주 아무나 안 신어났저.  
 106032 @1 보통은 초신 신지 안 해수과예?  
 106032 #3 으 초신 멘들아근에 신어났주. 또 찌까테비 차근에 영 꿰여근에 또시 신어나고. 조리로, 조리로.  
 106032 @1 그거 일본 형태로.  
 106032 #3 그건 조리엔 허주.  
 106032 @1 조리엔 해가지고예. 모자 종류도 잇수과, 모자 종류?

#### 모자 등

106037 #3 모자 종류 뭐, 어떤 종류산디 뭐.  
 106037 @1 페랭이.  
 106037 #3 페랭이 었은 때 무스거고 저 저슬에 험벅.  
 106037 @1 으.  
 106037 #3 험벅헤근에가 으만이 개영 두고비 청 영 오그려근에 앞인 트고 뒤엔 저 부찌근에가 허민 이 뒤깁더렌 흐쫄 덜 가게 헤근에가 올로 으레만 부찌근에 친 돌앙 써낫애.  
 106037 @1 거 집이서 만들영?  
 106037 #3 어. 그건 잊어네 경 톡으렌.  
 106037 @1 비 올 때는 뭐 써낫수과?  
 106037 #3 비 올 때는게 우장도 쓰곡게 반돔 멘들앙 반돔도 쓰곡게.  
 106037 @1 반돔이 뭐?  
 106037 #3 새 헤여근에 반돔이엔 허민 안다게.  
 106037 @1 머리에 쓰는 거?  
 106037 #3 머리에 쓰는 건 우장이고.  
 106037 @1 아니, 여기에 쓰는 게 우장이지, 새로 만든 거?  
 106037 #3 게 그거 우장이고 이 반돔은 영 오그려근에가 숭키 췌으레 가젠 허민 으 등멩이 져지 안 허게 요추룩 놔근에가 영 놔근에 허는 거.  
 106037 @1 아.  
 106037 #3 새 헤영 영영 짱, 새 으레 놔근에 영영 행 돌멩이 놔근에 짜민 혼 짱은 늘만 봐지고 혼 짱은 새 헤여근에 그 우장거치 멘들아근에.  
 106037 @1 게민 그건 여기 쓰는 것과, 머리에 쓰는 것과?

106037 #3 그냥 아무 때라도 어디레 가젠 해도 썩 가꼭게.  
 106037 @1 아.  
 106037 #3 저 무똥에 가젠 해도게 반돔 썩 가라게, 반돔 썩 가라게.  
 106037 @1 우산도 엇고 허난예?  
 106037 #3 경 헤나세.  
 106040 @1 여기 한동은 탕건이나 그런 건 안 헤 낫지예?  
 106040 #3 으, 엇어.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1 밥에는 무슨, 무슨 밥이 있어났수과? 밥?  
 107001 #2 보리밥이주.  
 107001 @1 보리밥 또?  
 107001 #2 조팍.  
 107001 @1 또?  
 107001 #2 프레밥. 툄밥. 저 툄 해당 보리밥에 툄 해당 솥아근에 버무려근에 먹 쥬허민 막 내냥 먹지 못허여.  
 107001 #5 못 솥양 먹고. 저 밧디 나는 못 허당 솥양 먹고.  
 107001 #2 몽클몽클헌 거 밧디 검질 나는 거 막 밧디 한다게.  
 107001 @1 으.  
 107001 #2 그런 거 좇어다근에 큰 향아리에 놔근에 그디 다 씻어근에 담아 놔 근에 저 거세기 무신 그 ㄴ시락 허다근에 둘러 놔근에 그 ㄴ시락 소곱에 불 질러근 에 그 향아리 그레 놔근에 그거 막 복작복작 테우멍 그 독헌 물은 막 베져더레 내 치멍 독헌 물 안 나도록 들헌 물 나도록 막 그거 저 갯긋이 패, 듄복헤다근에 그 소곱에 담아근에 그것에 패에 또 못에 먹젠 허민 막 아기덜은 야가지 아프덴. 못 솥양 먹으민 야개 아프는 거주 원래.  
 107001 @1 못이 무우가 아니고?  
 107001 #2 으.  
 107001 @1 못이 뭐과?  
 107001 #2 못 땅에 나는 검질, 검질.  
 107001 #5 동골동골헌 패마농 닻은 거 잇저.  
 107001 #2 패마농 닻양 이추룩 이추룩 헌 거.  
 107002 @1 쌀 종류에는 뭐, 뭐 잇수과?  
 107002 #2 보리쌀, 좁쌀.  
 107002 @1 산디쌀 같은 것도 잇어났수게.

107002 #2 으, 산디썰은 셔도 우리 먹지 못해낫저게 제서 때나베끼.  
 107002 @1 먹지 못해도 그때 잇어난 썰은 다 곶아줍서.  
 107002 #2 보리썰, 좁썰, 곤썰, 콩.  
 107002 #5 곤썰은 제서 때에 밥허고.  
 107002 @1 또. 믰물썰.  
 107002 #5 믰물썰은 묵허고.  
 107003 @1 보리밥 만들앙 먹어난 거 곶아줍서.  
 107003 #2 보리밥이 게메 거 갯긋 거 해당 듬북 해당 서경 쏴아네 서경. 보리밥  
 도 보리썰이 문딱 털어가부난 무신 보리썰이 셔게.  
 107003 #5 보리밥도 흐루, 흐루 두 때베끼 못 먹엇어. 다 털어가부니까.  
 107003 @1 게민 보리밥 허젠 허민 어떻게? 보리썰이랑 못이랑 믰치 낱 쏴아.  
 107003 #2 보리이.  
 107003 @1 보리밥 만들어 봄서. 어떻 허는지?  
 107003 #5 보리 기계에 강 곶아당.  
 107003 @1 보리밥 헤 먹젠 허민?  
 107003 #2 보리 기계에 강 곶아당.  
 107003 @1 아니, 아니.  
 107003 #5 옛날은이 저 물ᄇ레에, 물ᄇ레에 강 곶앙.  
 107003 @1 기계 생기기 전에.  
 107003 #2 아, 물ᄇ레로, 뽕뽕 돌아가는 물ᄇ레에 곶아당 돌ᄇ레에 건평 밥 행  
 먹엇주.  
 107003 @1 으.  
 107003 #2 느네 신 때 느네 골목 안에 베꺾디 나오민 그 오부제집 우영에 돌ᄇ  
 레, 큰 멧돌 선에 그것에 곶멍 먹어세.  
 107003 @1 으. 장만허젠 허민 보리 장만허젠 허민 어떻 허는지 곶아 줍서.  
 107003 #2 익으민 비여당 도꺾로 두드렁, 썰 내젠 허민 막 두드렁 다 두드리민  
 영 불렁, ᄇ시락이영 다 불려당, 이젠 널영 물류왕 이젠 물류민 영 멧돌에 강 ᄇ는  
 거라.  
 107003 @1 물ᄇ레에예?  
 107003 #2 물 적정.  
 107003 @1 물 적정?  
 107003 #2 으, 물 적지멍 곶아야 한다. 물 적정 곶아당.  
 107003 @1 그 다음에?  
 107003 #2 물류왕 돌ᄇ레에 건꺾가지고 벌러사 먹을 거. 집이 영 동그랑헌 ᄇ레  
 에. 또 곶아.  
 107003 @1 그건 아까 무슨 ᄇ레엔 헛수과?  
 107003 #2 돌ᄇ레.

107003 @1 돌궤레, 앓진 궤레엔 안 허고?  
 107003 #2 앓진 궤레엔도 허고.  
 107003 @1 앓진 궤레엔도 허고.  
 107003 #2 그거 왕 마딱 좇어가서. 고물 장시덜 다 좇어 가서.  
 107004 @1 반지기 밥은 어떻 헛수과?  
 107004 #2 반지기 밥이 그거주. 그 궤루로 돌궤레에 곶아난 궤루로 궤레에 헤다 근에 무치명 썰영 발헤영 물 지치명 발허고 그거 발헤영근에 이제 그거 다 헤영게 발허민 밥 행 먹을 걸로 이제 물 적저근에 칼로 막, 너플너플 현 거주 궤레.  
 107004 @1 으.  
 107004 #2 문딱 칼로 썰명 이제 궤레로 그 보리썰 곶아나민 큰 거 나오고 궤레 나오고 허난 큰 건 밥 행 먹고 궤루론 무신 거 땡겨불거주만은 그걸로 이제 그 술, 범벅헛 먹어서.  
 107004 @1 다시 한 번 곶아줍서. 반지기 밥을 어떻 허는 건지?  
 107004 #2 반지기 밥이 궤레밥이주게.  
 107004 @1 궤레밥? 보리썰에?  
 107004 #2 보리썰에 저 거세기 궤레도 서경 먹고 그 궤레로, 앓진 궤레로 영 곶 아냥 그 궤레 나오민.  
 107004 @1 으.  
 107004 #2 그걸로 궤레 썰어와근에 범벅도 행 먹고 조근조근 췌영 범벅도 행 먹고 그 궤루로 궤레 바다에 간 헤오지 못허민 영영 곶아난 궤루로 이제, 보리썰 나오, 보리썰 밥 행 먹는 거 나오고 궤루 나온다 이제 그걸로 곶아가민, 경허민 그 걸로 이제 저 물 와가민 그 궤루러레 비와가근에 끈닥끈닥 눌러 와근에 이제 술 서 꺼지민 췌영, 영영, 영영 췌영 즈베기거치 그거 영영 그치명 솟더레 와근에 솟앙.  
 107004 @1 그게 반지기밥?  
 107004 #2 으.  
 107004 @1 기민, 보리썰로가 아니고 보리?  
 107004 #2 궤루.  
 107004 @1 보리궤루로 허는 거군아예.  
 107004 #2 반지긴 저 보리썰에 저 톨에 와근에, 톨 문짝 솟앙 톨에 와근에 밥 흐썰, 썰 잇어부난 흐썰 거려다 와근에 밥 헤근에 흐 일곱 식구가 우린 먹엇주게. 그때 옛날에.  
 107004 @1 으.  
 107004 #2 경허민 썰 흐 두어 사발 거려당 냥 그 톨은 흐 출구덕 솟아와근에 그레 막 허꺼근에 그거 먹으명 커세.  
 107005 @1 곤밥은, 곤밥은 어떤 것과?  
 107005 #2 곤밥은 저 산디썰 밥.  
 107005 @1 산디썰 밥.

107005 #2 거는 우린 먹어보도 못하고 제서만. 하영도 안 갖고 그건.

107005 @1 계민?

107005 #2 아무 밋디나 경 하영 웨도 안 허고.

107005 @1 산디쫘 장만헿 밥 허는 거 곶아줍서. 산디쫘 장만허젠 허민?

107005 #2 장만허제 허민.

107005 @1 으.

107005 #2 조씨 뼈여근에 검질, 그거 크민 검질 메여근에 이젠 검질 막 그거 씨 방씨 벌영 세와근에 베짝허게 내불지 안 허영 방씨 벌영 세우민 조코고리가 나왕.

107005 @1 산디, 산디?

107005 #2 산디.

107005 @1 곤밥, 곤밥.

107005 #2 곤밥? 곤밥도 그것도 검질 메사주. 뼈영.

107005 @1 음.

107005 #2 막 검질 여남은씩 앓정 덴다 그땐. 경혜영 메여와근에, 이젠 그건 하영 같지도 못하고. 아무밋디나 그 산디가 안 웨는 따문에.

107005 @1 음.

107005 #2 흐쫘 밋 하나쫘 갈아 노민 그걸로 그자 헤 먹을 때도, 헤 먹을 때도 안 땀 땀 헤 먹을 때도 잘 아니 땀민 이젠 그거 그 곤썰 혼 사발 놓고 또시 이제 보리썰 저 보리 익어근에 파랑헌 보리, 앞썰보리 파랑헌 거 비여다근에 이젠 으물 들어가민 비여당 그 곤밥허젠 허민 곤밥이 족아부난에.

107005 @1 음.

107005 #2 그 앞썰보리, 그 보리ㄴ라 앞썰이엔 허주. 그 보리 안 익은 거 퍼령 헌 거 비여다근에 막 이제 발로 보벼근에 사름 발로 보벼근에 그거 이제 체로 치영 불려근에 체로 청 불령 그거물에 낵 숯앙 들령, 그거 반지기반. 곤썰러레 낵 그거 반지기밥.

107005 @1 그거 반지기밥예. 조팍 물어보쿠다. 조팍.

107005 #2 조팍은 조 검질 메영 씨 소팍 막 으디 하나 으디 하나헿 스파냥 영 막 커가민 고고리 나와근에 고고리가 박 영 고고리가 숙어지주.

107005 @1 으.

107005 #2 숙어져근에 익어근에 구시 월 나민 그거 비여냥 물려근에 이젠 그걸 그 고고리 툷는 거라. 호미 앓앙 가근에 영 조근조근조근 그디서 놓명 등겨냥 문딱 툷아근에 도끼로 이제 집이 왕 뜯려. 이젠 각메기 뜯로 쫘 뜯로 혜영 체로 치영근에 각메긴 쉼나 물 맥이고 이제 그 알쟁인 사름 물류와근에 곶앙 쫘 흐쫘씩 서끄명 이제 프레 헤다근에 버무령 먹고. 경헿 살앗주.

107005 @1 아.

107005 #2 프레예.

107006 @1 조팍헿 때도 프레 서껏수과?

107006 #2 으, 게나저나 그 갯굿 거 엇인 그때도 못 살앗엇어.

107006 @1 으.

107006 #2 갯굿 거로만. 요즘은 갯갯 거 허민 돈도 막 쳐 가는데 그땐 갯굿이도 돈도 아이 나고 해부난에 그것만. 그냥 날역부령 강 수정 안 집은 서넉 짐씩 바당에 가근에 건져다근에 그거 물류와근에 동산에 오라근에 막 널영 해영게 발러근에 이추룩 종이장거치 발러어근에 그거 밥 해근에 조팝이건 보리팝이건 그것에 낵.

107006 @1 으.

107006 #2 경허난.

107006 @1 갯굿 거 뭐 먹는 거라?

107006 #2 툄허고 프레게.

107006 @1 툄허고 프레예.

107006 #2 옛날엔 그 프레도, 이젠 원 프레도 엇다만은 옛날은 프레에 바닷물에 가민 그자 이불거치 탁탁탁탁 거저근에. 이젠 약 해부난 약덜 씨부난 저 물 느려와 부난 그런 거 다 엇어저베세.

107006 @1 음.

107006 #2 오염 똤근에.

107006 @1 오염 똤영예. 풋밥?

107006 #2 어?

107007 @1 풋, 풋 낵 밥 행 먹읍니까, 풋?

107007 #2 풋 낵 밥 안 해 먹는다. 풋은 기자 해당 뽕앙 죽 썰 물로 오래 먹젠.

107007 @1 아.

107007 #2 물해근에 죽 씨근에 기자 쫄 서너 방울 놔근에 수정 하도 기자 하영 못 거려근에. 하영 거리젠 해도 어디 셔. 기자 공기로 하나씩 다 먹영 살앗주.

107008 @1 풋은 게난 밥 안 행 먹엇구나예, 죽으로만. 피밥 알아지쿠과?

107008 #2 피밥은 이디 안 허고 저 송당 사름은 피 허고. 이딘 조허고 믈물허고 보리허고.

107009 @1 아, 피밥 안 해 먹고예. 감저밥?

107009 #2 감저밥은 이디도 감저밥은 해영, 쫄 흐끔은 낵 감저 하영 썰영 놔근에 그냥 솟디 낵 딱딱허게 찍어근에 익으민 푸닥푸닥허게 범벅거추룩 거리멍 먹엇주.

107009 @1 감저밥 혈 때 쫄은 보리쫄?

107009 #2 그건 보리쫄 아니주. 좁쌀.

107009 @1 좁쌀.

107009 #2 저 감저 혈 때 고실리난.

107009 @1 그럼 감저 찢 때 좁쌀이랑 ㄴ치 낵 해불어?

107009 #2 감저 찢 때 좁쌀이영 ㄴ치 낵. ㄴ치 낵 막 솟아가민 밥도 범벅도 똤고 경 흐 숟가락씩 거렁 먹는 거.



107009 @1 으.

107010 @1 아까 못팍 얘기해신디 무밥도 해 먹엇수와 무밥?

107010 #2 무우밥도 막 해 먹엇주게.

107010 @1 무밥 어떻 헉니까, 무밥?

107010 #2 게 쓸 흐설 놔근에 무우 좀질이 썰어근에 그 밥 해가민 바글바글 웨여가민 그 무수 솟더레 탁 비와근에 휘휘 젖어근에 이레착저레착 막 돼게 놔근에 그거 경허멍 거리멍 먹고.

107010 @1 무밥 헉 때 물은 더 넣고 덜 넣고 그런 건 엇고?

107010 #2 예, 물은 마찬가지로.

107010 @1 마찬가지로?

107010 #2 무운 저 물 나는 거난.

107010 @1 물 나는 거난예. 물 적게.

107010 #2 물 나는 거난 흰 엇이 지장 엇어.

107011 @1 툷밥?

107011 #2 툷?

107011 @1 예, 툷밥?

107011 #2 툷은 물 안 나는 거난 물 흐설 낮게 놔근에 흐설 익듯 허게 해근에 툷 문작 삶아근에 놔근에 것도 밥 솟더레 낱 휘휘 젖엉. 게민 아기덜은 저거 안 먹크라, 안 먹크라 해도 안 먹으민 죽넌 허멍 먹으라 먹으라 해낫주.

107011 @1 쓸을 모녀 삶읍니까? 보리쓸을 모녀 삶아?

107011 #2 으, 아니아니 막 툷 오래 삶아사.

107011 @1 아.

107011 #2 막 오래 삶아사 거쓴 안 익어. 이제 강 툷 해 오라도 막 팔려사. 경해사 툷씩허주.

107011 @1 게민 툷을 모녀 삶아난 다음에 보리 낱 ㄴ치 밥 허는 거라예?

107011 #2 으, 툷은 모녀 삶앙 장탱이 커둬수록 건지멍 물 짜사 툷씩툷씩 허는 거난.

107011 @1 음. 툷도 해나고 패밥도 해낫수과?

107011 #2 패밥 해낫주. 패밥도 그추룩 허여.

107011 @1 그추룩?

107011 #2 패 삶앙.

107011 @1 삶앙.

107012 #2 패밥도 허고 또시 패 메여다근에 못, 거 검지 데껴부는 거 으만씩 헉 거 밧디 과작허게. 이젠 약 처부난 이런 못씨 엇주만은 못이 퍼렇게 나오주 봄 나가민 경허는 거 몬 파다근에 그거 몬 팔려가멍 솟디서.

107012 @1 으.

107012 #2 막 물 냄겨 가멍, 독헌 물 냄겨 가멍 다시 거려 놓멍. 영 좁아 먹어

뽕 햏뽕 돌코롬허민 거려내근에 밥 버무렁.

107012 @1 아 저기.

107012 #2 막 독헌 거.

107012 @1 밥 햏가뽕 물 더 뽕가뽕 경허는 거마씨?

107010 #2 아니 거시기 솟을 때, 뽕, 뽕.

107010 @1 아, 뽕 솟을 때.

107010 #2 으. 뽕은 검질이주 그거 데껴부는 거.

107013 @1 으, 으. 이젠 밥, 밥 만들어시킨 이젠 국 허कु다예. 국. 국에 종류에  
는 뽕신 국이 잇수과?

107013 #2 그뽕 뽕뽕허고 메역.

107013 @1 뽕뽕국, 메역국. 두 개뽕.

107013 #2 것뽕이주게.

107013 @1 거뽕예.

107013 #2 우리 저 저 거세기 저 메역 즈물양 햏녀덜 즈물안에 저 햏동 햏교  
세와세게.

107013 @1 아, 메역 즈물양 세운 것과?

107013 #2 으. 첨 재미난 집이라. 햏교 엇어부난게. 이제 메역은 미색이 나고 우  
리 메역 즈물아근에 햏교 세웁자 햏영 햏망덜 햏에 저 다 들영 우리가 저 즈물양  
저 집 짓어서.

107014 @1 예. 햏나씩 물어 보कु다예. 뇨물국 끓이젠 허민 어떻햏니까?

107014 #2 뇨물국 끌리젠 허민 뇨물국은 쉬웁주게.

107014 @1 예.

107014 #2 물 삭삭 꺄여가민 햏장 카 뽕근에 그레 곤 뇨민 뇨물사 곤 익는 거  
난 뽕신.

107014 @1 예. 물 끌여가민 햏장 뽕 그 다음 뇨물 뽕. 다시물 햏은 건 안 햏  
교?

107014 #2 다시물 햏게 메르치 살 돈이 이시냐?

107014 @1 으.

107014 #2 메르치 사샤 다시물 햏 건디 그런 돈이 어디 셔.

107015 @1 으. 콩나물국 끓여주십서. 콩나물국?

107015 #2 콩나물국도 마찬가지라.

107015 @1 으.

107015 #2 콩나물 끌릴 때도 저 거세기 콩나물은 물 언 때 뽕근에 오래 솟양  
끌려사, 장 뇨고 햏근에 오래 솟양 끌려사. 뇨물은 기자 알른 거난 곤 뇨민 익어불  
고.

107015 @1 콩나물은 물 언물에 ㄱ치 뽕 끓이는 거고, 예?

107016 #2 뽕뽕국도 경햏고.

107016 @1 으. 무국. 아까 무밥도 해먹고 국도 해 먹었수과?

107016 #2 으. 무국도 그추록. 저 거시기 허는 거주게. 물 삭삭 꿔민 그레 들이 처근에.

107016 @1 으.

#107016 2 빨리 익는 거난 그자 장 놓고 물 놓고 행 꿔여가민 흐썰만 솟으민 익어부는 거난

107017 @1 다음은 콩국이우다. 콩국?

107017 #2 콩국은 오래 끌려사.

107017 @1 오래 끌려사.

107017 #2 막 저 콩이영 물이영 놔근에 오래오래 젓으멍 푸글푸글 해가민 무수도 낱 먹을 때 씻고 누물도 낱 먹을 때 씻고 경해낱주.

107017 @1 음. 콩국 끓이젠 허민 그 물 끓일 때에 콩ㄱ를 놓읍니까?

107017 #2 물 끌리기 전이 막 콩을 물에 다라에 낱 솟디 낱 막 휘휘 젓엉 막 병탱이 앓지게 행 그 콩을.

107017 @1 콩ㄱ루인 거지예?

107017 #2 으?

107017 @1 콩ㄱ루 넣는 거지예?

107017 #2 콩ㄱ루로.

107017 @1 예.

107017 #2 게난 콩ㄱ루가 막 더디 익는 따문에.

107017 @1 으.

107017 #2 그건 콩은 거쑈 못 먹어 막 오래 솟아사.

107017 @1 오래 솟아사.

107017 #2 딸려사.

107017 @1 으.

107017 #2 경헨 다 솟아져가민 무우 들이처근에 솟다근에 거려당 먹어.

107017 @1 간은 뭐로, 웬장 낱?

107017 #2 웬장게. 뭐 옛날엔 집이 다 웬장, 집마다 시난게. 웬장, 간장. 웬장 놓고프민 웬장, 간장 놓고프민 간장. 이젠 다 사당 먹주만은.

107018 @1 호박잎국은 어뎡 끓였수과?

107018 #2 호박잎국도 물 끌어가민 놔근에 장 낱. ㄱ루 놓고 행 먹는 거주. 호박잎국은 ㄱ루 엇시민 못 먹어. 까룩까룩 헨 찢러부는 게 셔 호박잎은.

107018 @1 음. ㄱ루 낱. 무슨 ㄱ루 놔?

107018 #2 아무 ㄱ루라도 믈물ㄱ루 놓나 그 믈물 곱아난 느쟁이 ㄱ를 놓나.

107018 @1 으, 느쟁이 ㄱ를 놓나.

107018 #2 나쁜 ㄱ루, 그런 걸 놓나.

107019 @1 으. 모자반, 뭇국 끓여 줍서, 뭇국.

107019 #2 으?

107019 @1 뭍죽?

107019 #2 뭍은 막 숲아좌근에 이제 끓여사 건 막 더디 익는 때문에. 뭍 숲앙 다라에 커둠수록 접질멍 국 끌렁 먹젠 허민.

107019 @1 음.

107019 #2 이제 그걸 삭삭 꿰여가민 좌근에 그냥 곤 맞춥 먹는 거.

107019 @1 음. 그 저기 꿰지 끓여난 물에?

107019 #2 으?

107019 @1 꿰지 숲아난 물에?

107019 #2 그때사 꿰기 어디 성 숲느니게.

107019 @1 그냥, 그때는?

107019 #2 것도 장죽이주게.

107019 @1 장죽에도 그냥.

107019 #2 꿰기 옛날엔 꿰기 일년 넘어 가도 추럼 흔 번 안 해낫저. 일년 넘어 가도 도새기 흔 번 잡을 생각을 안 해여. 제서 때에 그자 어디 장에나 어디 좌근에 요만이 갈라당 적이나 해낫주.

107019 @1 음.

107019 #2 먹어 보진 못허고.

107019 @1 음. 게난 뭍죽 끓일 때도 그냥 장죽으로 뭍죽 끓여 먹엇구나예?

107019 #2 으.

107020 @1 식게 해 먹젠 허민 생선국 끓영 험지예?

107020 #2 생선국 끌렁 험주게.

107020 @1 예, 생선국은 무슨 생선 낱?

107020 #2 무슨 생선, 아무 생선이라도 자리도 좌근에 제 때에 끓이고.

107020 @1 예, 자리도 제 때 써 낫수과?

107020 #2 이 비닐 신 건 다 생선이엔 허주게.

107020 @1 으.

107020 #2 게민 자리국 끌렁, 엇인 사름은 자리국 끌리고 허고 신 사름은 우럭 도 사당 끌리고 불락도 사당 끌리고 허주만은.

107020 @1 음.

107020 #2 신 사름은 이제 우럭 같은 거, 오토미 생선으로 끌리고.

107020 @1 오토미, 오토미 생선이라고 헐 거?

107020 #2 으, 별경헌 거.

107020 @1 별경헌 거. 돔예?

107020 #2 거 그거 아무나 못 먹나, 제서 때도 아무나 못 먹어. 막 그 때도 비 싸고.

107020 @1 오토미 생선국 끓이젠 허면 어떻게 물부터 끓영.

107020 #2 그거 오토미 낱 팔려근에 카시 만딱 거 오토미 카시 털엉 데껴더근  
에 그 솔로만 해근에 체로 막 쳐근에 가시 하나토 안 들게 해근에 그냥 메역 뽕앙  
놔근에.

107020 @1 음.

107020 #2 쟁거리 허는 거.

107020 @1 쟁거리 허는 거예. 생선을 물 끓을 때 넣는 거?

107020 #2 생선은 익는 거난 켜 때나 아니 켜 때나 아무 때라도.

107021 @1 아무 때나예. 메역국 끓이쿠다. 메역국.

107021 #2 메역국도게 저 거세기 건 물 언 때 놔도 좋고 더운 때 놔도 좋고 아  
무 때 놔도 좋은 거여게.

107021 @1 음.

107021 #2 아무 때 놔도 그자.

107022 @1 음. 냉국은 어떻 끌러놔수와 냉국?

107022 #2 어떻 끌러?

107022 @1 예.

107022 #2 메역국?

107022 @1 아니 냉국?

107022 #2 냉국. 저 장항에 장 거려다근에 장 영영영 사발에 낱 데겨근에 그냥  
그 늘 장 그냥 물러레 국 사발러레 거려 낱 휘휘 젓엉 먹어세게. 들에도 가민 경허  
고.

107022 @1 음.

107022 #2 들에도 가민 경허고 집이서도 경허고.

107022 @1 음.

107022 #2 냉국이엔 현 건 그거주.

107022 @1 뭐 안 썰어 낱?

107022 #2 아니아니 썰어 놀 게 셔게 무시거.

107022 @1 뭐 새우리라도?

107022 #2 새우리야게 시민 썰꼭 엇으민 말곡. 새우리 낱집마다 흥썰썰 으만썰  
은 다 집집마다 셔 낱주게. 거 반찬해 먹젠 허민.

107022 @1 반찬해 먹젠 허민예.

107022 #2 거 새우리 토크우민 최고주.

107023 @1 예. 성게국 어떻 끓입니까, 성게국?

107023 #2 성게국은 이제사 성게 나는 거난 옛날에 성게 소문도 못 들었저. 그  
때 흠치 성게가 구경도 못해놔어. 이제난 성게 잇주.

107023 @1 음.

107023 #2 성게 아니 나.

107023 @1 게민 이제 어떻 끓여?

107023 #2 이제. 것도 물 팔팔 끌려근에 성게 들이쳐근에 미역 놓민 먹는 거.

107023 @1 성게 먼저 들이쳐, 미역이랑 꺾치 봐?

107023 #2 꺾치 봐도 돼고. 성게 막 물른 거난 게 곧 놓민 익엉.

107023 @1 보말국 끓여 줘서, 보말국.

107023 #2 보말국도 언물에 놔근에 끌려근에 메역 썰엉 놔 먹곡.

107023 @1 아 저기 보말을 그냥 언물에 봐?

107023 #2 으, 저 보말 삶아사 삶앙 내영 봐사 끝일 거 아니라게.

107023 @1 으.

107023 #2 익은 거난게.

107023 @1 으.

107023 #2 게난 물에 들이쳐근에 삶다근에 꿔여가민 메역 썰어놔근에 곧 맞추  
명 먹으민.

107023 @1 곧 맞추명예. 가시리국 잇어낫수과?

107023 #2 가시리국은 저 거시기 거쑈 안 익는 때문에 오래 끌려사.

107023 @1 오래 끌려사예. 이것도 딱로 삶아난 다음에?

107023 #2 아니, 가시린 삶지 안 해영 그냥 들이쳐. 오래, 오래 삶으민.

107023 @1 그냥 들이쳐. 너패국?

107023 #2 너패국은 너패 해다근에 삶앙 그릇에 놔둬수록 거리명, 삶은 거나 거  
리명 그자 물러래 들이쳐 그냥 꿔민 먹는 거주.

107023 @1 예.

107023 #2 너패엔도 잘 알암신게.

107023 @1 예, 여기 다 나왔수다.

107023 #2 너패 다 나와.

107023 @1 예. 너패 삶아 뒷당 밥도 해먹고.

107023 #2 으, 오래 삶아. 건 역불 딱로 삶아사 현다.

107023 @1 음 딱로 삶아사예.

107023 #2 딱로 삶아사 맛도 싯고.

107023 @1 푼레국은 어떤 것과, 푼레국?

107023 #2 푼레국은 그 시에 곧 놔근에 거렁 먹는 거주.

107023 @1 물 꿔는 디 그냥 놔?

107023 #2 으.

107023 @1 그럼 이런 것도 곧 헐 때는 다 웬장이라?

107023 #2 건 이녁 식미대로. 웬장 먹고장 허민 웬장, 간장 놓고장 허민 간장.

107023 @1 으, 간장.

107023 #2 그땐 간장도 미삭 허고, 웬장도 미삭, 이녁냥으로 허난. 이젯장은 상  
당 먹는 때문에 맛 엇고.

107023 @1 물꿔, 그때 먹어난 물꿔에는 뭐가 잇수과?

107023 #2 물웨 아니 봐 난다?  
 107023 @1 아니 알아집니다. 뭐 잇수과?  
 107023 #2 붉은 것도 씻고 푸린 것도 씻고.  
 107023 @1 아니 물웨말고.  
 107023 #2 뭐?  
 107023 @1 물웨, 웨, 웨. 자리물웨.  
 107023 #2 자리물웨.  
 107023 @1 예, 물웨.  
 107023 #2 자리물웨 자리 사당 데멩이 그차 데껴불고 가시 다 그차 낱 막 그차 불민 으만이베긴 안 허난 그거 반지룩케 비늘 헤더근에 가시 원 엇이 헤근에 손탁 손탁 썰어근에 물웨 행.  
 107023 @1 음.  
 107023 #2 가시 원 안 들게.  
 107023 @1 가시 원 안 들게예. 게민 물웨 만들앙 먹엇던 거 자리도 잇고, 물웨 또 뭐, 물웨 뭐로 또? 한치 물웨도 잇엇수과?  
 107023 #2 한치물웨?  
 107023 @1 예.  
 107023 #2 우린 그런 거 안 먹어난.  
 107023 @1 아. 안해난?  
 107023 #2 이디 한치가 어디 시니?  
 107023 @1 으, 엇어예?  
 107023 #2 육지나베끼.  
 107023 @1 게민 여기서 잡아지는 거 어랭이로 물웨 헤 먹고?  
 107023 #2 어.  
 107023 @1 어랭이 헤 먹고?  
 107023 #2 어랭이, 볼락 다.  
 107023 @1 볼락도 헤 먹고예?  
 107023 #2 으.

### 죽류

107024 @1 죽, 죽. 죽 종류에는 뭐 잇수과?  
 107024 #2 죽, 꿩기라 뭐라?  
 107024 @1 죽 썬 먹는 거?  
 107024 #2 죽 썬 먹는 거.  
 107024 @1 으.  
 107024 #2 죽 썬 먹는 거 거 뭐. 좁쌀도 낱 제기 쭈젠 허민 좁쌀도 혼 직 거려 다 낱 썬 먹고.

107024 @1 음.

107024 #2 믱물썰도 먹고정 허민 이녁 식미대로 혼 줌 거려당 낭 먹고.

107024 @1 음.

107024 #2 썩지민 먹곡, 경허는 거주.

107025 @1 아, 믱물썰도 혼 직 놓고예. 곤죽 어떻 끌려신지 곤죽 끌려줍서.

107025 #2 곤썰죽?

107025 @1 예, 곤썰죽.

107025 #2 곤썰죽은 거 곤썰 찢엉 그레 놔근에 젓이멍 젓이멍 놀카부덴 젓이멍  
 솟아근에, 솟다근에 그 썰 다 풀어지민 먹는 거주.

107025 @1 으, 썰 다 풀어지민예?

107025 #2 으.

107025 @1 물 레민 놓는 거, 썰은?

107025 #2 아니 언 때 놔도 댜.

107025 @1 언 때 놔도 댜 거.

107025 #2 언 때 놔근에 젓으멍 솟아사.

107026 @1 조도 죽 헤 먹읍니까?

107026 #2 조도 죽 헤 먹지.

107026 @1 거는 조죽은 어떻 끓읍니까?

107026 #2 것도 그추룩.

107026 @1 으.

107026 #2 좁쌀 거려다 놔근에 기자.

107026 @1 으.

107026 #2 저 놀카부덴 그자 남죽으로 영영영 행 젓으멍.

107026 @1 남죽으로예?

107026 #2 으.

107026 @1 남죽?

107026 #2 집집마다 시난.

107026 @1 집집마다 시난. 지금 남죽 잇수과? 옛날 썩난 남죽.

107026 #2 옛날 썩난 남죽 다 데껴벤 엇어.

107027 @1 예. 팻죽 끓여줍서, 팻죽

107027 #2 팻죽도 그거주.

107027 @1 으. 팻 솟아야 댜 거 아니?

107027 #2 으?

107027 @1 팻 솟아야 댜 거 아니?

107027 #2 으, 팻 솟아근에 데겨근에.

107027 @1 으.

107027 #2 그레 썰 놔근에 물 마창 바글바글 딸리다근에 거렁 먹주.



107027 @1 으. 다 ㄴ치 낱, 데긴 거 다 흠치 낱 끓여?  
 107027 #2 으.  
 107027 107027 @1 그 데기는 건 어디 낱 데집니까?  
 107027 #2 그 솟디서.  
 107027 @1 솟디서 남죽으로 막 문질러.  
 107027 #2 아니게 밥자로. 옛날에 이만이 현 밥자 쉼 밥자덜 집집마다 다 서 나  
 세계.  
 107027 @1 으.  
 107027 #2 그 밥자로 문더겨 가민 문짜.  
 107027 @1 예, 문짜 풀어져예.  
 107027 #2 영장, 영장나도 그 팔죽 썩 가고.  
 107027 @1 아 영장 나도 팔죽 썩 가고?  
 107027 #2 영, 영 사돈침이 영장나민 허벅에 쫓죽 질어 강 뻘엿주.  
 107028 @1 콩죽 끓여줍서, 콩죽?  
 107028 #2 으, 콩죽?  
 107028 @1 예.  
 107028 #2 콩죽은 오래오래 팔려사. 미르생이 ㄴ루 낱.  
 107028 @1 ㄴ루 낱?  
 107028 #2 으, 콩죽은 ㄴ루주게.  
 107028 @1 ㄴ루 낱예.  
 107028 #2 그거 은물에 낱 막 젓영 놀지 말게 막 젓엇, 젓엇 허명. 그거 안 젓  
 으민 둠비허민 놀어근에 놀어벤 안 돼주게. 막 젓어야.  
 107028 @1 음.  
 107028 #2 경허민 폴폴 해가민 거 송키 낱.  
 107029 @1 끓으민 송키 낱. ㄴ물죽 끓여 줍서. ㄴ물죽.  
 107029 #2 ㄴ물죽도 물 켜민 그레 들이쳐근에 ㄴ물쫄은 약헌 거난 흐썰만 슴으  
 민 돼여, 죽이 돼여.  
 107029 @1 음 흐썰만.  
 107029 #2 들이쳐 흐썰만 북각북각 켜민 먹을 거.  
 107029 @1 아. 금방 끝으는 거라예 ㄴ물죽은?  
 107029 #2 금방 건.  
 107030 @1 녹, 녹디로도 죽 끓여먹지 안 헛수과?  
 107030 #2 녹디로도 헛주. 쫓죽거치게.  
 107030 @1 쫓죽거치.  
 107030 #2 데겨 낱.  
 107030 @1 예, 예. 녹두죽 끓이젠 허민?  
 107030 #2 거 쫓죽거치 허는 거.

107030 @1 풋죽거치. 솟아가지고 그냥 냄비서 데경.  
 107030 #2 으, 막 데경.  
 107030 @1 데경, 거기에 물 낵 쓸 낵 ㄴ치 끓여부는 거예?  
 107030 #2 으.  
 107031 @1 득죽?  
 107031 #2 득죽은 저 거세기 막 물 놔근에 딸려근에 그거 득 막 베삭허도록 딸려놔근에 건정 먹고장 허민 건져불고 또 죽은 물 놔근에 썰 먹고.  
 107031 @1 으.  
 107031 #2 득은 득대로 먹젠 허민 득대로 먹고 그레 치저 놔근에 죽더레 치저 낵 먹젠 허민 치저 낵 먹고. 이녁 식미대로.  
 107032 @1 쟁죽도 끓영 먹어놋수과?  
 107032 #2 어?  
 107032 @1 쟁죽?  
 107032 #2 쟁이죽도 먹주.  
 107032 @1 쟁이죽.  
 107032 #2 쟁이죽.  
 107032 @1 쟁이죽 끓이젠 허민?  
 107032 #2 쟁이 잡아, 바다에 강 잡아다근에 도깨통에 독독독독 두드려근에 못 아근에 즈질이 못아 낵.  
 107032 @1 음.  
 107032 #2 이제 그레 영 물, 도깨통더레 물 놔낵 딸라 낵 또시 못고, 또시 못고 물 놔 낵 또시 못고, 또시 못고 허민 해영케 그 팡만 남아.  
 107032 @1 음.  
 107032 #2 그, 경허민 건 데껴부는 거.  
 107032 @1 데껴부는 거. 게민 물은 죽 끌리는 데 놓고.  
 107032 #2 으.  
 107032 @1 거기에 쓸 낵?  
 107032 #2 쓸 낵.  
 107032 @1 거기에 곤쓸 놓는 건 아니지예. 곤쓸 놔?  
 107032 #2 곤썰이 어디 시느니, 식게 행 먹젠 헤도 엇인디.  
 107032 @1 하하.  
 107032 #2 쯔썰이주, 쯔썰.  
 107032 @1 아, 쯔썰. 게민 아까 죽 끌리는 디 콩죽이나 풋죽이나 다 쯔썰 놓는 거?  
 107032 #2 으, 쯔썰.  
 107033 @1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죽 끓여 먹어난 거 잇수과?  
 107033 #2 그것베낵 몰라.

107033 @1 그것베긴 몰라. 예.

### 범벅과 수제비

107034 @1 범벅, 범벅들 해먹엇잖아예, 범벅?

107034 #1 범벅은이.

107034 @1 무슨 종류가 잇수과?

107034 #1 게 믱물, 주로 이제 믱물범벅허고이 믱물범벅에 그 고구마 썰어 놔근  
에 범벅을 많이 해, 거 맛이 좋나. 그리고 따시 대축 범벅이란 게 잇어저.

107034 @1 으.

107034 #1 대축 거 수수대축. 그건 이딴말, 제주도 말론 수수대축은 비차락 만  
드는 게 수수대축인디 종지대축이란 게 잇어저, 빨간 거 종지대축.

107034 @1 종지대축?

107034 #1 으. 거 막. 종지대축. 거 막 찰진 거여.

107034 @1 예.

107034 #1 그 범벅이 최고 맛 좋나, 거.

107034 @1 대축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

107034 #1 사당대축.

107034 @1 사당대축.

107034 #1 강낭대축.

107034 @1 강낭대축.

107034 #1 종지대축.

107034 @1 예. 그렇게 세 개예?

107034 #1 그거 허고 또 다시 이제 그, 아까 그 비차락 멘드는 거 그.

107034 @1 수수?

107034 #1 으, 수수. 수수대축.

107034 @1 수수대축. 네 종류로 아까 범벅해 먹는 건.

107034 #1 범벅해 먹는 건 믱물, 믱물허고.

107034 @1 예.

107034 #1 대축, 그 종지대축.

107034 @1 종지대축.

107034 #1 찰진 거, 찰진 거.

107034 @1 아, 믱물 냥 범벅해 먹을 때는 거기에 감자 넣?

107034 #1 으. 감자 주로. 감자 안 노민 맛이 엇주게.

107034 @1 예.

107034 #1 감저 봐야 맛이 더 좋고.

107034 @1 감저영 믱물ㄱ루.

107034 #1 으. 믱물ㄱ루. 그것은 믱물 범벅.

107034 @1 예. 아까 종지대축 헐 때는?

107034 #1 종지대축은 거 집집마다 아니 허기 때문에 건 상당히 희귀헌 거주.

107034 @1 예.

107034 #1 계난 거 특별히 맛있는 거다. 막 출진 거.

107034 @1 계만 그거 헐 때도 감저 놓고?

107034 #1 건 감저 안 놔, 안 놔.

107034 @1 아, 그것만 놔 가지고?

107034 #1 으.

107034 @1 기민 종지대축을 어떻행, ㄴ루 내와가지고?

107034 #1 그건 ㄴ루, ㄴ루 종지대축을 헛다가 막대로 다 못아근예가 만든.

107034 @1 그 줄기를 뭇는 거마씨, 아니면 우에 뻗힌 걸?

107034 #1 우에 뻗힌 거 뭇는 거. 우에 뻗힌 거.

107034 @1 아.

107034 #1 고고리가 영.

107034 @1 고고리?

107034 #1 고고리가 타박허게 동글랑헌 게 타박허게 뻗저.

107034 @1 예.

107034 #1 그거 헨 고고리 우이로만 타당 물리와가지고서이.

107034 @1 예.

107034 #1 겐 명석에서 우리가 마께로 이렇게 털영 부수와가지고서 게가지고서 그거 쫄, 쫄 다 뿔 거 아니가이.

107034 @1 예.

107034 #1 쫄거치 허면은 기계빵에 강 곴아, 옛날에는 돌궤레에 다 곴아신에.

107034 @1 예, 예.

107034 #1 돌궤루에 곴아가지고서 그렇게 헨 범벅해 먹어놔저.

107034 @1 아, ㄴ루?

107034 #1 으, 그리고이 믋물도 마찬가지로 돌궤루에 다.

107034 @1 예. 어쨌든 종지대축도 우이 쫄 같은 게 열리는 건게.

107034 #1 으, 으. 그거 가지고.

107034 @1 아, 그거 가지고예. 그거 곴앙 범벅해 먹은 거예.

107034 #1 으.

107035 @1 저기 츠베기?

107035 #1 츠베기논이 믋물츠베기허고이 밀츠베기. 주로 그거 헛주. 다른 츠베기 었다.

107035 @1 믋물츠베기 밀츠베기.

107035 #1 밀츠베기.

107035 @1 믋물은 갈앗고 밀은 어떻헛수과?

107035 #1 밀도 같았저 옛날은. 많이 같았주 이디 옛날에 밀을.  
 107035 @1 아, 밀도 같고.  
 107035 #1 밀도 같아나세. 계난 제서에 쓰기 위해선 밀을 안 갈 수가 었어났주게. 제서에 상웨떡도 해야 되고 뭐 허기 때문에.  
 107035 @1 으.  
 107035 #1 재래식, 재래밀을 갈아났저.  
 107035 @1 으. 그, 그럼 즈베기 헤 먹을 때는 안에 뭐뭐 득 아니, 썩 거튼 것도 놓고마썸?  
 107035 #1 계난 썩 거튼 거는 절사 때나 경혈 때나 썩 놓고 허지.  
 107035 @1 으. 절사 때가 뭐과?  
 107035 #1 절사 땀 뀘인가 그 뀘인가 뀘인가 팔월 추석이나 그런 때에 그렇게.  
 107035 @1 아.  
 107035 #1 돈이 들어도 사다근에 맛있게 먹젠허민이 그 썩 놔, 삶은 그 물에 썩 고기영 ㄱ치 해근에가 국수행 놓민 더 맛 좋주게.  
 107035 @1 으.  
 107035 #1 그렇게, 그렇게 행 먹어났저.  
 107035 @1 으. 기민 므물츠베기에 들어 잣엇던 거 썩고기, 썩고기 정도지예, 다른 건.  
 107035 #1 으. 다른 건 엇다. 그때는 소고기 같은 것도 귀해부난이.  
 107035 @1 으.  
 107035 #1 썩이 그때 많이 잡아젓주.  
 107035 @1 그지예 썩고기 낱 헛지예.  
 107035 #1 으.  
 107036 @1 칼국수는 어떤 거라?  
 107036 #1 칼국수는 므물을, 므물을 ㄱ루해가지고서이 이렇게 밀어가지고이 그 낱 줄, 영 줄게 현 걸 것ㄱ라 칼국수엔 허고이.  
 107036 @1 예.  
 107036 #1 그냥 숯가락으로 떠 놓는 건 그냥 수제비 국수라고 현다.  
 107036 @1 그니까 수제비 국수를 즈베기렌 허는 거 아니?  
 107036 #1 으, 즈베기. 그걸 즈베기렌 허고 줄게 현 건 국수, 칼국수.  
 107036 @1 예. 므물ㄱ루로 행 만든 거고?  
 107036 #1 그 밀ㄱ루도 그렇게 헐 만든다.

## 김치

107037 @1 으. 저기 김치 종류, 먹어난 것만 물어 볼게예  
 107037 #1 우리 제주도에는 김치가 두 종류베끼 안 먹어났거. 왜냐면 배추김치 허고이 그 뀘인가 무수김치 그것베끼. 다른 건 뭐 헤 먹어난 거.

107037 @1 뭐 파김치도 행 먹어나고 썩마농 김치 같은 거 안 먹어났수과?

107037 #1 그 썩, 썩마농 김치 그런 것도 행 먹어났저. 그 드룻늑물을 캐다가이.

107037 @1 으.

107037 #1 드룻늑물 빨리.

107037 @1 으.

107037 #1 밧디 그자 드룻늑물은 사람이 재배 안 허는데 그것이 막 아주 딱딱 허주게.

107037 @1 으.

107037 #1 그것 빨리헤가지고서 들류왕 그 장물에 커 가지고서 지시헤가지고서 그거 먹고.

107037 @1 으.

107037 #1 또 콕테사니 지시행 먹고.

107037 @1 으.

107037 #1 그렇게, 여름 반찬은 그렇게.

107037 @1 경 행 먹어난예?

107037 #1 으.

107037 @1 배추김치?

107037 #1 으 배추김치허고 그 뭐인가 무수김치허고

107037 @1 으.

107037 #1 또 다시 그, 그 저 그 김치. 아까 드룻늑물 헤다가.

107037 @1 썩마농김치?

107037 #1 으, 썩마농김치 그렇게.

107038 @1 게민 배추김치 헤 먹젠 허민 배춘 어떻 갈앙 헤났수과?

107038 #1 배추는 이 중간에사 갈기 시작헤근예, 옛날에는이 그냥, 그냥 헤가지고서 제라헌 김치를 안 헤가지고서 임시, 임시 그렇게 행 먹엇주게.

107038 @1 으.

107038 #1 게난 이제는 배추김치 헤근예 겨울내낭 먹주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헤 낫저.

107038 @1 그럼, 옛날에 김치 만들어난 거 봐나실 거 아니예. 배추 사당, 함덕 배추 사당 먹엇수과, 아니면?

107038 #1 그 옛날은 이디 배추 거 나기 전이는 그냥 그 우, 우영에 가는 걸로 그 포기가 안 앓는 거주.

107038 @1 으, 안 앓는 거.

107038 #1 기냥 그 캐다가 물에 잘 씻어근예가 소금에 절일 거 아니가.

107038 @1 예.

107038 #1 게근예가 그 마늘허고이 양념이 그 뭐인가 마늘허고 그 생각은 귀혜 부난 주로 마늘만 낱 헛주. 콕테사니이.

107038 @1 어.

107038 #1 콧데사니 못앙 놓고 고춧가루 농곡 해근에 그렇게 해서 간단히 행 먹었주.

107038 @1 지금은 김치허젠 허민 고춧가루 양념을 따로 허잖아예?

107038 #1 따로 허고 또 이제 뭐인가 젓갈도 요새 들어가고 허는디 옛날엔 젓갈 엿이 경해도 맛이 있어주.

107039 @1 아, 엿이 해도. 예, 예. 그민 열무김치 같은 거는 안 해 먹어났수과?

107039 #1 열무김치, 무사 여름엔 행 먹어났저.

107039 @1 어.

107039 #1 여름에 시원허게 그냥 해가지고 시원허게 그 뭐인가 그 해가지고서 여름 거든 뎨이 배추보단도 열무김치 해가지고서 많이 그걸로 국행 먹고 냉국행 먹고 해났저.

107039 @1 아, 거 김치헐 뎨 어떻게?

107039 #1 김치헐 뎨 마찬가지로 아까, 찻엿 소금에 버무려근예가 그 녹물이 죽 으면은 양념 놔 가지고서.

107039 @1 아, 버무령예?

107039 #1 으.

107040 @1 물김치?

107040 #1 물김치엔 헐 건이, 물김치엔 헐 거는이 국보단 국거치 시원허게 헐 것을 물김치엔 헐다.

107040 @1 으.

107040 #1 그건 좀 새콤허게 해가지고서이 그 저 초를 넣는다. 옛날에도 집이서 초를 만들어났저.

107040 @1 초도 만들어났수과?

107040 #1 으, 초도 집이서 만들앗저. 저 뭐, 옛날은 원다리로도 초 멘들아나고 이.

107040 @1 예.

107040 #1 게난 그 원, 그 물김치는이 그 초가 들어가야 시원허지.

107040 @1 예.

107040 #1 경 안허면 안 들어가. 경허영 옛날엔 다 집집마다 거 만들어났저.

107040 @1 초를 어떻 만듭니까?

107040 #1 초를이 옛날엔 그 피보리엔 헐 것이 잇저. 피보리를 누룩헤영 뉘다가 이.

107040 @1 예.

107040 #1 그걸 어떻해가지고서 그 술 담듯이 담앙, 담앙 거 오래 내불민 그것 이 막 원다 쉬어. 그민 물 툇라 내가지고서 그걸 여름에는 이제 나오는 초 대신 옛날도 행 먹어났저.

107041 @1 아, 기구나. 동지김치가 뭐과 동지김치?

107041 #1 동지김치 건 그 겨울에 먹는 건데이, 동지김치엔 현 거는이 그 요새 그 조그만씩헌 요만씩헌 무수 잇잖으냐이?

107041 @1 으.

107041 #1 쪼그만 현 거이. 그것ㄴ라이 그런 걸 갈랑 현 것ㄴ라 동지김치엔 경 이름을 헛주.

107041 @1 만드는 방법은 ㄴ틀 거고예.

107041 #1 으, ㄴ틀 거고.

107042 @1 무김치?

107042 #1 무김치가 아까 그 무수로 허는 게 무김치주. 젓도 또 ㄴ튼 거.

107042 @1 아. 그거 꺾두기랑.

107042 #1 꺾두긴 옛날에 안 해 먹어났저.

107042 @1 안 해 먹언예?

107042 #1 물김치는 주로 많이 해 먹고.

107042 @1 게민 무김치 만들제 허민 무수를 어만큼씩 썰니까?

107042 #1 아, 쪼그만 허게. 알뜰게 썬다.

107043 @1 파김치? 꿩마농 김치 말앙 파김치를 딱로 해놔수과?

107043 #1 파김치엔 현 게 딱로 엇엇저. 그 뭐인가 꿩마농 김피엔 현 게 잇엇저.

107043 @1 예, 예 파김치를 꿩마농 김치엔예.

107043 #1 으, 그거 해놔저.

107043 @1 으, 꿩마농 김치예. 갯늬물 김치?

107045 #1 으, 갯늬물 김치도 해놔저.

107045 @1 으.

107045 #1 갯늬물도 캐다가이 그 아까식으로 거 그 듭그는 건 마찬가지. 그건 코가 썩허게 핑장히 거 매웁나.

107045 @1 아.

107045 #1 건 매웁는 맛으로 먹는 거.

107045 @1 아, 갯늬물 김치가.

107045 #1 으, 막 매웁나, 시원허게 매웁게.

107046 @1 아, 기짱. 새우리김치는?

107046 #1 새우리 김친 잘 안 해 먹엇저.

107046 @1 안 해 먹언예?

107046 #1 건 주로이 웬장 같은 디 반찬 허는 디 많이 새우릴 낫주. 거 김치같은 건 그때는 안 해 먹어.

107048 @1 으. 젓갈 종류예?

107048 #1 옛날에 주로 자리젓 많이 행 먹엇저.



107048 @1 자리젓 행 먹언예.  
 107048 #1 자리젓, 멜젓.  
 107048 @1 두 개뿐이라예.  
 107048 #1 으.  
 107049 @1 자리젓, 멜젓. 자리젓 어떻 만들어나신고예?  
 107049 #1 자리젓은 뭐 자리를 사다가.  
 107049 @1 한동바당에서도 사 질건가?  
 107049 #1 한동바당에서 옛날엔 거래났저. 바당에서 사다가이 자리젓 허젠 허민이.  
 107049 @1 예.  
 107049 #1 혼 말이나 말 가웃 사당이.  
 107049 @1 예.  
 107049 #1 배에서 사면은 바닷물에 깨끗이 씻나. 씻으면 집에왕 물이 빠지면은 소금에 영 버무려가지고서 멧 할 허는 건 우린 모르지만 여저덜이 알아가지고서 게서 거 그 자리가 언제 많이 나는 허는고 허면 이제가 많이 나주.  
 107049 @1 으.  
 107049 #1 이젓 자릴 젓 헤가지고서 거 일 년을 먹엇저.  
 107049 @1 으.  
 107049 #1 경허민 팔 월 출 혈 때 먹고 겨울에 먹고.  
 107049 @1 으. 자리 혼 말에 소금 얼마 놓는지는 모르고예?  
 107049 #1 건 모르켜. 여저덜 물으면 알 거여.  
 107049 @1 지금 자리 날 때라예.  
 107049 #1 으, 이제 제일, 시기가 이제 자리젓 혈 때.  
 107050 @1 예, 예. 멜젓은 어떻 만들앗수과?  
 107050 #1 멜젓도, 지금 뭐인가 멜젓은이 이젓 육젓이라고 유월전이 허민이 거 물이 돼주게. 게난 거 팔 월 나근예가 ㄱ슬 멜젓허면 그 멜이 녹지 안허여.  
 107050 @1 으.  
 107050 #1 그래서 그거 오래 먹고이. 이 으름에만 멜젓을 하영 안 헛저. 조금만 헤영 으름만 먹고. 다 녹아버리니까.  
 107050 @1 아.  
 107050 #1 거 물베끼 안 남아. 국물베끼.  
 107050 @1 국물베끼 안 남아?  
 107050 #1 으. 게난 가을에 허면은 그건 그대로 바짝허게 그냥 그 묵주. 멜이 그대로 살아잇주게 그냥.  
 107050 @1 게민 멜은 언제까지 거립니까?  
 107050 #1 멜은 시월 덜까지 거린다.  
 107050 @1 아, 시월 덜까지 거래. 지금서부터 거래기 시작허는 거마씨?

107050 #1 으.

107050 @1 그럼 지금 거린 건 여름내만 먹고?

107050 #1 으, 여름내만 먹고.

107050 @1 먹고.

107050 #1 게난 육젓이라 해가지고 요샌이 유월달 이전에 양력 유월달 현 거 육젓이엔 현 건이 거 다 녹아불기 때문에 그건 물로 그 뭐인가 김치 담는 액젓이 그거여. 액젓을 따로 푼다.

107050 @1 예. 육젓을?

107050 #1 으, 육젓으로 김치 담양 먹는 거.

107051 @1 혹시 아감젓 같은 건?

107051 #1 아가미 젓은 건 제주도는이 거 나지 안허고 육지는 아가미 젓이엔 현 거 뭐인가 갈치 아가미 젓이여 뭐이여 허주만은 이런 디서 그건 거 제주는 안 나. 그런 고기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 해봤저.

107051 @1 으.

107051 #1 육지는이 뭐 명태젓이여 무신젓이여 많이 잇주만은 제주도는 그런 젓 었고 뿔젓허고 그자 자리젓 그거 주로 그거 두 개베끼 었어.

107052 @1 두 개베끼 었어난예. 그럼 게젓 같은 것도 혹시 들어봤수과, 게?

107052 #1 게젓은이 게가 하영 안 나기 때문에 게젓은 아니 허고 게는 잡아다 가이 썬앙 죽 썬 먹엇저.

107052 @1 예.

107052 #1 경허면은 그것이 신경통에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그걸.

107052 @1 으.

107052 #1 게가 젓허게 그렇게 나지 안 허주.

107054 @1 안나, 하영 안나예. 출레라는 말이 뭐과? 출레.

107054 #1 출레라는 것은이 거 젓을 이딴말로 출레엔 현다.

107054 @1 예.

107054 #1 뿔젓도 출레엔 허고 그 자리젓도 출레엔 허고 그자 반찬으로 갯갯고기 현 걸 다 출레엔 해낫저.

107054 @1 게민 아까 뿔젓, 자리젓만 포함돼는 게 아니라 생선, 갯갯고기 현 거 반찬은 다 출레엔 걸 거예?

107054 #1 아 젓 종류만 출레.

107054 @1 아, 젓 종류만 출레. 기민 갯갯고기 구운 거라던지.

107054 #1 으, 그건 출레엔 허지 않는다.

107054 @1 아, 젓 종류만?

107054 #1 으, 젓 종류만.

107054 @1 기민 두 개밖에 없는 거다예?

107054 #1 으, 두 개밖에 었주.

107055 @1 저기 장아찌, 장아찌 만들어난, 마농지시렌 험니까, 지시?

107055 #1 으. 마농지시엔 현 거.

107055 @1 예, 마농지시예. 지시 종류는 마농지시?

107055 #1 콕데사니지시허고 패마농지시허고 그 저 무시거 그, 그 따시 무우 들  
에 파당 허는 자꾸 잊어불엄주만은.

107055 @1 예. 아까 열무 아니지.

107055 #1 알타리무 닳은 건디 들에 가근에 야생에 거 해당 물류왕 그 장물에  
뚝강 것도 많이 행 먹어났저.

107055 @1 아, 것도 지시 만들어났수과?

107055 #1 으.

107055 @1 이름은?

107055 #1 이름은 튼내지 못허커.

107055 @1 그거 짐치도 해 먹고 지시도 해 먹고?

107055 #1 아니, 짐치해 먹는 거 아니고 지시.

107055 @1 어. 못말고예.

107055 #1 못은 건 먹지 안했저 그때 못은이 막.

107055 @1 으.

107055 #1 그때 그 흥년 들 때 어쩔 수 엇이, 못은 거 독 잇고이 먹질 못헌다.

107056 @1 거민 마농지시 만들젠 허민 어떻게신지 봐 낫수과?

107056 #1 그 마농지시 허젠 허민 주로 장물에 헌다.

107056 @1 예.

107056 #1 장물 꿔와근에 허는 건디. 장물에 켜.

107057 @1 장물에 켜예. 여기 꿔 종류는 뭐 잊어났수과, 꿔?

107057 #1 회 종류는 주로 자리꿔지 자리꿔.

107057 @1 자리꿔예?

107057 #1 자리꿔 말고는 뭐 잊어났저. 이 촌에는 주로 자리꿔.

107057 @1 새끼꿔 같은 건.

107057 #1 아, 옛날 도새기새끼꿔 그거 잊어났저. 도새기새끼꿔.

107057 @1 그거 잊어난예. 바닷꿔기 자리말고.

107057 #1 바닷꿔기 송어도 꿔행 먹고 멜도 꿔행 먹고 꿔행 먹을 건 많다. 갈치  
도 꿔 행 먹고.

107057 @1 갈치도 꿔 행 먹고.

107057 #1 으, 갈치, 송어, 고등어.

107057 @1 으.

107057 #1 멜치도 꿔 행 먹고 다.

107057 @1 다 꿔 행 먹어났다예.

107057 #1 으. 거 술 먹는 사람은 그걸 좋아행 먹주만은 술 아니 먹는 사람은

보통으로 잘 아니 먹어.

107058 @1 그럼 뭐 예를 들면 봄 돼면 무슨 반찬 해 먹고 여름 돼면 무슨 반찬 해 먹고 허는 것이 ㄴ 수과?

107058 #1 아니 그런 거 따로 었다.

107058 @1 었어예.

107058 #1 특별히 봄 돼면은 그 뭐인가 마농이 많이 나니까이 마농 데왕덜 먹고 저 지금 뭐인가 쪽파덜 많이 데왕 먹고이.

107058 @1 예.

107058 #1 또 다시 뭐인가 이 콕데사니도이, 콕데사니도 연현 뎀이 그거이 막 데와근에 장에 춤지름에 미청 먹으민 그거 송키로 많이 먹고. 봄철에 그런 것이 많이 먹주게.

107058 @1 여름엔?

107058 #1 여름엔 그런 것이 었으니까이. 그냥이 아까 거 젓 해 논 거 그런 것 베끼.

107058 @1 뭐 냉국 같은 것도?

107058 #1 냉국 같은 건이 옛날엔이 집집마다 물웨를 낫저. 겐 주로 냉국헨 여름에 주로 물웨를 많이, 물웨로 모든 냉국은 허고 그거 송키로 장에 찍어 먹고.

107058 @1 으, 찍어 먹고예. 가을 돼민 뭐?

107058 #1 가을 돼민 호박이 주로 호박이 많이 먹엇저. 호박이 나니까, 호박이.

107058 @1 예. 겨울 돼민?

107058 #1 겨울 돼민 메역이니 뭐이니 호박이니.

## 장 담그기

107059 @1 예. 우리 장 많이 담강 먹어났잖아예?

107059 #1 집집마다 장 담그지. 일년 내내 장 듬앙 먹어세게.

107059 @1 그니까. 장은 주로 언제 담굽니까?

107059 #1 장은 주로 정월 초에 많이 듬는데 그 뭐인가 그 설들은 안 듬주게.

107059 @1 으.

107059 #1 경허난 정월달에 듬으면은 삼월 달부터 먹기 시작허주게. 주로 정월 달에 듬주.

107060 @1 정월에 허는 거예. 장 종류에는 웬장.

107060 #1 웬장, 그 뭐인가 간장 그것베끼.

107060 @1 게민 고추장은 안 담강 먹엇수과?

107060 #1 제주도는 고추장은 안 담가.

107060 @1 아 두 개만예.

107060 #1 으, 두 개만.

107061 @1 장 담그젠 허민, 웬장 담그젠 허민 어떻게마씨, 메주해야 웬 거 아

니?

107062 #1 게 메주를 혼 동지덜에 전부 다 메주를 쏜다이.

107062 @1 예.

107062 #1 동지덜에 다 메주를 쏘어가지고서 그걸 다 건조를 시켜. 물황이.

107062 @1 으.

107062 #1 잘 뭐인가.

107062 @1 삶는 거서부터 막 밟아 메주 만드는 거 촌근촌근 곱아줍서.

107062 #1 으, 게난 동지덜 뒤편 농서가 다 끝나니까 동지덜 뒤편 집집마다 메주를 삶나. 메주를 삶젠 허민 쿵을 다 깨끗이 씻어근에가이 그 쟁지숫 큰 두말떼기 숫이 잇저. 식구가 많은 딴 그 쟁지숫으로 두 개 삶는 디도 잇고 또 하나 삶는 디도 잇고.

107062 @1 그 숫을 쟁지숫?

107062 #1 으 쟁지숫. 그 무췌숫이 아니라 쟁지숫. 무췌숫은 혼 말베끼 이기지 못허는 것이고.

107062 @1 으.

107062 #1 쟁지숫은 큰 거주게 거 두말떼기라 해가지고서.

107062 @1 무사 쟁지, 쟁지라는 말이 뭐과?

107062 #1 그 숫 이름이 그거, 하여튼 모르켜 하여튼 쟁지숫, 쟁지숫.

107062 @1 그럼 그거는, 그거는 무췌숫이렌 안 곤는 거라예. 두말떼기예?

107062 #1 으. 두말떼긴 무췌숫이 아니라 쟁지숫이렌 햏주.

107062 @1 쟁지숫, 으.

107062 #1 그것에 삶아가지고이 하루 한 여섯, 네 시간을 삶아야 웬다.

107062 @1 어.

107062 #1 네 시간을 삶앙 그걸 이제 방에혹에서 막 뺏는다이.

107062 @1 예.

107062 #1 방에혹에서 막 뺏아가지고서 메주를 만들아서이.

107062 @1 으.

107062 #1 메주를 만들아서 산디쪽으로 그 노 꼬아서 그 메주를 해가지고 다 건조, 건조, 건조해 가지고 건조해가지고.

107062 @1 으.

107061 #1 낫다가 거 정월덜 뒤편은 거기 곱뽕이 핀 거 뭐 현 거 다 물로 씻어가지고서 그 장 톱젠 허민 날을 봐야 웬다 날을. 궂인날 허민 장이 변혈 수 있다고 해서.

107061 @1 으.

107061 #1 좋은 날 택해가지고서.

107061 @1 으.

107061 #1 장 담양, 정월덜에 담으민 삼월덜부터는 그 장이 익으니까, 혼 두어

덜 돼니까, 익으면 먹주.

107062 @1 두말떼기 솥에 삶는데 헛는데, 보통 얼마나 콩 삶아나솥과 장 담젼 허민?

107062 #1 우리 집이 보통 두말떼기로 하나 웨말떼기로 하나 그렇게 해놔주. 겐 서말을 삶주 서말을 삶아.

107062 @1 예.

107062 #1 수정이 많은 디는 두말떼기고 두 개 삶기도 허고.

107062 @1 아, 두 개 삶기도 허고예.

107062 #1 식구가 많으면 많게 허고 적으면 적게 허고.

107062 @1 그럼 콩 삶을 때 두말떼기 솥에 한 번에 두말을 다 놔?

107062 #1 으, 두말을 다, 두말 이상은 안 들어가고.

107062 @1 안 들어가고예, 두말을 다 놔. 물도 ㄱ득 넣고마씨?

107062 #1 물은 ㄱ득 아니라도 콩 우이 물이 떠야 돼는 거주.

107062 @1 떠야 돼는 거예?

107062 #1 그렇게 해근에 삶는 거여.

107062 @1 아, 그럼 한 여섯 시간쯤 삶양예?

107062 #1 으, 여섯 시간 아니 혼 네 시간쯤.

107062 @1 경헐 방에혹에 막 두드리잖아예?

107062 #1 으.

107062 @1 네모나게 만들잖아예?

107062 #1 으.

107062 @1 바로 산디쪽으로 못 묶을 거 아니?

107062 #1 산디쪽으로 다 무꾼다.

107062 @1 만든 날, 오늘 삶아시민 오늘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영 바로 메달지 못허잖아.

107062 #1 아니 바로 메달아진다.

107062 @1 아, 바로 메답니까?

107062 #1 바로 메들아진다.

107062 @1 멘들멍.

107062 #1 막 땀땀허주게 막 딱 허게 손으로 이렇게 허민 팡팡허주게.

107062 @1 예.

107062 #1 그날 메단다.

107062 @1 아 그날 메달아마씨? 그럼 물리는 건 어디서 몰려?

107062 #1 집 안에 쪽허게, 집 안에 도리에 걸어근에가.

107062 @1 예.

107062 #1 걸어근에가 그냥 쪽허게 못 박아근에 못 박앙 상방에 쪽허게 걸어.

107062 @1 예.

107062 #1 경안허민 창고거튼 디 쪽허게 걸영 그렇게 건조시킨다.  
 107062 @1 그럼 건조시키는 거 선달에 메주 만드하시난.  
 107062 #1 계속 그냥 낱 내부는 거.  
 107062 @1 내불민.  
 107062 #1 자연적으로 거 이제 트고 발화되고 건조되고 허주.  
 107062 @1 그렇게 물르는 게 시간적으로 혼 혼덜.  
 107062 #1 혼 덜 더 걸린다.  
 107062 @1 혼 덜 더 걸령예, 그민 그거 곰팡이 피고 허면.  
 107062 #1 으.  
 107061 @1 그거 씻고 나서 간장, 웬장 담그는 거예.  
 107061 #1 게난 간장, 웬장은이.  
 107061 @1 예.  
 107061 #1 웬장 듬양 다 익을 거 아니가이.  
 107061 @1 예, 예.  
 107061 #1 다 익으면은 간장을이 그 물, 웬장이 있는 물을 비와근에 딱로 허는 게 그게 간장이고.  
 107061 @1 간장이고.  
 107061 #1 메주는 메주대로 영 저 딱딱 눌러근에가 국물 엇이 그 헤다근데 퍼 덩 먹는 것이.  
 107061 @1 웬장예?  
 107061 #1 으, 웬장. 경헛주.  
 107061 @1 그 메주 담글 때 뭐 허면 안 웬다 허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어났수과?  
 107061 #1 거 금기사항은 엇는데 날, 날은 본다. 날은 본다.  
 107061 @1 메주 허는 날예?  
 107061 #1 으.  
 107061 @1 메주 삶는 날을 보는 것과, 웬장 장 담그는 날을 보는 것과?  
 107061 #1 웬장 듬그는 날도 보고 메주 허는 날도 보고.  
 107061 @1 아, 둘 다 보는 거?  
 107061 #1 으, 둘 다 본다.  
 107063 @1 날을 보는 거. 금기사항 따로 엇고예.?  
 107063 #1 으.

## 떡류

107064 @1 이제 떡 종류 물어보쿠다. 떡 종류 뭐, 뭐 잇수과?  
 107064 #1 떡은 친떡, 곤떡, 곤친떡이 잇고이.  
 107064 @1 곤친떡.

107064 #1 조친떡이 잇고이.

107064 @1 조친떡.

107064 #1 그 다음에 만뒤 떡이 잇고이.

107064 @1 만뒤떡.

107064 #1 약, 약케엔 현 게 잇고.

107064 @1 약케.

107064 #1 약케엔 현 거 잇고 솔벤, 절벤.

107064 @1 솔벤, 절벤.

107064 #1 그거 잇고 또 다시 송편도 잇고.

107064 @1 송편도 잇고예?

107064 #1 으.

107064 @1 지름떡?

107064 #1 지름떡도 잇고.

107064 @1 지름떡도 잇고예. 하나씩 한 번 물어볼게예. 아까.

107064 #1 조친, 아니 저 곤친떡.

107064 @1 으. 곤친떡은?

107064 #1 거 곤썰로 허면 곤친떡, 줍썰로 허면 조친떡이고이.

107064 @1 으.

107064 #1 그 다음에 약케엔 현 게 잇저. 약케.

107064 @1 으.

107064 #1 그거 네모난 상웨떡.

107064 @1 지진 거예?

107064 #1 그 다음에 만뒤떡 잇고이.

107064 @1 으.

107064 #1 송편이 잇고이.

107064 @1 으.

107064 #1 송편이 잇고이. 그 다음에이.

107064 @1 그 만뒤.

107064 #1 그 다음에 솔벤 잇고이. 솔벤 잇고 절벤 잇고.

107064 @1 절벤 잇고예?

107064 #1 지름떡 잇고이.

107064 @1 예.

107064 #1 또 다시 이제 독세기 알 정기도 잇고이.

107064 @1 독세기 알 전기?

107064 #1 으, 그거 마지막에 논다. 그거 노는 집이 싣고 아니 노는 집이 싣고.

107064 @1 독세기알.

107064 #1 정기.



107064 @1 득세기알 정기가 뭐라?

107064 #1 거 전 지진 거. 거, 거.

107064 @1 아, 아. 득세기알. 고사리 놓고 파 놓고 전 지진 거.

107064 #1 으, 으.

107065 @1 그럼예 친떡부터 물어볼게예. 아까 곤친떡이 잇고 조친떡이 잇어예?

107065 #1 으, 으.

107065 @1 우선은 친떡 만드는 거 헛꿈 곱아줍서. 알아지는 대로만.

107065 #1 거 친떡은이 그 뭐인가 거 친떡 시리엔 현 게 잇저, 시리.

107065 @1 예, 예.

107065 #1 아래 고망 뜰라진 거.

107065 @1 예, 예.

107065 #1 그것이 이제 ㄱ루를이 ㄱ루를 물 하쉴 놔가지고서이.

107065 @1 예.

107065 #1 붙지 않은 정도로이.

107065 @1 예.

107065 #1 잘 허껴가지고 덩어리 잘 지게 잘 풀어가지고서 현 징을 놓면이 그 위에 또 다시 뭐인가 그 현 징을 놓면은 다시 또 징을 놔야될 거 아니가.

107065 @1 으.

107065 #1 경허민 그 사이에 부트지 못허게 쫓 쉬를 놓는다. 쫓 쉬를 놓고 이제 또 아닌게 아니라 그 대썩도 놓는 디가 잇고 주로 쫓쉬를 놓주게. 쫓쉬를 낱 따시 그 우에 또 다시 현 징 놓고 두 징 놓고 헤가지고 현 시에 현 대여섯 징이 웬다.

107065 @1 으.

107065 #1 대여섯 웨여서 그걸 찌여서 시리덕을, 그걸 현 시리에 낫주, 현 시리. 그 찌 내영, 찌 내영 그 이제 다 찌지민 영 비와근에가 식으민 그 썰어가지고서 경해근에 떡을 친떡은 경허는 것이고.

107065 @1 음.

107065 #1 또 다시 약케는 약케는.

107065 @1 조친떡은?

107065 #1 으, 조친떡도 마찬가지로.

107065 @1 으.

107065 #1 조친떡도이, 게난 조친떡 반, 그 저 곤친떡 반, 조친떡 반 시릴 반반 썩 허면은 그 현꺼번에 되는 거주게. 딱로 안 쳐도.

107065 @1 그민 조친떡 현덴 허는 거는 조친떡만 허는 게 아니라 곤친떡이랑 ㄱ치 헛니까, 딱로 허기도 허고?

107065 #1 딱로 허기도 허고.

107065 @1 딱로 허기도 허고?

107065 #1 딱로 허기도 허고이, 또 다시 이젠 곤친떡에이 곤친떡 현 징에이.

107065 @1 으.

107065 #1 위에 약간 조친떡, 조 ㄱ루 영 놔가지고서 허민이.

107065 @1 으.

107065 #1 ㄱ루 영 놔가지고서, 아 조친떡을 미룻에 아래 놔가지고서 혼 장이라  
도 받은 영 곤썰로 헐 거 아니가.

107065 @1 으.

107065 #1 겨민 사람들 보기에다 다 곤친떡으로 보이거든.

107065 @1 아, 예.

107065 #1 정도 해놔저. 절약하기 위해서.

107065 @1 쓸 엇이난?

107065 #1 으, 쓸 엇이난. 경허고 또 다시 이제는 아까식으로 딱로딱로도 허고  
보통으로 겹해가지고서 반반 허민 곤친떡으로 보일 거 아니라이.

107066 @1 송펜, 송편은 어떻 만들어?

107066 #1 송펜은 거시기로 문다 그 산디썰로.

107066 @1 산디썰로.

107066 #1 건 송펜은 동글랑헌 거 잇잖으냐.

107066 @1 예, 예.

107066 #1 그거 게 송펜이엔 헌다.

107066 @1 그거 산디썰 곶아왕 ㄱ루로.

107066 #1 으 ㄱ루로. 거 손으로 만들어야 돼여. 손으로 뽕뽕 돌령 속에 그 무  
신 쉬, 쉬를 놓나. 콩 곶아근에 놓는 쉬도 잇고 아까 그 뭐인가 쫓겨튼 거 놓는 쉬  
도 잇고 경해근에 송펜 만들고.

107066 @1 으.

107068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약래엔 헌 거 잇잖으냐?

107068 @1 예, 약래.

107068 #1 건 밀 ㄱ루로 만드는데 이고이.

107068 @1 으, 약래. 약래는 상웨떡?

107068 #1 으, 상웨떡.

107068 @1 상웨떡이랑 ㄱ튼 말이라?

107068 #1 으. 상웨떡이영 ㄱ트나. 약래엔 헌 건 상에 올릴 때 약래엔 경 곤나.

107068 @1 약래는 지름에 약간 지저야 약래가 되는 거?

107068 #1 으, 게난 상에 올리는 건 지진다.

107068 @1 지지는 거예.

107068 #1 으.

107068 @1 예, 예.

107074 #1 경허고 또 이제 송편, 아까 송편 다음에 또 솔벤이라는 게 잇저. 솔  
벤.

107074 @1 으

107074 #1 손바닥거치 영 현 거 잇잖아이.

107074 @1 예.

107073 #1 그거 잇고 절변은 동글랑 현 거이.

107073 @1 예.

107069 #1 그건 뭐 규칙적으로 다 상에 올려놔서.

107069 @1 으.

107069 #1 그 외에도 뭐인가 그 그 절변 우이는 지름떡허고.

107069 @1 으.

107069 #1 그 우이는 또 이제 마지막에는 계란전 현 거이.

107069 @1 계민 순서대로 굴아줍서, 상에 놀리는 순서대로?

107069 #1 친떡, 친떡, 처음에는 친떡이고이.

107069 @1 친떡. 그 다음에?

107069 #1 그 다음 약래.

107069 @1 약래,

107069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동글랑현 거 뭐엔 헛저만은.

107069 @1 동글랑 현 거 절벤.

107069 #1 아, 송편.

107069 @1 송편.

107069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 뭐인가 만뒤떡. 만뒤떡이란 게 잇저 만뒤떡.

107069 @1 만뒤떡은 어떤 것과?

107069 #1 만뒤떡은 영, 영 켜 건데, 영 똥글랑허게 영 무시거 터 가지고서이 여기 쉼 놔근에 영, 영 허면이.

107069 @1 반달 모양으로.

107069 #1 으, 반달 모양으로 합혀진 거. 그걸 만뒤떡.

107069 @1 으, 만뒤떡.

107069 #1 그거 허고.

107069 @1 아까 친떡, 약래, 송편.

107069 #1 으, 송편.

107069 @1 그 다음 만뒤떡.

107069 #1 으, 만뒤떡. 그 다음에는 그 외에 이제 솔변.

107069 @1 솔변.

107069 #1 절변.

107069 @1 으, 솔변. 솔벤, 절벤예.

107069 #1 으. 절변.

107069 @1 솔벤이랏수과?

107069 #1 술변, 절변.  
 107069 @1 술변예.  
 107069 #1 으, 표준말론 술편, 절편 경 한다.  
 107069 @1 그 우에 지름떡?  
 107069 #1 으 지름떡  
 107069 @1 그 다음에 아까. 독세기알.  
 107069 #1 으, 으 독세기 전 그건 노는 디도 잇고 안 노는 디도 잇고. 게난 그  
 절랑 내불어도 좋고.  
 107069 @1 예 그지예, 떡 아니난 지지는 거난예. 그럼예, 아까 송편 만드는 거  
 는 아까 산디썰로 행 곶아왕.  
 107069 #1 것도 허고 또 이 만뒤만, 아까 만뒤만 이 믰물썰로 허주 그 외는 술  
 벤이나 절벤도 다 산디썰로.  
 107069 @1 만뒤는 믰물썰로?  
 107069 #1 믰물썰로.  
 107067 @1 아 기파. 빙떡 만들어 봅서. 빙떡 만들어 지지예.  
 107067 #1 빙떡은이 거 제사엔 잘 안 올려낫저 그거.  
 107067 @1 아, 올리진 았고예.  
 107067 #1 으, 올리진 안헤가지고서이.  
 107067 @1 예.  
 107067 #1 그날 제서 먹으레 온 사람한테 거 놓고.  
 107067 @1 만들젠 허민 뭐로 만들어 빙떡은?  
 107067 #1 빙떡은 믰물썰로 저, 솟두껍에서 지진다 영.  
 107067 @1 믰물ㄹ루 물에 탕?  
 107067 #1 으, 믰물ㄹ루 물에 탕 약간 주걱으로 거렁냥 뱅허게 헤가지고서 거  
 지지는 거.  
 107067 @1 지지는 거예?  
 107067 #1 으, 거 속에, 속에는 무수허고 무수 삶은 거허고 이제 콩지름 삶은  
 거.  
 107067 @1 으.  
 107067 #1 그런 거 양념헤가지고서 거 속 낱 영 동글랑 현 거에 헤가지고서 이  
 제 그레 영 뉘가지고서 뱅뱅 믰는 거 것ㄹ라 빙떡이엔 헤.  
 107067 @1 으. 빙떡. 여기 빙떡이렌 험니까 정기렌 험니까?  
 107067 #1 우린 빙떡이라.  
 107067 @1 빙떡이렌 곶아예?  
 107067 #1 으, 빙떡이엔.  
 107068 @1 그 아까 약궤는 상웨떡을 약궤렌 헛잖아예?  
 107068 #1 으, 상웨떡 지진 거.

107068 @1 상웨떡 지진 거. 상웨떡은 어떻 만듭니까?

107068 #1 상웨떡은 밀꺠루, 밀꺠루, 밀꺠루에 거시기 헐 거 아나가 반죽헐 적  
에.

107068 @1 예.

107068 #1 거기 뭐인가 거 막걸리가 들어간다, 막걸리. 웨 막걸리가 들어가는고  
허니 이걸 이것을이 발효시켜야 돼여.

107068 @1 예.

107068 #1 부껴야 돼여.

107068 @1 예.

107068 #1 발효시키는 걸 우리 제죽말은 상웨떡이 잘 부껴사 아니 부껴사 보라  
현다. 거, 거 떡을 만드아근에가 영 구들거튼이 영 쪽허게 낱 나두민, 거 즉시 삶으  
민 안 돼여.

107068 @1 예.

107068 #1 발효웨영 부껴사. 거 부꿀 때 삶아야 떡이 저 보각보각 허는 거주 경  
안허민 땅땅헐 안 돼주게.

107068 @1 으.

107068 #1 경허난 발효시키젠 허면은 이제 그 막걸리가 들어갓저. 막걸리 사다  
근에 물에 꺠치 탕 반죽헐가지고서 헐 만드는 거.

107068 @1 막걸리 사당 허기 전에는 그 보리 가져가지고서 만드아.

107068 #1 으 그 보리 가져가지고서 아까이 초 멘드는 식으로 그렇게 헐가지고  
서 그레 놓민 그렇게 헐저.

107068 @1 예.

107068 #1 보리콜 뵤가지고서이 콜 뵤가지고서 그걸.

107068 @1 으.

107068 #1 콜 감쥐를 허면은 그것이 부글부글 부끄주게.

107069 @1 으, 콜 감쥐 만들영예. 아까 제사떡 종류 순서 얘기헐잖아예?

107069 #1 으.

107070 @1 제서 때 말고 상 낫을 때 그때는 어떻?

107070 #1 상 낫 때도 그거는 그대로 다 올린다.

107070 @1 순서는 다.

107070 #1 순서는 다 꺠타.

107070 @1 종류도 다 같고예?

107070 #1 으, 종류도 다 꼭 가튼다.

107071 @1 예. 설기떡이란 게 뵤고예?

107071 #1 설기떡이 그거 설기떡이 친떡을 설기떡이라고 보통 허주.

107072 @1 인절미 같은 건 안 해 낫수과?

107072 #1 인절미, 인절미 해도 보통 그거 상에는 올리지 았고 먹는 거.

107072 @1 으.

107072 #1 거는 상에 안 올려놔져. 아까 곁은 거 주로 상에 올리고.

107073 @1 음. 절벤이랑 술벤이랑 어떻 틀립니까?

107073 #1 그 뭐인가 절, 절벤은이, 술벤이란 거 요렇게 헤가지고 요렇게.

107073 @1 반달 모양.

107073 #1 반달 모양으로 웬 거고이.

107073 @1 으.

107073 #1 뭐인가 절벤은 동글랑헌 거, 동글랑헌 거 나무로 팍 찍으민 거기에 무늬가 꽃 무늬가 다 올른다 그걸 절벤이엔 허주.

107073 @1 그니까 본 있는 거라예. 본예, 떡본예.

107073 #1 으, 잇어. 술벤도 떡본으로 췌 행 만든 거 잇저.

107073 @1 예.

107073 #1 삼각구식으로 헤가지고 딱딱 허민 나오는 거.

107073 @1 예.

107073 #1 만둣떡은 손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고이. 거 또 약케는이 또 다시 이렇게 거세기 헤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뭐인가 손 본으로 떼가지고 그런다.

107073 @1 떼 가지고예.

107073 #1 네모난 거, 약케는 네모난 거.

107073 @1 약케는 네모난 걸로, 그것도 약케도 뜨는 것과?

107073 #1 으. 그걸로.

107075 @1 여기 우끼떡이렌 험니까, 우찌떡이렌 험니까?

107075 #1 거 우케떡이엔, 우로 켜다는 말이주. 켜다는.

107075 @1 아.

107075 #1 켜야 켜다, 켜.

107075 @1 아, 우케떡이엔 곁을 거예. 우케떡으로 지름떡을 쓰는 거?

107075 #1 으.

107076 @1 지름떡예. 고사나 당에 가져갈 때는 떡은 뭐라?

107076 #1 당에 갈 때는이 거는이 거 뭐인가, 돌레를 한다.

107076 @1 으.

107076 #1 그 동글랑 헌 거이, 곤썰로 반은 허고 믫물썰로 반허고. 믫물썰은 웨 허는고 허니, 원칙에는 곤썰로 다 헐 건데, 절약허기 위해서 그거.

107076 @1 그 떡을 당 떡이엔 헐 거과 돌레떡이엔 헐 것과?

107076 #1 돌레떡인데 당에 가니까 당떡이엔 허는 거주, 돌레떡.

107076 @1 아, 돌레떡.

107076 #1 게난 당에 갈 거니까 당떡이엔 허주, 동글랑헌 그 두껍게 헤가지고 서.

107076 @1 그민 그거 굿떡이엔도 허고?

107076 #1 으, 굿 혈 때도 그런 떡을 한다.  
 107077 @1 굿떡, 돌레떡, 당떡. 상황에 맞게 다 쓰는 말예?  
 107077 #1 으.  
 107077 @1 말헌 거 말고 다른 떡들은 엇잖아예. 다 곶앗잖아예?  
 107077 #1 다른 떡은이 그 물떡이란 게 잇어났저, 물떡.  
 107077 @1 물떡이 뭐과?  
 107077 #1 물떡이란 게, 한동은 물떡이 옛날에 영장나민이 옛날은 들에 강 밥  
 허지 못해나지 안해시냐?  
 107077 @1 으.  
 107077 #1 게난 물떡이엔 헌 건이 므물쫄로 헤가지고서 아까 그 만뒤떡 모양으  
 로 막 두껍으로 막 두터운다. 게니까 그거 만뒤떡 열 개 더 뒤흐 그거.  
 107077 @1 으.  
 107077 #1 열 개 분량도 더 뒤흐. 경헤가지고서 영장에 가근에 밥 대신 그걸 세  
 개씩 혼 순, 혼 사람안티 세 개씩 테와났저. 그걸 물떡이엔 허주. 게난 그것 세 개  
 먹으민 노동, 일 허는 것이 보충이 뒤흐 거라 그거 먹으민.  
 107077 @1 아, 만뒤떡을 완전 크게 만들안.  
 107077 #1 으, 그게 물떡이엔 한다. 크게, 만뒤떡은 므물ㄴ룬데 크게 만들앙, 두  
 껍고 크게 만들앙 쉬는 그 쉬는 주로 그 뒤흐인가 무수를 많이 낫주, 무수를.  
 107077 @1 아, 무수를 쉬 낫.  
 107077 #1 웨 무술 낫는가 허면이 그디 쉬 다 놓젠 허민 옛날은 돈이 많이 드  
 니까이 무수를 논 거라 절약헤영.

#### 소와 고물

107079 @1 그럼 쉬 놓젠 허면 그 쉬로 사용헐던 것은 뒤흐 잇수과?  
 107079 #1 쉬로 사용헐던 것은이 아까 쉬로 사용헐던 것은 대충 뒤흐인가 그 풋  
 쉬.  
 107079 @1 풋쉬.  
 107079 #1 콩게역.  
 107079 @1 콩게역.  
 107079 #1 또 다시 이제 뒤흐 무수.  
 107079 @1 무수. 무수도 쉬로 사용허고 아 빙떡도 무수?  
 107079 #1 무수 많이 들어간다. 빙떡도.  
 107079 @1 풋 거의 대부분 풋이랑 콩이라예?  
 107079 #1 으.  
 107079 @1 고물로도 사용허고 쉬로도 사용허고?  
 107079 #1 으, 으.  
 107081 @1 떡 만들 때 뒤흐 허지 말라 허는 건 엇어 낫어?

107081 #1 계란 떡 담는 것은 아무 이상이 있는데 찐떡을 헐 적에는이.  
 107081 @1 예.  
 107081 #1 그 찐떡을 헐 적에는 이제는 군소리도 말아야 되고, 처음에 들어 앓은 사람이 끝까지 쳐야 된다.  
 107081 @1 아니 건 무사과?  
 107081 #1 경 안허민 떡이 잘 안 익영 비비빅 한 쪽으로만 짐 나면서이 떡이 잘 안 익주게.  
 107081 @1 으.  
 107081 #1 경허민이 떡 잘 치는 사름이 거 선발해영 현다. 아무나 허는 것이 아니라.  
 107081 @1 아, 기파 찐떡 치는 것도.  
 107081 #1 찐떡 치민 혼 쪽만 익고 혼 쪽이 안 익을 수도 잇잖아. 경허민이 안 익어불민 거 생떡은 거 버려야 되는 거.  
 107081 @1 아.  
 107081 #1 경허난에 상당히 정성이 찐떡 칠 땐 경현다.  
 107081 @1 아.  
 107081 #1 막 익엄저, 안 익엄저 군소리 말고 부엌에 강.  
 107081 @1 군소리 말고.  
 107081 #1 여긴 주로 정지, 정지엔 헛주게. 정지에 강 쓸데기 앓는 말도 허지 말고 그 처음에 불 숨은 사람이 끝까지.  
 107081 @1 아, 찐떡 칠 때?  
 107081 #1 으, 찐떡 칠 때 경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

## 별식

107082 @1 음식 마지막으로 별식 물어보쿠다. 순대 만들어 먹엇잖아예, 순대렌 헛수과 수에렌 헛수과?  
 107082 #1 수에, 수에.  
 107082 @1 으, 수에 만들양 먹엇잖아예, 수에 어떻 만들앗수과?  
 107082 #1 수에는, 수에는 어떻게 만드느고 허니 그 도야지 저 뭐인가 베설 잇지 안허느냐이.  
 107082 @1 으.  
 107082 #1 도야지 베설 큰 베설이 잇저.  
 107082 @1 으.  
 107082 #1 큰베설에 그것을 분량을 많이 거세기 허면은이, 허젠 허면은 대창을 대창거튼 거 막 즐게 썰어근에가이 므물궤루와 쫄거튼 거 막 논다. 거 저 뭐인가 대개 찹쌀도 놓고 산디쌀도 놓고 거기 양념을, 부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놔 가지고서 거 막 버무려가지고서 버무려가지고서 그 도야지 베설 큰 베설덜 잇저. 여,



이렇게 헐디 그 속에 막 담아근에가이 담아근에 삶아근에 그거 수에엔 헐 썰엇 먹으민 막 맛 좋주게.

107082 @1 게민 그 피에 돼지 피에?

107082 #1 으, 돼지 피에 버무린다.

107082 @1 뭘, 므물궤루 낱?

107082 #1 므물궤루, 아까 궤싸 나 므물궤루에 양념 다 낱 피에 경 버무렁, 버무렁 그것에 베설 속에 담아가지고서 그거 딱 무끈다. 헐 쪽은 무경 나오지 못허게, 경 삶양 경허네 수에 맛있게 행덜 먹고이.

107082 @1 무슨 날 수에를 행 먹어낱수과?

107082 #1 이디서 특별히 수에를 따로 헤 먹어나지 았앗저. 그자 집이서 옛날은 돛제를 헤낱주, 돛제.

107082 @1 으.

107082 #1 지금 저 김녕리 지금도 계속 헐다. 우리 한동도 많이 헤낱저.

107082 @1 돛제 한동도 헤낱수과?

107082 #1 헤낱저, 한동도. 이젠 설렛주만은이. 그 돛제 구신이 이제 김녕이라.

107082 @1 예, 예.

107082 #1 김녕허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잇는 사름이 돛제를 헤가지고, 일년에 헐 번 톱 돛제를 헐저. 돛제를 허면이 그때는 이제 그 베설가튼 거 수에 헐 맛있게 나뉘 먹고이.

107082 @1 으.

107082 #1 큰일 때는이 수에가 적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엇주게. 돛제 거튼 거 헐 때에는 그렇게 헤가지고.

107082 @1 아, 돛제 때가 오히려 큰일 때보다 수에를 더 많이 헤 낱어?

107082 #1 아니, 많이는 안 헤지만은 그 큰일이 아니니까 돛제 때는 동네 사름 베끼 안 오니까 게니까 풍족허게 먹주 그 수에를.

107082 @1 아. 돛제는 언제 허는 것과?

107082 #1 주로 정월달에 많이 헐저.

107082 @1 정월달에. 아무튼 김녕쪽이랑 관련 잇는 사름덜이라예, 시집 오거나 아니면.

107082 #1 으, 그 신을 섬기는 사름들.

107083 @1 아, 한동도 돛제 헤낱구나예. 두부, 둠비렌 헐니까?

107083 #1 으, 거 둠비는 옛날 여기서 만들엇저. 그 뉘인가 콩을이 여기서 콩을 그 뉘인가 그 뉘인가 돌궤레에 굴 거 아니가 돌궤레에 굴아가지고서이 그것을, 그것을 이제 큰 솟디 놔근에 그것을 막 삶는다.

107083 @1 으.

107083 #1 콩이 다 익을 거 아니가이?

107083 @1 음.

107083 #1 익으면은 그 이젠 뭐인가 그 물을 하영 놓주.

107083 @1 으.

107083 #1 게난 그 반죽웜 그 물을, 물만 남을 거 아니가이 게난 물을 반죽웜  
습은 물을 갖다가 그 저 뭐인가 그 천 놔가지고서 옛날 베나 뭐 험벅을 영 놔가지  
고서 물만 알려레 가게 한다. 경해가지고 그 우에는 비지, 비지엔 현 게 잊지 안허  
냐이.

107083 @1 으.

107083 #1 콩 찌꺼지가 그 건 딱로 걸러불고 그 아래에 내린 물을 갖다가이, 물  
을 갖다가이, 그 뭐인가 통에 놔가지고서이 알로 그 뭐인가 통에 이렇게 진진현 통  
을 놔가지고서 알로 다 고양이 뭐인가 뚫어졌지. 게난 그걸이 그디 낡 놔두민 그  
물은이, 그 미세현 물은 알로 흘러버리고 그 우이 남는 것은 콩 삶아진 게 남을 거  
아니가이. 그것이 거 어느 정도 쳐지민 그 우이 거세기 더폰다. 나무로 영 나무로  
딱 더평 지들르지, ㄴ래로 영 지들르민 그 압력으로 해가지고서.

107083 @1 으.

107083 #1 그 물은 다 빠지고 그 저 그 콩 삶아진 거 딱딱하게 굳어 가는 거.  
거 굳어 댕 시간 돼여근에 허면은 둠비가 돼여가지고서 그걸 사용, 큰일 때 다 그  
것 사용헤신에.

107083 @1 으.

107083 #1 다 자가로 자축했저.

107083 @1 만들어. 집이서예?

107083 #1 집이서.

107083 @1 그럼 한 물 빠지는 건 한 반나절이민 웰 건가?

107083 #1 한 반나절은 걸려야 돼. 허젠 허민 미릿 아시날, 널 허젠 허민 오닐  
다 해야 돼여.

107084 @1 미리 다 헤예. 묵, 묵. 묵은 종류가 뭐 있어났수과?

107084 #1 묵은 그냥 그 기자 그 묵 종류는이 기자 그 쭈는 묵도 잇고이 청묵  
이란 게 잊저.

107085 @1 예, 청묵 만들젠 허민 청묵은 어떻 만듭니까?

107085 #1 청묵 만들젠 허민이 그 뭐인가 고운 ㄴ루로이 ㄴ물썰 고운 ㄴ루로이  
고운 ㄴ루로 막 ㄴ루 쳐가지고서이 물을 알롭게 해가지고 그 묵을 쏜다.

107085 @1 으.

107085 #1 알루게 묵을 써 가지고 그 묵을 체 닳은 거에 바쳐가지고서이 그거  
헤근에가 그거 묵은 헬랑헬랑 허주게. 기자 묵은 딱딱허지 안 허느냐이?

107085 @1 예.

107085 #1 흘랑흘랑 헤영 것 ㄴ라 청묵이엔 해가지고서 거 좀 정성허지 앓은 사  
름은 거 못 허주게.

107085 @1 예.

107085 #1 계난 정성들영 만든다.

107085 @1 믰물묵은 그냥 믰물ㄱ루로 허는 거지예?

107085 #1 청묵도 믰물ㄱ루, 그냥 묵도 믰물ㄱ루.

107085 @1 청묵은 믰물썰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과?

107085 #1 으, 믰물썰로.

107084 @1 그냥 묵은 믰물ㄱ루로 허고.

107084 #1 으, 믰물ㄱ루 딱로.

107086 @1 미숫ㄱ루, 미싯ㄱ루?

107086 #1 으, 미숫ㄱ루엔 현 건이.

107086 @1 여기선 뭇렌 곶앗수과?

107086 #1 보리 보까근에가, 그 저 계역, 계역이 미숫ㄱ루여.

107086 @1 예, 예. 계역 만들젠 허민 어떻?

107086 #1 계역 만들젠 허민 그 보리를 솥에 보쁠 거 아니가이.

107086 @1 예.

107086 #1 솥에 보까근에가이 그 돌ㄱ레에 막 곶아근에가이 그걸 우이 꺼끄러  
운거 잇잖으나 거 ㄱ루체로 친다. 막 줌진 ㄱ루체로 치면은 우이 껌테기가 다 걷어  
지고 아랫 것만 나올 거 아니가. 경허면은 여름에 거 집이서 하영 행 낫다가 여름  
에는 그 남저덜이 밧 갈레 들에 강 밤도 자낫저. 경허면은 밥 대신 계역을 탕 먹고.

107086 @1 예.

107086 #1 또 이제 밥에 계역 버무령 먹으민 그렇게 맛이 좋아 낫저.

107086 @1 아.

107086 #1 게 그게 미숫ㄱ루여. 제주도는 하영 행 먹어낫주.

107086 @1 예. 보리 보깁.

107086 #1 콩도 보까근에 그것도 웬다, 콩.

107086 @1 아.

107086 #1 콩은 저 뒤에 허난에, 그땐 보리만이 안 헛주게.

107086 @1 아.

107086 #1 콩 계역이 더 맛잇주.

107086 @1 고소행.

107086 #1 으.

107087 @1 지지미도 행 먹어낫수과?

107087 #1 으. 지지미도 맛잇나.

107087 @1 뭇 낱?

107087 #1 겨울에 심심허면 말야, 빙도, 빙 말앙 그냥 두껍게 헤 가지고이 그거  
그냥 부추도 놓고 그냥 그 패마농 놓고 헤영 우이 그런 것도 썰영 뽕근에가이 솥  
두껍에서 헤 심심허민 밤에 간식으로 먹어나세게.

107088 @1 오메기술 어떻 담가지는지 알아지쿠과?

107088 #1 오메기술은 그거 뭐 그 술은 거 돕그는 건이 오메기엔 현 건 흐린, 흐린 좁쌀이 잇저, 흐린 좁쌀, 출진.

107088 @1 예.

107088 #1 그걸로 돕그는 게 거 오메기술이여.

107088 @1 아.

107088 #1 흐린 좁쌀로 돕근 게 오메기술.

107089 @1 흐린 좁쌀로 담그는 거. 쉼다리는?

107089 #1 쉼다리는 밥이 으름에 썰 거 아니가이, 밥이 으름에 쉬민 그 밥 쉼 것에 아까 그 뭐인가 발효현 거 그 골 이잖으냐이.

107089 @1 으.

107089 #1 그 골을 밥 쉼 것에이 논다. 물 흐쌀 낭 허민 그게 골이 들어갓기 때 문에 발효썰 거 아니가이 발효썰민 그거 끝린다. 끌려근에가 걸 먹어나세. 그걸 끌 령 먹으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냥 내버리면은 쉼다리가 거 초가 되는 거라.

107089 @1 아.

107089 #1 그 쉼다리가 초가 되는 거.

107089 @1 초가 되는 거예. 그거 감주?

107089 #1 으, 으. 게가지고서 게가지고 옛날은 밥이 쉬도 아니 버릇주게. 그것 예, 그것이 골이, 발효제가 들어가면은 거 발효썰면은 걸 솥에서 기자 그 끓영 먹으 면 쉼다리 되는 거라.

107089 @1 골이라는 건 뭘 골이엔 험니까?

107089 #1 건 피보리엔 현 보리 잇저.

107089 @1 예.

107089 #1 보리를 그 피보리엔 걸이 그 콩지름 놓듯이 물에 거 서꺼근에 걸 내 와근에가.

107089 @1 예.

107089 #1 그걸 싹이 트게, 싹이 요만싹 나오게 헨 물령, 싹이 너무 크게 나오 면 안 돼지.

107089 @1 예.

107089 #1 경혜근에 그게 골이엔 현다.

107089 @1 아, 그 싹 난 걸 골이엔 헤마씨?

107089 #1 으.

107089 @1 그 피보리 헤가지고?

107089 #1 으. 피보리로 현 거. 피보리 엮으면은 밀로도 헛저만은 밀로는 잘 발 효가 안 돼어근에 피보리라사 되는 거.

107089 @1 아. 게민 어쨌든 그 골을 만들양 놔 두면 골감쥐힐 때나 헐 때 그것 예 물 넣어 가지고.

107089 #1 게난 맥주맥이엔 현 게 잇잖으냐.

107089 @1 예.

107089 #1 그 피보리가 맥이, 맥주맥이여.

107090 @1 으. 누룩은, 누룩은 어떻 만듭니까?

107090 #1 누룩은 건 밀허고 그 뭐인가 그 골허고 ㄴ치 서꺼근에가이 서꺼가지고 발효, 동글랑허게 멘들아근에가 그거 발효웨민이 그 저 뭐인가 물론다, ㄴ류와.

107090 @1 으.

107090 #1 ㄴ류와근에가 그거 골 감주 허젠 허면은 그걸 곤다, 그 뭐인가 발효된 누룩을 곱아가지고서 물에 영 놔가지고서 이젠 발효웨근에가 체로 바쳐근에 그 우이 누룩은 쳐 질 거 아니가. 아래 나온게 그거 골 감주.

107090 @1 아, 골 감주예. 엿도 만들앙 먹어놔수과?

107091 #1 엿도 많이 만들앙 먹어신에.

107091 @1 어떤 엿.

107091 #1 엿은이 그 뭐인가 아까 그 호린조썰 잇지 안허냐.

107091 @1 예.

107091 #1 그걸로 헤가지고서 호른조썰을 곱아가지고서 곱아가지고서 물에 막 탈 거 아니가이.

107091 @1 예.

107091 #1 물에 타가지고서 혼, 혼 여섯 시간 정도 팔려가면 그것이 수분이 다 증발헤불고 그 골감주를 헨 것이 결국은 좇아가지고서이 좇아가지고 그게 청이 되는 거라. 노랑케 청이 웬다. 경헨 겨울엔 경헤가지고서 단지에 담앙 놔당 떡도 허민 그것에 비병 먹고 헤나세. 집집마다 그건 헤 낫저.

107091 @1 음.

107091 #1 건 호린쪼썰로 허는 거.

107091 @1 호린쪼썰로예. 쨍엿 같은 건 따로 안 만들어수과?

107091 #1 그것에 쨍을 집어 넣어 조리는 게 쨍엿.

107091 @1 아. 게민 경헨 엿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재료가 쨍 말고 독도 넣고 헤놔수과?

107091 #1 으 독도 놓고이 또 다시 도야지 거세기 고기도 넣어놔저.

107091 @1 웨지고기도 넣고마썸.

107091 #1 경헤가지고서 영양 보충헐 사름 웨야지고기 논 걸 주로 여저덜 많이 먹엇주. 젓 맥일.

107091 @1 아. 쨍, 독, 웨지.

107091 #1 으.

107091 @1 소고기 같은 건 안 놓고?

107091 #1 소고기긴 안 놔놔저. 귀허니까.

107091 @1 귀허니까예.

## 8. 주생활

108001 @1 초가집도 짓어나고 해낫수과?

108001 #1 주로 전부 초가집이랴는데 이거 칠십 년대 이후에 다 이거 뭐인가 새로 다 집을 바꿔신에.

108001 @1 그때 인부 빌영 현 거, 사름들이 직접?

108001 #1 그때는이 이 조합별로 조합이 잇저, 조합별로.

108001 @1 예.

108001 #1 조합별로 해가지고서이, 가령 나가 일조합이면 일조합 사름이 총 출동해가지고이.

108001 @1 예.

108001 #1 그 집 서슬, 서슬. 담 같은 거 다우는 것은 그 집 주인이 그 인부를 빌어근예가 품 쥔 담을 다웁고.

108001 @1 음.

108001 #1 그 웨로는 서슬 허는 것이 잇저. 서슬이라는 것이 이런 이디 벽거튼 거 허는 거. 그런 서슬 험광 또 다시 흑질허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 조합 사름이 다 해 쫓저. 그 흑질 험 때는 여자들이 오랑 전부다 그 물도 지어 주고 또 흑이 웃동넨 귀해 낫주게. 흑질허젠 허민.

108001 @1 으.

108001 #1 흑 험 때도 조합사름이 전부 나오랑 할당을 한다. 그 집이 크면은 다섯 하꼬, 집 세거린 다섯 하꼬 두 거리, 그 두 거리쫘은 네 하꼬, 세 하꼬해서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다 시꺼쥔 해지 그거 다 돈으로 허젠 허민 어마허게 돈이.

108001 @1 아니 그 조합이란 게 영 동네사름들이 게 같은 거 만든다는 얘기, 아니면?

108001 #1 으. 그 게가 아니고 조합, 조합으로 딱 정허여서 의무적으로 다 하게 쥔 웨여 낫저.

108001 @1 게민 그 집을 의무적으로 하게 웨민 집을 영 번갈아 가명 짓어마씨?

108001 #1 아니, 새 집 허는, 가령 일개 조합에 가령 나가 새 집 허민.

108001 @1 아, 조합이란 게 우리 저기 일조합, 이조합 허는 그 조합마씨?

108001 #1 어. 그 조합, 그 조합.

108001 @1 아, 그럼 조합 사름덜이 의무적으로 그걸 갓다 줘.

108001 #1 으, 갓다 주고.

108001 @1 그거 집 짓는덴 허민.

108001 #1 으, 집 짓는덴 허민. 그 날짜를 정허민 그 부락에서 조합장이 정한다.

108001 @1 어.

108001 #1 메칠날은 흑 시끌 날이우다.

108001 @1 으.

108001 #1 경허민 흑 시끄고. 그 다음에는 흑 다 시꺼 놓면은.  
 108001 @1 으.  
 108001 #1 서, 이제는 그 흑질 헐 거 아니라. 흑질 헐 때면 서슬 그날 한다.  
 108001 @1 으.  
 108001 #1 게난 흑질 헐 때도 의무적으로 흑 비는 사람이 다 강 해 준다 거 빌민. 것도 주인이 빌긴 빌어야 돼여. 품은 안 받는다 그 비는 사름도.  
 108001 @1 아, 품 안 받아마씨.  
 108001 #1 으.  
 108001 @1 품 안 받는다 의무적으로 왕.  
 108001 #1 으. 의무적으로.  
 108001 @1 그 조합이 우리 일조합 허는 조합이 몇 사름이나 들었 있어?  
 108001 #1 조합이 흰 오륙십 명 돼주.  
 108001 @1 그 사람이 다 ㄴ치 왕 해여.  
 108001 #1 으, ㄴ치 왕 허주. 게난 새 집 헐 때논이 밥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게난.  
 108001 @1 아.  
 108001 #1 게난 그 동기간덜이이 흑질허는 날 밥 허는 사름. 가령 나가 허게 돼민 우리 누님이 허던가 누젠가 처가침이서 허던가 그렇게 만허니까 그렇게 해났저.  
 108001 @1 아.  
 108001 #1 밥이 제일 허기가 힘들어.  
 108001 @1 게민 주인은, 집 짓는 사름은 어쨌든 밥 허는 거 걱정해야겠다예.  
 108001 #1 으. 게민 그거 동기 간이나 부모네가 말앙 해주주게. 점심은.  
 108001 @1 으, 점심은.  
 108001 #1 흑질 허는 날이 그렇고 또 다시 이제 흑 시끄는 날도 그렇고.  
 108001 @1 게민 조합원들이 왕 해주는 날은 흑질 허는 날이랑 흑 시끄는 날.  
 108001 #108001 1 날 허고 서슬 허는 날.  
 108001 @1 아, 서슬 허는 날 허고. 나머지 뭐 담 쌓는 거라든지 목수들이 허는 일은 그냥 빌영.  
 108001 #1 그건 품이 들어야주.  
 108002 @1 아, 빌영 허는 거예. 집이 종류는 뭐 뭐 잇수과?  
 108002 #1 삼칸 집이 잇고 뭐 보통, 이딘 스칸 집도 잇긴 잇는데 보통 한동은 삼칸집이야.  
 108002 @1 삼칸집.  
 108002 #1 게민 이칸집도 잇고.  
 108002 @1 이칸집은 못 사는 디?  
 108002 #1 아니 이칸집은 칸이 삼칸은 세 칸이고.  
 108002 @1 세 칸, 으.

108002 #1 이칸집이 집이 두 칸이주게.

108002 @1 으.

108002 #1 게난 조금 못 사는 딴 이칸으로만 행 흔 쪽엔 방허고 흔 쪽엔 부엌 행 허고 밧거리는 보통 이칸, 이칸이주.

108002 @1 아, 이칸예. 초가집이 잇고, 지붕이 초가인 건 초가집이엔 허고.

108002 #1 초가집이엔 허고

108002 @1 또?

108002 #1 다 초가집이라.

108002 @1 지, 지에집.

108002 #1 건 기와집이라, 기와집.

108002 @1 기와집을 제주도 말로, 여기선 뭐렌 골아낫수과?

108002 #1 것도 기와집이주, 기와집.

108002 @1 지에집 안 허고.

108002 #1 아니 기와집이엔 헛주.

108002 @1 아, 기와집이엔 헛수과? 초가집 잇고, 기와집?

108002 #1 어, 기와집. 그것만 셔 낫저. 그때는 이 뭐인가 쓰레트가 없어낫기 때 문에 기와집허고 그자 초가집.

108002 @1 으. 흑으로 짓으민 흑집, 돌로 지으면 돌집 그런 건 얘기 안 허고?

108002 #1 그런 건 얘기허진 아니 현다. 초가집은 초가집이엔만. 보통 제주도는 다 바깥데 돌로 뒤희 잇주.

108003 @1 집이 안커리 잇고 밧거리 잇고 이디 모커리엔 험니까?

108003 #1 으, 모커리. 그 세 거리가 모커리엔 현다.

108003 @1 아 세 거리가 모커리에. 안커리, 밧거리, 모커리엔 헐 거고예.

108003 #1 음.

108004 @1 삼간집 지을 때 어떻 짓는지 좀 골아줍서. 삼간집 지을 때. 집 짓젠 허민 제일 먼저 뭐 허여?

108004 #1 지일 먼저는 거 포엔 잇저, 포.

108004 @1 어.

108004 #1 포 양쪽에 두 개가 제일 필요허고.

108004 @1 으.

108004 #1 그 다음에 상모루가 필요허고.

108004 @1 예.

108004 #1 그 다음에 그 뭐인가 양쪽에 그 춘일석이, 춘일석이가 필요허고.

108004 @1 으.

108004 #1 양쪽에.

108004 @1 예.

108004 #1 서리, 서리 거튼 거.



108004 @1 예.

108004 #1 그걸 다 장만해야 돼주. 집 지은이가.

108004 @1 아 장만해야 되는 거예. 미리예. 지난 번 말할 때 낭 아무 거나 행 오민 안 되는 거잖아예.

108004 #1 으, 아무 거나 행 오민 안 돼니까, 건 허가 받으민 다 나온다.

108004 @1 아, 집 짓을 때는.

108004 #1 어 집 짓을 거. 게민 거 서리 허는 것도이 거 슬쩍 낭을 영 쪼개주 게. 쪼개영 서리 허고.

108004 @1 게민 그 낭은 우리 밧디 거 비영 와야 되는 거?

108004 #1 아니 놈의 밧디 거라도 허가 받으민 돼주게. 이녀 밧디, 이녀 밧디 나무 엇인 사람은.

108004 @1 아, 놈의 밧디 거라도 허가 받으민 돼?

108004 #1 집 짓는 딴 허가 해 주주게.

108004 @1 아, 게민 누구네 밧디 무슨 낭 비여오쿠다 해영.

108004 #1 으.

108004 @1 그렇게 신고합니까?

108004 #1 그렇게 신고한다.

108004 @1 아. 거민 미리 준비허는 거잖아예. 낭은예.

108004 #1 낭은 미리 준비허지 일 년 전이부터 낭은 준비해야 웬다.

108004 @1 낭은 미리 준비허고.

108004 #1 집이 왕 몰라야 돼주.

108004 @1 예, 예. 깎고 자르고 행 몰령.

108004 #1 으.

108004 @1 게민 집 짓을 때 뭘서부터 시작허는 거? 낭은 준비 했수다. 그 다음 엔?

108004 #1 그 다음엔 뭘 허냐 허면 집터를 골라야 돼지.

108004 @1 으.

108005 #1 그 다음엔 지춧돌 놔야 웬다. 그 돌 그 지동 세우는 거. 거 해가지고 그 우터레 지동 세와야 한다.

108005 @1 그 우터레 지동. 지춧돌?

108005 #1 주춧돌게.

108005 @1 으, 주춧돌예.

108005 #1 응, 여깃말로 지춧돌이엔, 지춧돌이나 주춧돌이나 마찬가지로.

108005 @1 지춧돌, 여기선 지춧돌예.

108005 #1 으, 지춧돌.

108005 @1 지춧돌 놔가지고 거기에 지동 세우고. 세우면 그 다음 지동 세우고?

108005 #1 그 지동 세우고 세우면, 그 지동 세와 놔사 그 뭇인가 도리. 도리가

그 도리엔 현 건이 그 집이 상뭇루를 바치는 그 양쪽에 큰 진진현 나무 잇주게.

108005 @1 으, 도리?

108005 #1 으.

108005 @1 상뭇루를 바트는 진진현 낭이 도리라예.

108005 #1 으, 도리. 포렌 현다 이거 양쪽에 포.

108005 @1 영 보민 종을 건가? 이거 지둥이과?

108005 #1 으, 이거 지둥인디 이것이 포주, 포가 두 개 있어야 돼.

108005 @1 아, 이것이 포. 도리는 어느 거마씨?

108005 #1 도리는 도리는 이디 영 현 거 굽도리라고 이쪽에 영 현 거 도리고.

108005 @1 아, 그럼 우에서 영 내려오게 현 거?

108005 #1 으.

108005 @1 이렇게 되면 영 내려오는.

108005 #1 이거이 포 아나가 포에, 포에 옆으로 영 현 것도 다 도리엔 현다.

108005 @1 아.

108005 #1 도리엔 허고 서리엔 허는 것은 이건 굽도리엔 허고 이건 서리엔 현다.

108005 @1 음.

108005 #1 이디영 헉나, 두 개, 세 개 도리가 세 개 들어갈 거주. 포 옆으로 세 개, 이디도 세 개 들어가고 경 해근에 이거 포 허면은 네 개 텔 거주. 네 개 해근에 서리영 걸치는 거.

108005 @1 으, 여기에 포에 서리에 걸치는 거. 그민 주춧돌 낳 지둥 세웁 도리영 다 하고 나서.

108005 #1 도리영, 도리 그 포 잇잖아이.

108005 @1 예, 포.

108005 #1 포가 제일 큰 거여. 제일 그 주춧, 그거에 바로 포에 지둥이 다 세와 지주.

108005 @1 예.

108005 #1 그걸 사람이 여럿이 모여근에 그거 영 세와근에가 거 해가지고서 다 집을, 미리 짜 낫당 거 올리는 거.

108005 @1 아, 우에 지붕은 요거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올리는 거?

108005 #1 다 짜 낫다근에 이거 포 두 개영 양쪽에 포 두 개 세와 봐가지고서 그 다음에 도리를 올령 놓는 거.

108005 @1 아, 도리를 올령 놓는 거예. 그민 저기 서까래 허는 것은 어느 것과?

108005 #1 서까래엔 허는 것이 이 이렇게 영영 내려온 게 서까래 아니가.

108006 @1 아 내려온 거 서까래예. 서까래엔 허고. 외나 산자, 인방을 뒤편 인방이렌 험니까?

108006 #1 인방이라고 현 것은 자축인묘 그걸 헤가지고서 인이 들어오는 디를 인방이라고 이렇게 허는 거.

108006 @1 반자들은마씨?

108006 #1 반자들이 뭐라?

108007 @1 그 다음에 방은, 방은 몇 개나 십니까?

108007 #1 방은 옛날에 고팡이란게 똑 잇었주.

108007 @1 예.

108007 #1 집 안에 고팡.

108007 @1 예.

108007 #1 그 다음에 안구들.

108007 @1 예.

108007 #1 안구들이 큰구들이엔 허지.

108007 @1 예.

108007 #1 그 다음에 죽은 구들.

108007 @1 안구들, 죽은구들 부를 거예.

108007 #1 안구들, 죽은구들 아니라 큰방, 죽은방 허고 안구들은 거 주로 큰구들이엔 허는 딴 주인이 늑는 딴 안구들이엔 허주.

108007 @1 방에 시렁도 잇고.

108007 #1 시렁이엔 허는 거 궤 놓는 딴 시렁이렌 한다.

108007 @1 시렁이엔 허는 거예.

108007 #1 으, 으.

108007 @1 백장도 잇고예.

108007 #1 으, 백장도. 시렁 안에 백장이 잇는 거주.

108007 @1 시렁 안에 백장이 잇는 거. 궤는?

108007 #1 궤는 거 저 뭐인가 시렁 아래 백장에 궤를 놓는다.

108007 @1 놓는 거.

108007 #1 백장은 궤 놓게끔 백장이 짜 잇주.

108005 @1 예, 예. 그, 그림 아까 주춧돌 놔가지고 보 놓고 도리 허고 서리 현 다음에.

108005 #1 서리는 마지막에 한다.

108005 @1 서리를 마지막에 현 다음에 흑 불르젠 허민.

108005 #1 흑 불르젠 허민 서리영 다, 다 논 다음에 흑 불리는 거.

108005 @1 으, 흑 불를 땀 어떻 헤낫수과?

108005 #1 흑 불를 때 흑 불를 땀 흑을 뺄 거 아니가이.

108005 @1 으.

108005 #1 게민 서슬 미릿에 그날, 그날 동네가 다 나오니까 서슬 다 땀 거 아니가이.

108005 @1 으.

108005 #1 경허면은 서슬 다 뒤편은 흑을 뻗 건이 쉼스럼으로 지붕 우터레 젊은 사람덜이 막 올린다.

108005 @1 으.

108005 #1 지붕 우터레 올리면.

108005 @1 으.

108005 #1 그 흑을 우이 깎는 거.

108005 @1 다 같이 해가지고 영 치대기는 거?

108005 #1 으, 치대기면 사람이 우이 올라가 다 골짜.

108005 @1 아.

108005 #1 경 안 허민 그거 지영 올라가지 못 허주게. 계난 힘쎈 사름이 쉼스럼으로 지붕 우터레 다 올린다.

108005 @1 아.

108005 #1 계난 젊은 사름이 힘쎈 사름이 그거 필요헌 거주.

108005 @1 아.

108005 #1 흑 올리는 사름은 다 젊은 사름이.

108008 @1 아. 마루는, 마루는 상방이엔 험니까?

108008 #1 으, 상방.

108008 @1 상방에 부섭 같은 것도 잇어난마씨, 부섭

108008 #1 부섭, 건 그것ㄱ라 봉덕이엔 헛는데 봉덕.

108008 @1 아, 봉덕이렌 헛.

108008 #1 으 봉덕이엔 헛저. 이딴말로 봉덕.

108008 @1 으.

108008 #1 꼭 거 가운데 셋저. 왜냐허면 겨울에 추면은 거기서 불 살라근에 뽕영 돌아 앓앙 불 초고 또 제서 때엔 거기서 묵도 굶고 고기도 굶고. 봉덕에서 그렇게 해나세.

108008 @1 아. 봉덕에서예.

108008 #1 이제는 거 없어져뻬주. 그때는 난방 기구가 잇어 놓니까 봉덕이, 집집마다 그 봉덕은 다 잇었저.

108008 @1 그 봉덕은 산방 들어가민 어느 쪽에 잇어났수과?

108008 #1 가운데.

108008 @1 가운데, 맨 가운데?

108008 #1 으.

108009 @1 으, 봉덕이 잇어난 거예. 고팡은?

108009 #1 고팡은 안구들 바로 다음에 고팡이엔 현 디 잇어났주.

108009 @1 고팡의 용도는 뭐짜?

108009 #1 고팡의 용도는 곡식 거 보관허는 창고.

108009 @1 거기에 뭐 안칠성도 잇텐 험니까?

108009 #1 게메 그 옛날엔 고팡지기라 고팡을 잘 위해야만 현에 고팡에 간에 제서 땀 물 다 거려 놔 낮저.

108009 @1 안칠성 잇텐 험에예.

108009 #1 어.

108009 @1 창곰이란 건 창곰. 고팡이 구멍?

108009 #1 창곰이엔 현 건 공기 통허렌 창곰 내운 거.

108009 @1 그냥 창곰이렌 험니까 여기서도?

108009 #1 으, 창곰.

108009 @1 창곰이렌 공기 통허렌.

108009 #1 게난 쪼그만 허게, 그거 도둑이라도 들민 안 댜니까 쪼그만 허게.

108010 @1 아, 하하. 요, 요만이 허게예. 부엌은 뭇렌 곱아낫수과?

108010 #1 정지지.

108010 @1 정지. 정지엔 뭇, 뭇 잇어낫수과?

108010 #1 아, 정지엔 솟허고 물, 물항허고.

108010 @1 으.

108010 #1 살레, 살레에는 뭇 놓는고 허니 식기 같은 거 놓는 거 살레엔 헛지. 것뿐. 솟허고 물항허고 살레.

108010 @1 살레 그것만예. 솟은 뭇 개 정도 놔 잇어?

108010 #1 보통 세 개. 세 개, 네 개.

108010 @1 크기별로?

108010 #1 으.

108010 @1 솟은 솟덕우에.

108010 #1 으.

108011 @1 문설주는, 문설주, 문설주 알아지쿠과?

108011 #1 문설주, 문설주 들어낫주만은 제웃말로 문설주가 잘 모르겠네.

108011 @1 문 이 주변을 뭇렌 험니까?

108011 #1 아, 이것ㄴ라 입쟁이, 입쟁이엔 현다. 우리 제주도 말로 입쟁이엔 현다.

108011 @1 아 입쟁이에. 요, 요거를 뭇렌 헤마씨?

108011 #1 이건 문쌀창이주게

108011 @1 문쌀창이고 여기에 문 들젠 허면.

108011 #1 돌치귀.

108011 @1 돌치귀?

108011 #1 으, 돌치귀.

108011 @1 문얼굴? 문얼굴이라는 말은 엇고? 게민 요 밑에 여기는, 문지방?

108011 #1 문지방.

108011 @1 문지방. 우이는?  
 108011 #1 대문지방, 문지방. 이건  
 108011 @1 우이는?  
 108011 #1 이건 문대방이엔 현다. 우이.  
 108013 @1 아, 우이는 문대방. 문대방이렌 허고 문지방예. 호령창 잇어낫수과, 여기도?  
 108013 #1 호령창이 뭇고?  
 108013 @1 쪼그만허게 누구 왓신가 보젠?  
 108013 #1 아, 아. 그건 가라스 조금헨 옛날에 창문에 영 부찌는 거 잇어 낫저.  
 108013 @1 가라스로 해낫수과?  
 108013 #1 으.  
 108013 @1 가라스 잇기 전에는 뭇?  
 108013 #1 가라스 잇기 전에는 뭇 그건.  
 108013 @1 그건 뭇렌 곶앗는지는?  
 108013 #1 건 잘 모르켜.  
 108014 @1 모르고예. 굴목 떼젠 허민, 굴목 떼젠 허민 굴목을 뭇로 떼난마씨?  
 108014 #1 굴목은 주로 뭇똥으로 떼신에 뭇똥으로.  
 108014 @1 뭇똥.  
 108014 #1 굴목 군데라는 것이 잇저, 굴목에이.  
 108014 @1 예.  
 108014 #1 뭇똥을 이렇게 헨 끓어다가 굴목 거시기러레, 흠더레 막 담아 낱.  
 108014 @1 담아 놓고.  
 108014 #1 담아 낱 불 부짱, 불 부짱 내버리면 불이 살 거 아니가.  
 108014 @1 예.  
 108014 #1 경허민 불이 영 오지 못허게 돌로, 돌이 납작헌 돌로 이렇게 불 나오 지 않게 막아낫저.  
 108014 @1 납작헌 돌, 그 막는 돌을 또 뭇렌 부르는 건 엇어낫수과?  
 108014 #1 건 뭇렌 허는 건 엇다.  
 108014 @1 엇고예.  
 108014 #1 건 공기를 통헤야 거 불이 타니까.  
 108015 @1 예, 예. 초가집이 밑에 비가 들어오지 못허게 앞에 세우는 거 잇잖 아예?  
 108015 #1 거 풍채.  
 108015 @1 여기도 그냥 풍채렌 헨마씨?  
 108015 #1 으, 풍채.  
 108015 @1 풍채가 그냥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떼여지는 것도 잇수과?  
 108015 #1 으. 보통 달려젓저.

108015 @1 아 뗏당 부챗당 안 허고 달려진 걸로.

108015 #1 으, 보통 달려져. 아, 뗏당 허게, 허게도 뗏져. 건 끈으로 영 풍첼 영 우에 돌아메영.

108016 @1 예, 예. 물팡이렌 허지에 그냥예.

108016 #1 으. 물팡이엔 현 건이.

108016 @1 예.

108016 #1 그 물 질어다근에 허벅 잇잖어이.

108016 @1 예.

108016 #1 그걸 항상 그 놔 두는 것ㄴ라 물팡이엔 현다. 물허벅 그 보관허는 그 집 앞에 그 축담 부짱 있는.

108016 @1 그 정지 앞에?

108016 #1 정지 앞에도. 그자 집 앞에도 뒹고.

108016 @1 집 앞에도 뒹고 물팡?

108016 #1 으.

108016 @1 허벅 무거워부난 거기서 내리는 거 아니?

108016 #1 허벅이 놀 디가 엇지게. 항시 지영 땡길 거니까 허벅.

108016 @1 아니 물 땡 와신디 물 부리젠 허난 무거워부난 물팡 우이 영.

108016 #1 아니아니 물팡은 항상 물허벅 보관허는 장소.

108016 @1 아 물허벅 영 올려 놔두는 거?

108016 #1 으. 게사 그디 산 채로 영 지게끔 헛주. 영 굽영 허젠 허민 안 뒹니 까 이만이 높이가 잇영 물 지는 사름이 꼭 알맞게끔.

108017 @1 집집마다 골목은 다 잇엇수과?

108017 #1 골목 신 디.

108017 @1 올레?

108017 #1 으, 올레가 다 잇엇어.

108017 @1 올레가 다 잇엇어예. 올레가 곧장허지 앓고 아간 영 구불구불.

108017 #1 경헌 디도 잇고 저 보통, 옛날은 꼬불꼬불헌 올레도 많이 잇엇주.

108017 @1 아. 그 우리 안거리, 밧거리엔 허고 모커리엔 허잖아예.

108017 #1 으.

108018 @1 이걸 문간채엔 현 말은 안 씩니까?

108018 #1 우리 제웃말론 문간채엔 현 말 안 쓴다.

108003 @1 모커리 용도는 뭐과?

108003 #1 모커리 용도 뭐인가 부엌, 부엌을 주로 헛주.

108003 @1 그 웨양간, 쉼막 같은 거는?

108003 #1 쉼막은 밧거리에.

108003 @1 아, 쉼막은 위치가 밧거리가 뒹는 거?

108003 #1 으.

108019 @1 놀 놀어나면 가리, 놀 있지예, 놀 뒤에서 거기 막 숨박꼭질도 하고  
꼭을락 같은 것도 하고.

108019 #1 아, 옛날 경혜나신에, 옛날 어린 아이덜.

108019 @1 으, 놀 눈 거 가리라는 말은 안 하고 놀이엔 허는 거.

108019 #1 으 경헌다. 놀 현 디 가리 잇주게.

108020 @1 통시?

108020 #1 통시는 지금 뭐인가 화장실인데.

108020 @1 으.

108020 #1 통시엔도 허고 칩간이엔도 허고.

108020 @1 아, 칩간이엔도 해낫수과?

108020 #1 으.

108020 @1 통시엔 도새기 잇, 돼야지 잇수과?

108020 #1 으, 집집마다 거 돼야지, 집집마다 다 질좌세. 웨냐허면 걸름을 하기  
위해.

108020 @1 걸름.

108020 #1 걸름허고 또 다시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다 돼야지가 먹으난 아무것  
도 버릴 것이 엇주게.

108020 @1 예. 돼지 사는 집도 있잖아예?

108020 #1 집 잇주.

108020 @1 게민 거 돼야지 집이엔 해?

108020 #1 돼야지 집이주.

108020 @1 지붕 잇수과?

108020 #1 지붕 멘들아 줘야지게.

108021 @1 멘들아 줘야. 게민 우리가 일 보는 데에는, 일 보는 데는.

108021 #1 건 디덜팡이엔 허주. 디들팡.

108021 @1 거기는 지붕 잇어낫수과?

108021 #1 아니 엇어.

108021 @1 디들팡은 나무로 만들앗수과 돌로?

108021 #1 돌로 헛주.

108021 @1 다 돌로?

108021 #1 으.

108023 @1 쉼막?

108023 #1 거 쉼막은 소 뭐인가 소 메는 디가, 쉼 메는 디가 쉼, 쉼막.

108023 @1 헛간에는 뭐 보관해낫수과?

108023 #1 헛간에는 기자 농기구 같은 거. 헛간에 잠대 같은 거, 켤이 같은 거,  
삽 같은 거.

108023 @1 으.



108023 #1 농기구 보관하는 디가 헛간이랴주.

108024 @1 으, 으. 장독대는 장독대렌 헛수과 아니면?

108024 #1 거 장독대에 헛저.

108024 @1 장들 보관하는 디, 아니 향아리들.

108024 #1 게메 그 장 논 것ㄴ라 장독대엔 헛주.

108025 @1 춤향이 뭐과, 춤향?

108025 #1 아, 춤, 춤향은 어떤 거고 허민이 나무 잇잖아이.

108025 @1 으.

108025 #1 물이 귀허니까이 그 나무에이, 이것이 나무면이 이디 영 저 뭐인가 물 새로 영 예껴근에 허면 이렇게 영 허면은 물이 영 오면 이디 항더레 물이 빠지 게끔. 그 큰 나무에서는 물이 많이 나온다. 것ㄴ라 춤향이엔 현다. 춤, 춤 받는다고.

108025 @1 춤 받는 거예.

108025 #1 물 내려 오는 거, 나무에서 내려 오는 걸 춤 받는다고.

108025 @1 예, 물 받는 거.

## 연장

108033 @1 지난 번에 집 짓는 것까지 물어 봐신디예.

108033 #1 으. 집 짓는 거.

108033 @ 집 짓을 때 연장들예, 뭐 필요할 건고, 나무할 때서부터. 나무허젠 허민?

108033 #1 나무 허젠 허민 톱, 또 뭐인가 돌도치란 게 옛날에 영.

108033 @1 돌도치?

108033 #1 아니, 저 남, 도치란 게 잇저, 남 끈는 도치.

108033 @1 으, 도치.

108033 #1 으, 그거허고 톱이 그것만 필요허다 남 그치는 데. 옛날에 목수덜 헤근에 끝이니 뭐이니는 목수가 거세기 허는 것이고.

108033 @1 으.

108033 #1 집 주인이 할 때는 나무 끈는 거 때문에 그 저 뭐인가 톱허고이.

108033 @1 예.

108033 #1 나무 잘르는 톱허고 나무 도끼 그거 필요하다.

108033 @1 나무 도끼를 아까 도치렌 헛수과?

108033 #1 으. 제춧말로 도치, 도치.

108034 @1 도치예. 그럼 톱은 크기가 여러 종류?

108034 #1 으, 여러 종류 잇저.

108034 @1 크기별로 뭐 명칭 따로 엇수과?

108034 #1 큰 톱은 큰톱 뭐 작은톱 경허주게. 뭐 그 그 명칭덜 나 잇어불엇는데 옛날에 큰 뭐엔, 뭐엔 현다만은.

108034 @1 거두를 험니까 혹시?

108034 #1 보통 걸 거두엔 한다. 거 죽은 거ㄴ라 거두엔 허주.

108034 @1 아, 죽은 거ㄴ라 거두예?

108034 #1 큰 것ㄴ라 톱이엔 허고.

108034 @1 그민 톱은 영 놀이 잇고?

108034 #1 으, 하나로 영 놀이 잇어근에 쪽허게 쉼 것도 잇고.

108034 @1 예.

108034 #1 또 다시 둘이가 이렇게 뎡기는 톱도 잇저. 그거, 것ㄴ라 또 톱이엔 허주.

108034 @1 으.

108034 #1 둘이가 이쪽에 앓고 썸썸에 앓고 가령 뒹 대판 같은 거, 널 같은 거 오리젠 허면 그건 다른 톱이라 헤여.

108034 @1 아, 다른 톱이라야 뒹여.

108034 #1 그건 뒹인가 나무 비는 톱이란 게 또 딱로 잇저.

108034 @1 으, 그거 부르는 이름은 모르고마썸?

108034 #1 것ㄴ란 나무 오리는 톱이엔 허주.

108034 @1 나무 오리는 톱예.

108034 #1 막 큰 건 대톱이엔 허고.

108034 @1 게민 제일 큰 게 대톱이라?

108034 #1 으.

108034 @1 그 다음 나무 오리는 톱?

108034 #1 으. 나무 오리는 것ㄴ라 대톱이엔 한다. 큰 톱.

108034 @1 아, 나무 오리는 걸 대톱이엔 허는 거예.

108034 #1 으. 또 다시 이제 톱쪽에 념썸헸 톱이 잇주.

108034 @1 으.

108034 #1 거 일본말로 고비끼리엔 헤가지고서 그건 혼자 막 톱이 이렇게이 혼자 허는 건데 톱이 막 념나.

108034 @1 어.

108034 #1 거 고비끼리. 일본말로 고비끼리엔 헸 건 윽으로 잘르는 걸 고비끼리엔 한다. 게난 고비끼리, 고비끼리엔 헤낫저.

108034 @1 고비끼리?

108034 #1 으, 윽으로 영 즐랑.

108034 @1 아, 고비끼리. 아, 아.

108034 #1 그런 것도 잇고 그자 톱도 잇고 죽은 건 거두엔 허고.

108034 @1 죽은 걸 거두엔 험니까?

108034 #1 으,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거두엔 한다.

108034 @1 아.

108034 #1 가정용으로 사용허는.

108034 @1 가정용으로 사용허는 거예. 그럼 보통 집에 있는 거는?

108034 #1 다, 다 거두여.

108034 @1 거두라예. 대톱이니 아까 고비끼리니 그런 건 엇고예.

108034 #1 으.

108034 @1 그민 톱 허민 톱날이 잇고.

108034 #1 사람의 손잡이가 잇고.

108034 @1 으 손잡이 잇고 그 다음 톱.

108034 #1 나무 거세기, 나뭇가 영 거 오리는 건이 아까 그 대톱이 니 헤가지고 서 양쪽에 뒤 서기도 현다 아주 큰 나무는. 그것은 톱이 어떻게 켜는고 허니 이렇게 이렇게 영 와꾸거치 이렇게 뚫가지고이.

108034 @1 으.

108034 #1 가운데 놀이 잇주.

108034 @1 으.

108034 #1 가운데 놀이 이시민, 가운데 놀이 잇이니까 이렇게 와꾸 이렇게 현 것은 여기 다 배 총배로 다 이렇게 단단하게 헛저. 그거에 헤가지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 쓰게끔 헤가지고 이제 땡기,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108034 @1 아 손잡이를 헤가지고?

108034 #1 으, 이렇게, 이렇게 짜 져주, 이렇게 짜전 가운데가 놀인데 여기 사람 앞양 손잡이 잡고 여기 잡고 막 거 진다. 두 발 내지 서 발.

108034 @1 아, 두 발 내지 서 발, 크기가?

108034 #1 두 발 정도, 거의 한 발 가웃 내지 두 발 정도.

108034 @1 아, 그거, 그거는 나무 행 올 때 쓰는 거라.

108034 #1 그거는 집에서 뒤 문이나 대판이란 게 잇저, 대판. 그리고 널 올릴 때 주로 저 그 톱으로 대톱으로 사용허주. 저디 강 나무 끄는 것은 큰 톱으로.

108034 @1 아, 큰 톱으로.

108034 #1 으.

108034 @1 큰 톱이랑 아까 도치랑예?

108034 #1 으, 도치. 그런 거.

108034 @1 그런 거 사용허는 거예. 그민 나무는 톱으로 행 행 왓수다. 오면은 나머지 목쉬들이 쓰는 목수들이 쓰는.

108034 #1 계난 그 제재소가 나기 전에는, 제재소가 나기 전에는이.

108034 @1 으.

108034 #1 제재소란 나무 오리는 공장 잇지 안허여.

108034 @1 예, 예.

108034 #1 그거 나기 전에는 목수가 그 뮌인가 도치와 그 뮌인가 번자귀엔 현 게 잇저. 그걸로 다 나무를 목수가 집 짓기 전이 자기 혼자 다 다듬앗는데.

108034 @1 으.

108034 #1 처음에는 그렇게 다듬었는데, 제재소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인이 나무를 끈어올 거 아니가이.

108034 @1 으.

108034 #1 끈어 오면은 그 집이 뭐인가 그 집 구조에 맞게끔 제재소에 강 나무를 시경 강 다 오려온다. 제재를 행 와. 제재소에 강.

108034 @1 아.

108034 #1 계난 그거 허기 전에는.

108034 @1 으.

108034 #1 목수가 다 전적으로 그 뭐인가 그 귀자귀하고 그런 걸로 다 치목을 했주 다. 다듬었주.

108034 @1 맞추멍 치수 맞추멍 그거에 맞게 다 다듬앙.

108034 #1 으.

108034 @1 목수가 헛엇던 거예?

108034 #1 계난 남거튼 거 헐 때 목수를 달앙, 들앙 가야 웬다. 그 꼬부라진 낭 쓸 때도 잇거든.

108034 @1 으.

108034 #1 그런 걸 다 목수가 요건 어디 쓰고 어디 쓰고 목수가 남 비기 전이 장 그 남을 다 지정, 지정해야 돼. 그런 남을.

108034 @1 아, 그럼 이 나문 길이 어느 정도 해서 잘르라도 하고?

108034 #1 으, 그렇게 해서 목수가 다 거세기 현 대로 제재행 왕 집을 짓는 거.

108033 @1 계민 목수가 사용허는 도구는 뭐, 뭐 이신지 알아지쿠과?

108033 #1 목수가 사용허는 거는 많주게. 우선 거뒤가 잇고이.

108033 @1 거뒤.

108033 #1 톱도 잇고 거뒤가 잇고이. 또 다시 아까 그 뭐인가 나무, 도치가 잇고이.

108033 @1 으.

108033 #1 대패, 나무 집 짓젠 허민 그 뭐인가 나물, 나물 깨끗이 깎아야 될 거 아니라.

108033 @1 으.

108033 #1 대패란 것이 잇고이. 또 끌이란 게 잇고. 끌이란 건 구녕 뜯루는 거.

108033 @1 구녕 뜯루는 걸 끌이렌 헤마씨?

108033 #1 으.

108033 @1 그 정도민 웬는 거마씨?

108033 #1 그 정도민. 그리고 또 먹통이란 게 잇어야 돼.

108033 @1 예, 예. 먹통.

108033 #1 먹통은 왜냐허면 나무 줄을 바루기 위해서 그 줄 긋어가지고 나무

그치는 거.

108033 @1 예, 예 먹통 잇다 다시 물어보쿠다예 뭐에 쓰는 건지예.

108033 #1 나무 거세기 헐 적에 선을 굿으면은 나무 멧 센치 놓면은 그대로 줄을 그걸로 먹통으로 영헐 딱허게 줄이 짹 굿어지면 나무 우에 그대로.

108033 @1 예, 예.

108033 #1 잘라가지고서.

108033 @1 아. 톱에 톱에 놀이 잇고 손잡이가 잇고 손잡이랑 놀이랑 연결허는 부분이 잇잖아예?

108033 #1 어, 췌, 손잡이는 나무로 뒤편에 잇고.

108033 @1 예.

108033 #1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뭐인가 췌로 다 뒤편에 잇고.

108033 @1 그런 거를 뭐렌 굿는 명칭이 잇수과?

108033 #1 그거 뭐 그냥 톱즈룩이엔 허고.

108033 @1 이게 만약 톱이렌 허면은.

108033 #1 이게 즈룩이고 이게 톱이고.

108033 @1 톱이고예. 여기 연결허는 췌 같은 거는 명칭이 따로 없지예.

108033 #1 그거이 이 췌가 구워가지고서이 이게 뭐인가 호미나 뭐이나 다 그렇게 헤가지고 안 빠진다.

108033 @1 예, 예 안 빠지게 딱, 딱 조이는 역할로 행 잇는 거예?

108033 #1 으.

108033 @1 요런 데, 요런 데.

108033 #1 으. 요건 췌스렁.

108033 @1 예, 췌스렁이고. 호미가 영 보민 모양이 트나잖아예.

108033 #1 이건 나무 찍는 호미 주로 나무 찍는 호미여. 이건 우리 그냥 사용허는 호미고 이건 나무찍는 호미 이거ㄴ라.

108033 @1 제일 큰 게 나무 찍는 호미?

108033 #1 으.

108033 @1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108033 #1 요거는 보통으로 우리가 보리도 비고 조도 비는 거.

108033 @1 으, 비는 거. 요거는?

108033 #1 거나 이거나 거의 ㄴ튼데 요거 두 개는 주로 나무, 나무 헐 때. 나무에 가지에 가지치기 허고 헐 때 쓰는 거.

### 초가 지붕이기

108026 @1 예. 지붕 이는 거 있잖아예. 초가지붕 이는 거?

108026 #1 으, 새로 인다.

108026 @1 새로 이는 거잖아예. 보통 얼마마다, 일 년에 한 번?

108026 #1 북군에는 보통 일 년에 혼 번인다.

108026 @1 예.

108026 #1 이 정의는 남군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매해 인다. 해마다.

108026 @1 아, 남군에는 매해 허고 여기 우리는.

108026 #1 여긴 이 년에 혼 번 한다.

108026 @1 아 이 년에 혼 번마씨.

108026 #1 안 이는 걸 일 년 갓을 들인다고 한다.

108027 @1 그럼 지붕 이젠 허면 준비해야 텔 게 뭐가 잇어마씨?

108027 #1 준비해야 텔 건이 첫 째이 농서가 다 끝나면 새란 게 있다, 새.

108027 @1 으.

108027 #1 농서가 혼 시월 말 경에 끝나면은 혼 십이 월에 보리 다 갈아 논 다 음에.

108027 @1 으.

108027 #1. 마지막에 허는 게 새를 저 뭐인가 동짓달에 새를 한다.

108027 @1 으.

108027 #1 새를 우선 해다가 집에 쌓아 둘 거 아냐이.

108027 @1 예.

108027 #1 거 이젠 허면 보통 삼간집은 백오십, 거 뭐인가 혼 단 들어가는, 여 기는 혼 못, 두 못 허는데 혼 백 내지 백오십 못이 든다.

108027 @1 삼간집 허는 데.

108027 #1 으, 삼간집 하나 이젠 허민.

108027 @1 으.

108028 #1 건데 그 집을 이젠 허면은 처음 준비할 게 새를 준비해야 돼고 그 다음에 줄은 내야 돼.

108028 @1 예.

108028 #1 줄이란 것은 거 영 새로 영 그 뭐인가 집을 일어 가지고서 등돌을 메야 돼니까이.

108028 @1 으.

108028 #1 줄을 내야 돼. 줄을 사전에 내영. 줄도이 진줄 즈른줄이 잇저.

108028 @1 으.

108028 #1 영 옆으로 진진헌 건 진줄이엔.

108028 @1 진줄

108028 #1 허고 영 모로 오는 건 즈른줄이엔.

108028 @1 으, 즈른줄.

108028 #1 그 줄을 내영 줄을 내야 돼 그 줄을 다 미리생이 내영 밧다가 집 일 때는 날 뿡 비, 날이 존 때.

108028 @1 으.

108028 #1 뭐인가 화일이 아닌 날을 택해가지고서 집을 인다.

108028 @1 으.

108028 #1 왜 화일을 택허는고 허면은 화일에는 불이 난다는 속설이 잇기 때문  
에.

108028 @1 아, 지붕 이는 거 불화 안 들어 간 날.

108028 #1 으, 화가 안 들어 간 날.

108028 @1 저기 지붕 이는 거라예.

108028 #1 으, 으.

108028 @1 아, 새로 하니까 불 막 부터불카부덴.

108028 #1 그 화일은 불 날이기 때문에.

108028 @1 예, 그 새로 뭐 저기 각단?

108028 #1 각단은, 각단이엔 현 건 켜켜현 새데 복작현 거.

108028 @1 예.

108028 #1 그걸로 줄 내는 거. 각단은 쫄라부난이 집을 못 일주게.

108028 @1 아, 그럼 비어 온 것 중에 쫄 긴 거는 덮을 거로.

108028 #1 으, 덮을 걸로 허고 제일 거기서 쫄른 거 잇주게 복작허게 쫄른 거.  
그건 줄 낼 때.

108028 @1 아, 줄 내는 용으로.

108028 #1 으, 각단은 줄 내고 새로는 지붕을 일고.

108029 @1 줄 내젠 허민 뭐 뭐가 필요헐 것과?

108029 #1 그 호랭이란 게 필요허주.

108029 @1 예,

108029 #1 호랭이 거 나무로 만든 건데이. 나무로 만든 건데 중간에 철로 만든  
것도 잇고.

108029 @1 예.

108029 #1 옛날은 주로 나무로 만들엇저.

108029 @1 예.

108029 #1 그걸로, 각단으로 이제 우리 다른 것은 다 손으로 꼬는데.

108029 @1 으.

108029 #1 이 줄 내젠 허면은 독특한다.

108029 @1 으.

108029 #1 그 각단이 각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헐 땐 각단 양쪽이  
이렇게 질게 헤가지고 톨앙 이거 호랭이에 호랭이에 이거 끼울 거 아냐.

108029 @1 으.

108029 #1 끼우민 여저든 남저든 호랭일 비는 사름이 잇어야 돼.

108029 @1 으.

108029 #1 호랭이 영 비여 가민 이디션 영 거 줄 놓는다고 그레. 각단으로 이렇

게 손에 심영 배 거치 쪽 일정하게 나게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108029 @1 으.

108029 #1 경혜가지고서 그 줄을 다 내 놓면을 이것 또 줄 어울려야 돼여.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서이 합쳐가지고서 것에 이젠 또 다시 줄을 만든다.

108029 @1 으.

108029 #1 비어 낱. 경헨 줄 그거 헤가지고서 이제 거 보관햇당 줄 그렇게 비고.

108029 @1 으.

108029 #1 어울리고 배를 만드는 거지, 줄을 만드는 거.

108029 @1 으, 으.

108029 #1 어울리고 경헨 낫당 일자 봐가지고 새로 집을 이는 거지.

108029 @1 음. 영 돌리는 걸 호랭이렌 허잖아예.

108029 #1 으.

108029 @1 무꺼 두는 거 뭐 또 하나 잊지 안헤마씨, 무꺼 두는 거 잊어?

108029 #1 그 저 뭐인가 그 배 만들 때 무꺼 두는 건이 거 뭐 뒤치개란 게 잊주 뒤치개.

108029 @1 으, 뒤치개.

108029 #1 뒤치개 뒤에서 앓아가지고서 뭐인가 뒤치개를 막 돌려 줘야 돼.

108029 @1 예, 예.

108029 #1 경, 경혜야 배가 영 이렇게 영 거세기 허는디 안 돌려지민 거 줄이 안 돼주게.

108029 @1 으, 안 돼여.

108029 #1 여껴지지 안 허여. 뒤치개로 막 돌려줘야.

108029 @1 예 게난 집줄힐 때도 뒤치개 쓰는 거 아니?

108029 #1 으, 으. 집줄힐 때 줄 다와난 다음에 줄을 허젠 허민 뒤치개가 반드시 필요한다.

108029 @1 아, 두 줄 다시 여끌 때 뒤치기로 헤가지고 돌려주는 거예.

108029 #1 으. 게민 줄 거세기 낼 때에는 혼 사람이 주로 허고이. 줄 어울릴, 것ㄱ라 어울린텐 허는 건디.

108029 @1 으.

108029 #1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108029 @1 으.

108029 #1 어울릴 때는, 어울릴 때는, 줄 어울릴 때는 사람이 하나, 둘, 서이, 서이, 너이가 들어야 돼여.

108029 @1 아.

108029 #1 한 사람은 뒤치개에 지고.

108029 @1 예.



108029 #1 또 이 가운데 줄을 양쪽에 해영 손으로 심어가지고서 걸 일정하게끔 돌아가게끔 이렇게 허고 또 이쪽에 줄 두 사람이 비여 줘야 줄이 딱딱.

108029 @1 아, 그럼 네 사람 잊어야 돼여 ?

108029 #1 으, 네 사람이 필요하여.

108029 @1 그럼 놈 빌영 험니까 사람 잊이민.

108029 #1 그땐 동네 사람 다 놈 빌영 허주.

108029 @1 아, 놈 빌영.

108029 #1 그 줄 어울릴 때만.

108029 @1 어울릴 때. 처음에 헐 때는 이거 줄 뭐 한다고, 처음에 할 때?

108029 #1 줄 낸텐 허는 거주.

108029 @1 줄 낸텐. 그 다음 밑에서 영 각단 집어주는 사람은?

108029 #1 줄 놓는 사람.

108029 @1 줄 놓는 사람예. 그리고 돌리는 사람. 그때는 두 명만 잊어도 되는 거라.

108029 #1 으, 두 명이. 경험데 그 어울릴 때는 너이가 그 뒤치기에 뒤에서 막 돌려줘야.

108030 @1 예, 예. 그리고 그 거왕, 집 허게 뉘면 집줄 맨 밑에 쪽허게.

108030 #1 으, 으.

108030 @1 거왕이렌 험니까 뉘렌 험니까?

108030 #1 거왕이렌 허는 건이 집 측면, 거 뉘인가 가지 끝에이.

108030 @1 예.

108030 #1 가지 끝에이, 가지 끝에이 그 뉘인가 거왕이란 게 잊저. 거왕이란 건 가지 밑에를 나무, 곧은 나무를 쪽허게 그 뉘인가 거 거왕을 해야 뉘다.

108030 @1 예.

108030 #1 거왕을 그 뉘인가 이제는 나이론 끈이 잊주만은 그 전이 깎늘게 새 끼 꼬아가지고이.

108030 @1 예.

108030 #1 그 나무 해다가 그 서리 아래이 서리를 길게 행 무끄주게.

108030 @1 으.

108030 #1 그걸 거왕이엔 허주. 그 거왕을 왜 거왕을 허는고 허니 줄을 허면은 그것에 거왕에 매야 허니까.

108030 @1 으.

108030 #1 줄 메기 위한 것이 거 거왕이라.

108030 @1 게민 줄 영 내려왕 이쪽에 거왕 잇고 저쪽에 거왕.

108030 #1 잇고 스, 스칸에 다 잊저.

108030 @1 영험 거왕에 영 여끄는 거라예.

108030 #1 으.

108030 @1 우리 놀 같으면 돌맹이.  
 108030 #1 으, 돌맹이 무끄듯이.  
 108030 @1 무끄듯이 헤가지고예. 거왕을 땡두암, 땡두암 그런 말 안 쓰고?  
 108030 #1 거왕이렌 한다.  
 108030 @1 그냥 거왕이렌 허는 거라예. 기민 거왕은 아까 곧작헌 나무라야 허는 거 아니?  
 108030 #1 으, 곧작헌 나무.  
 108030 @1 어떤 나무 써 낫수와 주로?  
 108030 #1 아무 나무라도 써도, 곧작허게 나무는이.  
 108030 @1 예.  
 108030 #1 대부분이 막 곳디 강 행 와야웨.  
 108030 @1 으.  
 108030 #1 곧작헌 건 가마귀풍남 거튼 거이.  
 108030 @1 으.  
 108030 #1 주로 가마귀풍남 거튼 거 저 곳에 가면 그 뭐인가 가시낭 거튼 거 그런 거 헤가지고 한다. 이 잡나무 같은 건 잘 곧게 난 게 잘 엇주게.  
 108030 @1 으.  
 108030 #1 그런 것도 허고 대로도 허고. 주로 대로 많이 헛저, 대.  
 108030 @1 주로 대예.  
 108030 #1 대.  
 108031 @1 곧작허난. 기민 집줄메기는 아까 삼간집이면 새가 백오십.  
 108031 #1 으, 새가 백삼십 내지 백오십.  
 108031 @1 백오십 못 필요헌 거고. 그럼 집줄은 어느 정도 헤야 웨.  
 108031 #1 집줄은 그 집줄과 집줄 사이가이 혼 혼 이십센치 간격이, 집이 크민 또 이제 뭐인가 많이 들고 그 간격이 일정허기 때문에 대충 다. 나 거 세보지 안 허난 그건 모르겠네이.  
 108031 @1 아. 어쨌든 집줄 간격이 한 20센치?  
 108031 #1 으. 20센치 사이에 하나씩 다 메게 웨엇주.  
 108031 @1 아.  
 108031 #1 게니까 거 스각형 나게끔 웨는 거주.  
 108031 @1 으.  
 108031 #1 가로로 영 쪽허게 허고 믱루로 영 허민.  
 108032 @1 집줄 쓰당 남으민 뭐 험니까?  
 108031 #1 쓰당 남질, 남질 안 한다. 보통 대충 맞췄 허기 때문에. 멧 개 남으면 이 옛날에는이 비가 많이 치는 디 잇잖으냐이?  
 108031 @1 예, 예.  
 108031 #1 비가 많이 치는 디 줄 남은 거로이 영 저 여꺼가지고 영 등기게 헤

낮져. 비 쳐도 흙이 안 씻어 지게 하기 위해서.

108031 @1 아, 위로 밑으로?

108031 #1 그 거왕 알려레 등기계.

108031 @1 아.

108031 #1 건 집 앞이 안 허고 주로 옆이 거튼 디.

108031 @1 예.

## 연장

108033 @1 다음은예.

108033 #1 으.

108033 @1 아까 잠깐 물어 봐신디 집 짓는 연장, 연장 다시 한 번만 돌아줍서.

108033 #1 어.

108033 @1 연장 종류가, 종류가 집 짓젠 허민 아까 나무 할 때?

108033 #1 나무 할 때 톱, 톱 허고이 나무 도치이.

108033 @1 도치.

108033 #1 그거 허고 장호미 거튼 것도 필요헌다.

108033 @1 아.

108033 #1 장호미는 아까 큰 거 무시거.

108033 @1 예, 예.

108033 #1 그거이, 그런 건이 가지 영 침이 쉽주게.

108033 @1 예, 낭 찰르 때 가지치기 쉬운 거예?

108033 #1 으, 으.

108034 @1 톱 종류 아까 물어봐신디?

108034 #1 톱, 톱은이 톱 종류는 뭐인가 하여튼 세 가진디이.

108034 @1 예.

108034 #1 그 고비기리라는 건 큰 널 찰르는 넙작헌 톱이 있고.

108034 @1 으.

108034 #1 보통은 기자 나무 찰르는 큰 톱 잇잖으냐이?

108034 @1 예, 예.

108034 #1 판자 허는 거보다 조금 거세기 현 거. 그걸로 주로 혼자 나무를 허고 혼자 찰르주게.

108034 @1 으.

108034 #1 혼자 찰르는 그것ㄴ라 톱이엔 허고 작은 건 거뒤엔 허고.

108034 @1 으.

108034 #1 또 다시 이제 또 서너이, 둘이나 서이가 앓아 뭐인가 개판이나 널을, 널을 오릴 때는 뭐인가 그 톱이엔 허주 그거 대톱.

108034 @1 아까 고비끼과, 고비기리과?

108034 #1 고비기리. 끈는다는 말, 기리엔 허는 건 일본말로 끈는다고 허는 말.  
 108034 @1 예, 고비기리예?  
 108034 #1 으, 거 일본말이여.  
 108034 @1 예, 예. 일본말예.  
 108034 #1 으, 일본말로 보통이 목수 연장이 일본말이 많앗주게.  
 108034 @1 그지예. 겐 아직도 그런 말들은 다 그냥 쓰잖아예?  
 108034 #1 으, 그런 말들 다 쓴다. 고비기리 같은 거 우리말로 그 무시거 톱이  
 엔 허면은 모르주게. 고비기리엔 해야 알주.  
 108035 @1 아, 고비기리엔 해야 알아. 그 못 빼거나 박을 때 그?  
 108035 #1 으, 못빼기엔 현 게 잇저.  
 108035 @1 예, 못빼기.  
 108035 #1 으, 못빼기.  
 108035 @1 거린장은?  
 108035 #1 거림, 그런 건 잘 몰르켜.  
 108035 @1 모르고마썸. 못 뽑을 때 쓰는 게 못빼기예?  
 108035 #1 으.  
 108035 @1 우리 못 뽑젠 허면 영 이게 이게 못이면 영 걸치고 영 지탱해주는  
 부분이 잇지 안허과?  
 108035 #1 게난, 못빼기도이 그냥 쪼고만이 망치 같은 걸로 허는 못빼기가 잇고  
 이.  
 108035 @1 예.  
 108035 #1 그냥 진진허게 큰못 빼는 건이, 큰 못빼기라고 헤가지고서 건 췌로  
 영 진진허게 만든다. 췌로 영 길게, 뭐 하여튼 요 정도 헤가지고서 이렇게 꼬부라지  
 게 헤 가지고서 못 빼는 거 그 두가지여.  
 108035 @1 음. 못 빼는 거 그냥 망치에 부튼 거랑 ?  
 108035 #1 으, 망치에 부튼 거랑 기냥 진진허게 췌로 헤영.  
 108036 @1 예. 대패, 깎을 때. 목수가 쓰는 거긴 한테 대패?  
 108036 #1 대패도 건 목수가 집 지을 때는이, 이 낭을 깨끗허게 뭐인가 다듬젠  
 허민 꼭 대패가 필요허주게.  
 108036 @1 예.  
 108036 #1 그리고 문 거튼 거 짜젠 허면은 또 다시 끌이 필요허고. 망치 허고  
 끌이.  
 108036 @1 예. 기민 대패도 혹시 종류가 잇수과?  
 108036 #1 종류가 잇주. 거 문 골치는 거 잇고.  
 108036 @1 으.  
 108036 #1 거 문 홈을 파는 골 대패가 잇고이.  
 108036 @1 예.

108036 #1 기자 그 펡 대패가 잇고.  
 108036 @1 아, 골 대패랑, 펡 대패?  
 108036 #1 으, 보통 기자.  
 108036 @1 펡 대패는 그냥 넓적하게 파는 거고.  
 108036 #1 으, 그냥 민작하게 그냥 수평으로 허는 거.  
 108036 @1 으. 골 대패는 골 치는 거예?  
 108036 #1 으, 골 치는, 문골 거튼 거 허젠 허면 그거, 그걸로 골만 치는 거.  
 108038 @1 예. 자 아까 먹통, 먹줄 골아나신디 먹통 뭐 허는 건지 자세히 좀 골아줍서.  
 108038 #1 먹통은 나무의 나무를 뒤편가 나무를 치수에 맞추기 위해서는이.  
 108038 @1 으.  
 108038 #1 그 저 목측으론 못 허거든이. 그러니까 그 먹통으로 줄을 쳐 가지고 서 그 나무를 다듬는다. 찢른다. 거 톱으로 찢르든지 뭐 허던지.  
 108038 @1 게민 먹통이렌 허는 게 지금 뭐 줄자 같은 것과?  
 108037 #1 아니 줄자, 줄자는 딱 잇고, 거는 각도를 맞출 때 줄자라는 것이고.  
 108037 @1 으.  
 108038 #1 먹통이란 것은 나무를, 나무를 그 뒤편가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줄 치는 거.  
 108038 @1 아, 줄 치는 거?  
 108038 #1 으, 줄 치는 거.  
 108038 @1 거 나무를 죽허게 사람 목측으로 보니까 그것을 멧 미리면 미리, 멧 센치면 센치 놔가지고서 스각이면 스각 놔가지고서 저디 영 못을 꽃앙 이디 영 못을 헤가지고서 이제 거 먹물이 미쳐 잇주. 거 실이주.  
 108038 @1 예.  
 108038 #1 게난 영 딱 들렁 딱 허면은 먹물이 이게 짝 허게 선 굿어져. 그 선대로 나물 저, 치목을 헤야지.  
 108038 @1 아, 그럼 우리 막 옷감 마름질 할 때 선 그렇 마름질?  
 108038 #1 으, 으. 마름질 허는 모양.  
 108038 @1 으, 하는 것처럼 아칸 선 그려지게 그거?  
 108038 #1 으.  
 108038 @1 그것대로 찢르, 찢르렌 헤가지고 하는 거예?  
 108038 #1 으.  
 108038 @1 그럼 먹통 안에 먹줄이?  
 108038 #1 거 자동으로 속에 다 들어 잇저, 먹통 안에.  
 108038 @1 아, 먹통 안에 먹줄이예?  
 108038 #1 으.  
 108039 @1 그 우리 흑 브르젠 허면은, 그 흑 브르젠 허면은?

108039 #1 그 서슬, 으.

108039 @1 서슬 해난 다음에 벽에든 지붕에는 흑 브르젠 허면 뭐 필요할 거 아니?

108039 #1 으, 필요하다. 거 지붕, 거 뭐인가 그 지붕도이 그 흑질 할 적에이.

108039 @1 예.

108039 #1 거기다 서슬 해가지고이 새, 새 일기 전에이.

108039 @1 예.

108039 #1 문밖 그디 그 흑으로 다 더퍼야 웬다. 그 서슬을 흑으로 쪽 허게.

108039 @1 예, 예.

108039 #1 그건 뭐 아무 기술자 없이 해도 다 돼는데.

108039 @1 예.

108039 #1 이 뭐인가 이 축브름 잊지 안혀이?

108039 @1 예.

108039 #1 축브름 거튼 건 거 상뒤, 상뒤엔 헛주. 상뒤가, 상뒤가 와 가지고서 처음 초불 불르는 거 해 준다. 그 흑질 허는 날.

108039 @1 상, 상두가 뭐마씨?

108039 #1 거 상뒤엔 현다. 상뒤라는 것은 여러 사름을 모이는 거, 동네 사름이 다 모이는 것을 옛날엔 상뒤엔 해낫저.

108039 @1 아. 동네 사름이 모이는 걸.

108039 #1 으. 그래서 그 사름덜이 와 가지고서.

108039 @1 으.

108039 #1 이제 그 흑질허는 날 나온다. 흑질허는 날 미룻에 다 서슬 행 낫다가.

108039 @1 으.

108039 #1 서슬 행 낫다가 흑질허는 날 상뒤가, 그 동네 사름이 다, 그 조합원덜이 다 나오라 가지고서 그 이제 흑질허는 사름은 흑, 특별헌 젊은 사름, 힘 썬 사름은 흑질을, 흑질을 허고 그 사름을 흑부떼 든다고 현다이.

108039 @1 흑?

108039 #1 흑부떼 든 사람.

108039 @1 아, 흑부떼 든 사람?

108039 #1 으, 그 사름이 흰 십 여명쯤 흑 밧데 들어야 그 사름덜이 끓으는 사 이 끓으면서 뒤집으면서이 잘 끓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흑을 지붕, 지붕 우터레 올리고.

108039 @1 예.

108039 #1 또 이제 더러레 집 안에 축브름에 서슬에 불르제 그렇게 다 나누면은 그 상뒤덜이, 그 동네 사름덜이 초불 다 불를 거 아니가이?

108039 @1 으.

108039 #1 그 지붕에는 초불로 마무리, 다 끝나는 것이고. 이 벽 거튼 디는 그 거 몰르면 또 다시 기술자 빌어근예가 그걸이 다 이제 펜펜하게 잘 메꾸젠 허면은 건, 그것은 뭐인가 사깁이라고 헐다이.

108039 @1 으. 흑 불르는 사람?

108039 #1 으, 흑 불르는 사람.

108039 @1 사깁?

108039 #1 으, 그런 사름 빌어다가 축브름은 깨끗이 불른 다음에 다 몰르면은 그 도배허는 거여.

108039 @1 게민 그 흑 불를 때 뭘로 불릅니까?

108039 #1 손으로, 기냥 손으로.

108039 @1 아. 게민 사깁도 손으로만 헤여?

108039 #1 아니, 그건 저 췌손이란 게 잊저.

108039 @1 췌손예?

108039 #1 으, 췌손으로 그거 헤사 멘질락허게, 손으로 행은 아무래도 잘 안 돼 주게.

108039 @1 게민 췌손은 췌로 만든 거?

108039 #1 으, 췌로 만든 거.

108039 @1 게민 남손은 안 써낫수과?

108039 #1 아니, 남손도 쓰긴 쓰주만은, 남손도 쓰긴 쓴다.

108039 @1 으.

108039 #1 남손은 웨 쓰는고 허니 빨리 허기 위해서이 그 울통불통 헐 디 잊지 안허냐이. 울통불통 헐 디덜 그걸 어느 정도 막이 손으로라도 던질 거 아니가이. 젠 큰 남손으로 짹, 짹 일정허게 이렇게 헤 놔 가지고서 마지막으론 췌손으로 시아게.

108039 @1 아, 그럼 남손은 좀 큰 거다예.

108039 #1 으, 으.

108039 @1 짹 한 번 헤 놓고 나서 더 섬섬허게 할 때.

108039 #1 섬섬허겐 췌손으로.

108039 @1 게민 여기 뭐 잡앙 이렇게 한다면 이 바치는 것도 잊지 안 허과?

108039 #1 어, 어. 거, 거 바치는 것도 잊저. 거 손에 잡아근예가.

108039 @1 예. 오른손으론 영행 영 허고.

108039 #1 으, 거 왼손으로 거 뭐인가 거 영.

108039 @1 흑바데렌 험니까?

108039 #1 으, 흑바데.

108039 @1 예.

108039 #1 그 흑바데 영, 흑바데러레 영 흑 떠 놔근예가 거기서 오른손으로 그 뭐인가 삭강 헐 적예.

108039 @1 예.

108039 #1 쉼손 혈 적에 경혜영. 경 안 혜영 그자 나무로 혈 적에는 그냥 집영, 손으로 집영 부찌근에가 나무로 영.

108039 @1 아, 게난 어쨌든 저기 쉼손 혈 때야 흑바데 해근에 부치멍?

108039 #1 으, 으.

108039 @1 마무리 하고예?

108039 #1 으, 마무리.

108039 @1 마무리 하고. 흑바데과, 흑바데과?

108039 #1 흑바데.

108039 @1 흑이엔 혈 거예?

108039 #1 으.

## 9. 신앙

109001 @1 이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쿠다.

109001 #1 으, 신앙, 신앙.

109001 @1 집에 신들이 잇텐 허잖아예. 가신이엔 험니까?

109001 #1 가신은 집집마다 거 틀린다. 그 어떤 디는이 그 도체비라는 우리 제 좇말로이 도체비 모시는 집도 잇고이.

109001 @1 으.

109005 #1 또 다시 토산 한집이엔 해가지고서이.

109005 @1 으.

109005 #1 그 베염을 모시는 건데 베염 모시는 집도 잇고 그렇게.

109005 @1 으.

109005 #1 게난 그 도체비란 것은 고평에 모시고

109005 @1 으.

109005 #1 그 뭐인가 토산 거세기는 그 뒤에 같은 디 해근에 주렁이로 거기에 는 뭐 비 안 들게 싸 준다.

109005 @1 으.

109005 #1 그건 칠성이엔 해가지고. 이 베염을 칠성이엔 한다.

109005 @1 베염을 칠성이엔 허는거예. 보통 도체비랑 칠성.

109005 #1 그거라.

109005 @1 그걸 가신예.

109001 #1 바당을 섬기는 선왕이 또 잇고.

109001 @1 선왕. 선왕예. 바당 섬기는 거 뭐 영등은?

109001 #1 그 영등은 주기적으로 영등은 영등날 가근에 바다에 가근에 그 비는 것이 영등굿이란게 잇저.



109002 @1 으. 성주는 뭐과, 성주?

109002 #1 성주라는 건이 집이 집을 다 끝내면이 성주풀일, 성주풀일 한다.

109002 @1 예.

109002 #1 계난 흑질헤난 밤에이 밤에 그 성주풀이 행 막 놀주게 노래 부르멍.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디더나? 그러면서 막 허고.

109002 @1 그 노래를 한 번 불러봅서.

109002 #1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디더나 경상도 안도 땅에 백앙목 무  
슨 목을 끈어다가 집을 져저, 그런 노래주.

109002 @1 아,

109002 #1 게서 이제는 그건 놀이로 경허는 것이고 흑질 끝에 경허는 것이고  
정성스리 성주를 내려야 웬다. 신방을 빌어가지고.

109002 @1 예.

109002 #1 무당을 빌어가지고.

109002 @1 예.

109002 #1 성주풀이를 해야 돼여. 성주풀이가 뭐인가 허면은 그 성주신을 아주  
뛰인가 즐겁게 해주는 게 성주풀이주게.

109002 @1 그럼 성주신을 모시는 것과?

109002 #1 아니 모시진 안 한다.

109002 @1 계민.

109002 #1 모시진 안 허고 얘기로만 와서 풀이 허는 거. 거 집이 모시는 건 아  
니.

109002 @1 아, 집이 모시는 건 아니고. 흑질 다 끝나면 그날 성주풀이를 허는  
거 마씨?

109002 #1 그 동네 분들이 동네 분들이 그거 혼 잔 먹어근에가 노는 거, 거 성  
주풀이 헐 때 막 놀지 안 허느냐.

109002 @1 예.

109002 #1 노래 부르멍 거 허고 정식으로 허는 건 무당 불러근에.

109002 @1 아.

109002 #1 성주풀이를 안 허면이 집안에 뭘 일이 잘 안 웬다고 허주게.

109002 @1 어쨌든 상 차려놓고예.

109002 #1 으.

109002 @1 제 지내고.

109002 #1 으. 그거 혼 서너 시간 걸린다.

109003 @1 무당 오면은. 문전은 뭐과? 문전에 대해서 골아주십서.

109003 #1 게 문전은 거 저 뭐인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대문, 대문 집 안ㄴ라  
문전이엔 허는 데이.

109003 @1 예.

109003 #1 문전에는 거 뭐인가 집이 그 집에 주인이 문전이엔 허주게.

109003 @1 집 주인이?

109003 #1 으. 제서 헐 때 꼭 제 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지낸다.

109003 @1 예.

109003 #1 문전제를 지내난 다음에 이제 저 제를 지내는데 이 문전이라는 것은 그 집이 임자라고 여겨지는 거여. 집의 주인이 문전.

109003 @1 어.

109003 #1 그렇기 때문에 집이 제서 때 음식을 그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나 낫주.

109003 @1 으.

109003 #1 지금도 건 유지되고 있다. 제서 때에.

109003 @1 그 문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조그만 허게.

109003 #1 으 제서 지내기 전에 대문 앞, 대문 저 상방, 상방에서 그 대문을 향해 해낫저. 집이서.

109004 @1 예. 조왕은 뭐과 조왕.

109004 #1 조왕이라는 것은이, 그 뭐인가 부엌, 부엌신을 말헌다. 부엌신을 말허는 건데 조왕이란 것은 항상 옛날에 부인덜이 촛불을 켜 낫저. 어디 집 안의 가장이 어디 타지에 가던가.

109004 @1 예

109004 #1 군인에 간다던가 이렇게 허면은 그 조왕신이 따라와가지고 항상 그 어머니들이말야 조왕을 깨끗허게 해야 만이 그 집안도 거세기 허게 돼, 펜안헌다 해가지고서.

109004 @1 으.

109004 #1 조왕을 잘 웃좌야 조왕은 우리 밥 먹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조왕신이 그렇게 자손들을 북 놓는다고 그렇게.

109004 @1 우리 고팡제 지내는 게 이거 조왕신이과?

109004 #1 아니 건 고팡신이라고.

109004 @1 고팡신 따로.

109004 #1 그건 곳간, 우리 현재말로 허민 곳간이주, 고팡이 곳간이주.

109004 @1 예, 예.

109004 #1 그 곡식 보관허는.

109004 @1 예.

109004 #1 그러니까 그것도 고팡, 그 조왕 하르방이나 마찬가지로 고팡 할망이엔 허주.

109004 @1 그 부엌제 지내는 거를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부엌에서 지내낫거든 마씨?

109004 #1 아 그것허고는 틀리다.

109005 @1 아, 달라마씨. 조왕신이랑 고팡신이랑. 칠성 아까 잠깐 곪아신디 칠성이 뭐라고마씨?

109005 #1 칠성은 그 뭐인가 베염을 섬기는 건디 토산이라는, 우리 제주는 토산에 거기가 베염을 섬긴다.

109005 @1 으.

109005 #1 그 토산 사람이, 거긴 정의엔 허고 여긴 목안이에 허는 디, 북군은이.

109005 @1 으.

109005 #1 거기 여자가 이디 오면은 그 신을 섬겨야 돼. 거 따라 온다는 거주게 그 뭐인가 칠성신이.

109005 @1 으.

109005 #1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꼭 그디 그 사람 메느리 쪽으로 오는 거라.

109005 @1 음.

109005 #1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칠성을 뒤에 모셔.

109005 @1 그 뒤에렌 허민 장독대?

109005 #1 아, 장독은 피허고 뒤에 그자 하여튼.

109005 @1 안거리 뒤에.

109005 #1 으, 안거리 뒤에. 게난 거 집집마다 허는 게 아니고 우리 오침이도 그런 걸 안 헌디 그런 사람덜이 잇주게.

109005 @1 그럼 토산리 사람은 메누리 별로 안 반기겄다예.

109005 #1 옛날엔 아니 반겨놔주게 이 동네 사름들은.

109005 @1 예.

109005 #1 그 베염이 따라 온다고 해서. 뭐인가 그 칠성 따라온다고 해서.

109005 @1 예.

## 10. 세시풍속

110001 @1 예. 이젠 세시풍속 물어보쿠다. 월마다예 월마다 해난 것들예. 우선은 정월달예. 정월달. 정월달에 정월 명절, 정월 멧질.

110001 #1 정월 멧질은 뭐 정월 멧질은 조상을 다 뭐인가 조상을 다 그 우패를 다 써 놔가지고이

110001 @1 음.

110001 #1 그 일 년을 새로 맞는 거니까 새 정신으로 정월 멧질 지내는 거. 자기가 한 살, 정월 멧질 지내면은 한 설 더 넘으니깐이 그 저 부모들은 자식들안테 세배를 받고 또한 일반사름덜은 자기보다 웃사름안테는 인사를 허는 게 상례랴저.

110001 @1 음. 게난 저기 멧질 해 먹젠 허면 미리 준비허는 게 음식 준비 말고 뭐 따로 잇수과?

110001 #1 옛날에는 미리세 준비해놔져. 옛날엔이 소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건 미리세 추렴을 한다.

110001 @1 음.

110001 #1 소도 허고 돼지도 허고 미리세 추렴을 해가지고서이 그 제숙을, 제숙을 다 장만해야 돼여. 경헨 낫다근애가 그걸 다른 거는 뭔가 당일 돼는디 그것만은 미르세 뭐 소나 돼지나 추렴해가지고 장만허고.

110001 @1 으.

110001 #1 고사리, 고사리는 항상 봄에 들에 강 꺼짱 낫다가 아무리 고기나 뭐나 못 올려도 고사리 채, 콩나물허고 고사린 똑 올려놔져.

110001 @1 으. 다른 건 못 올려도예.

110001 #1 게난 고사리 정성해가지고 고사리. 물렁 보관헿 낫다가 그거 삶아근애가 채소허고.

110001 @1 으. 우리는 지금 멥질 보통 하루 헤먹엉 끝나불잖아예.

110001 #1 그때는 옛날에는 보름동안이 항상 놀았저, 놀아서. 정월 보름꺼지 막 재밋게, 밤이 나오랑 막 재밋게 동네서 놀고 막 그레놔주게.

110001 @1 예.

110001 #1 정월보름꺼지. 게난 정월, 정월보름에 그때는 정월덜애 그 연덜도 막 띄와놔주.

110001 @1 으.

110001 #1 정월보름애 연도 막 불 술아불고. 정월보름꺼진 막 재밋게, 옛날은 거 그런 풍속이 셔, 노는 풍속이.

110001 @1 으.

110001 #1 셔나서.

110001 @1 으, 으. 우리가 전날 음식헿 멥질 헤 먹엉 멥질날을 세배덜 가잖아예.

110001 #1 어, 어. 멥질날은 멥질허기 전에 일가애는 다 세배를 간다.

110001 @1 예.

110001 #1 옛날에는 일가애는 가까운 뭐인가 그 가까운 디는 제 지내기 전에. 국제를 믱너 헛주게 국제.

110001 @1 국제예, 뭐 설날 같으면 떡국제예?

110001 #1 으. 거 이제는 잘 안 허는디 설날은 원체 그 떡국제 해야 맞는 거여게.

110001 @1 예.

110001 #1 그 떡국제는 언제 허는고 허니 이 볏기 전에이 이 가마귀기 뭐인가 가마귀가 볏으면 날아오는디 가마귀 날아오기 전이 어슬어슬헿 때. 아침애 예를 들어서 으섯 시 해가 뜬덴 허면은 다섯 시애 지냈저.

110001 @1 으.

110001 #1 다섯 시에 그 국제를 지낸 다음에는 일가 가까운 근족은 세배를 해가지고.

110001 @1 예.

110001 #1 돌아와서 국제를, 그 상을 다 철상 해가지고서 조상덜안티 그 뭐인가 묵이니 뭐이니 모든 제물들 다, 그 국제할 때는 제물 거튼 거 안 헌다 단지 국제만.

110001 @1 그 떡국만.

110001 #1 국만 올려가지고.

110001 @1 국만. 으, 으.

110001 #1 게가지고서 그거 끝나면은 조상님안티 정식으로 정월 거세기 제사를, 그 문구니 뭐이니 다 그거 해가지고서 상을 새로 출려가지고 제설 지낸다.

110001 @1 멧질 다 끝낭 세배가는 게 아니고?

110001 #1 아니. 이제는 멧질 끝낭 가주만은 옛날은 멧질 끝나지 안 행 간다.

110001 @1 아, 국제만 지내가지고예. 지금은 국제라는 게 떡국제 지내는 거잖아예. 옛날에는 뭐로 국제를 지냈수과?

110001 #1 옛날에는 뭐 골미떡이란 게 잇어져, 그 골미떡. 그때는 쏘이 엇기 때문에 쏘이 귀허기 때문에이 흐린조, 흐린조 썰허고 산디쑈 해가지고서 그 골미떡을 만들앗저.

110001 @1 으.

110001 #1 영 소랑허게 영. 그 골미떡이란 건이 진진허게.

110001 @1 이거 골미떡 아까 뭐라고 줍썰허고, 흐린조허고?

110001 #1 으. 흐린줍썰 골미떡허고 또 다시 이제 그 산디 골미떡 해가지고이.

110001 @1 으.

110001 #1 그걸 반반행 썰어낭 국을 헛저, 그 뭐인가 떡국을 헛저.

110001 @1 아.

110001 #1 반반 썰어 낭. 겐 맛이 좋다. 거 흐린 줍썰 골미떡이 들어가기 때문에.

110001 @1 아, 믰물로는 안 허고마씨?

110001 #1 골미떡에 믰물은 안 들어가고.

110001 @1 게니까 믰물칼국수 해가지고.

110001 #1 칼국수로 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떡국을 썰어놔가지고.

110001 @1 떡국 썰어 낭 이걸로.

110001 #1 썩소 먹는 것은 믰물칼국수행 먹고.

110001 @1 으.

110001 #1 제서 땀 그 믰물은 안 쓴다. 옛날에는 흐린조 오메기허고 산디쑈 오메길 행 먹엇주.

110001 @1 이걸로 골미떡을 만들영 국제 썰던 거.

110001 #1 으.

110002 @1 건디 아까 정월대보름까지 놀아마씨?

110002 #1 으, 대보름까지 그렇게 노는 풍속이 서났저.

110002 @1 대보름 때 또 멍질 해놔수과?

110002 #1 그 대보름 땀 멍질도 허지 안허고 그 뭔가, 이 불교에서는 대보름 불공이 잇주게, 이 대보름 불공이 잇기 때문에 뭐 유교나 불교나 거의 거시기 허니까 보름날은 청결헌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주 특별히.

110002 @1 뭐 제 지내거나는 안 허고.

110002 #1 안 허고.

110002 @1 이날 뭐 연날리기 같은 거 그런 거?

110002 #1 거 낮에 연날리기 그날 마지막으로. 그날도 경해났저.

110002 @1 아, 마지막으로 게민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110002 #1 으. 맘대로 연날리당 보름 넘으민 연을 안 놀려났저.

110002 @1 아, 보름 넘으민 안 올려마씨? 그럼 액막이 했다는 게?

110002 #1 액막이란 거 그건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가 몸이 아프면 그 연을 띄와가지고이.

110002 @1 예.

110002 #1 연을 띄와가지고이 그 저 연을 불 살르는 것이 아니라 연은 영 띄와가지고서이 연줄에 불을 대면은 연이 막 날라간다. 경허면은 나, 나 액을 연에 날려 보내니까 멀리 날아가라고 경허는 거.

110002 @1 아. 연을 불 살르는 게 아니고.

110002 #1 으, 연줄에 불 해근에 하늘에 뭐인가 떠 있을 적에 끈으면 거 날라가는 거. 그게 액막이 헌다는 거.

110003 @1 방사란 건 뭐과?

110003 #1 으?

110003 @1 방사라는 것도 이수과?

110003 #1 정월보름에 방서를 많이 했저.

110003 @1 방서?

110003 #1 으, 여기 제줏말론 방세, 방세 많이 허는데.

110003 @1 예, 예.

110003 #1 방세헌텐 허는데 자기가 운이 나쁘덴 허면, 토정비결을 본다 옛날에 는이.

110003 @1 토?

110003 #1 토정비결.

110003 @1 으, 토정비결.

110003 #1 토정비결을 봐가지고 조금 뭐인가 운이 나쁘덴 허면은 정월보름 밤에 방세를 했저 왜냐허면 뭐인가 그 뭐뭐허라 심방이 일러주주. 가령, 가령 나가 뭐인가 액이 궂덴 허면 나 이름 생년월이 써가지고, 써가지고이.

110003 @1 예.

110003 #1 어떻게 액을 잘 거시기 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그 방세를 신방이 왕 해줘놔저.

110003 @1 아, 그럼 신방이 예를 들어 내가 삼재 들어가지고 올해 운수가, 운이 안 좋덴 허면은.

110003 #1 경허면은 방세로 심방이 왕 해 줘.

110003 @1 해 줘.

110003 #1 게난 뭐, 뭐 저 들어갈 것도 다 만들레 그 만뒤펱이니 돌레떡이니 그 심방이.

110003 @1 아.

110003 #1 경헨 그걸 준비허면 심방이 와근에 방세해 줘. 헛밤에 심방이 멧, 멧 집이도 가, 가주게. 그렇게.

110003 @1 아, 심방이 돌아다니명, 게민 심방이 돌레떡 올리라, 사과 올리라 경국 끌리라 그런 거 다 골아주고.

110003 #1 으, 으.

110003 @1 그것이 방세과?

110003 #1 으. 방세, 방세 한다.

110003 @1 방세 그거 정월대보름날 허는 거예.

110003 #1 정월대보름날 주로 많이 한다.

110004 @1 포제 해놔수와 마을에?

110004 #1 포제 해놔저.

110004 @1 으.

110004 #1 포제는 건 무슨 뜻이나 허면이 포제는이 하늘허고 땅, 땅을 섬기는 거지. 일 년 뒤펱가 우리가 곡식 잘 돼게 해주고. 땅도 곡식 잘 크게 해 주라고 거 일 년에 혼 번 정월달이.

110004 @1 으.

110004 #1 정월달 첫 뒤펱가 정일 택해가지고서 정일을 갑자을축의 정일을 택해가지고서 그 부락의 기원을 헛주. 그 토지와 천신에 비는 걸 포제라 해.

110004 @1 그럼 포제 허젠 허민 뒤펱 준비힙니까?

110004 #1 포제 허젠 허면, 포제 허젠 허면은 그 도야지를 생체로 올려야 뒤펱까 도야지를 그시지도 안 해가지고 그 털을 다 물 췌서 뿔나.

110004 @1 하.

110004 #1 그 털을 다 뿔아 하양케.

110004 @1 으.

110004 #1 게니까 잡지 안 해가지고서 통채. 그 뒤펱가 베설만 다 뿔아 내가지고서 그 통채 제물로 올린다. 제물로 올려가지고서 그 두 군데를 올리는 건데 뒤펱천신, 토신 두 군데를 올리고 또 이제 그 제관이 그 제관이 차출뮌야 해여.

110004 @1 마을에서.

110004 #1 으, 마을에서. 그 제관은이 아주 그 복이 많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초헌, 아헌, 헌관.

110004 @1 으.

110004 #1 또 이 세 사람을 허고 집례라고 헌 게 집례는 지금 거트면 총무지. 집례는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뭐인가 모든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그 우선 그 도야지를 주문해야 되고 그 외는 사소한 건 총무가 알아근에가 뭐.

110004 @1 그 제관 뽑는 거는 마을 회의해 가지고?

110004 #1 으, 마을 회의 해서 뽑나.

110004 @1 연세 있는 분 중심으로마씨?

110004 #1 주로 연세, 연세 있는 분으로 뽑고 좀 팔자 존 사람으로 뽑나.

110004 @1 으.

110004 #1 장애인은 안 뽑고.

110004 @1 으.

110004 #1 또 천 헌 사람도 안 뽑고 옛날에는 쌍놈이나 뭐이나.

110004 @1 예, 예.

110004 #1 제관에 뽑히는 사람은 그 부락에서 아주 유력하고 덕망있고 복이 많은 사람을.

110004 @1 아. 경헌 아까 제관.

110004 #1 초헌.

110004 @1 초헌.

110004 #1 아헌

110004 @1 아헌.

110004 #1 종권.

110004 @1 종권 세 사람이 제관하는 거.

110004 #1 세 사람이 제관하고. 진례는 요걸 집행하는 사람.

110004 @1 총무격인 것과?

110004 #1 으, 총무격이여.

110004 @1 으, 그럼 제도 이 사람이 집행하고?

110004 #1 으, 그 사람이 집행하고. 진례가 거 국궁배 그렇게 절차를 홀기를 불러근에 한다. 홀기엔 헌 게 잊져.

110004 @1 홀기는 뭐과?

110004 #1 홀기는 그 제사 지내는 절차를 그 뭐인가 집례가 부르는 대로.

110004 @1 예.

110004 #1 그 삼헌이 절하는 국궁배허민 절하고.

110004 @1 아.

110004 #1 흥 허면 일어나고 그 명령에 따라서, 홀기에 따라서 꼭 제를 지낸다.



110004 @1 그 제 지낼 때 앞에서 영 소리허멍.

110004 #1 으, 응.

110004 @1 소리허는 사람이군아예.

110004 #1 으, 소리허멍 제 지낸다.

110004 @1 흥, 제 내멍예. 그 부정타지 말렌 메는 것도 잊수과?

110004 #1 으, 메는 것도 잊저. 경허면은 그 포제를 그 지내게 뒤편은 오일 전에이 다 부락예이 그 \*\*를 꼬아가지고이 다 그 부정타지 안 허게 다 멘다.

110004 @1 그거 메는 걸 뒤편 험니까? 금줄?

110004 #1 금줄이엔 허주 금줄. 그것이 어린 아이 날 때도 그거 멘다. 부정헌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걸 언제라도 멘다. 경허면 아 이 부락에는 포제 들었구나 그걸 알주.

110004 @1 아.

110004 #1 알게 뒤편.

110004 @1 산디뽕으로 꼬양마씨?

110004 #1 으 산디뽕으로 꼬양.

110004 @1 뭐 메달지 안 허지예?

110004 #1 거 창호지 흰 거 흰 종이를 그리 영 메단다.

110004 @1 아, 창호지 흰 거예.

110004 #1 먼 디서도 보이게 그것이. 경헤야 먼 디서도 보일 거 아니라.

110004 @1 한 군데만.

110004 #1 아, 여러 군데.

110004 @1 여러 군데예, 동네 골목, 골목.

110004 #1 으. 골목, 골목.

110004 @1 붉은 흑 뿌리기 같은 것도 험니까?

110004 #1 으, 붉은 흑 뿌리기도 한다. 황토로 해당 뿌리는 건데이.

110004 @1 예, 예.

110004 #1 황토로 해당 뿌리는 건데 건 아주 청결허게 신 들어오라는 뜻으로 그 황토를 뿌렸저.

110004 @1 아. 황토.

110004 #1 지금 우리가 왕, 대통령이나 오젠 허민 뒤편가 비단 끌지 안 허느냐.

110004 @1 하하.

110004 #1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신 오젠 허민 꼭 황통 붉은 걸 그 헤다가 그날은 쪽허게 뿌렸저.

110004 @1 그럼 동네마다 다 뿌리는 거.

110004 #1 아니 아니.

110004 @1 오는 길목에만?

110004 #1 으, 으. 제청 길목에만 제사지내는 길목에만.

110004 @1 아. 제사지내는 디 길목에만 계민 그 제사는 어디서 지냅니까?

110004 #1 장소는 그 포제를 지내는 일정헌 장소가 정해져 있주 거 동마다.

110004 @1 아.

110004 #1 그 동마다 정해져 있어서 그 포제를 허게 뒤편은 동에 책임자가 그 집을 거 이제 거 뭐인가 거 장막이란 거 그디 장막을 강 쳐야 웬다.

110004 @1 음.

110004 #1 장막을 다 치고 그 뭐인가 불 초일 거 거기 다 장만허고.

110004 @1 으.

110004 #1 게다가 거기서 그 포제에서 삼일동안 제관들은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 그 뭐인가 밥 먹는 거허고 기거하는 거, 또 그 제청에서 나오지 못허고 삼일동안은 그디서 앉아가지고서 밤낮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세기 한다.

110004 @1 포제허는 날이 정해져신디 마을에 무슨 일 생경 그게 변경됐기도 험니까?

110004 #1 으, 그런 일, 만일 이게 포제, 포제 지내기 전에 포제 든 그 어간에 장사나면은 그것은 해체된다. 다음으로.

110004 @1 다음 정날로.

110004 #1 거 못 지내니까. 거 동네가 비리면은 구신이 안 들어오지.

110004 @1 안 오니까.

110004 #1 그 정성이 부족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췌 받는다고 안 지냈저.

110004 @1 아.

110004 #1 한동에도 여러 번이 그런 날이 잇었저. 포제해가지고 삼일 전이 영장나면은 안 뒤편.

110004 @1 영장나면은. 으.

110004 #1 연기해났저.

110005 @1 으, 으. 안택이 뭐과?

110005 #1 안택은 그, 안택이라는 것은 거 정초라면은이 자기 집의 액운을 모두 쫓아내라고 해서이 스님들이나이 해가지고서 불공허는 것을 안택이라고. 그 집이 집을 깨끗허게 해달라고 허는 집택자지 안택자는. 집을 편안허게 해달라는.

110005 @1 으.

110005 #1 정초에는 그런 거 많이 했저.

110005 @1 절간?

110005 #1 스님 불령, 이쪽에 전문으로 허는 사름덜.

110006 @1 으. 정월에 보리밭 볏기도 험니까?

110006 #1 정월에 보리 안 볏고 그 이월덜 나야 볏지. 이월, 삼월 나야, 이월덜에 주로 거 이월덜에 볏나.

110006 @1 이월.

110006 #1 웨 볏는고 허니 겨울에는 옛날에는 하도 추워나기 때문에 땅이 막

곳양 그걸 붙아줘야 보리 그 뿌리가 잘 자리잡아 가지고 그 씹씹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주. 해냏저만은 그 그 아니 뵙는 사람이 태반.

110006 @1 으. 게니까 정월달 아니고 이월달인 거라.

110006 #1 으, 이월달. 정월달에 보리가 아직 올라오지 안 허주.

110007 @1 안 현 거라예. 걸궁도 해냏수과?

110007 #1 걸궁 막 해냏저. 게난 정월달 뒤편은 정월 15일 전에 걸궁 현다. 주로 보름날 걸궁을 많이 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이 그 뒤편가 그 걸궁, 걸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이 그 부락에 대 행사주게.

110007 @1 예.

110007 #1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집에 가면 막 집에 강 해가면 정초에 백 사람에 오라서 그 마당을 뵙아주면은 그 운이 좋다고 해서 그 집집마다 가주게 가면은 그 집에선 말야 부자집에선 말야 돈도 얼마니 나오고 떡도 해근에 나오고 아주 재밋게 해냏저.

110007 @1 으.

110007 #1 남저가 여장을 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재밋게 해냏저.

110007 @1 그 걸궁이란 게 마당을 자기집 마당을 백 사람이 왕 뵙아주면 좋으니까 다른 집이 강 막.

110007 #1 으 다른 집 방문하면서 집집마다 갱 해줘나세. 그래서 한 오, 오륙일을 걸려냏저.

110007 @1 그럼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모여가지고.

110007 #1 다 모영.

110007 @1 옷 같은 거는?

110007 #1 옷 같은 거는 \*\*이라고 이디 판 큰 거허고 두루마기 입곡이.

110007 @1 예.

110007 #1 여저는이 잠수옷 입고 그 뭘야 테왁 들러메고.

110007 @1 예

110007 #1 또 포수가 잇저, 포수라고 쾩.

110007 @1 사냥, 사농허는 사람들.

110007 #1 으, 사농허는 사람. 사농허는 사람은 사농허는 옷허고 이상한 뭘 쓰고 그 뒤편가 냥으로 만든 총 해가지고서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재밋게.

110007 @1 아, 그럼 자기가 일허는 주 복장덜을 갖추고예.

110007 #1 으. 복치고 장구치고 허명 돌아다니고.

110007 @1 아, 경허명 돌아다니는 거예. 집이서는 부제칩이서는 음식도 내 놓고.

110007 #1 부제칩 아니라고 음식은 빙 거튼 거 해근에 많이 내 봐냏저. 부제칩 같은 디서는 돈으로 이제, 갓도 경비가 들 거 아니가 그 사람덜도 먹곡 허젠 허민.

110007 @1 으.

110007 #1 부제칩 사름덜은 회사도 많이 헛주. 겐 음식도 내 놓고.

110008 @1 음식도 내 놓고예. 다음은 절기 물어보쿠다. 입춘이 뭐를 입춘이렌  
 됩니까?

110008 #1 입춘이라는 것은이 새 봄이 돌아온다는 뜻이여. 입춘 돼면은 이젠 새  
 해 들엇다고 정월초허루가 아니, 아니 돼도 입춘 돼면은 여기센 결혼을 헐 적에 입  
 춘 돼면은 새해 든 걸로 택일을 보고 그렛저. 입춘대길이고 그래서.

110008 @1 음.

110008 #1 그 입춘은 새 해를 맞이헌 거주.

110008 @1 농사 지을 때 입춘 때 돼면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08 #1 농사 때 입춘 돼면 뭐 허곤 엇저.

110008 @1 그 우수는마씨?

110008 #1 우수는 거세기 그 뭐인가 우수는 비가 적당히 와 준다고 그래서 우  
 수 절기에 그때도 뭐 허는 건 엇고.

110009 @1 엇고예. 이월덜 물어보쿠다예. 이월덜 영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과?

110009 #1 영등은 음력 이월 초하루날부터이.

110009 @1 으.

110009 #1 스무날.

110009 @1 예.

110009 #1 그 어간에 이제 스무날 돼면은 나간텐 허주, 영등신이.

110009 @1 으.

110009 #1 영등신이 나간다고 하니깐이 이 구좌에서는 김녕에서 영등곳, 지금도  
 현다. 영등곳은 이제 영등할망을 맞이헌다.

110009 @1 아.

110009 #1 우리 구좌에서는 김녕으로 와 가지고서 저 우도로 나간다고 그렇게  
 속설이 그렇게.

110009 @1 아, 기과. 그럼 마을마다 다 영등곳 하는 건.

110009 #1 아니 그건 아니.

110009 @1 아니구나예. 김녕으로 왕 우도로 나간다고. 기민 영등 기간이 있는  
 거잖아예?

110009 #1 으.

110009 @1 영등이 들어왕 나가는 기간 동안에 뭐 허지 말아야 허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수과?

110009 #1 그런 건 엇고. 경건헌 마음만 가지라 그거주.

110009 @1 영등기간에도 물에 들어가고 됩니까?

110009 #1 영등엔 추위부난 그땐 물에 안 간다. 그땐.

110010 @1 아. 이월에 절기가 경칩이 잇다예.

110010 #1 으.

110010 @1 경칩이랑 춘분이 이신디.

110010 #1 경칩은 개구리가 깨나고 봄이 따뜻하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 입춘은 새해고 경칩이 돼면은 경칩은 봄이 서서히 움튼다고 허는 그 계절을 말하는 것이야.

110010 @1 음.

110012 #1 그 다음엔 청명이란 게 있주.

110012 @1 으.

110012 #1 청명은, 청명은 모든 풀이 이제 새로 돋아난다는 시기가 금방 닥쳤다고 해가지고 청명 돼면은 온 산야가 막 파랗게 다 그렇게 웬다.

110010 @1 으. 경칩 때 농서 뭐 허는 거 없지예.

110010 #1 그런 거 허는 거 었다.

110010 @1 춘분은, 춘분 때도?

110010 #1 으 춘분때도 허는 것이 었고.

110011 @1 삼월, 삼월 돼면 한식 멧질이 잇수다, 한식 멧질 해낫수과?

110011 #1 한식 멧질 여긴 다 해낫저. 한식도 허고 단오도 허고 해낫는데, 거 중간에 끈어벧는데 한식은이.

110011 @1 예.

110011 #1 한식이 무슨 날이고 허니 찰 한, 식은 밥을, 찬밥을 먹은 게 한식이 주, 원래 의미가.

110011 @1 아, 기파?

110011 #1 으 계난.

110011 @1 식은밥 먹는 날.

110011 #1 으. 식은밥 먹는다고 허지만은 여기는 한식을 제사로 그때 멧질을 지 내나신예.

110011 @1 으.

110011 #1 그 한식의 유래는 그 중국에 개자취라는 사람이 잇엇는데, 개자취가 아주 충신이랴는데 남이 모함해부니까 그 역적으로 몰리게 돼지 안헤시냐.

110011 @1 으.

110011 #1 역적으로 몰리게 돼니까 이 사람이 산에 강 숨어분 거라. 자기는 켜가 없는데 모략을 당허니까. 왕이 결국은 알아보니까 이 그 사람이 모함으로 어디 도망 갓거든.

110011 @1 으.

110011 #1 그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모함이 풀렸으니까 나오라고 지금이라면 신문, 방송이여만은 암만 방을 놔도 안 나오거든.

110011 @1 으.

110011 #1 안 나오니까 그 마지막에 산간에 들어간 길로 알고 불을 부졌어.

110011 @1 으.

110011 #1 불을 부찌민 불을 피해 피신했 거 아니냐.

110011 @1 으.

110011 #1 불을 부찌도 안 나완 거 불 탄 죽어버렸단 말이야.

110011 @1 으.

110011 #1 게난 더우면, 얼마나 더워서 죽엇길래 그래서 한식이라 해가지고 그 개자취를 숭배하는 중국의 풍속이 이 나라에 와 가지고서 한식은 찬밥을 먹는 날로 그렇게 됐지.

110011 @1 으.

110011 #1 그렇게 돼긴 됐는데 그 제사를 개자취 대신 지내는 게 그거.

110011 @1 멧질, 멧질 해먹듯이 음식도 다 찮리는 거마씨?

110011 #1 으 멧질 똑거치 헛저 정월멧질 조상. 개자취를 위헌 건데 개자취를 위헬 수 없지 안허여. 그래서 그로부터.

110011 @1 으.

110015 #1 단오에도 오월은 단오 멧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즐겁주게 단오하고 멧질을.

110015 @1 우리집도 정월이나 추석 멧질에는 우리집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척집 다 돌아다니멍 제사를 지내는데.

110011 #1 으, 그 한식이나 단오도 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주.

110012 @1 아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거 ㄴ치들. 아까 청명 곶아주셧고예, 곡우. 그럼 청명이랑 곡우 때 뭐 농서지으면 그런 건?

110012 #1 게니까 청명 때는이 소 거튼 거 그때에는 이제 방목을 허기 시작헌다. 집에 들어 멧다가 청명 되면. 겨고 이제 곡우가 돼여가면 밭덜을 다 갈아야 돼주.

110012 @1 아.

110012 #1 여름 농서헬 것을 초불을 다 갈아야. 이제 곡우 되면은 갈기 시작헌다.

110012 @1 아, 이때 초불가는 거라예. 이때서부터 본격 농사 준비.

110012 #1 농서 준비허는 거.

110013 @1 사월 달 넘어가쿠다예. 사월초파일 그때 뭐 험니까?

110013 #1 초파일, 그건 뭐 불교 행사기 때문에 촌에서 뭐 허지 안 헌다. 불교 행사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절간에 가 가지고 초파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허는 거고.

110014 @1 절기상으로 입하하고 소만이 잇수다 이 시기에 농사는 뭐?

110014 #1 게 입하, 입하가 되면은이 농서를 저 뭐인가 산두를 간다 산뒤.

110014 @1 아.

110014 #1 산뒤가 제일 처음 먼저, 먼저 가는 거고.

110014 @1 아, 산디가 제일 먼저 갈아마씨?

110014 #1 으.

110014 @1 산디 갈앙 그 다음엔 뭐 갈아, 순서가?

110014 #1 그 다음에는 산디, 산뒤 갈아 난 다음에는 이젠 거세기 해야 돼여, 보릴 갖다가 다 이제 거뒤들여야 웬다.

110014 @1 아, 보리 수확.

110014 #1 보리를 거 뭐이나 그디가 망종 전에, 망종 전에 보리를 다 거뒤 들여서.

110014 @1 어.

110014 #1 이제 망종이 지나면은 이제 그 여름 농서를.

110014 @1 으.

110014 #1 글로부터 시작허젠 허면은 그 보리크르에도 갈아야 돼고 뭐해야 허고 그때부턴 농총에도 바빠지기 시작헌다.

110014 @1 으. 오월덜 넘어 가쿠다예. 아, 소만에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14 #1 소만에는 뭐 허는 거 엇고.

110015 @1 엇고예. 오월덜에 아까 단오 명절 이신디 단오 명절이 정월 명절이나 한식 명절이랑 다른 게 잇수과?

110015 #1 달르지 안 허영 톱 거치.

110015 @1 달르지 안 헤.

110015 #1 으.

110015 @1 다 똑같애마씨. 그럼 설 명절만 세배허레 다니는 게 다른가.

110015 #1 응. 설 멩질만. 그건 혼 설 더 먹기 때문에 웃사람안티 나 혼설 더 먹습니다 헤가지고 인사. 일년에 거 안부를 건강 하십사 안부를 묻고 또 그 어른덜은 젊은 사람들안테 그 덕담으로 너 몸을 건강해라, 너 소원을 이뤄라 그렇게 헤던 거.

110016 @1 아. 오월덜에 망종이 잇고 하지가 잇수다. 아까 망종 전에 보리 수확을 다 헤베야 돼고.

110016 #1 으. 거의 거의 망종 전에 다 보리 수확을 부지런히 다 끝마쳐야 허고.

110016 @1 게민 하지 때는 뭐 허는 거 잇어마씨?

110016 #1 하지 때는 뭐 특별히 허는 게 엇다. 특별히 허는 게 엇고이 그 밋덜 다 갈아야. 그 초벌 밋을.

110017 @1 아. 유월덜 넘어가쿠다예, 유월덜에 닭 잡아 먹는 날이 이신게.

110017 #1 으, 거 유월 스무날이라고 헤가지고 옛날서 내려오는데 유월 스무날 닭 잡아 먹으면은.

110017 @1 으, 으. 독 잡아 먹는 거지예.

110017 #1 으 독 잡아 먹는 거. 유월 스무날 주로 잡아 먹는데.

110017 @1 예.

110017 #1 경허면은 몸도 건강하고 모든 액운이 막아진다 해가지고서 주로 많이 잡아먹나 그날.

110017 @1 그날은 독 어디 강 사당?

110017 #1 집집마다 길러나세계, 다 질러난.

110018 @1 흑흑. 질러 뒀던 거. 삼복, 삼복이엔 험니까, 독 잡아 먹는 날 세 번 이시난?

110018 #1 으, 게난 복날은 독을 잡아 먹는 것이 아니고 옛날은 복날은 개 잡아 먹는 날이주.

110018 @1 아, 개 잡앙 먹는 날.

110018 #1 그 개 잡아 먹는 날, 삼복날이 개 잡아 먹어야 그 더위를 이긴다고 그래서.

110018 @1 아, 아까 유월 스무날도 삼복날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

110018 #1 아니, 그건 아니.

110018 @1 그럼 따로.

110018 #1 그땐 삼복이 안 든 거주게.

110018 @1 아, 아. 그거 지남 또 삼복날이 있는 거예.

110018 #1 으.

110018 @1 동네에서 개들 ㄴ치 잡아 먹어난마씨?

110018 #1 으, 옛날은 많이 거, 옛날은 거 돈이 엇이 개 사기가 많이 어려와났 주게. 게난 옛날은 그 뉘인가 연령 영양잇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110018 @1 으.

110018 #1 그 가령 촌에 아이덜이 뉘인가 영양 실조웤 아이덜이 막 약해났주. 경헨 개덜 동네에서 추렴해근에 아이덜 앓다주민이 즉시 거 경과가 낮아났저.

110019 @1 기구나, 기구나. 소서랑 대서가 있다예 유월덜에예.

110019 #1 으.

110019 @1 소서, 대서 때는 뭐 험니까?

110019 #1 소서 전이이.

110019 @1 예.

110019 #1 소서 전이 뉘인가 모든 곡식 파종이 다 끝나는 거여. 뉘인가 소서, 소서 전이.

110019 @1 아, 게민 아까 산디 맨 먼저.

110019 #1 제일 먼저.

110019 @1 먼저 갈고 그 다음 보리 수확해난 다음에 그 다음 씨 뿌리는 게 뉘 잇수과?

110019 #1 그 다음에는 조나. 그 다음에는 조, 조 콩.

110019 @1 대서 때는마씨?

110019 #1 대서 때는 특별히 허는 거 없는다. 거, 거, 그때는 검질을 메는 거주.



110019 @1 대서 땀 검질 메는 거.

110019 #1 으름 곡식에 쪽 그 검질덜 막.

110020 @1 칠석, 칠월덜 물어보쿠다. 칠석예. 칠월 칠석 때는 뭐 해냏수과?

110020 #1 칠석 때는 제 지내는 것이 엇고 것도 무시 건가 불교에서 거세기 헌 건데.

110020 @1 으.

110020 #1 그 칠월 칠석을 해가지고서 아주 경건허게 그 마음을 쓰라고 해가지고서 그 다 그 칠석 잊어볼진 안허진 않느냐.

110020 @1 아, 제 지내는 건 아니고예.

110020 #1 건 불교에서 경 헌다 제 지내는 건.

110020 @1 으, 불교라예. 이때 농사 짓고 그러는 건 엇수과?

110020 #1 다 농서 끝났저, 다.

110020 @1 아, 끝난 거.

110020 #1 메밀 농서만 아직 안 헌 거.

110021 @1 아. 백중제 험니까?

110021 #1 으, 백중제는 소 많이 허는 딴 백중제를 다 헛저. 물 가진 사름도 백중제를 허고.

110021 @1 백중 때 물 맞으레 가거나, 모래찜 허레 가거나 그런 거?

110023 #1 아, 그거 헛저. 백중 때논이 제일 한결헛 때 여름에가. 한결헛고 더우니까 이제 물 맞으레 뭐 여기서는 저 시에도 막 가냏저.

110023 @1 하도 하난 거 기억남수다.

110023 #1 절물도 허고 하도도 가고 종달이도 가고.

110023 @1 예.

110023 #1 종달이가 하도 어간에 막 물 거시기 헌 디. 거디도 가고.

110023 @1 예.

110023 #1 이디 가트민 저 동끄실기에 물 막 차가운 바닷물 거기도 가고.

110022 @1 아, 물맞이 허고예. 모래찜은 안 해냏수과?

110022 #1 모래찜은 여기선 안 해냏저. 여기는.

110022 @1 여기는 안 허고예.

110022 #1 저 삼양가튼 디.

110021 @1 어쨌든 백중 땀 일반 사름들은 이런 물맞이 허는 거고 쉼 키우는 사람.

110021 #1 으, 쉼 키우는 사름덜 꼭 제를 지내고 그런다.

110024 @1 예, 제 지내는 거예. 칠월덜에 입추허고 처서가 잇수다. 그때는 뭐 험니까?

110024 #1 계난 입추, 겨난 처서 전에 처서 삼사일 전에 메밀 파종 허는 시기.

110024 @1 아, 처서 삼사일 전에 메밀 파종 허는 거예.

110024 #1 그거 끝나면은 일 년 농서는 전부 파종은 끝난 거.

110025 @1 예, 예. 팔월달에, 팔월달에 벌초하지예.

110025 #1 팔월달 돼면은 뭐인가 팔월 추석이 십오일이거든이.

110025 @1 예.

110025 #1 팔월 추석 전에 제주도는 산소에 소분을 다 해야 돼여. 경허난 팔월 초가 돼면은, 팔월 초가 돼면은 문중 소분으로 시작허영 개인 소분까지 다 해야 돼여.

110025 @1 음.

110025 #1 그 소분허는 기간.

110025 @1 그니까 팔월 초하루서부터 추석 전까지?

110025 #1 으 전까지.

110025 @1 메칠이나 해낫수과?

110025 #1 으, 게난 그때는 자동차가 엇기 때문에.

110025 @1 으.

110025 #1 그 문중 소분 한 이틀이 걸리고 개인 소분도 막 멀 디 걸려정 허면 은 혼 이틀, ㅎ 스일 걸렸저. 삼스일.

110026 @1 으, 삼스일. 기민 팔월 멩질은 똑 같고예.

110026 #1 으, 똑 같고.

110027 @1 저기 백로랑 추분잇수다.

110027 #1 그 백로란 것은 팔월 전이 드는 것이 백로렌 한다.

110027 @1 으.

110027 #1 백로에는 그 뭐인가 이슬이 그 많이 내린다고 그래서 백로주. 그것이 바로 팔월절이여, 백로.

110027 @1 아, 백로가 팔월절예. 뭐 이때는 농서허는 거?

110027 #1 농서 다 끝나부는 그뎐 한걸한다.

110028 @1 구월달에 상강이 잇수다.

110028 #1 상강, 으, 구월달엔 이젠 조가 한창 곡식이 그것 거두어 들일 때여. 조 수확.

110028 @1 예.

110028 #1 이 상강 전에이 뭐인가 그 저 뭐인가 그 메밀 거튼 것도 상강 저버 리민이 ㅁ물이 다 몰라불주게.

110028 @1 예.

110028 #1 상강 전에 그걸 또 ㄷ둑고 경 헛저. 상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런히 상강 전에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이는 거여.

110029 @1 으. 시월달에 입동허고 소설이 잇수다.

110029 #1 입동은 거 겨울이 왔다는 거 겨울철이난애.

110029 @1 예.

110029 #1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추수가 다 끝나고.  
 110029 @1 으.  
 110029 #1 이제 입동이 돼면은 보리 갈 준비 그때는 한다.  
 110029 @1 보리 갈 준비.  
 110029 #1 보리 갈 준비 다. 겐 조 크루도 갈고 밧 갈고 경헨 밧다가 보리 갈 준비.  
 110029 @1 소설 때는마씨?  
 110029 #1 소설 때는 이 보리가 다 끝나부니깐이 이 소설 때는 뭐 헐 게 었다.  
 110030 @1 었어예, 었어예. 저기 동지 풋죽?  
 110030 #1 으.  
 110030 @1 십일월덜 넘어가 가지고, 십일월덜 넘어가 가지고 동지 풋죽.  
 110030 #1 동지 풋죽은 집집마다 썰 먹었저.  
 110030 @1 어.  
 110030 #1 왜냐허면 동지 풋죽 거 썬 먹는 원인은 그 풋이 거 붉은 거 거든.  
 110030 @1 으.  
 110030 #1 게난 이 신, 귀신, 잡귀는 붉으 것을 싫어허기 때문에 거 동지 풋죽 썬가지고서 이 올레 가튼 디 테우고 해낫저. 나쁜 잡귀 가튼 거 오지 말렌.  
 110030 @1 으.  
 110030 #1 나쁜 귀신 오지 말렌.  
 110030 @1 게민 집집마다 풋죽은 다 해 먹어낫구나예.  
 110030 #1 으, 다 해먹어낫저. 동네에서 해 먹는 디 아니 먹을 수 이시냐?  
 110031 @1 하하하. 그 납평날이라는 게 뭐과?  
 110031 #1 몰라. 그런 거.  
 110031 @1 동지 뒤에 오는 세 번째 술날이엔 험디다만은 그런 거 따로 안해낫구나예.  
 110031 #1 따로 안 해 낫저.  
 110032 @1 십일월덜에 절기가 대설이 잇고 동지가 잇수다.  
 110032 #1 으. 대설이 눈이 많이 온 그것고 동지는 뭐인가 동지가 들면은 뭐인가 이제는 뭐인가 새해가 가까웠다는 거주게.  
 110032 @1 으.  
 110032 #1 동지가 아주 겨울이 아주 한복판이다 거주.  
 110032 @1 으, 여름에 하지, 겨울에 동지예.  
 110032 #1 으, 동지 돼면은 아주 그 하지로부터 해가지고 동지가 제일 뭐인가 해가 제일 썬 거가 동지.  
 110032 @1 으.  
 110032 #1 동지 넘으면은 해가, 낮이 길어가는 거고.  
 110033 @1 으. 저기 십이월덜에 넘어가쿠다. 십이월덜에 친구간이 이신디.

110033 #1 으, 신구간 잊져. 신구간은 예, 신구간은 입춘 넘어서, 입춘 넘은 후, 입춘 삼일 전에 그제 신구간으로 모든 이사나 집에 모든 고치는 건 다 했져.

110033 @1 으.

110033 #1 그 신구간에 왜, 제주도는 신구간에 허는고 허니 이날은 신이 이 지상에 잇는 신이 저 하늘로 다 올라강 휘이를 허는 날이라.

110033 @1 예.

110033 #1 그래서 다음 임무를 주는 위해서 이 신이 하늘로 다 갖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해서 경해서 신구간.

110033 @1 아.

110033 #1 신, 신허고 뭐인가 신참허고 구참이 아직은 바빠지지 안 현 때난 그 신구간에 허면은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해서 주로 그때 이사나 집을 고치나 산소를 고치나 그렇게.

110033 @1 아까 입춘 삼일 전, 뭐 오일 후?

110033 #1 계난 입춘 오일 후.

110033 @1 아, 입춘 오일 후.

110033 #1 아, 첨, 대한 오일 후, 대한 오일 후 입춘 삼일 전.

110033 @1 아.

110033 #1 계난 꼭 일주일 쥔다.

110033 @1 일주일, 그 기간이예. 예, 예. 경허민 이때 집 고치는 건 안 물어뵈 해도 쥔는 거.

110033 #1 으. 안 물어 뵈 해도 쥔다.

110033 @1 이사, 여기도 이 한동리에서도 막 이사 다니고 해뵈수과?

110033 #1 으, 이사 막 다녀뵈져. 여기는 전부 다 집이 가졌지만은 여기는 뵈거리 사는 사름도 잊지 안허느냐. 경현 사름덜 신구간에 이사덜 많이 했져.

110034 @1 계민 이사 가젠 허민, 집 구허젠 허민, 이제야 오일장 신문도 잇고 부동산 잇고 허는 디 옛날에는 어떻 이사 갈 집?

110034 #1 옛날에는이 보통에 여자덜 물 질레 여자덜은 오면은 거기서 다 정보덜은 다 교환헌다.

110034 @1 하하하.

110034 #1 경허난 물통이나 빨래통 가면은 어느 집이 뭐 다 알게 쥔니까 그런 디서.

110034 @1 아.

110034 #1 정보를 얻어 가지고 다 쥔세.

110034 @1 아. 물통에 가가지고.

110034 #1 어.

110035 @1 이사 가젠 허민 뵈부터 제일 먼저 읍기게 쥔니까?

110035 #1 제일 이사 가젠 허민 첫째가 솟, 솟을 먼저 읍킨다.

110035 @1 으.

110035 #1 그 다음 침구.

110035 @1 아, 솟 읊기고 그 다음 침구. 그럼 솟은 들어가는 시간 영 물어봐.

110035 #1 으, 건 물어 뵙 헐다.

110036 @1 물어 뵙 가는 거예. 집알이, 집들이덜도 헐니까 영 이사 가지민?

110036 #1 요새는 허주 옛날엔 집들이엔 헐 거 엇어났저. 요새는 다 헐다.

110036 @1 예, 예. 요새는예.

110036 #1 으, 요새는 허주 옛날엔 거 집들이엔 헐 거 엇저.

110037 @1 예. 그럼 이사갓덴 헐 선물 뭘 가져가는 것도 요즘 일이다예.

110037 #1 거 요즘 일이여 다.

110037 @1 요즘엔 집들이 헐 땐 뭘?

110037 #1 성냥을 주로, 요 촌에는. 웨 성냥을 가져가느고 허니, 성냥으로 불을 부치민 불이 팍 퍼저.

110037 @1 으.

110037 #1 계난 그렇게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라 헐.

110038 @1 으. 십이월덜에예 소한허고 대한이 잇수다. 이때는 뭘 헐니까?

110038 #1 소한허고 대한은 그때는 겨울에 막 한결헐 때주.

110038 @1 으.

110038 #1 경허난 집이서 앓앙 모여 앓앙 노는 시기여.

110038 @1 뭘 일 없는 거예.

110038 #1 으.

## 11. 놀이

111001 @1 놀이 해난 거, 어렸을 때 놀이 해난 거예.

111001 #1 으, 어렸을 때 놀이 해난 거. 팔월 추석에는이 주로.

111001 @1 으.

111001 #1 씨름을 허면서 놀았저. 밤에덜 달 밝은 날, 팔월덜에.

111001 @1 으.

111001 #1 씨름, 주로 씨름을.

111001 @1 으, 팔월에는.

111001 #1 팔월 추석 때는 추석 때는 씨름.

111001 @1 으. 어렸을 때 놀아난 거 뭘 연날려난 거.

111001 #1 어렸을 때는 그 뭐인가 그 제기차기 그거 뭘 곱을레기, 제주도 말로 곱을.

111001 @1 곱을락.

111001 #1 으, 곱을락허고이. 또 이 남저덜이 자치기 허고이.  
 111001 @1 으.  
 111001 #1 뽕이치기, 뽕이 영 뽕뽕 도는 거.  
 111001 @1 예.  
 111001 #1 제기차기도 허고.  
 111001 @1 으.  
 111001 #1 그렇게 허면서 놀아서.  
 111001 @1 제기차기렌 헤, 굴앗수과, 쪽기차기엔?  
 111001 #1 쪽기차기엔 헛주.  
 111002 @1 쪽기차기엔 헛지예. 우선은 하나씩 물어 볼게예. 연부터 물어 보쿠다. 연, 연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  
 111002 #1 연 종류에는이 그 뭐인가 니기반득현 갱연이 잇고이.  
 111002 @1 으.  
 111002 #1 또이 가오리연이 잇저. 소름현 거.  
 111002 @1 아, 니기반득 현 거는 갱연이엔 굴앗수과?  
 111002 #1 으, 갱연.  
 111003 @1 게민 연 어떻게 만듭니까? 가오리연서부터 만들어 줘서.  
 111003 #1 가오리, 가오리 연은 거 만들기 쉽주. 가오리 연은 아무나 만들야.  
 111003 @1 으.  
 111003 #1 가오린이 종이를 가오리거치 삼각으로 영 몰라가지고 대 잇잖으냐이.  
 111003 @1 예.  
 111003 #1 대, 영 큰대 이렇게 영 헨 폴로 부껴가지고서이 가운데 대가 잇주, 가운데. 가운데 대 놔가지고서 이제 만들면은 그 실 고망, 고망 안터렐이 그 불로 무시거 불각살로 영혜근에 불 부트민 불각살 꺼 버리면 그디 불 잇잖으냐이.  
 111003 @1 예.  
 111003 #1 그걸 종이 영 태왕 불 부쟁 영 그디 끈 메여가지고서 연줄행 띄우는 거.  
 111003 @1 아.  
 111004 #1 게건 연줄 감는 열레엔 현 것도 잇저, 열레 감양.  
 111004 @1 열레도 네모진 것도 잇고 둥근 것도 잇고?  
 111004 #1 으, 둥근 것도 잇고.  
 111004 @1 아, 기민.  
 111004 #1 네모진 것도 다 두 개로 이렇게 돌리는 거.  
 111004 @1 아, 그 네모진 거랑 일름은 따로 엇고마씨?  
 111004 #1 거 연톨, 그 연톨레엔, 네모진 건 연톨레엔 허는디.  
 111004 @1 으.  
 111004 #1 뽕뽕 감는 거니까 연 툄레엔.

111004 @1 으.

111004 #1 기자 거 연, 연 기자 영 두 개만 해근에 혼자 뭐 이렇게 감는 건 뭐 연 실틀레렌 한다.

111004 @1 연실 틀레렌도 허고예. 그 가오리 만들엇고 방패연, 아니 아까 무시거?

111004 #1 으, 네기반득 현 거.

111004 @1 쟁 무시거?

111004 #1 갱연 해가지고 거기, 크게 만드는 건 창호지 연이엔도 허고 막 크게 만드는 거 잊저.

111004 @1 으.

111005 #1 그것엔 이상헌 그림덜 막 행 말이야. 방패연이엔 그 싸움허는 연도 잇주.

111005 @1 으.

111005 #1 싸움허는 연도. 방패연은 기자 고정식으로 허는 허고 싸움허는 갱연은 좁게 만들앙이.

111005 @1 으.

111005 #1 서로가 좁아 텅텅 줄 걸려근예가 그 그거 끈어 보게. 그 줄에 옛날에 유리, 유리가 잇엇저. 그건 그 줄에 풀 맥일 거 아니라이.

111005 @1 으.

111005 #1 풀 맥영 유리 뺏을 걸 그레 맥여 가지고서 연 띄와가지고서 연 끈을라고 연싸움 허명 . 그 유리 때문에 상대방은 연은 이렇게 걸리게 해영 영 허민 끈어질 거아니가.

111005 @1 아, 예, 예.

111005 #1 연싸움, 것ㄴ라 연싸움 허는 거.

111005 @1 연싸움 허는 거예. 그 갱연도 잇고.

111005 #1 으, 갱연도 잇고 가오리연도 잇고 방패연도 잇고 큰 창호지 연도 잇고.

111002 @1 그럼 갱연이랑 방패연은 트난 거?

111002 #1 아니 꼭 같은 디 모양은 똑 ㄴ튼 디 크기만 차이가 있는 거.

111002 @1 큰 거는 방패연이고 작은 건.

111002 #1 아, 큰 건 창호지, 창호지 연이 제일 큰 거, 창호지로 크게 행.

111002 @1 그럼 네 종류가 뵈 거우다. 창호지연, 방패연, 갱연. 이거는 네모나게 만든 거고.

111002 #1 으, 건 다 네모나게 만든 거.

111002 @1 그 다음은 가오리연.

111002 #1 가오리연 건 삼각뿔나게 만든 거.

111003 @1 갱연 만드는 거 곱아봔서. 갱연 어떻 만듭니까?

111003 #1 갱연 만드는 건, 건 저건 대가, 대가 많이 들주. 그 우이 하나 들고 이.

111003 @1 예.

111003 #1 양쪽에 딱시 양쪽에 딱시 ‘ㄷ’자로 들고 또 가운데 어질연대를 영 놓고.

111003 @1 으.

111003 #1 또 중간에 마주친 디 이렇게 헤 가지고서 그디 맞게 헤가지고서 그리고 연실도 갱연은 네 곤테를 메야 웬다.

111003 @1 으.

111003 #1 네 곤테. 가오리연이엔 현 건 그걸 두 곤테만 메고 갱연은 양쪽, 우이 그 빗대기 글로 실 헤여근예가 글로 양쪽으로 이렇게 허고 가운데 고망 것에 합쳐가지고 그렇게 현 거지 그거.

111003 @1 아, 그럼 말씀헌 대로 그리면 영 텔 거 아니. 가운데 고망냥.

111003 #1 어, 어. 가운데 고망이 나야 브름이 뭐인가 나가고.

111003 @1 들어가고 헐 거예.

111003 #1 경허난 여기 연술 메고 여기 연술 메고 경헛주.

111003 @1 여기 연줄 메고 여기 연줄 메고예.

111003 #1 또 이 가운데 여기도 뭐인가 영허는 영 내려왔저.

111003 @1 아, 여기까지 여기도 하나 내려와?

111003 #1 으, 꾸썩 이 직선으로이.

111003 @1 내려와.

111003 #1 내려와서 가운데 이디.

111003 @1 아, 여기 메고 여기 메고 경헛 네 곤테. 게민 이 갱연에 명칭, 일름덜이 뭐 따로 잇수과?

111003 #1 뭐 따로 엇다.

111003 @1 여기는 뭐렌 부르고 여기는 뭐렌 부르고 경헌 거.

111003 #1 이건 뭐 이건 거 공기 통허는 거.

111004 @1 여기 부치는 대마무는 뭐렌 헐 거?

111004 #1 이건 어질연대이고.

111004 @1 어질연대.

111004 #1 이건 뵈이여 우이, 우잇 것은 보통 기자 머리, 머릿대허고 이 율이.

111004 @1 머릿대렌 허고 옆이 거는.

111004 #1 옆이대, 이건 어질연대.

111004 @1 어질연대.

111004 #1 가운데 영 현 거 이건 므루대.

111004 @1 아, 므루대에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 그럼 세 개 만드는 건 똑같은 거라.



111004 #1 으, 갱연은 똑 같은 거라. 창호지로도 만들고 그냥 속지로도 만들고. 그냥 일반 갱지로도 만들고.

111004 @1 창호지연, 방패연, 갱연을 만드는 방법이 똑같고.

111004 #1 똑같고.

111004 @1 아까 종이는 창호지.

111004 #1 백지.

111004 @1 백지.

111004 #1 속지도.

111004 @1 아까 말씀 골으멍 뭐 얘기했냐 허면은 그 가오리연을 객주리연이라고.

111004 #1 으, 이디선 객주리연이엔 헛저, 객주리연.

111004 @1 예. 게민 여깃말로 골아줍서, 여깃말.

111004 #1 객주리연 그건. 삼각형으로 허는 건 객주리연. 객주리연은 풀리를 막.

111004 @1 질게.

111004 #1 질게 현다. 게난 갱연은 잘못, 저거 기술자가 아니면은 잘 이거 뜨지 안 허여.

111004 @1 으.

111004 #1 게니까 줄을 잘 고정을 해야 잘 뜨는 건데, 이 객주리연이란 건 아무 라도 거, 이 풀리 셔부니까 풀리 때문에 거 이리저리 안 가고 거 구짝 간다.

111004 @1 게민 그 객주리연은, 종이는 무슨 종으로 헐 거.

111004 #1 거 풀리는 아무 거라도 현다, 아무 종이.

111004 @1 아무 종이라고 허고 대는 요거는 대나무?

111004 #1 으, 대나무. 대나무 해근에 잘 이렇게 잘 뭐인가 칼로 잘 달좌야 돼.

111004 @1 달좌야. 갱연도 마찬가지로.

111004 #1 으, 갱연도 다 대나무로.

111004 @1 대나무로예. 대나무로 만드는 거. 연대는 대나무로 하고, 열레는?

111004 #1 그 열레는 나무로 현다. 다 나무로.

111004 @1 나무로예. 나무로 허고 열레는 아까 종류가 몇 가지?

111004 #1 두 가지여.

111004 @1 두 가지예. 게민 실은 어떻게 구릅니까?

111004 #1 실은 그때는, 그때는 바놓질허는 실도 허고이, 큰 거는 큰 거는 장에 강 상 좌야돼. 창호지연 거튼 건이 사름을 막 끼어갈 정도로 무겁나게.

111004 @1 으.

111004 #1 그런 것은 저 뭐인가 삼갑실이라고 헤가지고 삼갑실. 그 이제 실이 혼 번만 꼬아진 건 두 갑이고.

111004 @1 예.

111004 #1 세 가지 꼬아진 건 삼갑이렌 허주. 그 삼갑실이라야 그, 그.

111004 @1 튼튼하고.

111004 #1 튼튼헌 걸로 그걸로 해야 되는 거.

111004 @1 아. 버울이가 뭐과? 여기 줄 메는 거 여기 다시.

111004 #1 벌이줄.

111004 @1 예, 벌이줄.

111004 #1 것ㄴ라 연 벌이줄이엔 한다. 연 벌이줄.

111004 @1 메는 건 연 벌이줄.

111004 #1 으.

111004 @1 그리고 나서 열레에 메여진 건 그냥.

111004 #1 그냥 거.

111004 @1 연술?

111004 #1 으, 연술로.

111004 @1 연술이렌 하고.

111004 #1 원래는 연술 감는 거.

111004 @1 연술 감는 거. 그럼 벌이줄로 먼저 멘 다음에 연술에 이르는 거예.

111004 #1 으.

111004 @1 연술에 이르는 거.

111004 #1 벌이줄로 가운디 영 양쪽에 우이 하고 그 세, 네 개가 같이 묶는다.

111005 @1 예. 아까 연술에 뭐 무친텐 헛잖아예, 연싸움 허젠 허면예?

111005 #1 으. 거 싸움헐, 싸움 시킬 적에 그 뭐인가 갱연덜 싸움헌다고 헌다이.

111005 @1 예.

111005 #1 먼저 끈어진 거 진 거주게.

111005 @1 진 거주.

111004 #1 계난 유리를 뺏아가지고이 그 연술에 풀을 맥여가지고 풀 맥여서 그 풀 몰르지 안 헐 때 그, 그 유리 뺏은 것을, 그때 호야라고 잇엇저, 호야.

111004 @1 으.

111004 #1 그 불 싸는 남포등에.

111004 @1 예, 예

111004 #1 알른 거 그것 뺏아근에 해낫주.

111004 @1 예.

111004 #1 그거 해근에가 풀, 실에 풀 맥영 몰르지 안 헐 때 이디 낡 주르르르 허게 실 가정 가민 막막 부트주게.

111004 @1 아.

111004 #1 것ㄴ라 스히 맥엇젠 한다. 스이 맥여.

111004 @1 스?

111004 #1 스히, 스히. 실에 스히 맥영.

111004 @1 스히렌 허는 거예.

111004 #1 스히. 우리말로 스히 맥엇저, 스히 맥엇저.  
 111004 @1 스히 맥엇저, 스히 맥엇저 허는 거예.  
 111004 #1 게난 거 재료는 유리를 뺏아가지고서.  
 111004 @1 유린디 아까 호야에 유리?  
 111004 #1 으, 호야에 유리.  
 111004 @1 호야 갓 얇은 유리니까 거, 풀은 뭐로?  
 111004 #1 풀은 뭐, 옛날엔 여기 밀풀들 많이 사용했주게.  
 111004 @1 밀풀은 파는 거?  
 111004 #1 아니 집이서 쭈어 가지고.  
 111004 @1 밀풀이렌 허는 거?  
 111004 #1 으.  
 111004 @1 밀풀이렌 허는 거.  
 111004 #1 밀풀이 제일 강허주게.  
 111004 @1 이거 재료는 뭐마씨?  
 111004 #1 옛날은 밀털 많이 심어놔저. 밀 ㄱ루로 풀을 썬.  
 111004 @1 아, 아. 밀 ㄱ루로. 집이 심어난 밀로예.  
 111004 #1 으.  
 111005 @1 연싸움은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111005 #1 연싸움은 서로가 상대방이 연을 띄워가지고이, 그때는 막 동네마다 여러이덜 연을 띄우주게. 연 띄울라고 허주게. 경허민 그 조금 저 장난 심헌 아니덜 이 스히 맥영 늬 연을 막 끈어불주게.  
 111005 @1 으.  
 111005 #1 게난, 그렇게 허는 거. 거 재미로 그렇게 허는 거.  
 111006 @1 연날리멍 뭐 재미난 일 엇수과?  
 111006 #1 연날리멍 즐겁게 논다. 그렇게 게난 연이 허당 잘못웨영 연이 떨어지 민이 또 연 날리는 사람이 잇주. 같은 친구끼리 쪼금 미련헌 사름이 연 날리라 허 면 떨어진 걸 손으로 심영 바람에 연을 날려 줘야 영 하늘로 올라가주.  
 111006 @1 아, 나는 연줄 심영 ㄱ만이 잇고 너 보고 가라해서 연 띄우게 할 거 구나.  
 111006 #1 으.  
 111006 @1 옛날에 밧 불리젠 그 밧디 담아놔 연날리기 허게 그렇게는.  
 111006 #1 아니 밧 불리젠 연 안 날린다. 그뎨 안 날리고 하여튼 가을 들어야 연 날리길 시작헌다.  
 111007 @1 아. 그뎨 안 날리고예. 쪽기차기 물어보쿠다예.  
 111007 #1 으. 쪽기차긴 학교 텡길 때 뭐 하여튼 썰 때는 그거 많이 헛저. 썰 때는 교실에서 그것베끼 헐 게 없으니까, 비 안 올 뎨 오전에 나왕 축구 잇잖으냐 이. 주로 축구많이 헛저.

111007 @1 예, 예. 쪽기는 어떻 만듭니까?

111007 #1 쪽기는 그 뭐인가 그 종이가 지금거트면 나이론거치 질긴 종이덜이 잇나아.

111007 @1 으.

111007 #1 그건 것을 갖다가이, 그런 것을 막 몰아가지고서 가위로 막 그걸 찢른다. 그걸 찢르면 탁 퍼질 거 아니가이.

111007 @1 예.

111007 #1 경헨 가운데는 그걸 가운데만 넘겨 뒹 그걸 거시기 다 뱅허게 돌아가명 동글랑허게 헤가지고 가운데만 넘겨서 영 접아가지고 다 막이 줄기 나올 거 아니라.

111007 @1 으.

111007 #1 이 가운데 동글랑헌 디는 그디를 그 뭐인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 뭐인가 췌돈이 잇지만 옛날에는 구리 담아서 구리. 구리 담아서.

111007 @1 으, 음.

111007 #1 구리 담아서 일제시대는 구리 담아서, 구리 가운디 땡 이레 무꾼다 이레.

111007 @1 음.

111007 #1 무끄면은, 무끄면은 끈어분 건 탁 터질거 아니가 머리거치.

111007 @1 으.

111007 #1 경허면은 그것이 조절이 잘 뒹게 그것을 허는 거.

111007 @1 구리는 동전 같이 생긴 거?

111007 #1 어. 동전거치 생겼저 옛날에.

111008 @1 계민 쪽기차기 허젠 허민 그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

111008 #1 으, 양발차기도 잇고이, 양발 차기허고 혼발 차기.

111008 @1 혼발 차기, 양발 차기 잇고. 올리기, 물기 그런 것도 잇수과? 그건 뭐과?

111008 #1 건 쪽기를 쪽기를 ㄴ만이 이렇게 놔가지고 저레 차고 이레 차고. 경받지 못허민 지고 그렇게.

111008 @1 아.

111008 #1 거 시합덜 허고. 서로가 받아 차기.

111008 @1 아, 받아 차기. 그니까 다른 사람은 저쪽 강 성 잇고. 내가 차면.

111008 #1 으, 글로 치면은 내가 받지 못허영 땅에 떨어지면 거 지는 거.

111009 @1 지는 거예. 경헨 그것도 하나의 승부허는, 승부허는 방법이다예.

111009 #1 으. 또 쪽길 기자 차는 건 오래 차는 거, 많이 차는 거가 승부가 되는 것이고.

111009 @1 아, 개수로?

111009 #1 개수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차는 건 거 땅에 먼저 떨어진 사람이,

게니까 많이 찬 사름이 이기는 거주.

111009 @1 아, 많이 찬 사름이.

111009 #1 으.

111010 @1 쪽기 차기 허멍 재미난 일 엇엇수과?

111010 #1 재미나는 건 많이, 건 편 갈양 헨다이.

111010 @1 예.

111010 #1 저레 다섯 사름이민 여기 다섯 사름. 다섯 사름, 다섯 사름이 거 차가지고 그 중에는 잘 차는 사름도 있고 못 차는 사름도 잇거든.

111010 @1 예.

111010 #1 게난 총계로 다섯 사름이 거 그걸 합쳐가지고서 많이 찬 디가 이기는 거주게. 게민 역적도 댜고.

111010 @1 아, 역전도 댜고. 게민 펜 갈를 때는 어뎡헤.

111010 #1 잔젠뽕헤가지고.

111010 @1 하하하.

111010 #1 경헨 진 사름은 진 사름끼리, 이긴 사름은 이긴 사름끼리.

111011 @1 아, 게민 잘 허는 사름끼리만 모이기도 허쨌다예. 자치기 물어보쿠다. 자치기도 종류가 잇수과?

111011 #1 아니 자치기는 종류가 혼 가지 뿐이여.

111012 @1 혼 가지뿐예. 기민 자치기 헐 때 자랑 치는 어뎡 준비헤알 거마썸?

111012 #1 게난 거 막텅이가 혼 육십내지 칠십 센치 댜 거 막텅이가 잇주. 그 가느다란 막텅이.

111012 @1 예.

111012 #1 겐디 그디 또 작은 막텅이가, 작은 막텅이가 셔이.

111012 @1 예.

111012 #1 이건 손에 잡는 거고.

111012 @1 예.

111012 #1 그 작은 막텅이는 그 치면은 그 족은 거시긴데, 그것은 요만이 헤가지고서 혼 쪽이 영 삼각형으로 이덜 따 분다.

111012 @1 예.

111012 #1 거 웨 따는고 허니 웨 따는고 허니, 웨 따는고 허니 땅에 영 수평 댜면은 그게 딱 때려도 안 뒤킸어.

111012 @1 으.

111013 #1 혼쪽에 까끄느까 공간이 생길 거 아냐 거니까 이 손에서 그걸 딱 때려근예가 그것이 탁 우터레 올라오면은 그걸 딱 쳇 멀리 가는 게 이기는 거.

111013 @1 으. 게난 똥아부는 건 딱 쳇 올라오기 쉽게 딱 쳐 부는 거예.

111013 #1 으, 으.

111013 @1 멀리 가는 게 이기는 거예?

111013 #1 으, 멀리 가는 게.

111013 @1 기민 이것도 두 사람만 허는 게 아니라 펜도 나뉘습니까?

111013 #1 으, 펜 나뉘해도 주로 두 사람이 많이 한다.

111013 @1 아, 두 사람이 많이 허는 거. 게민 펜 나뉘 허게 돼민 어떤 형태로?

111013 #1 펜 나뉘 허게 돼민 아까 혼 사름씩 멀리 많이 사름이 이기는 거.

111013 @1 게민 뭐 내가 이만큼 가시민 이영?

111013 #1 으, 으.

111014 @1 음. 재미난 일 있어났수과?

111014 #1 이기민 지켜정 웃고 지민 또 서로가 화 냅 허고 그거주. 그걸로 세월 보냈주. 그건 놀이로 웃음 얻기 위해서 허는 거니까.

111015 @1 예, 예. 몰타기에. 몰타기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

111015 #1 몰타기 종류는이 그 대를 끈어다가 대를 끈어다가 여기 영 놔가지고 서 돌리는 건 막 초등학교생덜.

111015 @1 어. 말타기, 말타기. 업드렁 올라타는 거 아니?

111015 #1 몰 등에 업드렁 올라타는, 그 질매 엮는 건 업드렁 올라타는 거고이.

111015 @1 으, 으.

111015 #1 그 질매 족은 건 그디 저 발판이 잇저. 발 디디는 그거행 올라가고.

111015 @1 진짜 말 타는 거 말고 아이덜끼리 장난힐 때 말타기.

111015 #1 아, 그거 말타기힐 땐 이디 굽어가지고이.

111015 @1 굽어가지고.

111015 #1 으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디 올라와근에가이.

111015 @1 으.

111015 #1 그 뭐인가 상대방허고 쟁점뽀해근에가 이거 베퉁 이거 거세기 허면 은 지고 경허는 거주.

111016 @1 으, 무너지면 지고 허는. 그민 이런 몰타기에도 종류가 있어났수과?

111016 #1 아니 건 그거 혼 가지베끼 엮다.

111016 @1 혼 가지. 뭐 족은 몰타기, 생몰타기, 대말타기?

111016 #1 아니 그건 엮고.

111016 @1 엮어. 게민 이것도 두 사람만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도.

111016 #1 여러 사람도 할 수 있고.

111020 @1 할 수 있는 거예. 다마치기?

111020 #1 다마치기 그거 거세기 헛저. 그때는 다마가 없어가지고이 저 바다에 가면 진흙이 잇저.

111020 @1 으.

111020 #1 파랑헌 진흙이. 그럼 그걸 불에 구워.

111020 @1 으.

111020 #1 불에 구민 딱딱해가지고서 거 구슬거치 돼주게. 다마는 그 일본말로

동그란 걸 다마엔 허는 거주. 그거헨 저디 이디 영 쪼그만허게 홈 파가지고서이.  
 111020 @1 으.  
 111020 #1 이 저 그디, 그디서 세 발쫂م 해가지고서 그디서 뽕글여가지고서이.  
 111020 @1 으.  
 111020 #1 뽕글여가지고서 그디 뽕글여, 처음에 영, 영 밀 거 아니가이.  
 111020 @1 예.  
 111022 #1 밀영 답변에 뽕민 헐라면 잘 안 들거든.  
 111022 @1 예.  
 111022 #1 계근에 이젠 그디 가령 뽕 갈랑 허면은 나가 문저 이디, 이것이 구녕  
 이면은 이디서 나가 구녕에 안 들어가민 구녕 가까이 와세 다음 사름이 또 이제 밀  
 거 아니가.  
 111022 @1 으.  
 111022 #1 밀면 이 사름이 이만이 오면은 나가 이제 따시 나가 문저 이 구녕에  
 들어 노라. 그 다음에 이 맞치는.  
 111022 @1 으.  
 111022 #1 구녕에 들어 갓당 나와야 맞치는 거.  
 111022 @1 구녕에 들어 갓당 나와야.  
 111022 #1 으.  
 111024 @1 아, 맞추는 거예. 그럼 이 다마치기에도 뽕 종류가 잇어마씨? 구녕  
 치기, 뽕 원치기 벽치기.  
 111024 #1 그건, 그자 다마치기 그자 그런 거.  
 111024 @1 아.  
 111022 #1 그 구멍치기에 헨 거 또 이제이 거세기 돌로 해가지고서 구멍해가지  
 고이 가령 돌을 다섯 개허민 다섯 개해가지고서이.  
 111022 @1 예.  
 111022 #1 구멍에 들이밀어근예가 다섯 개 해가지고서 다섯 개 다 들어간 사람  
 도 잇고 다섯 개에 혼두 개 들어간 사름도 잇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뽕 갈라근예가  
 많이 들어간 사름이 이기는 거.  
 111023 @1 아. 원치기, 벽치기는?  
 111023 #1 그거 안 해낫저.  
 111028 @1 안 해난예. 뽕지치기는마씨?  
 111030 #1 뽕지치기 것도 건 해낫저. 그 뽕인가 책 두껍 같은 거이. 책 두껍 같  
 은 거 삼각형으로 영영 만드아근예이 네기반득허게 만드아근예 그걸로 상대방을 이  
 기려면 거 뽕싸야 뽕다. 뽕쓰고 거 상대방 이거, 이거 뽕지민 탁 처근에 이 알로 들  
 어가면 이거 죽는 거고.  
 111030 @1 아.  
 111030 #1 또 이거 자빠저, 자빠저도 죽는 거고.

111030 @1 아, 밑으로 들어가도 죽는 거고.  
 111030 #1 죽는 거고 자빠져도.  
 111030 @1 죽는 거예.  
 111030 #1 그렇게 재밋게 막 쳐놔서.  
 111028 @1 딱지는 아까 무슨 종이로?  
 111028 #1 대부분 책 두껍이로 많이 해주.  
 111028 @1 단단한 거.  
 111028 #1 학습장 두께나.  
 111028 @1 으, 학습장.  
 111028 #1 그런 거 해가지고서. 게가지고 영 자빠지면은 건 이녀이 다 찌지혜근  
 에 건 많이 따는 사름이 임제고. 게난 하영 딸 수 있주. 똬싸진 건 다 자기 거니까.  
 111028 @1 으. 게민 종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민 똬렌 곁으는 거 뒤집어지  
 민 똬렌 곁으는 거 그런 이름은?  
 111028 #1 그런, 그런 건.  
 111032 @1 그런 건 엇고예. 고불락, 고불락은 어떻 험니까?  
 111032 #1 그 고불락, 고불락은 그 자기가 눈, 고불락 험 때는 상대방ㄴ라 그  
 곱는 사름은 눈 안 곱고 그 좇으는 사름이 눈을 곱으렌 한다.  
 111032 @1 으.  
 111032 #1 눈 곱을락 허렌 혜근에가 우리가 곱을 거 아니가이.  
 111032 @1 으.  
 111032 #1 경 곱은 다음에는 눈 풀어근에가 좇는 거 그게 곱을락이여. 숨어 있  
 는 거 좇는 거.  
 111032 @1 게민 저기 그걸 술래엔 험 거, 좇는 사름을?  
 111032 #1 으, 술래엔 허는 거, 좇는 사름은 술래.  
 111033 @1 게민 술래는 거 어떻게 정해집니까?  
 111033 #1 게난 거 장괌보혜야 똬, 거 이긴 사름이 술래 허는 거.  
 111033 @1 진 사름 아니고 이긴 사름이?  
 111033 #1 으 이긴 사름 술래 똬는 거. 거 진 사름은 강 곱아야 똬니까.  
 111033 @1 이긴 사름이.  
 111033 #1 그 좇는 사름이 우선권이 잇주게.  
 111034 @1 기짜? 그럼 보통 어떤 디 숨어놔수과?  
 111034 #1 이 촌에는 똬 불치막거튼 디, 출눌 트멍 거튼 디, 똬 조칩눌 트멍 거  
 튼 디 그런 집안에는 그런, 집안에는 놀이 있는 때 그건 더운 똬 못허는 거니까.  
 111034 @1 예.  
 111034 #1 대략 가을 거튼 때, 봄 거튼 때.  
 111035 @1 예. 곱을락 허멍 재미난 일 엇어 낫수과?  
 111035 #1 경혜근에 못 좇으민 막 거시기 허고 말이야, 자기가 숨어근에 앞이



와도 말이야 못 좇으민 뉘중에 웃고 뭐 허고 그렇게 허멍 상대방 놀리고.

111035 @1 좇는 거는 그 사람신디 강 나 너 봤저 허민 뉘는 거?

111035 #1 아니 그디 가근에 그걸 지적행 끌고 나와야 뉘는 거.

111035 @1 아.

111035 #1 경해야.

111035 @1 아, 터치해야.

111035 #1 으, 터치해야.

111035 @1 잡으민?

111035 #1 진 거지 그건.

111035 @1 그럼 진 사름이 다시 술래 허는 거 아니?

111035 #1 경허주 바꾸멍.

111040 @1 바꾸멍. 실뜨기, 실떨락도 해낫수과?

111040 #1 실떨락. 건 여자덜이 해낫저.

111040 @1 여자덜이.

111040 #1 여자덜이 이추록 해가지고 뭐, 이추록 뭐 만드는 거.

111040 @1 예.

111040 #1 뭐 삼각형도 만들고 이상헌 집 닮은 것도 만들고.

111040 @1 예.

111040 #1 건 주로 여자덜이 많이 허는 거.

111040 @1 예.

111040 #1 우리 잘 안 한다. 여자덜이 실 거세기 허멍.

111040 @1 예.

111040 #1 손에 영 해가지고..

111040 @1 예.

111040 #1 또 방치기엔 험 것도 잇어나고. 것도 여자덜도.

111040 @1 아. 방치기도 여자덜이 허는 거 마썸?

111040 #1 으, 여자덜 허는 거.

111043 @1 이것도 여자덜. 공기놀이?

111043 #1 공기놀이는 여기 그런 건 안 해낫저.

111043 @1 공기치기 안 해난마썸?

111043 #1 공기치기. 아 공기치기 막 해낫저.

111041 @1 공기는 어떻, 뭘로 만들어?

111041 #1 거 돌로 만든다.

111041 @1 돌?

111041 #1 돌 쥬쥬헌 거. 아까도 그 다마치기 허는 거 그런식으로 만들고 허주 만든 주로 공기는 돌로 영 헛저.

111041 @1 돌 꺾양 아니면 좇엉?

111041 #1 돌 줯어근에가 적당허게 돌 뵁동글랑허게 다시려 가지고서 동글락허게 만들야.

111042 @1 음. 그럼 공기순은 어떤 순서로 정헐 거마썤, 공시 순서는?

111042 #1 공기는 거 공깃돌이 다섯 갠데이.

111042 @1 예.

111042 #1 다섯 개텐, 거 손으로 영 행 우터레 올령 많이 잡는 거, 영 공기 심어근에 공기 심영 영헤근에 영행 많이 잡는 게, 잡는 거 숫자로 헤가지고 거 이기는 거 승부를 갈리는 거.

111042 @1 아, 다섯 개 던정 누게가 많이 잡는지예.

111042 #1 으, 잡는 거.

111048 @1 그걸로 순서예. 다음에 고누렌 헐 거 알아지쿠과?

111048 #1 무시거?

111048 @1 고니, 쏴, 쏴?

111048 #1 그런 건 나?

111048 @1 아, 영 윗판 모양으로 영 그령 여기에 뭐 올려 낱 이거 자리 옮기는 거 그런 거 안 헤 낫수과?

111048 #1 그런 윗판베끼 그런 거 엇다.

111048 @1 엇어? 고누라고 안 헤 뵁마썤?

111048 #1 그런 건 안 헛저. 윗놀이 그건 뭐 아주 옛날부터 헐 거고.

111052 @1 예. 윗놀이 이땅 물어보쿠다. 땅따먹기?

111052 #1 으, 땅따먹기는 그거 저 땅따먹기도, 땅따먹긴 그건 남저가 주로 헤 낫저.

111049 @1 예, 땅따먹기예. 땅따먹기 허젠 허민 뵁 던저 두는 거 있잖아예. 뵁 사그마치 같은 거?

111049 #1 으, 그렇게 헛주만은 이젠 다 잊어불언. 허허.

111049 @1 하하.

111050 #1 요새는 경헌디 옛날엔 땅따먹기 헤가지고서 땅따먹을 때 손으로 영 뵁아가지고서이.

111050 @1 예.

111050 #1 손으로 영행 영 따먹나.

111050 @1 경헐

111051 #1 많이 땅따먹는 사름이 거 이기는 건디이.

111051 @1 아. 그럼 게임을 허젠 허민 어떻 손으로 헤가지고 어떻 허는 거마썤?

111051 #1 거 땅따먹기도이 그 어디 강 방을 영 돌아왕 여기 영 많이 디디면은 이 땅을 많이 따먹게 뵁고 좁은 디 디디면은 땅을 좁게 따먹게 뵁고, 경 그걸로 많이 따 먹을 수 있는 디 뵁명 받을 영 거세기 헤야 뵁여.

111050 @1 모양을 그려 놓는 거?  
 111050 #1 모양을 그려 놔가지고서.  
 111050 @1 아 그려 놓는 거예.  
 111050 #1 그려 놔가지고서.  
 111050 @1 그럼 던지는 거를.  
 111050 #1 던지지 안 해근에.  
 111050 @1 뭔가 던정 이 방에는 안 가고 이 방에?  
 111001 #1 건 먹대치기라 해가지고서 허긴 해놔는데.  
 111001 @1 아.  
 111001 #1 먹대치기라 해가지고서 것도이 네 군데 영 기려놔가지고서 거 허는  
 것도 셔 낫저. 게난 것도 다 잊어불언. 먹대치기 하여튼 걸 많이 해놔주, 땅따먹기  
 도 하고.  
 111001 @1 아, 건 먹대치기마씨, 던정 허는 거.  
 111001 #1 어, 어.  
 111001 @1 아.  
 111001 #1 뽕이치기도 겨울엔 허멍 놀아나고.  
 111053 @1 예. 윗놀이 물어볼게예. 윗놀이예.  
 111053 #1 으.  
 111053 @1 윗가락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54 #1 윗가락은 거 나무로 주로 해 나무로.  
 111054 @1 음. 그 나무는 주로 무슨 남?  
 111054 #1 아무 나무라도 현다 그건. 켜데 여기는 구럼비낭 허고 동박남이 그거  
 가 든든허니까 주로 그거 많이 현다.  
 111054 @1 구럼비남이나.  
 111054 #1 으, 동백낭.  
 111054 @1 동박남이과 동백남이과?  
 111054 #1 제춧말로 동박, 동박허난 동박남이주.  
 111054 @1 동박낭, 음. 게민 종지는? 종지는 뭐로?  
 111055 #1 종지는 옛날에 그 뭐인가 그 켜그만 종지가 셔낫저.  
 111055 @1 간장종지.  
 111055 #1 으, 간장종지, 그걸로 헛저.  
 111055 @1 윗판은마씨, 윗판은 어떻게수과?  
 111055 #1 윗판은 명석에 주로 기렁 해놔저. 명석에 기리고 경 안허민 흑판에  
 기리고.  
 111056 @1 아, 흑판에 그리고, 음. 윗놀이도 어떤 종류가 잇수과?  
 111056 #1 그 종류가 많이 그거, 상대방 가는 걸 그거 죽여가지고 그거 네 지를  
 나야 돼는 디 일번으로 부터근에 혼 바퀴 돌앙 나는 게 혼지라. 게난 녀지 나는 사

름이 이기는 거.

111056 @1 녀 지렌 헐 거예.

111057 #1 으, 녀지. 거 하나씩 네 번 돌앙 빨리난 사름이 이기는 거. 계난 상대방 가는 것도 잡아불민 이제 뭐인가 멧 번 나지 못헤영 지고 경허는 거주. 그 기술이 있는 거라, 상대방 몰 잡는 게 기술.

111057 @1 게니까 도개걸웃모 헤가지고 나는 거. 계난 빨리 갈 수도 있는 건데 상대방 못 가게 잡는 것도.

111057 #1 못 가게 잡아버리면 또 다시 일번으로 다시 출발헤야 돼여.

111057 @1 아, 다시 출발허는 거라예. 게민 네 개가 먼저 나야 이기는 거?

111057 #1 으, 녀지를 먼저 나야 이기는 거.

111057 @1 녀지라고 허는 거예?

111057 #1 으, 녀지를 먼저 나야 이기는 거.

111057 @1 웃놀이는 지금도 허잖아예.

111057 #1 지금도 헐다. 결혼식, 이제도 결혼식 허민 그거베끼 오락이 었다.

111057 @1 예, 그지예.

111057 #1 이제도 막 그거 성허게 헐다. 옛날보다 더 헐다, 이제.

111057 @1 아, 하하하. 뭐 돈 내기 험니까?

111057 #1 어, 돈 내기.

111059 @1 뽕이치기?

111059 #1 뽕이치기 거 겨울에. 겨울에 뽕이치기 경허난 거 남을 끈어다가이 그 남을이 하여튼 이 것도 하여튼 센치로 허민 혼 직경 혼 삼센치, 둘레 그걸 둘레 영 헤가지고서 그 밀엔 나무를 영 쫓아지게 영 가꾼다.

111059 @1 으.

111059 #1 가까가지고서 그 가운디 거, 가운딘 주로 그 뭐인가 속 구린 나무, 그 소낭을 많이 허는 디 속 구린 나물헤야 그디 거시기 웨뭇을 그디 거시기 허여. 웨뭇을 박으면은 이거 잘 돌아가주 웨뭇이 거 뽕뽕허니까.

111059 @1 음.

111064 #1 그래서 오래, 그 시간을 오래 끌게 처근에 그걸 죽지 안 허민 그게 이기는 거 뽕이치기 그거. 갇도 막 심백헤근에 서로 막 부딪치게 만들앙이.

111064 @1 으.

111064 #1 누게네가 문저 떨어지느냐, 죽느니 거 바닥에 자빠지는 지는 거주. 뽕이치기 막, 싸움도 막 헐다.

111061 @1 아, 뽕이치기 허멍 싸움 허는 디 아까 그 소낭으로 헤야 뛴는 거?

111061 #1 으, 소낭.

111061 @1 속 구려?

111061 #1 으, 속 구린 남을 주로 헐다.

111061 @1 속 구리다는 게 무슨 말이과?

111061 #1 거 속, 나무가 가운데 심이란 게 있주.

111061 @1 예.

111061 #1 계난 단단히, 오래지 안 헛 나무는 그디가 뭐인가 속이 영 저 뭐인가 그 좁쌀, 아니 뭐인가 가루거치 가운데 이렇게 텃다. 거기는이 거 물리민 나무가 거기는 그냥 구려근에 떨어지주게 계난 그런 디 못 박기가 좋거든.

111061 @1 아.

111061 #1 다른 건 허면은 못 박젠 허면은 깨어져 불어.

111061 @1 아.

111061 #1 깨지니까 속 구린 나무는 못, 웨못을 박아도 깨어지지 안 허니까.

111061 @1 예, 예. 못 박기 좋게 하기 위해서.

111061 #1 으, 으.

111061 @1 속 구린 낭을.

111061 #1 속 구린 나무를.

111061 @1 그래서 주로 소낭이 그렇다는 얘기.

111061 #1 으.

111061 @1 소낭 말고 또 다른 거 잇수과?

111061 #1 개나무 같은 거.

111060 @1 개나무 같은 거예. 예. 팽이에도 종류가 잇수과?

111060 #1 큰 거, 작은 거 잇저. 큰 거, 작은 거.

111062 @1 계민 팽이도 만들젠 허민 잘 돌아가게 만들야야 될 거 아니예.

111062 #1 으, 잘 돌아가게, 것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웬다.

111062 @1 뭐 방법이 잇수과?

111062 #1 아 계난 규격을 잘 맞춰야 돼. 아래 쏴아지는 것을 같다가 규격을 잘 맞춰 일정허게끔. 거 아니 맞추민 한 쪽으로만 자빠지고 계난 그거 영 아래 쏴아지게 허는 것을 잘, 기술적으로 잘 맞춰야.

111062 @1 계난 그것도 집이서 다 자기냥으로 만드는 거.

111062 #1 으, 자기냥으로 허는 디 자기 못 만들민 놈안티 멘들아 도렌도 허고.

111062 @1 아, 멘들아 도렌 허고. 팽이는 경행 소낭 깎앙 만들앗고 팽이채는?

111063 #1 팽이채는 이, 그 질긴 거 뭐인가, 뭐인가 형겹으로 헛주, 형겹으로.

111063 @1 예.

111063 #1 좀 질긴 형겹으로.

111063 @1 예.

111063 #1 그래야 오래 쓰니까.

111063 @1 아, 질긴 형겹으로. 나무, 나무.

111063 #1 나문 아무냥으로나.

111063 @1 아무나무에.

111063 #1 나무에 험벽 으만이 헤가지고 끝탱이에 감아가지고서 팽이를 뱅뱅뱅

벙 그 뭐인가 험벽을 감을 거 아니가이, 감앙 짝 텡이민 그 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계난 돌아가기 시작허민 죽기 전에 그걸 자꾸 뜯려 줘야 계속 돌아간다.

111063 @1 계난 여긴 낭이고 여긴 천을 부친 거잖아예.

111063 #1 으, 천.

111063 @1 천 영 쪼끼 만들 때처럼 찢어마썸? 안 찢어?

111063 #1 그건, 그건 흔 두 개로만 찢은다.

111063 @1 두 개로.

111063 #1 으, 두 개로, 질긴 천으로.

111063 @1 아, 쪼끼처럼 막 잘게 찢는 건 아니로군아예.

111063 #1 으, 잘게 찢지 안 허영.

111063 @1 안 해영예.

111063 #1 흥나로도 허고 두 개로도 찢으고.

111064 @1 팽이싸움은?

111064 #1 상대방이가 서로 부딪치게 쳐여 가지고서 그 문저 그 뭐인가 부딪친 후에 그 자빠지는 게 지는 거.

111064 @1 상대방도 치고 저도 치잖아예.

111064 #1 으.

111064 @1 나는 내 팽이만 쳐야 돼여.

111064 #1 이녀 팽이 처근에 이녀 팽이로 상대방 팽이를 그 부딪치게 해가지고 서 쓰러뜨리는 거주.

111064 @1 계민 내가 치다가 내 팽이 안 치고 놈의 팽이를 쳐서.

111064 #1 놈의 팽이는 거 칠 수가 엇주게.

111064 @1 아.

111064 #1 서로가 딴 데 상 있으니까?

111064 @1 내 팽이만 치명예.

111064 #1 으.

111066 @1 굴렁쇠라는 것도 해낫수과?

111066 #1 굴렁쇠도 해낫저. 굴렁쇠는 그 뭐인가 옛날에는 그 자전거가 안 나났지.

111066 @1 예.

111066 #1 그 자전거 뭐인가 요새는 자전거 그 튜부 그 뭐인가 다이야 빼 두고 쇠 그 굴렁쇠는 허는데 옛날에는 뭐인가 세비낭가시란 게 잇어저. 세비낭가시.

111066 @1 휘비낭가시?

111066 #1 세비낭가시. 세비낭가시.

111066 @1 아, 세비낭가시.

111066 #1 세비낭가시 그 줄을 걷어다가 그 가시를 다 없애불어 가지고이 그거를 둥그렇게 몰아서 그걸 저 뭐인가 그 즈전개 거시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게

가지고서 이제는 그 췌거튼 거 있잖으나이.

111066 @1 예.

111066 #1 췌 이렇게 영 해가지고선 그걸 영 돌령 그걸 이레 나오지 못 허게 걸리게끔 췌로 영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막 질레에 돌아댕겨세. 옛날엔 세비낭가시로 그렇게 해난디 요새는 그 자전거 거시기 췌 다이야 빼불고 그것에 해근에 아이덜 놀주.

111066 @1 게민 세비낭가시를 영 둥글게 말면 이렇게 돼가지고 굴릴 거 아니?

111066 #1 으 둥그렁 해야 굴러가고 헐 거 아니가. 거 세미낭가시 줄이 많이 든다.

111066 @1 아,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고 뱅뱅뱅.

111066 #1 으, 뱅뱅뱅 두껍게 허젠 허민, 두꺼와야 돼여.

111066 @1 아.

111066 #1 두꺼워야 돼여. 그것이 세미낭가시 허젠 허면은 혼 스무남은 개, 진진헌 혼 발짜리 혼 스무남은 개 들어야. 스무남은 개 더 들어야 현다.

111066 @1 거 막 두껍게 만드는 거군아예.

111066 #1 으, 경 안 허민 힘이 엇주게.

111066 @1 아.

111066 #1 거 두껍게 만들어야 힘이 종양 오래 견디주.

111066 @1 게민 이 굴렁췌 헐 때 둥그렇게 멘드는 건 세비낭가시남. 이거는?

111067 #1 게난 그건 철을 저 이제 전봇대줄 그때 많이 잇잖아아. 저런 췌 봉가다가 그건.

111067 @1 하하하. 전기줄에 췌. 통차기 해낫수과, 깡통차기?

111067 #1 그런 건.

111072 @1 안 해낫고예. 뽕이치기?

111072 #1 뽕이치기 아까 나 애기헌 거 뽕이치기.

111072 @1 뽕이말고 뽕이치기도 잇어낫수과?

111072 #1 아, 뽕이치기. 뽕이치기는 거 뽕이 빠다근에이 거 막 메역단 허는 식으로 해가지고서이 경허명이 거 뽕이치기엔 해난. 그 뽕이치기도이 새왓디 봄 나면은 새왓디 뽕이가 막 올라올 때이 그 뽕이가 막 뽕이가 올라오주게.

111072 @1 예.

111072 #1 여릴 때 그것 막 맛있나.

111072 @1 예.

111072 #1 이제 그걸 따다근에가 서로가 이제 따 먹을락 따 먹을라 해낫저.

111072 @1 예.

111072 #1 게 먹을 것이 엇으니까 건 뽕이철엔이 그 뽕이 빠레 막 다녀나신에.

111072 @1 게니까 뽕일 영 뽕와서예 서로가. 어쨌든 뽕이치기 허는 거는 상대방 뽕이를 내가 뽕아 먹젠 하는 거잖아예.

111072 #1 경헌 거주.  
 111075 @1 고무줄 놀이?  
 111075 #1 건 여자덜만 허고.  
 111075 @1 여자덜 놀이.  
 111075 #1 학생덜 아주 거 초등학생덜. 중학생꺼진 헤낫주게.  
 111078 @1 베뿔락?  
 111078 #1 베뿔락도 여자들만 허고.  
 111080 @1 그네도?  
 111080 #1 그네도 그 뭐인가 오월 단오에는 그네 많이 뛰엇저.  
 111080 @1 남자덜 안 헛지예, 여자덜이 헛지예?  
 111080 #1 어, 주로 여자.  
 111082 @1 한다리인다리라고 알아지쿠과?  
 111082 #1 으, 한다리인다리 그거 헛나저. 거 한다리인다리 헤근에 서로가 다리 덜 영 놔가지고서 한 다리 두 다리 뭐 헤가지고서 마지막에 뭐인가 딱 허게 가근에 끝까지 안 가면은 거 거세기.  
 111082 @1 한다리인다리 남저덜 헛던 거예?  
 111082 #1 으, 남자덜도 여자덜도 허고. 건 남녀 공히 거 처녀덜 총각덜 앓앙 막 장난으로 거 막 헤낫저.  
 111083 @1 혹시 불러난 노래 알아지쿠과?  
 111083 #1 거 잊어불엇저. 거 한 다리 두 다리 허면서 노래가 잊어났긴 잊어났는다.  
 111083 @1 예.

## 12. 통과의례

112001 @1 옛날에 태교 같은 거 헤졌수과?  
 112001 #3 태교가 뭐고?  
 112001 @1 우리 요즘은 애기.  
 112001 #3 애기 가지민 병원에 가근에가.  
 112001 @1 아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푹푹허렌 막 말도 곱아 주고 음악도 들려 주고.  
 112001 #3 에이구 애기야, 옛날 그런 거 엇어 낫저.  
 112001 @1 엇어난예.  
 112001 #3 엇어, 엇어.  
 112002 @1 계민 애기 가지민 애기 낳기 전이 준비를 헐 거 아니과예.  
 112002 #3 으.



112002 @1 무슨 준비를 험니까? 미릇 준비를 헤 두는 거는?

112002 #3 미릇 준비험 게 무시거 셔? 저 실 헤여근에가 베또룽줄 그치고 베똥룽 안터레 후터 놔근에가 질게 헤근에 그차주고 그거주.

112002 @1 게난 애기 낳기 전까진 준비험 건 뭇 엇어예?

112002 #3 으. 옛날에 무슨 준비험 게 시니?

112002 @1 미릇 뭇 기저귀 같은 거, 지성귀?

112002 #3 그것사게, 그것사게 그 이제 저 늙은 할망덜 삿빠 차는 그 사 엇으냐 게. 그걸로 헤낫주.

112002 @1 으.

112002 #3 그걸로 발레멍 뿔멍 헤나세.

112002 @1 그 천은 사당?

112002 #3 으, 사당.

112002 @1 사당예.

112002 #3 그 천 사다근에가 그거 으만씩 그차근에 두 곱이 청 영 오르려 놔근에 영헨 저 삿빠 차나세. 경헨 키와세.

112002 @1 경헨 키완예.

112002 #3 으, 몽글락 몽글락.

112002 @1 겐 아기는 어디서 낳수과?

112002 #3 방에서.

112002 @1 방에서.

112002 #3 으.

112002 @1 애기 낳 때 어떻헤신지 영 곱아줘 봅서.

112002 #3 애기 낳 때 어떻헤 영 일만 허다근에 뭇 날덜 똤민 낳주.

112002 @1 날덜 똤민.

112002 #3 막 배 아파근에가 난 막 후떠울 허는 따문에. 배 아팡.

112002 @1 후떼 얼르덴 현 것과 아까?

112002 #3 후떠울이엔 현 건 아기 떨어져 불민 옷 입을 때 곱아입을 때에 선히 허민 난 막 후떠울을 헤낫저게.

112002 @1 후떼?

112002 #3 으 후, 후에 배 아판.

112002 @1 아.

112002 #3 후에, 아기 나오라 불민 후에 배 아팡.

112002 @1 으.

112002 #3 경헤근에가 석덜이나 넘어사 밥도 들고 헤나서.

112002 @1 아, 막 아파낫구나.

112002 #3 으.

112002 @1 게민 애기 낳 때 혼 열 달은 배 속에 애기 가질 거 아니. 그때도 똑

같이 물에도 들고 밧디도 가고?

112002 #3 으, 똑같이 물에도 들고 밧디 검질도 메곡 다 경헛주.

112002 @1 다 경헛.

112002 #3 경헛 사름덜은 질레서도 아기 낳는 사름 싣저.

112002 @1 밧디 갓당 오당.

112002 #3 으, 오당.

112002 @1 하하.

112002 #3 거 얼마나 박허게 살아사 경허느니? 우린 경은 안 헛저게.

112002 @1 집이서 애기 낳 때 뭐 집이 보리찹도 깔고 경 헛수과?

112002 #3 으, 보리쪽으로 허는 디 우린 저 뭐 영 뭐고 ㄴ루 푸데, ㄴ루 하영  
답아저근에 오는 이제 쓸 가멩이 같은 거 그거 끌안 나서

112002 @1 아, 그때 ㄴ루 푸데가 잇어낫수과?

112002 #3 어. 저 우리 큰년 헌 땐 보리찹 끌안 헤도.

112002 @1 어. 스물세 살에 낳 땐예.

112002 #3 으, 그땐 보리찹 끌안 저 곳인물 다 보리찹에 엉과근에 데껴베나도.

112002 @1 으.

112002 #3 이젠 그 ㄴ루 푸데 낳 허민 그거 두 개 딱 폐왕 허민 그거 싣 거뒀  
불민 그냥 깨졌헌 방이주.

112002 @1 아. 그민 그때 그 ㄴ루 푸데가 잇어낫구나예.

112002 #3 으. 큰 ㄴ루 푸데 서 낫저게.

112002 @1 밀ㄴ루 사다 먹어난 거?

112002 #3 으. 그거 헤근에.

112002 @1 그거 끌앙예.

112002 #3 체암엔 그 저 미국썰 그거 나오라나고 그 흥썰 시난에 그 밀ㄴ루 푸  
데덜 나와라게.

112002 @1 그민 영 그때 애기 낳 때 누게가 와 낫수과?

112002 #3 아니.

112002 @1 텃줄 꿇젠 허민, 집이서?

112002 #3 우리 어무니.

112002 @1 어무니가.

112002 #3 어무니가 불르민 돌아와.

112002 @1 그민 ㄴ세로 어무니가 텃줄.

112002 #3 아방도 놀레 갓단 돌아오고.

112002 @1 붓줄 쫄라 주고, 애기 나민?

112002 #3 으.

112002 @1 그때 물도 막 꿰와사큰게. 물도 꿰우고.

112002 #3 몰라.

112002 @1 몰라 하하하.

112002 #3 물도 꿔왔주게. 물 데왕 주고, 즈베기 해당 주고.

112002 @1 음.

112004 #3 믱물ㄴ루에 저 메역 빨아놔근에 서꺼근에가 ㄴ루행 주고. 나 그런 거 못 먹언.

112004 @1 무사?

112004 #3 아파 부난.

112004 @1 아.

112004 #3 막 복주기 해다근에 낭 떼영 딸려근에가 국 행 줘도 좋아허지 안 헤영.

112004 @1 아, 뭐 먹엇수과 그럼?

112004 #3 그냥 그럭저럭 행 허단 보민 혼 서넉덜 헤가민 막 입 들앙 먹고.

112004 @1 아.

112004 #3 젓도 놈의 애기 젓 빌언 먹여보지 안 허고. 저 접시에 설탕 물 헤여근에 그 헤영현 소게 싹지 안 허냐?

112004 @1 예.

112004 #3 그거 새 소게 행 톱 젓영 낫당 애기 입더레 놓고 경해나서.

112004 @1 음.

112004 #3 저 놈의젓 빌어 다근에 허지 안 허영 사흘 넘어서.

112004 @1 아.

112004 #3 사흘 넘어서 저 막 더운 걸로 헤근에 더운 걸로 영영 헤가민 젓 돌앙 이넉 젓으로 행 맥여난.

112004 @1 음.

112004 #3 팡팡허난.

112004 @1 아 젓 팡팡 낫수과 나기는?

112004 #3 으.

112003 @1 그럼 텃줄은 집이서?

112003 #3 텃줄은 굴묵에서 슬아 불고.

112003 @1 텃줄이엔 헛수과, 븃줄이엔 헛수과?

112003 #3 텃줄이주게.

112003 @1 텃줄.

112003 #3 베또롱줄.

112003 @1 베또롱줄예.

112003 #3 으. 저디 우리 아이덜 현 때에 저 제주시에서덜 물러래 데껴벧저, 바당물러래.

112003 @1 으.

112003 #3 어떻 안 헨게.

112003 @1 어떻 안 해?

112003 #3 으.

112003 @1 거 잘 술아 줘야 허는 거 아니과?

112003 #3 아니.

112003 @1 아니?

112003 #3 우리 똥 날 때에도 경해 불고 메누리 날 때도 경 해 불고.

112003 @1 아, 손지덜 날 때 경헨.

112003 #3 으, 손지덜 날 때. 옛날엔 술아 나세계.

112003 @1 옛날엔 술아 난 거 아니예.

112003 #3 겐디 설랍에 놔 뒤토 엇어져서. 하나베긴 엇어.

112003 @1 게민 누게 꺾 잇어, 아직도? 큰 아덜 거?

112003 #3 셴게 이젠 다 데껴베져실 거여.

112003 @1 다 데껴벤예. 경헨 애기 나면은 그때는 믯물츠베기 행 산모덜 먹여 난 거라예.

112003 #3 으, 산모덜 줘 낫주. 아이고.

112005 @1 애기 목욕은 언제 시킵니까?

112005 #3 사흘 뒤턴 시키느네.

112005 @1 사흘 뒤턴.

112005 #3 사흘 뒤턴.

112005 @1 어무니도 사흘 뒤턴 젓은 맥여난 거라예.

112005 #3 으, 목욕해근에 해가민 젓 나와, 사흘 뒤턴.

112005 @1 으, 게민 그 전에는 애기 아무 젓도 안 먹어?

#112005 3 게 나 안 곶아사 설탕물 해근에 물리고 이거 영 허젠 사흘 전이 물 리젠 허민 막 곶인 거 나온다게.

112005 @1 아.

112005 #3 곶인 거 나오민 그 곶인 거 문 짜 뒤턴에 허민 말짜라 가민 해영허 게 젓 나오주.

112005 @1 아.

112005 #3 누리롱헨 거 나온다. 애기 나난 때덜. 챗아기 난 때도 경허고.

112005 @1 게민 그거는 맥이민 안 좋은 거난 역볼로 안 맥이는 거?

112005 #3 으, 안 맥이는 거.

112005 @1 아.

112005 #3 놈의 사람덜은 놈의 젓 빌어다근에 애기 난 사름 빌어당 해도 그런 건 안 헛저. 이녀 젓.

112006 @1 그 애기덜 영 태어나민 옷 멩글앙 입히잖아예.

112006 #3 으, 베옷 멘들앙.

112006 @1 베옷 멘들앙.

112006 #3 실굽 멘들고. 고비청. 영영 고비쳐근에가 질게 혜영 들어덩 영 줄라 멍.

112006 @1 그건 베옷이렌 헛던 거? 뭐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 입히는 거 붓디 창옷 허는 말은 안 씁니까?

112006 #3 어 붓디창옷이주.

112006 @1 붓디창옷 멘들앙예. 그거 무사 베옷을 입혀신고예?

112005 #3 베옷은이 몸이 까락까락허지 말렌 허고 또 몸 곰질 때도 애기가 새 빨강허게시리 밀어 쥐야만이 몸이 몬질몬질 허여.

112005 @1 뭐로 밀어?

112005 #3 뭐로 밀어 베옷으로 밀주.

112005 @1 아, 베옷.

112005 #3 베 험벅 혜영, 베 험벅 혜영.

112005 @1 예.

112005 #3 두건거치 쫄르게 그차근에 베 험벅 물 딱뚝허게 놔근에 호랑허지 안 허느냐게. 걸로 막 깨끗이 밀어사 손도 케지 안 허고 발도 케지 안 허고.

112005 @1 아.

112005 #3 경허지 안 험 사름은 이제도 손 케고 발 케고. 이거 나 이거 손 나 손 젊은 아이덜 내 놓민, 아이고 원 손 곱수다 곱수다 현다.

112005 @1 곱수다. 막 보드라와 가지고.

112005 #3 난 막 굿어 베영 허는디이. 아이고 늙은이 손 닥지 안 혜영 이제 막 검벽덜 닥은 손덜이 하.

112005 @1 예.

112005 #3 이거 영영 영 병원에 가난 영영 두드리렌 허더라.

112005 @1 으. 여기도 두드리고예.

112005 #3 으, 여기도 두드리고, 여기도 두드려사 관절이 오그라지지 안 현텐.

112005 @1 예.

112005 #3 관절 오그라진 사람 하 이디도.

112005 @1 예.

112005 #3 경현 사름덜이 하 비틀바틀, 비틀바틀 발가락이영.

112005 @1 으. 게난 여기에 배 속에서 묵은 걸 다 뱉겨내는 거?

112005 #3 으 그걸로 뱉기는 거 아니가.

112005 @1 아, 베옷으로.

112006 #3 이제도 아기 낳민 기추룩혜사. 경혜사 몬지락혜여.

112006 @1 몬지락허는 거라예.

112006 #3 애기 스정 보지 말앙 밀어사 껍쩍 울어도.

112006 @1 예.

112006 #3 별정허게 다까사. 이 입바위고 강알새고 그 즈쟁이고 잘 씻어사. 스

정 보지 말아. 이제 할망 돼건 경허라 느도이.

112006 @1 예. 하하.

112006 #3 아니 노래지 노래지 말앙.

112006 @1 예.

112006 #3 아이고 영 뱃겨 불민 애기 울영 어떻행 좋고 허지 말앙 울거나 말거나 그걸 막 밀어사.

112006 @1 아.

112006 #3 울지도 안 허여. 게고 아기만 눅질 때, 할마님 잘 지킴십서 업게 엇은 아기 어떻힙니까? 할마님 아기 잘 키와 줍서. 열 달 공 들영 난 애기 아니과 할마니 손으로 지킴십서 나 어디 강 오쿠다. 경허민 애기 어떻 안 현다.

112006 @1 아. 맞아, 맞아.

112006 #3 두린 때.

112006 @1 두린 때예.

112006 #3 경허멍 우린 키와세.

112007 @1 기라, 기라. 게민 옛날에 애기덜 아프지 말렌 할망상 같은 거 헤낫수과?

112007 #3 우리 안 헤봤저.

112007 @1 안 헤 받.

112007 #3 안 헤 봤저. 난 헤 보도 안 허고 이제 어떤 사름덜은 할망 웬 동네 가근에 저 메뉴리 헤 오민 또 그디 당에 그 모시고 허는 디 우린 그런 거 일절 안 헛저.

112007 @1 예.

112007 #3 안 헤도 애기 나라.

112007 @1 예, 하하.

112007 #3 그런 건 우리 물려주지도 안 헛저 메뉴리신더레 영영 텡기렌 안 헛저.

112007 @1 텡기렌 안 헨.

112007 #3 나 칠십다섯 나난 다 기자. 개끗이고 어디 텡기는 것도 다 그차 불언. 개끗허게.

112007 @1 그 전까지는 당에 막 텡겻수과?

112007 #3 으. 텡겨낫저. 어떤 사름덜은이 사발도 페 부짱 간 거 텡껴베던 지 사발이엔 행 앓아가라. 그 사람 이제, 그 예웬은 살앗주만은.

112008 @1 으. 그 애기덜 머리 잇잖아예, 머리.

112008 #3 으.

112008 @1 그 처음난 머리를 깎아 주는 디, 그 머리는 언제 깎아 췌수과?

112008 #3 언제 깎아줘 저 초과일날 깎아주민 좋주.

112008 @1 게민 금방 나 가지고 계속.

112008 #3 아니 그냥 굶겨만 주다근에, 굶겨만 주당 이디도 이 췌동도 다 벗어 지고 굶겨만 주다근에 초과일날 깎아주민 머리가 고와.

112008 @1 아, 초과일날 깎아주민예.

112008 #3 으.

112009 @1 경 헛엇던 거고, 애기 때 옛날에는 마누라 해가지고.

112009 #3 으, 손님 들엉.

112009 @1 손님 들엉예.

112009 #3 막 고생허는 사름은 고생헛주게. 췌기도, 췌긴. 그건 어른은 어른이라.

112009 @1 으.

112009 #3 췌기도 비지지직 구우지 말고 경허는 거라이.

112009 @1 으.

112009 #3 그것만큼은 멍심혜사 해여.

112009 @1 아 췌기 굶는 걸 멍심혜사혜마씨?

112009 #3 어. 췌기 굶는 거만큼은 멍심혜산다.

112009 @1 무산고 그건?

112009 #3 아무거라도 우리 반찬 먹젠 굶지 안 허느냐게.

112009 @1 예, 예.

112009 #3 경 굶는 것이.

112009 @1 예.

112009 #3 아기 사흘 넘기 전이 멍심혜사 해.

112009 @1 하지 말렌 허는 거?

112009 #3 으.

112009 @1 계민 바닷 췌기도 그렇고.

112009 #3 바닷 췌기도 그렇고게. 후라이판에 지저 가민 소리 나지 안 허느냐게. 경허민 아니 돼주게. 할망 곧. 이녁 손으로 이녁이 애길 낳건만은.

112009 @1 어.

112009 #3 할망이 배 소곱에서 눈 돈고 코 부찌고 다 행 멍줄 주고 헨에 내친 거 아니냐.

112009 @1 예.

112009 #3 경허난 ㄱ만이 시민 나올 거주 병원장신디 갓젠 나오는 거 아니.

112009 @1 예.

112009 #3 일로 빠내 부는 건 해도.

112009 @1 예, 예.

112009 #3 다 할망이 알앙 다 해주주.

112009 @1 췌디 무사 췌기는 영 굶지 말렌 헉니까? 그건 몰라?

112009 #3 거.

112009 @1 소문이 그냥, 옛날부터 들어난 말이?  
 112009 #3 으. 안 좋카부덴 거주게.  
 112009 @1 안 좋카부덴.  
 112009 #3 또 손님 들어온 때도 경허고. 그 아기 저.  
 112009 @1 마누라.  
 112009 #3 마누라 헐 때. 그때 조심해산다.  
 112009 @1 계난 옛날에 그것 때문에 일허분 애기덜 셔예.  
 112009 #3 으, 승허지 말고. 느 무사 양지 이거 불긋불긋 튀어남시? 영 봐근에 손님 님으민 게 쫘쫘해근에 허는 거주 안 곤는 거여.  
 112009 @1 아, 거 말로 허민 안돼?  
 112009 #3 으, 안 웬다.  
 112009 @1 아.  
 112009 #3 제서 때도 헤 와지건 허고 못 헤 와지건 저 준소리랑 허지 말렌 헤라. 책 보는 사름도.  
 112009 @1 거 무슨 말? 재물 헤 왓저, 안 헤 왓저.  
 112009 #3 아니.  
 112009 @1 예.  
 112009 #3 무시걸 떨어지더라 헤도 그 사름이 골아도 댓구를 허지 말렌.  
 112009 @1 아.  
 112009 3 경 골아줘라.  
 112009 @1 애기 그런 있는 집에서는?  
 112009 #3 으. 애기도 애기주만은 제서 때라도 군소리를 말라 허는 거지.  
 112009 @1 군소리를 말라.  
 112009 #3 못 헤져시민 못 헤져신가 속으로만 생각허고 아이고 뭐 하나 더 헤울 거 못 헤져신가 생각만 허주 곤지 말렌 대답을 말렌 형편이 뭐 하나 부족허덴 헤도 대답을 말렌 허는 거주.  
 112011 @1 음. 옛날에 결혼식덜은 어떻 헤 낫수과?  
 112011 #3 옛날에 결혼식은 어떻헐 헤시게 그 무시거 저 씨 오고.  
 112011 @1 뭘 씨 와?  
 112011 #3 이제, 이제도 마찬가지로. 그건 씨 감실 거라.  
 112011 @1 으.  
 112011 #3 생년월일 써근에가 이 사름은 아무 디 가는 거렌 행.  
 112012 @1 동네에서 영 결혼허젠 허민 이 집이 신랑 이수과, 새각시 이수과 허는 거를, 이 집이 아덜 어떻 허과 허는 거를 영 중매 서는 거라.  
 112012 #3 아니, 그런 거 안 해근에가 중진허젠 허민 아무집이 새각시 섯젠 헐 게 그거 구해 줍서 허민 그, 그 집이 친헌 사름으로, 그 사름 말을 들엄직 헐 사름 신디 강 골으민 서로 영 내왕 허근에가 허는 거주게.



112012 @1 아.

112012 #3 영 맞선 보렌 혜근에가.

112012 @1 게민 그건 남저 집이서가?

112012 #3 남저 집이서.

112012 @1 예를 들민 아덜 이시민 아 저 집이 딸 이신 거 알앙.

112012 #3 아무 디 새각시 섯젠 헌 게 그거 흐쉴 구해 줘 허민 그 능간 신 사  
름은 종텐 혜근에 허민 말씀으로 간 서로 만나, 이젠 서로 만나 봐야 만난 대우허  
다근에가 대우가 맞지 안 허민 안 허지 안 험사게.

112012 @1 으.

112012 #3 대우가 맞으민 허고.

112012 @1 경허듯이.

112012 #3 경허듯이 이젠.

112012 @1 게난 그 집이 말 먹힐 만헌 사름안티 강 부탁을 허는 거라예 중신  
서 달렌예.

112012 #3 으. 그 사름 말을 들엄직 헌 딜로 중진을 혜사 허는 거고, 밧 폴 때  
도 저 사름 말을 들엄직 혜근에 흐쉴 뭐 험직 헌 사름신디로 가근에 밧 폴아 도렌  
도 허고 사 도렌도 허고 경 혜나세. 이젠 그 무시거 뭐 혜근에 허고.

112012 @1 게민 영헨 영 왔다 갔다 허명 결혼까지 가젠 허면 뭐가, 아까 중진  
선 사름이 그디 강 아 이 집이서 종텐 험수다 이제 날 잡게 경허민.

112012 #3 건 아이덜신딜로 므녀 곤는 거주게. 건 아이덜신딜로.

112012 @1 으.

112012 #3 갈 사름 신딜로.

112012 @1 아니 옛날에도 경?

112012 #3 옛날에는.

112011 @1 옛날에, 어무니네 결혼헨 때 어떻 혜난 거?

112011 #3 우리 어머님은 그냥 폴렌 허난 폴아벤.

112011 @1 하하하하.

112011 #3 새서방 보고 무시거 허고 혜사. 갱 혜부난 안 살앗주. 이제거치 보내  
시민 안 살아.

112017 @1 그때 잔친 어떻 헛수과?

112017 #3 잔치덜은 막 잘 헛저.

112017 @1 잔치혜난 거 곶아 줍서. 어떻 잔치 헨?

112017 #3 잔치혜난 거?

112017 @1 예.

112017 #3 잔치혜난 것사 막 밥 혜여근에가 먹이고 새서방 상은 막 우로 혜여  
근에 갈리 걸치고 혜근에가 돛다리 걸치고 독다리 걸치고 저 독새기 시 개 놓고 혜  
근에가 상 들려다가. 으디 두하 각신 지 상에 거 하인덜이 그건 앓아 가주.

112017 @1 으.

112017 #3 지네 떡젠.

112017 @1 으.

112017 #3 앓아 강 허민.

112017 @1 신랑상에 차려진 음식을예.

112017 #3 으. 새각시 상에 출린 걸.

112017 @1 으.

112017 #3 앓아 가젠 허민 못 앓아 가게 해나귀렌 해라만은, 저 그거 다 앓아당  
그디 강 잘 돼게 해 줘센 영영 강 빌어 왓수덴.

112017 @1 으.

112017 #3 지 그 하인도 조상을 모시는 거주게. 경허젠 앓아가는 거주게.

112017 @1 지네 떡젠 가져가는 거 아니?

112017 #3 경헨 먹는 거.

112017 @1 아, 경헨 먹는 거.

112017 #3 으. 다 경헨 먹는 건디 이젠 당에 가도 거실려 가지 안 해근에 지네  
먹기 실프민 다 앓아 가렌 해도 그디도 고망 톨라진 디가 셔, 당에도 가민.

112017 @1 아.

112017 #3 고망 톨라진더레 우린, 일단 세영 간 현 거기 때문에 다 비와딩 온  
다. 아무 것도 안 앓앙 온다.

112017 @1 아.

112017 #3 흐흐.

112017 @1 아.

112017 #3 분시 물론 사름덜은이 오라젓젠 막 앓앙 오라근에 그디서 또 떡 주  
민 반앙 앓아 오는 사름 신디 그거 안 좋아.

112017 @1 음. 가정 오지 말아야 허는 디.

112017 #3 으. 일년 열두덜 거 공들여근에 행 간 걸 음식을 뿔 허레 앓아 오느  
니, 안 앓앙 오는 범이라.

112017 @1 게민 그때 옛날에 어무니네 결혼헐 때 썸이우다예, 그때 결혼식 헐  
때는 신랑이 영 신부 데리러 가기도 허고?

112017 #3 아니.

112017 @1 그런 거 안 해. 뭐 가마 타고 뭉 타고 그런 것도 안 해 낫수과?

112017 #3 가마 타고 뭉 타고 헨 갓주게.

112017 @1 으, 게난.

112017 #3 흔 동네라도.

112017 @1 흔 동네라도예.

112017 #3 영 으디라도 가마 탕, 어허허허 행 세 번 그추룩 행 하하하.

112017 @1 누게가 어허 허는 거라.

112017 #3 그디 하인 잇주. 궂사 나 안 곶아냐 믇을 하인이엔 현 건 이제거트민 조합장 님은 사름이라이.

112017 @1 으.

112017 #3 경허민 그 사름이 막 허주.

112017 @1 그 사름이 앞이 물 꺾어 가는 거라, 신랑 태왕.

112017 #3 어, 어.

112017 @1 경 신부집이 강 신랑 왓수다 허는 의미로 경 곤는 거?

112017 #3 으, 으.

112017 @1 아.

112016 #3 겨고 또시 함 앓아가면은 그 함 받는 사름이 글이 영리혜사 아멩아 멩 행 왓젠 헨 처벌도 주고.

112016 @1 으.

112016 #3 잘못 쓰민 잘못 췌젠 처벌 쥬 새서방 느리지 안 허영 그냥 세와.

112016 @1 으.

112016 #3 멧 분 세와. 경도 해난.

112016 @1 게민 세와 두는 거는 그 씨 간 거를, 함 씨 간 거를 보는 거라?

112016 #3 이 집이, 이 집안에 글 법적을 아는 사름은 다 보는 거주.

112016 @1 아.

112016 #3 함 올양, 함부텨 들어오민 함 올라근에. 거 다 보는 거.

112016 @1 아, 틀려신지 안 틀려신지.

112016 #3 으, 잘 씨시냐 안 씨시냐, 잘못 헤시민 그냥 벌로 세와. 벌로 새서방 을 느립지 안 해영 세와 마당에 혼 멧 분. 담배 혼 대 먹을 내긴 세와.

112016 @1 아. 경헨 돼시민.

112016 #3 느려 주주.

112016 @1 느려 주고. 잘 안 돼시민 어떻 험니까? 잘못 뵈 거 잇거나 허민.

112016 #3 게난 그걸로 벌을 주덴 말이라.

112016 @1 벌 주는 게 ㄴ만이 앓아 잇는 거?

112016 #3 ㄴ만이 느립지 안 허영 몰 탄양 ㄴ만이 셔.

112016 @1 으.

112016 #3 문세ㄴ진 집, 문세ㄴ진 집. 것ㄴ라 문세 ㄴ진 집이엔 허는 거 아니가.

112016 @1 으.

112016 #3 이제도 영 아이덜 헤 텡기는 행동, 느네거튼 아이덜 헤 텡기는 행동 허는 거 보민 아 으건 큰집안이 톨이로구나. 모든 걸 알양 척척헤근에 영 착해영만 허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행동이 어른 성 산 집광 우이 오빠 성 산 집광 틀려 이제도.

112016 @1 예, 맞수다, 맞수다.

112016 #3 우이 오빠덜이 성 이 대가리가 올라진 사름은 흥킴 조심성도 잇고,

상 들렁 강도 방구 끼고 경 허는 사름이 천지.

112016 @1 맞수다, 맞수다.

112016 #3 밥상 들러당, 우리 옛날 대학교수라. 그 나 가난 집이 성광 오빠가 서서이. 오빠는 저 죽길이 살고 우린 대산동 살았주. 경헌디 오빠 저, 오빠가 그냥 날 데려가지 못허연.

112016 @1 아.

112016 #3 제주서 죽은 동생 오난 막 잘 땀젠, 누이 잘 땀젠. 나 드려 가젠. 경헨 드려간에 그디 강도 일년 나 살았저.

112016 @1 아.

112016 #3 오빠신디도 강. 경허난이 대학 조수디, 대학 조수가 밥상을 이디광 이디, 저방은 벤소고 이방은 큰방 아니냐게. 이젠 청방이고.

112016 @1 예, 예.

112016 #3 경헨 허면은 이 부엌에서 밥상을 들러당 놔딩 그냥 저레 가벤시민 허주만은, 오줌 누레 벤소리레 가며. 그것이 우리 오빠는 막 싫어허더라게. 싫어허여, 베웁지 못 헨 게엔. 대학 조수라도.

112016 @1 아.

112016 #3 경허민 막 아쉬와근에 난 막 허멍 해나서.

112016 @1 음.

112016 #3 게난 행동을 배와야. 딸은 늬 주젠 허믄 행동을 배와야 헤여.

112016 @1 음.

112016 #3 큰만 허민 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자 무조건 험주만은 이제 우리 밧디가근에가 행동허는 걸 봐도 우이 오빠가 돈든헌 사름이 시면 행동이 싹고. 행동 엇인 사름이 천지만지라. 욕심만 가득허고 욕만 퍼붓고. 거 안 똤 사름이지게.

112016 @1 으음.

112016 #3 경 안허냐?

112016 @1 맞수다.

112016 #3 늬의 거 언저오쟁은 허고 자기 허는 행동은 베폴지 안 허영 늬의 거 언저우젠 허는 것이 거 존 것가?

### 13. 민간요법

113001 @1 그럼예, 민간요법에, 그 이발충 잇지예, 이발충?

113001 #1 으.

113001 @1 머리?

113001 #1 으, 머리 이발충. 이발충도 옛날엔 많이 잇어났저.

113001 @1 예, 그럼 이발충 걸리민?

113001 #1 이발총 걸리민 이디션 복쟁이를 구해다가이, 나까다가이 복쟁이 기름으로 이디 영 불르민 그거 좋아났저. 그 웨로는 잘 안 들어.

113001 @1 복쟁이가 뭐?

113001 #1 바당에 복, 복 잇저.

113001 @1 아. 생선 이름, 물고기 이름?

113001 #1 으, 으. 그 복쟁이라고 헐다 제줏말론.

113001 @1 으.

113001 #1 표준말론 복이고.

113001 @1 복예?

113001 #1 으. 그거 기름을 불르는, 그거 독 잇는 거주게.

113001 @1 으, 그 기름을 브르는 거. 이발총 말고 머리에 생기는 이발총이랑 비슷한 독짓?

113002 #1 독짓 거튼 거 그것이 상당히 거, 옛날엔 뿔이 잇어 노니까이 솟검뎡이 행 막 불르고 해났저. 솟검뎡이 잇잖아이, 솟에 영 그스레기 닮은 거 그거 행 불르곡이.

113002 @1 아.

113002 #1 그런 거 허고 뭐 다른 건 별로. 그것 허고이, 아이구 거. 보섭빨리엔 헐 게 잇저 보섭빨리.

113002 @1 예.

113002 #1 드르에 가근에가 파다근에가 그거를 삶아, 그거를 영 시치면이 그 놈이 충이 삭 죽어. 그 보섭빨리.

113002 @1 보?

113002 #1 보섭빨리, 여기로 제주말론 보섭빨리.

113002 @1 거 식물 이름이과?

113002 #1 으, 식물 이름.

113002 @1 풀 이름?

113002 #1 으, 풀 이름.

113002 @1 아, 보섭빨리. 검질 종류나 그런 건, 약초과?

113002 #1 그게 약초여.

113002 @1 아.

113002 #1 약춘테 상당히, 그 아무데나 잘 안 나근에가 그거 좀 희귀헐 거여 거 보섭빨리.

113002 @1 아.

113002 #1 보섭빨리란 거 헤다근에가.

113002 @1 예.

113002 #1 그 물에 딸렁 그 물에 허면은 이디 막 허물들 옛날엔 많이 나뉘주게.

113002 @1 예.

113002 #1 이발충은 그걸로도 안 죽고.

113002 @1 아.

113002 #1 건 복쟁이 지름 해야 되고 이디 열 피여근에 막 허물 막 나지 안 허느냐이?

113002 @1 예.

113002 #1 그건 저 보섭빨리로.

113003 @1 예, 보섭빨리로예. 비돔 같은 건마씨?

113003 #1 옛날엔 뭐 비돔 약은 엇어부난 기냥 그, 그거 고치는 건 엇어 낫저.

113003 @1 비돔을 비돔이엔 해낫수과, 비돔이엔 해낫수과?

113003 #1 비돔.

113003 @1 비돔이렌 곶아난예, 버즘도 막 하영 나낫잖아예, 옛날에예?

113004 #1 으. 버즘도 많이 낫저. 겐 옛날은 버즘이 도리버즘이란 게 잇고이, 동글랑헌 곶 도리버즘이엔 허고이, 기자 버즘도 잇는데이.

113004 @1 예.

113004 #1 뽕 도는 버즘은이, 이것을 실로 영, 바농질허는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이.

113004 @1 예.

113004 #1 이걸 영 뽕허게 영, 맞창이 거 나무에 강 돌라불면이 거 신기허게 좋아낫저 거.

113004 @1 어떻, 어떻 다시. 여기를?

113004 #1 이디 뽕 도르게 해영 양지에 거 많이 나주. 뽕 돌르는 거, 거 도리버즘이엔 한다.

113004 @1 도리버즘?

113004 #1 으, 도리버즘은 실로 이 버즘을 이렇게 영 뽕 돌르게 맞춰가지고 나무에.

113004 @1 으.

113004 #1 산 나무, 살아 있는 나무에 가근에 그 실로 그대로 뽕허게 돌라불면이 자연히 없어져낫저.

113004 @1 아, 기과?

113004 #1 신기허게 없어져.

113004 @1 아. 게민 아까 버즘 종류가 도리버즘이 잇고?

113004 #1 기자 그 군버즘이엔 헌 게.

113004 @1 군버즘이 잇고예. 아, 군버즘. 그럼 진버즘, 마른버즘 허는 건 안 씨예. 도리버즘, 군버즘이 있는 거예?

113004 #1 으, 으.

113005 @1 백선은마씨, 백선 하양허게?

113005 #1 백선은 하양헌 거 그거 머리에 거세기 허는 건데 그것도 하여튼 다

른 약을 없애가지고 아까 보습뿔리로 그걸로 많이덜 고안했저.

113005 @1 게민 아까 이발총이나 독것이나 백선 다 머리에 해난 것과?

113005 #1 으, 으. 머리에 해난 거.

113006 @1 뭐 얼굴에 그 나는 거 잇지예, 학생 때 나는 거?

113006 #1 아, 그거. 그거 니끼비엔 현 거.

113006 @1 니끼비엔 험니까? 하하 건 일본말인디이?

113006 #1 게, 거 니끼비 일본말인디 우리말로 거 잘 몰르켜만은.

113006 @1 뇷싸움이엔 안 험니까?

113006 #1 으?

113006 @1 뇷싸움?

113006 #1 아니 아니.

113006 @1 안 허여. 니끼비에?

113006 #1 으, 니끼비. 건 자연적으로 돼는 거. 건 약이 없다 건.

113006 @1 어쨌든 젊었을 때만 나는 거잖아예?

113006 #1 으. 젊었을 땐 나는 사름은 심허게 나고, 건 호르몬 관계주. 호르몬  
과다 배출허면은 그것이 바깳더레 부까가지고 호르몬 작용으로 이렇게 허는 거주  
게.

113006 @1 으.

113006 #1 거 사춘기 거시기만 나주, 경 안 현 사름은 안 나는 거.

113006 @1 예. 여긴 뇷싸움이엔 안 허는구나예?

113006 #1 아니, 뇷싸움이엔 안 현다.

113007 @1 기미는 마씨, 지미? 막 시커멍허게?

113007 #1 그 시커멍현 거 기미는 원래 기미는 뱃 맞앙 기미가 끼기도 허주만  
은.

113007 @1 으.

113007 #1 건 뭐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미 끼는 사름도 있고.

113007 @1 으.

113007 #1 그 뱃 많이 맞으민 기미 끼주.

113007 @1 기미 끼고예.

113007 #1 으, 뱃에 뭐 얼굴이 많이 노출 돼영 허면은 건 사름마다 성격이 다르  
기 때문에 그런 사름이 건, 보통으로 경허는 게 아니라.

113007 @1 예, 예. 게민 기미 끼민 어떻 허민 낫고 그런 건 엇수과?

113007 #1 그런 거 엇어. 약 써 본 건 엇저.

113007 @1 약 써 본 거 엇어예.

113007 #1 자연적으로 거 벗어정 거세기 허는 거.

113007 @1 예.

113007 #1 것도 사름이 슬져가민 기미가 벗어지고 해났저.

113007 @1 아, 하하하.

113007 #1 으, 사름이 줌이 그 뭐인가 기, 기가 없으면 그런 군버즘이영 버즘이영 일어나고 나 낫주.

113008 @1 으. 프리퐁, 프리춤?

113008 #1 프리퐁은 거 자연적인 거. 거는 원래 어린 아이, 저 어머니 뱃속으로 날 때부터. 프리퐁이엔 현 거 점 점 점 영 헨 거세기 허는 거난.

113008 @1 예. 것도 뭐 약 었어?

113008 #1 것도 약 었다.

113009 @1 사막 나민 어떻 험니까?

113009 #1 사막은 여기서는 거 그 뭐인가 거 백반이란 게 잊저, 백반이라고 건 약이주. 그거 영 낡 쫄르는 사름도 잊고이 경 안 현 사름은이 그 사막도 복 사막이라고 해서 안 쫄르는 사름도 경한다.

113009 @1 아.

113009 #1 복 이신 건 그냥 내분다. 복 사막이라고 해서.

113009 @1 어떤 게 복 사막인고예?

113009 #1 게난이 대개 이런 이 영 주위에 영 좀 뭐인가 그렇게 나는 걸 복 사막이라고. 느도 신게 그건 점이주만은 사막은 이렇게 튀어나주. 그런 건 사막이렌 현다.

113009 @1 그럼 얼굴 눈 밑에 잇는 거는 복 사막이렌 허여?

113009 #1 아니 게난 그건 사름마다 그건 해석이 다른데 보기 싫은 건 쫄라봄도 허고 복 사막이렌 헨 그냥 내부는 수도 잇고.

113010 @1 예. 눈에 영 나는 건 둘럿이엔 험니까?

113010 #1 둘럿이엔도 허고 개썸이라고도 현다. 보통 말론 ‘아, 개썸 낫저’ 그렇게.

113010 @1 개썸예?

113010 #1 어. 그건, 그건 난 땀이, 옛날에는이 그 뭐인가 디들광 잊지 안 허나이. 통세 가가지고서.

113010 @1 예.

113010 #1 그 통세 가가지고 통세 담을 영 뒤집어 놓면은 그 자연히 낫고 그래 낫저.

113010 @1 아, 하하. 그거 뭐 불르고 헛던 게 아니고.

113010 #1 으. 불르지 안 허고 그거 난 때는이 그 천평지평을 한자로이, 천 하늘 천 허고 평할 평자, 또 그 양쪽에 천평지평 쓴다.

113010 @1 으.

113010 #1 경허면은 거 자연적으로 낫고, 그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낫저.

113010 @1 아, 그걸 쓰는 거라?



113010 #1 으.

113010 @1 또 디들팡?

113010 #1 으, 디들팡에 가서 아니, 디들팡이 아니고 그 통세에 가가지고서 통세에 담, 그 앞이 돌이, 뒤집어 놓면 자연히 낮고 또 경 안 허면 천평지평 경 쓰미 낮고.

113011 @1 아. 눈이 벌겍하게 충열 됐을 때는 어떻 해여?

113011 #1 그 눈은 뭐 충열 되면 뭐인가 냉수로, 냉수로 자꾸 시침베끼 별 약이 없었저.

113011 @1 아, 눈 냉수로예.

113011 #1 으.

113012 @1 이빨 아플 때는?

113012 #1 이빨 아플 때는이 그거 막 소주도 물곡이 이빨 뺏을 때는이, 그땐 진통제가 없어거든이.

113012 @1 으.

113012 #1 소주도 이렇게 물고, 옛날엔 그 뇌선이라고 잇어났저.

113012 @1 약.

113012 #1 으, 뇌선 약을 이디 영 블름도 허고 먹으면 조금 누기고 해났저. 제일 고통이 거 치통이여.

113012 @1 이빨 아픈 거예?

113012 #1 으.

113012 @1 그 뇌선이라는 약은 언제서부터 잇어나신고예?

113012 #1 그거 상당히 오래됐저. 해방 됐난 그제 나옴 시작했저.

113012 @1 아, 해방 됐난. 우리 어무니도 막 물질헐 때 그런 거 먹어난 거 기억남수다.

113012 #1 으. 머리 아픈 것도 좋고 거 진통도 돼고 머리 아픈 것도 낮고 그냥 영 뺏는 것도 누기고.

113012 @1 아, 누기고예?

113012 #1 으.

113013 @1 셋바농 나민 어떻 험니까?

113013 #1 으?

113013 @1 셋바농?

113013 #1 아, 이거 나면은이 부추 잇지 안 허느냐이?

113013 @1 예, 부추.

113013 #1 부추를 뜯어다가.

113013 @1 부추를 제주도 말로, 여기 말로 뭐렌 곶을 거?

113013 #1 새우리.

113013 @1 어, 새우리.

113013 #1 새우리 영 혼 대여섯 겹 잘라다가이.

113013 @1 예.

113013 #1 그걸 뭐인가 그 소금에 독독독독 그거 뭐인가 영 다질 거 아니가이.

113013 @1 예, 예.

113013 #1 겐 그 부추와 소금이 혼합 뿔거든지, 그걸로 영 다끄면은.

113013 @1 으.

113013 #1 그거 안 허면은 안 돼여.

113013 @1 아.

113013 #1 부추가.

113013 @1 부추에 소금.

113013 #1 으, 다져서이.

113014 @1 천연두에 뭐 약이 있어났수과?

113014 #1 천연두 혈 때 뭐 약이 었고, 그것이 심허면은이 무당을 데려다가 거  
에 대해서 뭐인가 빌고 경허면은 나아났저.

113014 @1 음.

113014 #1 거 다른 약은 었다, 천연두엔.

113015 @1 홍역은마씨?

113015 #1 홍역이 천연두여.

113015 @1 홍역이 천연두예?

113015 #1 으.

113015 @1 그른 홍역을 여기서 제주도 말로, 다른 말로 뭐렌 골아나신고예?

113015 #1 거, 거 죽은한집 들엇다 경허주, 죽은한집.

113015 @1 아, 죽은한집예?

113015 #1 으. 죽은한집이라고 그러고 그자 홍역이엔 곧고.

113015 @1 예. 그거 막 얼굴에 불긋불긋 나?

113015 #1 으. 좁쌀 거치 불긋불긋 이거 막 열이 스십도 이상 나기 때문에 열독  
으113015 로 이거 나는 거주.

113015 @1 예.

113015 #1 경험 잘 못 그거, 그 브름을 잘 가냥헤야 돼. 브름 맞으면은이 이것  
이 잘 안 들어 가근에 곰보 질 수도 있고이.

113015 @1 예.

113015 #1 이디 영 땡기당 보민 이디 영 막 곰보 진 사름 잊지 안 허느냐이?

113015 @1 예.

113015 #1 그건이, 그건 그 저 대천연두가 잇고 죽은천연두가 잇주. 그 큰 천연  
두는 이것이 막 니끼비 거치 나온다. 그거 잘못 거시기 허면은 그것이 그자 잘 아  
물지 안 허여 경 곰보 지는 거.

113015 @1 곰보 지는 거?

113015 #1 으. 그런 마누라, 그것 ㄴ라 큰마누라엔 현다.

113015 @1 아, 큰마누라?

113015 #1 으. 아까 거세긴 죽은마누라.

113015 @1 곰보 지는 거는?

113015 #1 큰마누라.

113015 @1 큰마누라렌 곶을 거고?

113015 #1 으.

113015 @1 아까 죽은마누라, 죽은한집이엔 곶아신디?

113015 #1 으, 죽은한집도 그거 죽은마누라여.

113015 @1 죽은마누라엔도 곶고?

113015 #1 으, 죽은한집이엔도 허고.

113015 @1 죽은한집이엔도 곶고.

113015 #1 으.

113016 @1 그 학질, 풋터는병이렌 험니까?

113016 #1 어, 어. 풋터는병. 그건 약이 뭐 없어났저. 그건 약이 없어가지고 건 갑자기 건 추우면서 말야, 으름에도 막 추우면서 막 더웠다가 그렇게. 것도이 혼 멧 분, 오분, 오분에서 십분내지 허면은 것도 좀 그 지나간다 것도.

113016 @1 으. 무사 풋터는병이렌 헤신고예?

113016 #1 막 터니까, 아주 막 읊어서 막 털어.

113016 @1 아.

113016 #1 막 이불을 많이 더퍼줘야 웬다. 게니까 막 달달달달 턴다 그거.

113016 @1 아. 그민 그거를 여기서 털러귀렌도 곶니까?

113016 #1 풋터는병이렌 허주.

113016 @1 풋터는병, 예.

113016 #1 그것 ㄴ라 표준말로 학질.

113016 @1 학질예.

113016 #1 우리말로 풋터는병.

113017 @1 예. 콧등치기?

113017 #1 콧등치기는 여기 영 나는 거 잊저. 이디 영 나면은이 이디 뭐 거세기 콧데사니 거튼 거 헤가지고 영 불르고 헤났저.

113017 @1 아, 콧등치기. 콧데사니?

113017 #1 으, 콧데사니 ㅼ아근예가 이렇게.

113017 @1 여기 아픈 건 콧등치기렌 허잖아예?

113017 #1 으, 으.

113018 @1 목 아픈 거는 뭐렌, 목거리렌 헤낫수과?

113018 #1 건 목거리렌 허지 안 허고 그.

113018 @1 목 안에 아픈 거?

113018 #1 아, 목 안에 아픈 거?

113018 @1 으.

113018 #1 목 안에 아픈 거, 그 목젓 그 뭐인가 이 감기가 들민 이 막 목 아팡이, 그 뭐인가 숨도 잘 못 쉬고 헐 때 목 아팠젠 헐다. 목젓이 아팠다고.

113018 @1 아, 목젓이 아팠다고예?

113018 #1 그거 벨 약이 없어. 어떻 어떻 기냥 메칠 동안 쉬면 것도 자연으로 종국 허엇저.

113019 @1 아. 뚝뚝 나는 건마씨?

113019 #1 뚝뚝 나는 건, 건 약이 었고.

113019 @1 예.

113019 #1 뚝뚝 나민이 이제 여름에 한걸헐 때니까 물 맞으민 그거 싹 들어간다.

113019 @1 아.

113019 #1 이제 갇궂이 가민 막 물이 찬물이 잇지 안 허느냐?

113019 @1 예, 예.

113019 #1 그디서 그디 들어앗앙 이렇게 헤 나민 그거 없어지고. 그건 더웁, 더운 때는 이렇게 솟아나는 거. 뚝뚝가.

113019 @1 예. 거 우리 물 맞는 날 말고, 백중날이렌 험니까?

113019 #1 주로, 백중 물이엔 헐다. 백중은 칠월, 양력, 음력 칠월달에 허는 거를, 칠월달에 백중이 들거든.

113019 @1 예.

113019 #1 게난 백중 물맞이, 백중 물맞이 경 해근에 일부러 물 맞으레 저 어승생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헤났저.

113019 @1 아, 게민 뚝뚝 날 때 그런 날 아니여도, 그냥 일반 날이여도 강 물 맞는 거예.

113019 #1 으.

113019 @1 찬물예?

113019 #1 으, 경 안 허민 날이 썰렁허민 자연히 거 없어지고 허는 거.

113020 @1 음. 부스레미?

113020 #1 부스레미가 그거 허물이주게.

113020 @1 몸에 나는 거. 머리에 말고 몸에 부스레미 낫을 때는?

113020 #1 몸에, 몸에는 주로 부스레미가, 옛날엔 이가 만헌디 몸에 나는 건이 저 쟁베름이엔 헐 게 잇어났저. 쟁베름.

113020 @1 쟁베름?

113020 #1 으, 쟁베름이는 건이, 그것이 이디 막 뽕글락허게 허물이 커 그것이.

113020 @1 으.

113020 #1 그거 허민 바다에 강 쟁베름을 캐다가 그디 부찌야, 부찌민 그거 좋

아낫저.

113020 @1 바다에 강 뭐 뜰어당?

113020 #1 쟁베름이란 게 잊저. 그 쟁베름. 바당에 그.

113020 @1 아, 쟁베름.

113020 #1 으, 쟁베름. 표준말로 나 거 뭔지 몰르켜.

113020 @1 쟁베름. 이건 바당에서 나는?

113020 #1 으, 으.

113020 @1 뭐 해초?

113020 #1 아니, 해초가 아니라 해산물이라.

113020 @1 해산물. 게민 아까 몸에 나는 것도 쟁베름이엔 허고.

113020 #1 으, 쟁베름 낫젠 경 현다. 몸에 주로 앞, 이 배에 주로 많이 나는디이 배에 나는 건 쟁베름, 쟁베름 허는 디 다른 딴 크게 부스름 안 낫저. 이 머리에만 막 많았주.

113020 @1 아, 몸에.

113020 #1 머리에만.

113020 @1 머리에만 많이 나고예.

113020 #1 게난 이것도 하나의 쟁베름인디, 열독인디 으름에만 이거 나는 거주.

113020 @ 예.

113020 #1 1 열독이니깐이 그거 부찌면은 그 쟁베름을 부찌면은 그것이 막, 거 군벳 닳은 건데, 그 막 돌아댕기면 할른다. 그 저 뭐인가 전복 새끼 닳은 건데.

113020 @1 음.

113020 #1 겐 걸로 할라 버리면 종넨, 그거 부짱 혼 삼사일 탱기민 싹 들어가고 경 해낫저.

113021 @1 아. 헐리, 헐리. 막 살이 현 거, 현데렌 험니까?

113021 #1 그런 말은 엇고이.

113021 @1 지나가당 쓰러지민 자빠지민 이디 헐잖아예, 밀어먹어 가지고?

113021 #1 아, 그런 땀이. 주로 똥장을 불랏저.

113021 @1 아, 똥장?

113021 #1 으, 똥장이 저 굉장히 약이여.

113022 @1 아. 종기 났을 때는?

113022 #1 종기가 아까 나 얘기헌 거, 거 쟁베름이 종기.

113022 @1 아, 쟁베름이 종기라. 게민 종기렌도 곤고 허물이엔도 곶아?

113022 #1 으, 허물이엔도 곤고.

113022 @1 쟁베름이엔도 곤고예, 허물이엔도 곤고?

113022 #1 허물은 작은 거고 종기 조금 큰 거고.

113023 @1 아, 큰 게 종기라예. 심중?

113023 #1 심중이엔 현 거?

113023 @1 다리에 십중, 습중?  
 113023 #1 아, 십중.  
 113023 @1 다시 한 번? 십중?  
 113023 #1 으.  
 113023 @1 으.  
 113023 #1 다리에 거 발바닥에 어디 먼 디 걸어가면 물집이 생기는 걸 거 십중 이엔도 어는디이.  
 113023 @1 예.  
 113023 #1 그런 건 어디 오래 걸어나면은 발바닥이 그 물집이 생기는 것ㄴ라 거 십중이엔 현다.  
 113023 @1 아,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거? 아니 막 다리가 붓어가지고 꼭 눌 렸을 때 막 자국 나고 그러는 건 십중이렌 안 허고?  
 113023 #1 그건 부종이라고 현다, 부종.  
 113023 @1 아, 그건 부종이엔 허는 거고예?  
 113023 #1 다리가 막 붓는 것은 부종.  
 113023 @1 예, 예.  
 113023 #1 건 약이 었고 그냥.  
 113023 @1 예.  
 113023 #1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경 허여.  
 113023 @1 아까 십중도 자연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  
 113023 #1 으.  
 113024 @1 생손앓이렌 험니까?  
 113024 #1 으, 그런 거 잊저. 생손이 갑자기 혈리가 안 낫는데도 생손이 알리는 디 지독히 아픈는 거여 이거.  
 113024 @1 예.  
 113024 #1 겨민 이것이 알령 터지젠 허민 혼 일주일 걸려. 죽어지게 아픈다, 최 고 아픈는 거.  
 113024 @1 음.  
 113024 #1 생손 아픈는 건. 건 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곪앙 터져야 돼.  
 113024 @1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  
 113024 #1 으, 기다령 곪앙 터지면은 뭐인가 뽕장을 싸 메든가.  
 113024 @1 아.  
 113024 #1 그 소독, 소독약 대신 허는 거가 뽕장이여.  
 113024 @1 어쨌든 터져야.  
 113024 #1 으, 터져야 허는 거. 생손 알리면 지독히 아픈다.  
 113025 @1 두드레기?  
 113025 #1 그 두드레기는 가끔 드르에 갓다가이 뭐, 뭐 그 뽕에 물리면은이 그

두드레기가 막 불긋불긋. 그건 뭐 약이, 약이 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덜 영 해가민 손바닥으로 쓸어 영 해 불민 자연히 좋은 거.

113025 @1 음.

113025 #1 거 두드레기도 막 심하게 헛다근에가 것도 하루 이상 안 간다. 그냥 다 사라져 불영.

113027 @1 음, 사라져볼 거예. 화상 아니, 애기 키울 때 경기 나민 어떻습니까, 경기나면?

113027 #1 경기 나면, 경기 나면은 그 의원들, 의원이라고 헛저. 그 침 놓는 사람.

113027 @1 예.

113027 #1 여기서 그 뭐인가 촌에선 의원, 의원 허는디, 그런 의원을 찾아가지 고서이 그 침을 쥐야 그 경기가 나야 낫저.

113027 @1 예.

113027 #1 그 경기는 어린, 막 어린 때 갑자기 놀레여근에 놀레영 어린아이가 기절해영 숨 안 돌아올 때가 잇저.

113027 @1 음.

113027 #1 경헨 죽는 거주. 거 경징이라고 해서.

113027 @1 예.

113027 #1 경헨 때 거 전문으로 이디 의사덜이 의원이 잇어낫주게. 거 침으로 다.

113027 @1 각 부락마다 그런 의원덜이 하나씩 잇어낫수과?

113027 #1 아니, 부락마다는 엇고, 우리 한동도 쫑대에 그 의원이 하나 잇어가 지고서 주로 전문으로 허는 사람, 나도 아이덜 키울 때이 그 사람 데려다가 허면서 헛는데.

113027 @1 아, 쫑대?

113027 #1 으. 그건 보통 의원이 아니라.

113028 @1 화상을 이딴말로?

113028 #1 화상은 거 데엿텐, 불에 텐 것ㄴ라 화상이주.

113028 @1 예, 그거 제주도 말로 곧는 거 따로 엇어난?

113028 #1 거 불에 데엿젠도 허고 그자, 우리가 표준말로 화상이주.

113028 @1 예.

113028 #1 데엿다고 해. 데면 그 텐 것은이 건, 것도 약이 물지름이엔 현 것이 잇저. 옛날은 물 많이 잡아낫주. 젠 물지름베끼 약이 없어. 물지름을 불라 쥐야 속히 낫는 거라.

113028 @1 음.

113028 #1 말 기름

113028 @1 예, 물지름예?

113028 #1 으.

113028 @1 동상 걸렸을 땐 어떻 험니까?

113028 #1 동상 걸렸을 땐 거기 약이, 약이 뭐 없다. 그냥 동상 걸렸을 때는 싯뿌나 험베끼 뭐 벨 수가 엇고 여기 동상을 그렇게 하영 안 걸려났저.

113028 @1 아까 시, 뭐 한다고? 동상 걸렸을 때?

113029 #1 동상 걸린 적엔이, 거 저 싯뿌 해준다.

113029 @1 싯뿌가 뭐과?

113029 #1 그 물, 물을 뜨뜻허게 해가지고 풀린다고 수건에 물 적지명 이거 영 풀리게끔.

113029 @1 아. 찜질해 주는 거, 그거 싯뿌렌 해마씨?

113029 #1 거 일본말로 싯뿌주.

113029 @1 아, 일본말.

113029 #1 여기서 거, 것ㄹ라 뭐엔 허나? 물찜, 물찜을 해준다.

113029 @1 아, 물찜?

113029 #1 으.

113029 @1 온찜 행 따듯허게.

113029 #1 으, 온찜도 허곡 냉찜도 허곡 거 허는 거에 따라서.

113029 @1 아.

113029 #1 일본말로 거 싯뿌라고 허는 거.

113030 @1 예, 예. 감기 걸렸을 때는 뭐 먹엇낫수과? 약을 엇을 거고?

113030 #1 감기, 감기 험 적에는 여기 옛날 재래 약이 잇저. 승마갈근, 그걸 딸려근에가 먹어야 돼여.

113030 @1 뭐 딸려?

113030 #1 승마, 승마갈근.

113030 @1 갈근.

113030 #1 갈근, 소엽.

113030 @1 소엽.

113030 #1 으, 그 세 가질 뇌근에가 딸여서 그 물을 이제 그 감기 걸린 사람이 먹어야 좋나.

113030 @1 승마가 뭐라?

113030 #1 그, 거 약초여, 약초.

113030 @1 갈근도?

113030 #1 갈근도, 갈근도 그거, 갈근은 칩뽕리를 말허는 것이고.

113030 @1 예.

113030 #1 소엽이라는 것은 지금 저, 소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뽏고 거 유입, 유입 뽏은 건데.

113030 @1 예.



113030 #1 유입 거치 생긴 건데 그런 식물이 있져.

113030 @1 아.

113030 #1 그런 세 가지 낱 딸령 먹고.

113030 @1 음.

113030 #1 또 다시 이제는 처음에 거 약간 걸릴 적에는 그 식물속에 그거 저 뭐인가 패마농 와서.

113030 @1 하하.

113030 #1 그거 행 먹고.

113030 @1 예.

113030 #1 그렇게 헤영 뚝 내우민 좋았져. 그거 주로 그거 허고 승마가 보통으로 많이 사용했져.

113031 @1 승마예. 지침, 기침 나올 때?

113031 #1 기침 나올 때 옛날은이 땡유자 잊지 안 허냐이?

113031 @1 예.

113031 #1 땡유자를 딸령 먹어났져. 요새는 사과가 막 나오고 허니까 사과니 뭐이니 딸령 먹어도. 옛날은 땡유자가 잊져. 땡유자.

113031 @1 땡유자예.

113031 #1 그거 딸령 주로 먹어났져.

113032 @1 툄곡지 나올 땐 어떻 험니까?

113032 #1 툄곡지 나올 때 갑자기 놀리와, 놀레와불민 거 들어간덴 현다.

113032 @1 하하.

113032 #1 갑자기 놀리, 놀레게끔.

113032 @1 예, 놀라게, 깜짝 놀라게.

113032 #1 으, 깜짝 험 땐 툄곡지가 쑥 들어간덴.

113033 @1 으. 코피 날 때는 뭐 방법이 잊어 낫수과?

113033 #1 거 코피 날 때 뭐 방법이 었다. 코피 날 때 뭐 방법이 었이난 뒗대가 리를 이렇게 헤가지고서 여기를 좀 툄툄툄툄 두드려근에 땡 분 잊이민 그것이 땡고 경 헤났져.

113033 @1 이디 뒗모가지를?

113033 #1 으, 고개를 영 뒗로 돌려가지고 뒗모가지를 툄툄툄툄 헤면은 이 쏘아 지는 피가 이디 영 역류웨영 그디 들어간다고 헤영 영영.

113034 @1 음. 개춤?

113034 #1 개춤이 기침인데 건 감기 들려야 개춤 나오는 거고.

113034 @1 가래를 개춤이엔 허지 안 헤.

113034 #1 으, 거 개춤이엔 현다.

113034 @1 예, 기지예.

113034 #1 거 감기 들려야 개춤이 나오주. 기침이 나오니까.

113035 @1 예. 늦인들?

113035 #1 거 늦인돌이엔 현 것은 여기 나는 거여.

113035 @1 예, 예.

113035 #1 늦인돌도이 천지팽신이, 천지팽신 지천팽신 그렇게 써 낫저. 거기도.

113035 @1 어디에?

113035 #1 거 발에. 아까이 개쌌 난 디 천평지평인디 이딘 천지팽신 지천팽신 그렇게.

113035 @1 하하하.

113035 #1 한자, 한자도 조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113035 @1 예.

113035 #1 거 다른 약은 없다.

113035 @1 발바닥에 경 쓰면 낫는 거.

113035 #1 경헨 안 나면 그 못이란 게 잊저 옛날 못. 못 골아근에 이디 하도 거 세기 해가민 것도이 열독이 줌, 열이 나 가지고 수왕 허면은 거 못 골양 이디 영 부찌고.

113035 @1 음.

113035 #1 또 고구마 골양 이디 영 부찌고.

113035 @1 그 못이렌 허는 거는 못밥 해먹을 때 그거?

113035 #1 으, 옛날 못 솥양.

113035 @1 솥양 놔 뒷당예.

113035 #1 으.

113035 @1 못. 그거 골양 부치고.

113035 #1 그거 부찌고.

113036 @1 설사 나면은?

113036 #1 설세엔, 여긴 보통 설세, 설세 경 허주게.

113036 @1 설사 나면 어떻게?

113036 #1 설사 나도 그땐 므물축, 그건 므물축만 썩 먹고 경 해낫저. 설사 난 때엔 다른 약이 뭐 엇주. 건 무시거.

113037 @1 이질병이렌 험니까?

113037 #1 으, 이질병. 거 일본말론 세끼리고, 거 이질병은이.

113037 @1 으.

113037 #1 똥은 므려와도 똥은 안 나오고 코 닳은 것만 거 피영 서꺼정 막 나 온다. 그거 허면은 그때 뭐 대축 뭘 해가지고. 그 기름에 뭘 대축 무신 기름에 행 먹어낫는디이.

113037 @1 예, 예.

113037 #1 기름, 하여튼 기름에 떡 거튼 거 영 지저근에 거 먹으멍 해낫저. 경 허난 웨 경헌고 허니 그건 터지라고 그거이. 이질병 걸리면은 똥은 므려와도 안 나

오주게 안 나와.

113037 @1 으.

113037 #1 코 닳은 거 허고 피 서킨 거 그것만 똑똑 혼 점씩, 혼 점씩 떨어지니까 답답허니까.

113037 @1 으.

113037 #1 경허민 기름에 뭐.

113037 @1 먹어난 거예?

113037 #1 으, 으.

113038 @1 저기 콧난이란 것도 있어났수과?

113038 #1 으, 콧난이 잇저. 갑자기이, 갑자기 배가 아팠 옛날은이 갑자기 배 아팠 막 돌아댕긴다. 경허민이 배꼽에 손 이렇게 그 배꼽에 땀 사람이 손 영 해가지고서 일곱 번이 영영 돌리면이 신기하게 것도 좋아났저.

113038 @1 예.

113038 #1 손으로 영 돌려근예가.

113038 @1 아.

113038 #1 이젠 그런 병이 었는디 옛날엔 콧난이가 많이 셔 나저.

113038 @1 옛날에예.

113038 #1 으.

113039 @1 체 했을 때는 어떻 험니까?

113039 #1 체 했을 적에는 동네 사름덜이 강, 느리는 사름이 두드려 주고 안마 해 주고 영 느리는 사름이 셔 나저. 이제는 느리는 사름이 었는데, 옛날에 저 임권이 어머이 채 잘 내려났주.

113039 @1 예.

113039 #1 경허난디 이젠 그런 사름이 었으난 우리도 시에 강 급체 내리는데.

113039 @1 그때 췌대 의원안티 가진 앓고 체 했을 때는?

113039 #1 그, 그 췌대 의원안티 안 가고 체 난 때는 이 동네에 체 내리는 할망덜이 셔 나주.

113039 @1 으.

113039 #1 그 사름이 손 보민 내려가고 경 해났저.

113039 @1 예. 저기 막 문지르고 손도 따고 험니까?

113039 #1 으, 문지르고, 등멩이로 등멩이로이 바놓으로 이거 체짹이 잇젠 헨 영 따곡 헨다.

113039 @1 아.

113039 #1 그거 딸 때에는 탕탕 바놓 소리가 막 난다. 이 실 거치 헨 것이 이 등멩이에 사려져서 게난 그걸 두드려야 그걸 좋는다고 그래서.

113040 @1 아, 게민 나트는 거구나예. 베인 데, 베였을 때는 어떻 치료험니까?

113040 #1 베였을 때는 주로이 들에 강 베면은 속 잇잖아이 속 이렇게 부벼근

에 속이 약이여.

113040 @1 음.

113040 #1 호미로 베나 무시거 칼로 베나 벨 때는 속, 속풀을 이렇게 손바닥에 서 부벼서 그 물 나는 거 해근에 딱 허게 무끄민 그거 아몰어 분다.

113040 @1 예.

113040 #1 그 속, 속으로.

113041 @1 속으로예. 모기 물렸을 때는?

113041 #1 모기 물렸을 때는 뭐 방법이 었주.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깃불을 살화났저.

113041 @1 아, 뭐로 모깃불을 살렸수과?

113041 #1 그 ㄴ시락, ㄴ시락으로 해가지고서 그 마당에 모깃불 막 살화났저. 옛날엔 무지허게 모기가 많아나났주.

113041 @1 음.

113041 #1 모깃불 살르당 버치니까이 해방 후에는 조금 웨국 문화가 들어오니 까 모기장이 생기기 시작했주. 그래서 모기장이 집집마다 서 낮는데 이제는 모기장이 었주만은, 옛날은 다 모기장 청 살아났저.

113041 @1 아.

113041 #1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113041 @1 모깃불 피운덴 해가지고 특별허게 무슨 낭을 써야 웬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ㄴ시락?

113041 #1 옛날 제충국을 갈아났주. 제충국 그 나무를 해다가이 그 뭐인가 불 살르주, 연기 내우며은 모기가 제충국은 아주 당약이여 모기에는.

113041 @1 아, 제충국 나무?

113041 #1 으, 지금 이 지금 모기향은 만든 건디 제충국 그걸로 만든다.

113041 @1 아.

113041 #1 그니까 그거 태우면은 막 냄새가 나는 거지예?

113041 @1 으.

113041 #1 냄새가 나고 모기에는 제충국, 그것이 아주 적이라.

113041 @1 아, 제충국낭예.

113041 #1 으, 여기 제충국은 많이 갈아났저. 게난 그거 해영. 게고 ㄴ스락 그 보리 ㄴ스락도 피우고 그렇게.

113041 @1 보리 ㄴ스락이랑 제충국낭이랑예.

113041 #1 으, 제충국낭.

113042 @1 뱀 물렸을 때?

113042 #1 뱀 물렸을 적에는 거 약이 었어 낫저. 뱀 물렸을 적에 거 침으로이 이 주위를 침 빠지게끔 막 이렇게 그렇게 해근에 약을, 그땐 었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웬장 불르고 그렇게 허면서 독을. 건 침 의원이 잇어났저. 베염안티 물리면은

이렇게 돼영 베염안티 물리면은 우선 이디 결박을 한다. 이 독이 올라오지 못하게.

113042 @1 음.

113042 #1 딱 양쪽에 즐라메여서 의원안티 가서이 침으로 꼭꼭 쥐면 피 날 거 아니가?

113042 @1 그 피, 독을 뽑아베야 속히 낫고 경 안허민 막 오래가고 경 헤낫저. 약은 엇고.

113042 #1 약은 엇고예.

113043 @1 으. 벌 쏘이민?

113043 #1 거 벌 쏘인 것은 그냥 제절로 좋아낫저.

113043 @1 뭐 오줌 누거나 그렇진 안 허고?

113043 #1 계난 그 뭐인가 그 어린 아이 오줌을 영 행 헤낫저만은 건. 경 벌 쏘이는 건 자연히 건 그냥.

113044 @1 하하. 옷 오르텐 허지예, 옷 오른텐?

113044 #1 으. 옷 오르는 건이, 건 것도 약이 엇다. 하여튼 옷 올르민 뭐 방법이 엇어. 막 알르다가 메칠 알르다가 좋긴 좋아낫저.

113044 @1 아.

113044 #1 건 드르에 강 옷무 건드려볼민 옷 른다.

113044 @1 기지예, 옷나무 건드리민.

113044 #1 몰랑 건드려볼민.

113045 @1 멍 들었을 땐 어떻 험니까?

113045 #1 아, 멍 든 거야 그냥 내볼민 돼주. 자꾸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고 경해주민 즈연이, 혼 삼사일 돼민 원상 복귀 땀다.

113047 @1 허리 빠였을 때?

113047 #1 허리 빠였을 때는이 주로이 뭐인가 쓸밥에 찹기름 놔서이 거 밥 행 먹으민, 밥 행 먹어근에 흐룻밤 자나민.

113047 @1 하하.

113047 #1 그 웨에는 약이 엇엇저.

113047 @1 하하.

113047 #1 그게 아주 좋은 거.

113047 @1 하하, 쓸밥 찹기름 냇 먹는 거?

113047 #1 으.

113048 @1 발목 빠민?

113048 #1 손으로 영 켐베끼 다른 거 방법 엇주.

113048 @1 방법 엇어?

113048 #1 으.

113049 @1 귀에 물 들어가민 어떻험니까?

113049 #1 귀에 물 들어간 건 귀에 따시 물 놔근에가이, 귀에 물 들어가민 물이

안 빠정 잇주. 게민 새로 물 질어근에이 이렇게 비우민 그 물 나올 때 다 나온다.

113049 @1 예. 하하.

113049 #1 갹 귀 알령도 허주게.

113049 @1 물?

113049 #1 으, 물 들엉 막 귀 알려근에.

113050 @1 무죸 이시민?

113050 #1 옛날에 무죸은, 이 중간에 생겼주 옛날에 무죸은 엇어났저.

113050 @1 엇어나서.

113050 #1 초신 신영 텡길 적에는 이디 벳 맞앙 무죸 엇엇는데 요새에, 근래야 무죸이 잇저, 옛날엔 무죸이 엇어. 맨발에 막 텡기곡 허난.

113051 @1 예. 습진은?

113051 #1 게 습진도 옛날엔 엇어나고.

113052 @1 엇어나고예. 가메, 가메기눈이엔 현 거 잇어났수과, 가메기눈?

113052 #1 가메기눈 그거 뭐라?

113052 @1 까치눈?

113052 #1 까친 원래 이디 엇어, 이제야 생긴 거 저 까치엔 현 건.

113052 @1 그거 가메기눈이엔 불릅디다. 여기 빨록허게 튀여 나온 거.

113052 #1 아, 가메기눈, 아.

113052 @1 예.

113052 #1 가메기눈 거치 튀어나는 거?

113052 @1 예.

113052 #1 어, 그거 가메기눈이엔 현다. 그건 멀리 걸음이나 허민 튀어나오민 가메기눈 헛저 경허긴 현다.

113052 @1 예. 뭐 별 순 엇고, 약은 엇고예?

113052 #1 으, 약은 엇고 자연이 치료웨는 거, 그런 건.

113053 @1 그 밖에 뭐 민간요법으로 해난 거 엇수과, 어디 아프민 뭐 뭐 해야 웬다 헛던 거.

113053 #1 아, 게메 여기는 주로 허리 아프고 기자 뭐인가 감기베끼 옛날은 뭇 이 엇어났주게. 어린 아이는 경질이고 거 풋터는 거 그거 허고, 풋터는 것이 많이 생겨났주. 천연두 그거 허고. 말고는 뭐 별 약이 엇주게.

113053 @1 으.

113053 #1 게난 소소허게 아픈 건이, 아픈 건 전부 다 여기선이 의원안티 침 맞으민 낫아났저.

113053 @1 아, 침 맞으민?

113053 #1 으, 침 맞앙, 침 뭐인가 머리가 막 아프민이 머리에 침 맞앙 이딘 피가 막 나민 시원허텐 해근에, 그 침 맞으민 그렇게 좋고 옛날엔 침바치가 우리 한 동네도이 한 동네도 둘이나 서이가 서 낫저.

113053 @1 침 놓는 사람이?

113053 #1 으.

113053 @1 아.

113053 #1 그디 가울목에도 임택이 아방이 아주 침 침 좋아근에 그 사람 흔 번  
봣다 허민 완전히 좋고 헛저.

## 제2절 어휘

-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골
201005	제비초리	제비출리, 종데기꼴리
201006	머리털	머리터럭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다으다
201014	비녀	비녀
201015	고수머리	ㄱ스락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갈름
201019	이마	임뎡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빠기	이마뻑
201022	숨털	간세터럭, 숨털
201023	얼굴	얼굴
201024	낯[面]	낫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세숫낭푼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멘경,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얌
201032	뺨따귀	뺨얌따귀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딱사니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뼈	불기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눈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눈 검은동자
201043	눈꺼풀	눈웃두께, 눈우이꺼플
201044	거적눈	거죽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양미간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꼽
201053	눈초리	눈갈
201054	사팔눈	사팔때기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적다, 문지그다
201058	콧마루	콧마르
201059	세다[強]	쎄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콧베랭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쓸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참말
201069	거짓말	거짓깬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드리허다
201072	입술	입술
201073	헐다[毀]	헐다, 헤싸지다
201074	입놀림	입다심
201075	말하다	말허다, 말곤다
201076	입방아	입건지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꿈, 춤
201080	삼키다[吞]	숨키다
201081	가래침	가래춤, 개춤
201082	뱉다[吐]	바트다
201083	느침	늘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데
201085	혀	세
201086	훅다	할트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바리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버드러지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뺨다[稍峽]	뺨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주머니
201105	귓볼	귓볼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긱밥
201109	귀이개	긱밥오기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밑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엄
201113	목	목
201114	굶다[飢]	굶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모가지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뱃데맹이
201119	꼭뒤	꼭뒤
201120	뒷덜미	긱덜미

#### 상체

201121	어깨	어깨
201122	어깨뼈	어깨짱
201123	어긱죽지	웃둑지
201124	겨드랑이	긱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둑슬
201131	팔꿈치	폴곱지
201132	팔목(=손목)	폴목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짱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등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스럼
201145	할퀴다	극주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뛰다,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모손이
201157	명자리	*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울
201161	짜다[攢]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또롱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오그라지다
201172	등때기	등떼기
201173	가렵다[癢]	ㄴ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걸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등ㄴ루

201179 등뼈 등 뼈

#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ㄴ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살집  
 201185 볼기 \*  
 201186 엉덩이뼈 엉덩이 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 뼈  
 201189 살 살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고망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추잡허다  
 201192 가볍다[輕] 가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샷툼  
 201195 가래툼 늦은돌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스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동무릅 뼈  
 201202 뼈다[櫓] ㄴ무끄다  
 201203 정강이 쟁쟁이  
 201204 정강뼈 쟁쟁이 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장판지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복사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게발, 헛발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겹질리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발봉오지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지롭다, 근지럽다
201220	간지럼	즈곰
201221	발가락	발가락, 발꼬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데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퀴눈이
201225	고린내	꼬랑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꿈치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작은베설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봣
202007	탓줄	봣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
202011	갓난아이	갓난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어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엿게
202018	엿저지	엿게
201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라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먇렵다
202028	꾸지람	꾸지럼
202029	배냇저고리	봣저고리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룩
202032	포대기	걸레
202033	보자기	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풀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뚜데기

202038	떠	걸레
202039	개구멍바지	강양터진바지

####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존메존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섬메섬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루다
202048	곤두박질	건두왁
202049	곤두서다	건두왁서다
202050	가동가동	섬메섬메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정개고개
202054	흥내	흥내
202055	흥내질하다	흥내질허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
202058	자라다[成長]	크다,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참다
202061	심술	몽리
202062	밉다[憎]	미웁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뽕지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썰뽕락



202073 풍계문이 곱질락  
 202074 줄넘기 베떨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치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뵈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망치  
 202083 말놀음질 물탈락  
 202083-1 생말타기 생물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대물  
 202085 달음박질 들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심백허다  
 202087 제기차기 쪽기차기  
 202088 해엄치다 해엄치다  
 202089 윷놀이 윷놀이  
 202090 윷가락 윷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져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져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져혀졌을 때	걸
202090-4	윷	네 짝 모두 져혀졌을 때	숫
202090-5	모	네 짝 모두 얹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업영간다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려 가는 말	(업은)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려 가는 말	(업은)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려 가는 말	(업은)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윷 \*  
 202094 줄목 울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강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범벅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돔치기,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펜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퐁이치기
202102	팽이	퐁이, 퐁이도레기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쟁연
202107	가오리연	객주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리연대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므루대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어질연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중앙연대

202109	방구멍	들구멍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풍지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202112-3	꽂줄	연의 꽂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벌이줄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벌이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얼레
202115	네모얼레	돌림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202118	퇴김	텍견
202119	그네[鞦韆]	궁글
202120	밑신개	궁글판
202121	굴렁쇠	도레기
202122	구르다[轉]	둥글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즈전차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걱대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위염
202128	선하품	선하위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경징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래다
202133	졸음	조라운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졸리우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소리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래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툔고지
202146	재채기	핫쟁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똥방구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복쟁이
202151	구린내	구린내

202152	노린내	노린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마누라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꼼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듬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군버줌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푼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사막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렁다	퍼렁허다
202174	굳은살	켁이
202175	부스럼	부레미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십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물발
202180	다대	허물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긋은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페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기
202190	소경	스경
202191	칭땡과니	튼땡스
202192	먼산바라기	천상바레기
202193	애꾸눈이	깍게기
202194	사팔뜨기	사팔떼기
202195	다래끼	개씹
202195-1		들룻
202195-2		개씹
202196	언청이	얼챙이
202197	외언청이	웨얼챙이
202198	쌍언청이	쌍얼챙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몰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이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퐁, 웨살퐁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폴죜레기
202208	곰사등이	등곰새
202209	절뚝발이	발절룩이
202210	얇은뱅이	얇인뱅이
202211	문둥이	문둥이, 용다리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 각시, 부부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죽은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말젯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죽은아덜
203012-8	넷째아들	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매말째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돌아온아덜,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돌아온딸, 다슴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  
 203021 어비딸 예비딸  
 203022 어비아들 예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예딸  
 203025 어이아들 \*  
 203026 맏이 맏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성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아덜
203034	외딸	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튼나다
203037	같다[如]	ㄱ트다
203038	양자	양자
203038-1		양자가다
203038-2		양자들이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매쟁이, 중진
203045	권당	웬당
203045-1		직계 가족 8촌까지
203045-2		일가 전체
203046	얕은잔치	*
203046-1	암창개	부득이하게 남자가 결혼식에 참가하지 못하고 여자 혼자 하는 결혼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아머니	시아머니, 시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기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아버지 향렬의 동네 어른을 부를 때
203056	아주버니	시숙, 시아주방
203057	아주머니	시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ㅎ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병추기	벙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목거리다, 거동ㅎ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웨펜
203073	종내기	*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
203087	넋할머니	*
203088	넋손자	*
203089	홀아미	홀아방, 홀애비
203090	홀어미	홀어미
203091	친아버지	친아버지
203092	친어머니	친어머니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새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새어멍
203095	웁딸	빌인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 ㄴ슴
204002	꿇다	그치다
204003	명주	멩지
204004	명주실	멩지실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쥘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엿새무명	*
204011	생목	초불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폴숨	*
204018	숨틀	숨틀, 숨클
204019	숨틀집	숨틀집, 클방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씨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누에채반
204024	번데기	벤데기
204025	고치	누에집, 누에고치
204026	뽕잎	뽕낭섭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산뽕낭
204029	오디	뽕열매, 오디
204030	다듬잇돌	다듬잇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잇마께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거품
204035	물거품	물거품
204036	빨랫돌	빨레광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께, 물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204039	행구다	행구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빨레바치기, 서답바치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거두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형겔	형벽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므레기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폴치마	폴치메
204055	옷고름	옷고름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섶	옷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벌므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옷소매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후리메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소중의

204069	토시	손도메
204070	누더기	누데기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구두쇄
204073	잠방이	점벙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끈
204075	주머니	허리전대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보선꿈치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발쓰개
204083	홀옷	혼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얹다	알르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깃
204091	홀이불	혼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슴
204097	홀청	혼청

204098	요	요
204099	웃잇	요잇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자부등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게
204106	베갯잇	베게짓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페랭이	페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털병것
204114	밀짚모자	페랭이
204115	미사리	망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충박이	불각신
204118	판충박이	비빔각신
204119	미투리	삼신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나막신
204122	가죽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트다	부르트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
204126	문수	문수
204127	부채	선제, 부채
204128	미선	미선
204129	부치다[扇]	부치다

####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짇고리	실바구리, 바놓쌈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물다

204133	골무	골미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꼬리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줄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썰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곶치다	곶치다
204146	휘갑치다	마위돌리다
204147	재봉틀	족보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리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물레즈록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 204155 자세 얼레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빼다[渴水]	쫓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팟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고두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눈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톨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팍레밥
205020	밥보	밥푸데, 식충
205021	밥술	밥숯가락
205022	밥알	밥풀
205023	끼니	끼니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끄시렁내, 그끈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팟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깻죽	*
205045	깨죽	궤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짐치
205051	무김치	무수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짐치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물짐치
205055	갯김치	갯늑물 짐치
205056	파김치	*
205057	깍두기	무수짐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뎌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베캐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하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무수늑물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늑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썰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
205077	고비	뽕고사리



205078	미나리	민네기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상치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푸성기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참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말물	초불
205088	끝물	막불
205089	개똥참외	간질레기
205090	원두막	원두막
205091	갯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풋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죽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갑잘진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곤친떡
205110	부스러기	부스레기
205111	송편	송펜
205112	소[떡소]	속

205113	고물	고물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즈베기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푼다[淡]	*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계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엿기름	엿기금
205129	감주	굴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붓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등덜팽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찾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키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적
205149	산적	적

##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지문
205152	불때다	불부치다
205153	불등걸	잉걸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짓비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낮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그슬리다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아궁이
205162	재	재
205163	모으다[集]	모으다
205164	부뚜막	불치막
205165	붓돌	숫덕돌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족은숫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끓리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숫전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바닥
205174	솔밑	*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
205178	군일	*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깥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정짓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성냥개비
205184	성냥갑	불곽, 성냥곽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싯돌	부싯돌
205187	부싯깃	불썸
205188	부시쌈지	부싯주머니
205189	부시통	부시통
205190	등잔	등잔
205191	관술	술각
205192	호룽	초룽
205193	남포등	남포등
205194	접싯불	접싯불
205195	불켜다	불켜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마
205199	뜬숯	뜬숯
205200	숯검정	숯검댕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그끈내
205203	불태우다	불살르다
205204	불티	불티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봉덕
205210	화룻불	화룻불
205211	불쪼다	불췌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숫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가락
205215	다리쇠	세발췌
205216	석쇠	적췌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춤받는다
205217-2		춤항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골초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배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잿따리
205228	벼루	베루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기그릇
205234	뚜껑	뚜껍이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돈은접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간장종지
205241	숟가락	숫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젓기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젓물
205246	도시락	점심바구리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물바가지, 콧바가지
205250	박	박
205251	뒤옹박	두레박
205252	조롱박	콧죽박
205253	쪽박	콧죽박
205254	양푼	낭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떡바드랭이
205262	함지박	도고리
205263	바구니	바구리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낭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조릿대
205270	굳은대	굳은대
205271	무른대	뜬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지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녹슬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남술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돔베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뿔)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빚다	빚다
205294	풍로	풍로
205295	삼발이	세발췌
205296	달이다	달이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낱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막살이
206011	외채	웨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밧거리
206014	안팍채	안팍거리
206015	문간채	밧거리
206016	곁채	모거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독대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르다
206024	마구간	물막, 물간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디딜팡
206026-1	부출	디딜팡
206027	기척	기적, 기척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내음새, 냄새
206030	맡다[臭]	맡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 우갯
206033	터알	우지왓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눌
206036	짚가리	(보리)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드리, 사다리
206040	이영	이영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예끄다, 얼그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풍채
206044	디딤돌	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마리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장
206051	종이	창호지
206052	얹다	얹르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직이
206054	큰방	큰방, 안방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맞자리, 윗목
206057	아랫목	안자리, 아랫목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웃바람
206061	안방	죽은방
206062	방문	방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백븍름, 벽븍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선반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간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털솔
206075	폴비	폴비차락
206076	찾방	골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허다
206081	안뒤꼐	안튀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집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처마, 층여
206088	처맛기슭	층여곳
206089	낙숫물	지슬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춘흑
206093	찰흙	춘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흑수세
206096	흙길	개백
206097	이기다[沍]	흑질허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생깃지둥
206101	뿔기둥	뿔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출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포마루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椳)	개위
206111	인방	문입쟁이
206112	문설주	문선방
206113	문곶도리	문돌고리
206114	문열굴	문부출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문데방, 웃데방
206117	문흙	흙박이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여단이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좁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문창곰
206125	구멍	고냥
206126	미닫이	미닫이

206127	여단이	여단이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딛문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찌귀	돌처귀
206133	암톨찌귀	암톨처귀
206134	수톨찌귀	수톨처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시다,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거뒤
206146	거도	거뒤
206147	툽툽	큰툽
206148	툽밥	툽ㄴ루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 빼기
206152	못뽑이	못 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 빼기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홍대패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곶자	곶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통줄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췌손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흑손받이
206170	돌물레	뒤치게
206171-1		호랭이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명에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돌랭이
207006	병작(竝作)	반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쟁기, 잡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나간 나무	몽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깃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돌벙이뿔
207008-9	‘땸’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 벧칼, 벧바데

207009	옥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벗밥	*
207012	곰방데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애
207014	밭두둑	이랑
207015	밭고랑	판이
207016	밭이랑	판이
207017	거웃	*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설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손잡이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켁이
207022	곡팽이	목켁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시렁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앗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맹텅이
207034	꿈게	끄슬퀴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
207040	두벌매기	두불
207041	세벌매기	세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그만 행 가게
207043	호미	골갱이
207044	홍아기	검질메는 홍애기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삔	품삭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죽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째기	미
207055	새끼	노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
207058	노	노
207059	끈	친
207060	참바(바[索])배	
207061	짐바	짐배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돌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개
207066-9	배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멍에                      멍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한줄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받이줄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미목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쉐좁게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갯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갯다리
207068-2	지갯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짐바테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갯세
207068-4	지갯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허릿바테
207068-5	지게꼬리 (밑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짐바테줄
207068-6	지갯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갯작대기
		어깨에 메는 줄	지게친, 지게줄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발채	*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이삭, 고고리
207072-1		*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으물다, 익다
207075	개상	보리클
207076	벼훑이	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테작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심
207083	겨를	즈를
207084	도리깨	도께



207084-1	도리깃채	도리깃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끼조록
207084-2	도리깃열	도리깃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끼살
207084-3	도리깃꼭지	도리깃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깃열 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끼아덜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쭈정이	쭈쟁이
207087	쭈	출
207088	쭈발	출왓
207089	쭈꾼	*
207090	쭈단	출뭇
207091	신다[載]	신다
207092	마차	물구레기
207093	북두	므루줄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뚜데기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ㄴ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물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멩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농그리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속박
207109	풍구	*
207110	홉	홉
207111	홉되	홉뒤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샷되	스뒤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날레군대
207119	불당그래	굴묵군대
207120	떡등구미	멩텅이, 맥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긋다[引]	긋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흘다[散]	허끄다
207125	자루[袋]	자루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끓다	끓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쫄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깡보리
207138	쌀보리	술보리
207139	맥주보리	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깎부기	깎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고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브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채비
207153	줍쌀	줍쓸
207154	조짚	조침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눅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뒤
207160	밭벼 이삭	산뒤 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뒤왓
207162	밭벼쌀	산뒤쓸
207163	밭벼짚	산뒤짚
207164	맷돌	돌ㄴ레

207164-1	맷돌짝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레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쪽	ㄴ레 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쪽	ㄴ레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ㄴ레혹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촉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레즈룩

207165	맷방석	ㄴ레방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맷돌	ㄴ레

207168	폴매	ㄴ레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쌍쿨방에, 두쿨방에
207171-1		*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에간
207174	븀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대, 방에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믈 ㄴ레
207178	방앗돌	맷돌
207179	연자맷간	믈 ㄴ레방
207180	절구	방에
207181	절굿공이	방에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늪	니
207184	고르다[擇]	줍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각지	콩꼬질
207191	콩짚	콩짚
207192	꼬투리	콩각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빗물
207195	뜨겁다	떼불다
207196	비지	콩비지, 콩비제기
207197	찌꺼기	찌꺼기
207198	완두	푸린콩, 청태
207199	강낭콩	강낭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팥	팥

207202	팔알	פות알
207203	팔밥	פות밥
207204	녹두	נודי
207205	깨(참깨)	קע
207206	들깨	דל קע
207207	참기름	חם 지름
207208	깻묵	פֿעט주시
207209	고소하다	קושי다
207210	메밀	מִמֶּל
207211	메밀밭	מִמֶּל באַט
207212	나깨	נאָקע
207213	메밀겉절	מִמֶּל צע
207214	메밀국수	מִמֶּל קוש
207215	메밀수제비	מִמֶּל צבעי
207216	메밀칼국수	מִמֶּל קאַל קוש
207217	메밀떡	מִמֶּל 떡
207218	메밀묵	מִמֶּל מוק
207219	무르다[軟]	יקדא
207220	고구마	קאַק
207221	절간고구마	צעקאַן קאַק, פּאַקע
207222	찌다[蒸]	צידא
207223	썰다	שלידא
207224	감자	זיסל
207225	마늘	마농, 대사니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뿔리
207225-3	마늘종	마농쥬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시
207227	파	파마농
207227-1	파밑동	파마농뿔리
207228	무	눔뻘, 무수
207229	무청	눔뻘썸
207230	시래기	씨레기
207231	장다리무	씨눔뻘
207232	열무	츄메기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갱이(배추)*	

207235	나물	늑물
207236	채소	송키
207237	겉대	늑물유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축
207240-1	옥수수	대축부레기
207241	수수	대축
207242	쌀수수	쌀대축, 종자대축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축
207245	수수깡	대축냥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작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뜯채	족바디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충줄)*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놋구멍	*
207273	놋쭈	*
207274	닷	*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
207277	닷돌	*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삿대
207284	떼[浮筏]	테우

#### 기타

207285	이웃	흔담집 사름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믈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마을
207293	마을가다	믈슬가다
207294	밤마을	밤믈실
207295	가게	점빵

207296	구멍가게	점빵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간
207313	풀무	풍금
207314	손풀무	손풍금
207315	모루	모릿돌
207316	모루채	쉐망치, 물메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망건골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줄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갖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서이
208001-4	(4)	너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여덟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닷 돼	닷 말
208005-6	(6/엿)	엇 돼	엇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개	흔두 돼	흔두 말
208006-2	(2-3/두세)	두세 개	두서 돼	두서 말
208006-3	(2-3-4/두서너)	*	*	*
208006-4	(3-4/서너)	서너 개	서너 돼	서너 말
208006-5	(4-5/네댓)	너댓 개	너댓 돼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여섯 개	대여섯 돼	대여섯 말
208006-7	(6-7/예닐곱)	으서일곱 개	으서일곱 돼	으서일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여덟 개	일고으덟 돼	일고으덟 말
208006-9	(8-9/여덟아홉)	여더아홉 개	으더아홉 돼	으더아홉 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 단위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죽은뺨

208011 발[單位] 발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필

208014-1

208014-1	무명	*
208014-2	명주	*
208014-3	광목	*
208014-4	베	*

208015   마지기(평)   흔 말지기  
208015-1               300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묶음  
208019-1               보단  
208020   조짐           개비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15못
208021-2	조(이삭 있음)	6못
208021-3	콩	6못
208021-4	밭벼	15못
208021-5	꿀	30못
208021-6	띠	15못
208021-7	각단	6못
208021-8	어욱	6못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208024   덩이           못, 꿰미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마리  
208028-2               마리

208029	축	축
208030	궤미	궤미
208031	쌍(돼지)	쌍
208032	채(집)	채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결레(신)	결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뭇	뭇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덧창옷
209005	배넛머리	배안에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신랑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홍세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樗]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맞사돈

209022	겹사돈	겹사돈
209023	상갓집	상갓칩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제
209028	만상제	만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머귀남
209031-2		대남
209032	짚동	찹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견가다
209035	뒹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내경판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포장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동네꾼
209043	장삿날	장삿날
209044	장지	장지
209045	광중	광중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충	*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석수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므치다
209054	벌초	소분,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저울밧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집
209059	편틀	쟁반, 펜틀
209060	퇴물	툼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적
209064	제편	친떡
209065	인절미	솔벤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지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나누다
209070	몫	찍시
209071	먼례(緬禮)	천리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맹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메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장구
209080	팽과리	팡메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신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래뜸, 물레뜸
209085	추석	팔월맹질

## 10. 신앙

210001	점	점
--------	---	---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안택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신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밧, 굿판
210008	명두	맹디
210009	추다[踊]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솔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헛거
210017	어둡서니	그슨새
210018	무섭다	므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코시
210022	포제	정승제, 포제

## 11. 자연

### 들

211001	들	들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화임
211004	불다[點火]	부트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냇가	냇ㄱ
211007	물가	물ㄱ
211008	따르다[從]	딱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엇챙이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백디다, 가잡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불
211015	돌무더기	돌머들
211016	갈림길	갈림질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비크레깃질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내리막질
211021	오르막길	오룻질
211022	길가	질ㄱ
211023	큰길	큰질
211024	분화구	굼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산밭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느룻
211030	상고대	산강
211031	구렁	굴렁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박아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봉천수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ㄱ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닷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봉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ㄱ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너울
211056	굼뉘	큰너울
211057	물결	물절
211058	잔물결	즌물절
211059	무수기	물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
211059-2	두무날	두물	*
211059-3	서무날	서물	*
211059-4	너무날	너물	*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
211059-6	여섯무날	여섯물	*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
211059-8	여덟무날	여덟물	*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
211059-10	열무날	열물	*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췌기	*	*
211059-15	췌기	*	*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써다	물싸다
211065	썰물	쌀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내일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내일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백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빋	빋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청명허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리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머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햇각, 햇머리

211099	무지개	항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항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ㄱ슬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입춘, 새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색일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그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돌
211119	선달	정월들
211120	올해	올래
211121	내년	맹녕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뜨시다
211128	땡별	땡벧
211129	가을별	ㄱ슬벧
211130	양지받이	양지바른곳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대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븃름
211137-1	바람위	븃름위
211137-2	바람아래	븃름아래
211138	맞바람	맞븃름
211139	바람받이	븃름ㄱ지
211140	바람살	븃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211142	동풍	샛븃름
211143	남풍	마븃름
211144	서풍	하늬븃름
211145	북풍	놉븃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뻥이
211151	소나기	소내기주제, 소낙비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 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슥년
211160	비바람	비븃름
211161	안개	으남, 안개
211162	번개	번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장유수, 내터지다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힘벽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몰론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헤영허다
211173	춡다	얼다, 춡다
211174	떨다[慄]	떨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멀누지
211181	우박	우박

####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즈꼴디
211185	옆	옹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븨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웁쪽
211191	오른쪽	늑단쪽
211192	밑	밋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바깸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궂
211199	가장자리	궂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고짱헝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부랭이
212005	취소	숙췌
212006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득세기
212008	황소	누렁췌, 황췌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반잘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송	금송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룻(3)	사룻	삼수
212015-4	나룻(4)	나룻	사수
212015-5	다듭(5)	다듭	오수
212015-6	여듭(6)	으듭	육수
212015-7	이룻(7)	*	칠수
212015-8	여듭(8)	*	팔수
212015-9	아듭/구룻(9)	*	구수
212015-10	열룻/담불(10)	*	십수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죽
212018	구유	*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말

212023	수말	숫물,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청이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물
212028	얼룩말	어럭물
212029	유마	유마물
212030	백마	백마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곰새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경이	쉐챙빃, 물챙빃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빠	물고빠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짚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212048	비루먹다	비리울르다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냉이
212051	수고양이	숫코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밤고냉이, 도둑고냉이
212053	살쾅이	쓱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산멕
212058	산떡	산멕
212059	닭의어리	득시렁



212060	닭장	독집
212061	달갈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자위
212061-2	흰자위[卵]	흰자위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성
212072	생둥이	설룬바치
212073	새끼 돼지	새끼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기르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
212082	거위	게위
212083	오리	오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베랭이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쉬	쉬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푼리
212091	쇠파리	쉐푼리
212092	똥파리	똥푼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고노리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훔이	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훼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멀장, 거머리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6	굼벥이	굼벥이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머느리	*
212110	노래기	구레기
212111	지네	주넹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지다
212114	하루살이	헝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놀이
212116	달팽이	들벥이
212117	민달팽이	옷벗은들벥이, 붓벗은들벥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노린게염지
212122	메뚜기	믈축
212123	방아깨비	산뒤믈축, 벤데미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곡주베기
212126	귀뚜라미	
212127	풍뎡이	풍뎡이
212128	장수풍뎡이	*
212129	무당벌레	무당벌레
212130	쇠똥구리	췌똥구리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접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심방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물재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물재리
212141	장수잠자리	장수물재리
212141-1		*
212142	매미	재
212143	매미허물	재봇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물하레비
212147	망개	물췌
212148	반딧불이	불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소왕벌
212153	말벌	왕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세미역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솔베랭이
212157	개구리	가글레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꽁이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배엄
212161-1	뱀띠	배엄헤치
212161-2	뱀허물	배엄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용띠
212163	도마뱀	장칼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독사

####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갸다	갸다
212173	쥐구멍	쥐고냥, 쥐고망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지달이
212176-1		지달이굴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돼지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원생이띠, 준나비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랭이띠
212184	꼬리	꼴랑지

####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	꿩지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춤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춤매
212195	솔개	똥소리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남도래기새
212199	빼꾸기	머국새, 빼국새
212200	종달새	비죽생이
212201	올빼미	옥밤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득새기
212206	꺼병이	꿩병에기
212207	두루미	하기새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골메기

####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메옹이
212218	대수리	마타슬
212219	타래고등	웬보말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쟁베름
212223	거북손	대수왈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생복
212228-1		암천복
212228-2		수천복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212231	게	강이(펼강이, 춤강이, 지름강이, 꺾강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춤강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어금발가락
212240	갯강구	밥주리
212241	말미잘	물미지름
212242	성게	퀴
212243	말뚝성게	슴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독발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뭉게
212251	서대	섯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래기

212255	맑다[淸]	목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석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따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개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낙시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싯줄	정술
212268	붕돌	뿡돌, 연철
212269	참대	왕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아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모살치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갈치새끼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덤벌치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술맹이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옥돔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벵에돔	구릿

212292	황돔	*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자리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
212300	불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괘주리
212304	우럭불락	우럭
212305	불락	불락
212306	쭈기미	술치
212307	독가시치	다찌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가다리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조편다리
212313	팽이상어	도랭이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모도리
212316	수염상어	비깨
212317	두툽상어	비근다리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세기
212321	쥐돔	벧돔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굴대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 품	미우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심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질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자오락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돌모작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빗붉은제완지
213016	조개풀	북덕제완지
213017	망동사니	*
213018	마디풀	ㄹ작풀
213019	솔새	가메기지장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웨줄
213023	원추리	ㄱ스락풀
213024	메꽃	마
213025	갯메꽃	베부레기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고름풀
213031	애기땅빈대	딸강남
213032	평의밥	평조
213033	여우구슬	독고달풀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지리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못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랭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글럭
213048	망초	천상풀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함박풀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진풀
213053	파리	푸깨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빈네풀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개즈베기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진남
213060	천남성	츠남상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멘순
213063	살갈퀴	팍깨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절명풀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두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푼채손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냉이양에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칙
213074	췌덩굴	칙줄
213075	췌뿌리	췌뿔휘
213076	땡땡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실ㄴ작쿨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고냉이정당
213082	담쟁이	눈뵈레기
213083	송악	송와
213084	인동	인동
213085	멸꿀	멸꿀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당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지풀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근자리쿨
213093	땡싸리	비치락낭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늑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췌바귀	*
213098	고들빼기	고들빼기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갓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수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마자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웨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들 망테
213116	싱경이	늣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우리
213119	채송화	땅꽃
213120	민들레	쑤부레기
213121	봉선화	봉송아
213122	흰꽃나도사	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분꽃
213124	할미꽃	고냉이쿨
213125	붓꽃	분꽃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레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도체비고장
213135	광대나물	베염고장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들 마농꽃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뿔리
--------	----	----

213142	잔뿌리	즌뿌리
213143	줄기	냥
213144	가지	낭가쟁이
213145	잎	섭
213146	나무	냥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술잎	술입
213151	술가리	술입
213152	술방울	술방울, 술똥
213153	땀감	설피
213154	마디다	밋디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남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돔박남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믈구슬낭
213162	버드나무	버들남
213163	녹나무	녹남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나무
213166	옴나무	옴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심다
213169	벗나무	벗낭
213170	왕벗나무	왕벗낭
213171	사옥	사옥이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베염폐기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굴나무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저낭
213185	치자나무	*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로기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칠낭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제낭
213194	때죽나무	중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향나무
213200	옷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ㄹ디목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개똥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소리가시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남소웨이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213216	꾸지뽕나무	긋가시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돌오동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북닥낭
213225	참식나무	신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범주리가시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검북낭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박달남
213234	떡갈나무	츠남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츠낭
213236	참나무	츄낭
213237	산딸나무	*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스철나무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가메기빈독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북낭
213246	불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겉질	겉질

213251	깎다	가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여미탈
213255	명석딸기	베염탈
213256	복분자딸기	보리탈
213257	줄딸기	줄탈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개즈밤
213263	머루	멀위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위
213265	까마귀머루	가메기멀위
213266	산머루	산멀위
213267	상동나무	상동낭
213268	상동	상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개드레낭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깨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탱지
213282	탱자나무	탱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쫓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폴감



213288	청미래덩굴	메옹이낭
213289	맹감	메옹이
213290	찢레나무	*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붓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푼레
213313	톳	툄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몐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